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제 출 문

전라북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연구기관 : 전북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8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 9
4. 연구 기대 효과 ····· 11

제2장. 전북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기본현황 ····· 13

1. 전북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특성 ····· 13
2. 전북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현황과 특성 ····· 43
3. 요약 및 시사점 ····· 75

제3장.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 75

1. 중앙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 75
2. 전북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 86
3.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례분석 ····· 101
4. 요약 및 시사점 ····· 116

제4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분석 ····· 121

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 실태분석(2차 자료분석) ····· 121
2.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면접조사 결과분석 ····· 167
3. 현장실무자의 지원정책 진단 및 욕구 분석 ····· 191
4. 요약 및 시사점 ····· 228

제5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 241

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 241
2.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 252

참고문헌 ····· 259

[표 차 례]

[표 1-1] 전라북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현황(2021. 4.) ····· 4
[표 1-2] 전라북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규모 추이 ····· 5
[표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유형별 개념과 현황 (통계자료, 2021.4.1.) ····· 7

[표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9) ····· 13 ····· 1
[표 2-2]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주민 추이 ····· 14 ····· 1
[표 2-3]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2019) ····· 15 ····· 1
[표 2-4]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2019) ····· 16 ····· 1
[표 2-5]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 순위(2019) ····· 17 ····· 1
[표 2-6] 전북 외국인 주민 연령별 현황(2019) ····· 18 ····· 1
[표 2-7]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연령 현황(2019) ····· 19 ····· 1
[표 2-8] 전북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19) ····· 19 ····· 1
[표 2-9]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 현황(2019) ····· 20 ····· 2
[표 2-10]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2019) ····· 22 ····· 2
[표 2-11]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2009~2019) ····· 22 ····· 2
[표 2-12] 전북 시군별 다문화가구원 현황(2019) ····· 23 ····· 2
[표 2-13] 전북 다문화 혼인건수 추이(2015~2019) ····· 24 ····· 2
[표 2-14] 전북 시군별 다문화 혼인 현황(2019) ····· 25 ····· 2
[표 2-15] 전북 외국인과의 혼인 유형(2011~2019) ····· 26 ····· 2
[표 2-16] 전북 출신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1~2019) ····· 27 ····· 2
[표 2-17] 전북 다문화 이혼건수 추이(2015~2019) ····· 28 ····· 2
[표 2-18] 전북 시군별 다문화 이혼 현황(2019) ····· 29 ····· 2
[표 2-19] 전북 외국인과의 이혼 유형(2011~2019) ····· 30 ····· 3
[표 2-20] 전북 출신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2011~2019) ····· 31 ····· 3
[표 2-21] 평균 이혼 연령(2017~2019) ····· 32 ····· 3
[표 2-22] 다문화 이혼 시 미성년자녀 있는 비중(2017-2019) ····· 32 ····· 3
[표 2-23] 다문화 이혼 부부의 결혼기간별 비중(2017-2019) ····· 33 ····· 3
[표 2-24]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출생 비중(2017-2019) ····· 34 ····· 3
[표 2-25] 전국 다문화 유형별 출생아 수와 비율(2017-2019) ····· 35 ····· 3
[표 2-26] 전국 다문화 출생아 부모의 국적별 비율(2017-2019) ····· 36 ····· 3
[표 2-27]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1~2019) ····· 37 ····· 3
[표 2-28]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현황(2011~2019) ····· 38 ····· 3
[표 2-29] 전국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21) ····· 40 ····· 4
[표 2-30] 전북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2~2021) ····· 42 ····· 4
[표 2-31] 전라북도 학교급별*다문화유형별 학생 현황 ····· 43 ····· 4

[표 2-32] 부모 출신 국적별 전북 다문화 학생 수(2020) ····· 44
[표 2-33]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2021) ····· 45
[표 2-34] 전국 시도별*다문화유형별 초등학생 현황 ····· 48
[표 2-35] 전북 다문화 초등학생의 부모 출신 국적별 현황 ····· 49
[표 2-36]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2013~2019) ····· 50
[표 2-37] 전국의 학교급별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2017, 2018) ····· 50

[표 3-1] 각 차수별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 58
[표 3-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 61
[표 3-3] 중앙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지원 대상·연령·전달체계 현황 ····· 64
[표 3-4]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현황(2021. 10. 기준) ····· 65
[표 3-5]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규정 내용(2021. 10. 기준) ····· 66
[표 3-6]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방향 비교 ····· 68
[표 3-7] 제3차 기본계획의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정책 세부과제 주요내용 ····· 69
[표 3-8] 2021년 부처별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 ····· 71
[표 3-9]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앙부처와 지자체 총괄 예산 및 과제(2021년) ····· 73
[표 3-10]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앙부처와 지자체 총괄 예산 및 과제(2021년) ····· 74
[표 3-11] 전국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과제 수와 예산 현황 ····· 75
[표 3-12] '21년 부처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 세부과제 예산과 과제 수 ····· 76
[표 3-13] 2021년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1:1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개요(안) ····· 81
[표 3-14] 부처별 주요 협업 현황 ····· 84
[표 3-15] 2021년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주요 추진과제 목록 ····· 84
[표 3-16] 전북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 89
[표 3-17] '21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예산과 과제 수 현황 ····· 91
[표 3-18] 연도별 지자체와 전북의 예산규모 및 과제 수 ····· 92
[표 3-19]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분야' 예산규모와 과제수(2020-2021) ····· 93
[표 3-20] 시도별 '다문화가족자녀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세부과제별 예산과 과제 수(2020-2021) ····· 94
[표 3-21] 전북 지방비 중심의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내용(2021) ····· 96
[표 3-22]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환경사업 주요 내용 ····· 97
[표 3-23] 전북 다꿈교육 2021년 주요 변경 내용 요약 ····· 100
[표 3-24] 2021년 전북 다꿈교육 예산 현황 ····· 101
[표 3-25]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이용자 현황(2020. 10월 말 기준) ····· 101
[표 3-26]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원 사업별 이용자 현황('20. 12월 말 기준) ····· 101

[표 4-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8차) 조사대상자(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 62
[표 4-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8차)의 다문화청소년용과 학부모용 조사 내용 ····· 72
[표 4-3]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 73
[표 4-4] 희망직업을 결정한 경우, 희망하는 직업 TOP4 ····· 104

[표 4-5]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 241
[표 4-6] 부모님의 진로 관련 행동 ····· 441
[표 4-7] 부모님과의 활동 정도 ····· 541
[표 4-8]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 541
[표 4-9] 현재 혼인상태 ····· 941
[표 4-10] 모국어 ····· 6
[표 4-11] 장래 직업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바램 ····· 551
[표 4-1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참여 학생 현황 ····· 951
[표 4-13]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정신건강·인터넷중독·건강형평성 문항구성 및 조사 내용 ····· 9 ····· 5 ···· 1
[표 4-14]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061
[표 4-15] 전국 시도별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 261
[표 4-16] 전국 및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비교 ····· 3 ···· 6 ···· 1
[표 4-17] 전북 전체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비교 ·· 3 ····· 6 ···· 1
[표 4-18]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 461
[표 4-19]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 661
[표 4-20]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 ····· 761
[표 4-21]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 ····· 961
[표 4-22]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행복감 ····· 071
[표 4-23]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271
[표 4-24]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 471
[표 4-25]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수준 ····· 6 ··· 7 ··· 1
[표 4-26]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용 주요 면접 내용 ····· 9 ··· 7 ··· 1
[표 4-27]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용 주요 면접 내용 ····· 081
[표 4-28]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일반적 특성 ····· 1 ····· 8 ···· 1
[표 4-29]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 281
[표 4-30]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981
[표 4-31]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 981
[표 4-32] 현장실무자 대상의 주요 자문 내용 ····· 691
[표 4-33] 자문을 받은 기관별 현장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 791
[표 4-34]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 891

[표 5-1]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목표별 개선방향 및 세부과제(안) ····· 6 ····· 2 ····· 2

[그 림 차 례]

[그림 1-1] 전국 시도별 다문화 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비율(2021) ····· 4
[그림 1-2] 전북 연도별 초중고 다문화학생 현황과 추이(2016-2021) ····· 5
[그림 1-3] 연구 추진 절차 ····· 10

[그림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9) ····· 14
[그림 2-2]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주민 추이 ····· 15
[그림 2-3]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2019) ····· 16
[그림 2-4]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2019) ····· 17
[그림 2-5] 전북 외국인 주민 연령별 현황(2019) ····· 18
[그림 2-6] 전북 시군별 외국인 연령 현황(2019) ····· 18
[그림 2-7] 전북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19) ····· 20
[그림 2-8]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 현황(2019) ····· 21
[그림 2-9] 전북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추이(2009-2019) ····· 22
[그림 2-10] 전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2019) ····· 23
[그림 2-11] 전국 시도별 다문화 혼인 비중(2019) ····· 24
[그림 2-12] 전북 연도별 다문화 혼인 건수와 다문화 혼인 비중(2009~2019) ····· 25
[그림 2-13] 전북 시군별 다문화 혼인 비중(2019) ····· 25
[그림 2-14] 전국 및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유형 추이(2009~2019) ····· 26
[그림 2-15] 전북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주요 출신국적별 혼인건수 추이 ····· 27
[그림 2-16] 전국 시도별 다문화 이혼 비중(2019) ····· 28
[그림 2-17] 전북 연도별 다문화 이혼 건수와 다문화 이혼 비중(2009~2019) ····· 29
[그림 2-18] 전북 시군별 다문화 이혼 비중(2019) ····· 29
[그림 2-19] 전국 및 전북의 외국인과의 이혼 유형 추이(2011~2019) ····· 30
[그림 2-20] 전북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주요 출신국적별 이혼건수 추이 ····· 31
[그림 2-21] 전북 다문화 출생 추이(2015~2019) ····· 35
[그림 2-22]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 추이(2011~2019) ····· 37
[그림 2-23]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2011~2019) ····· 38
[그림 2-24]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2019) ····· 38
[그림 2-25] 전북 시군별*유형별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2019) ····· 39
[그림 2-26] 전국 시도별 다문화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비율(2021) ····· 41
[그림 2-27] 전국 시도별*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중(2021) ····· 41
[그림 2-28] 전북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 수 추이 ····· 42
[그림 2-29] 전라북도 다문화유형별 학생 현황 ····· 43
[그림 2-30] 전북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의 부모출신국 구성비(2020) ····· 44
[그림 2-31]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2021) ····· 45

[그림 2-32] 전북 시군별 다문화 학생의 학교급별 비율(2021) ····· 64
[그림 2-33]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2015, 2021) ····· 84
[그림 2-34] 전북 다문화 초등학생의 부모 출신국별 비율(2015, 2020) ····· 94

[그림 3-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 ~ 2022) ····· 85
[그림 3-2] 多재다능 프로그램 추진체계 ····· 76
[그림 3-3] '21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과제 수 현황 ····· 37
[그림 3-4] '21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예산 현황 ····· 37
[그림 3-5]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비전·목표·추진과제 ····· 97
[그림 3-6] 한국어능력 진단 및 보정시스템 체계도 ····· 18
[그림 3-7] 다문화학생 정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체계 ····· 28
[그림 3-8] 전라북도 교육청 다문화담당 부서 및 다꿈교육지원센터 ····· 101
[그림 3-9] 전라북도 다꿈교육지원센터 역할과 세부 사업 내용 ····· 101
[그림 3-10] 2021년 전라북도 다꿈교육 추진목표 및 과제 ····· 201
[그림 3-11] 대구 달서구 다문화자녀 드림브리지 프로그램 ····· 601
[그림 3-12]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 701
[그림 3-13]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협력기관 및 시설 현황 ····· 801
[그림 3-14] 맞춤지원 절차 ····· 901
[그림 3-15] 서울온드림교육센터(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기관) 홈페이지 ····· 101
[그림 3-16] 서울 동작구,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조감도 ····· 111
[그림 3-17] 나주 다문화엄마학교 8기 졸업식 및 9기 입학식 ····· 211
[그림 3-18] 인천형 다문화자녀 맞춤형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 411

[그림 4-1] 전국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8차)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 621
[그림 4-2]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 분포 ····· 721
[그림 4-3] 부모의 외국인 여부 ····· 821
[그림 4-4]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921
[그림 4-5]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921
[그림 4-6] 사용가능한 외국어 ····· 031
[그림 4-7]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 031
[그림 4-8] 국적에 대한 인식 ····· 131
[그림 4-9]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5점만점) ····· 131
[그림 4-10] 국가정체성(4점만점) ····· 131
[그림 4-11] 이중문화수용태도(4점만점) ····· 231
[그림 4-12] 다문화수용성(4점만점) ····· 231
[그림 4-13]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 331
[그림 4-14]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지원 경험 ····· 331
[그림 4-15] 향후 원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정책(다중응답) ····· 431

[그림 4-16]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 431
[그림 4-17]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가 ····· 531
[그림 4-18] 자아존중감 수준 ····· 531
[그림 4-19] 삶의 만족도 수준 ····· 631
[그림 4-20] 사회적 위축 수준 ····· 631
[그림 4-21]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 831
[그림 4-22] 학교성적 ····· 931
[그림 4-23] 학업 성취동기 수준 ····· 041
[그림 4-24]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 041
[그림 4-25] 장래 희망직업 결정여부 및 미결정 사유 ····· 1··4· 1
[그림 4-26] 희망 직업에 대한 관련 정보 인지율 ····· 2·4 1
[그림 4-27]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 3·4 1
[그림 4-28] 부모님의 진로 관련 행동 ····· 441
[그림 4-29]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및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 6···4·· 1
[그림 4-30]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성인 여부 및 대상 ····· 7··4· 1
[그림 4-31] 학업중단 위험요인 ····· 741
[그림 4-32] 교과목 관련 학습활동 참여유형 ····· 8·4 1
[그림 4-33] 청소년활동 참여유형 ····· 841
[그림 4-34] 월평균 소득수준 및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 9··4· 1
[그림 4-35] 한국어 수준 ····· 051
[그림 4-36]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 ····· 151
[그림 4-37] 국적 정체성 ····· 151
[그림 4-38] 지원정책 수혜경험 및 향후 원하는 지원정책 ····· 2···5· 1
[그림 4-39] 어머니의 신체·심리적 특성 ····· 251
[그림 4-40] 자녀교육 관련 주된 의사결정자 ····· 3·5 1
[그림 4-41]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3·5 1
[그림 4-42]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선호도 ····· 4·5 1
[그림 4-43]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선호도 ····· 4·5 1
[그림 4-44]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지원 욕구 ····· 5·5 1
[그림 4-45] 진로진학설명회 참석의향 및 희망하는 개최 기관 ····· 6···5·· 1
[그림 4-46]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 651
[그림 4-47] 부모효능감 정도 ····· 751
[그림 4-48]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한국어 외에 자녀가 배웠으면 하는 언어 ····· 7·····5···· 1
[그림 4-49]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1··6· 1
[그림 4-50] 전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1·6 1
[그림 4-51]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 5·6 1
[그림 4-52] 전북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 561
[그림 4-53]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 5·6 1

[그림 4-54] 전북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 66
[그림 4-55]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 ····· 76
[그림 4-56] 전북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 ····· 86
[그림 4-57]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 ····· 96
[그림 4-58] 전북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 ····· 96
[그림 4-59]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행복감 ····· 17
[그림 4-60] 전북 청소년의 행복감 ····· 17
[그림 4-61]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27
[그림 4-62] 전북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37
[그림 4-63]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 ····· 47
[그림 4-64] 전북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 ····· 47
[그림 4-65]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수준 ····· 57
[그림 4-66] 전북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수준 ····· 57

[그림 5-1]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진로·진학 지원 사업 예시 ····· 43
[그림 5-2]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입시(학) 설명회 예시 ····· 63
[그림 5-3]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현황 ····· 35
[그림 5-4] 전국 시도별 다문화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비율 ····· 35
[그림 5-5] 충북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학교소개 ····· 45
[그림 5-6] 충북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학교 현황(2021. 11.) ····· 45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4. 연구 기대 효과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결혼이민 20여년,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 증가로 다문화가정 자녀 규모 증가

○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결혼이민이 20여년이 되어가고 있고, 10년 이상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다문화가정 내 다문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출생아가 영유아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학령기로 진입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 '19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구원은 106만 명(전체 인구의 2.1%)이고 다문화 출생아수는 17,939명(전체 출생아의 5.9% 차지)으로 다문화인구 지속 증가
- '19년 기준 전북 다문화가구원은 42,377명(전북 전체인구의 2.5%)이고 다문화 출생아수는 726명(전북 전체 출생아의 8.1%, 전국 1위)
- 전북지역 외국인주민 자녀는 '14년 1만 명을 넘었고, '11년 7,755명에서 '19년 12,906명으로 8년이란 기간 동안 약 5,100명 이상이 증가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규모와 비율 증가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의 41.3%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5,296명)이고, '19년 초·중·고에 해당하는 학령기 연령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약 59%로 7천명이 넘는 7,610명임. 이는 과거 5년(2014년 4,153명)전 보다 약 2배 정도가 증가함

- 전북지역 외국인주민 자녀를 연령대별로 보면, '19년 기준 만 6세 이하는 5,296명으로 전체의 41.3% 차지, 만 7~12세는 5,488명으로 42.5%, 만 13~15세는 1,275명으로 9.9%, 만 16~18세는 847명으로 6.6%를 차지함

○ 전북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수는 '12년 3,064명, '16년 5,560명에서 '21년 8,105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수의 비율은 '12년 1.18%, '16년 2.47%에서 '21년 4.20%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 전체 학생 수는 출산율 감소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 충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임

- 전국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교육부) : '12년 46,951명(0.7%)에서 '15년 82,536명(1.35%), '21년 160,056명(3.01%)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씩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증가하여 '21년에는 16만 명을 초과함

- 다문화 학생을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의 학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전국 시·도별로 보면, 경기와 서울 지역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규모가 크고,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남(5.48%), 충남(4.59%), 전북(4.2%)/경북(4.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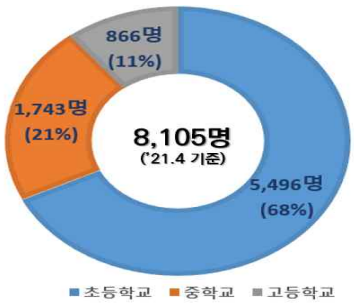
[그림 1-1] 전국 시도별 다문화 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비율(2021)

- 전북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교육부) : '12년 3,064명(1.2%) → '15년 4,790명(2.0%) → '21년 8,105명(4.20%), 매년 약 500명 이상씩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이 전체 다문화학생의 68%(5,496명), 중학생 21%(1,743명), 고등학생 11%(866명)로 초등학생 비율이 70%에 육박한 상황임.

[표 1-1] 전라북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현황(2021. 4.)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학생 수	92,914명	49,347명	50,532명	192,793명
다문화 학생 수	**5,496명 (120명)**	**1,743명 (51명)**	**866명 (47명)**	**8,105명**
다문화학생 비중	**5.92%**	**3.53%**	**1.71%**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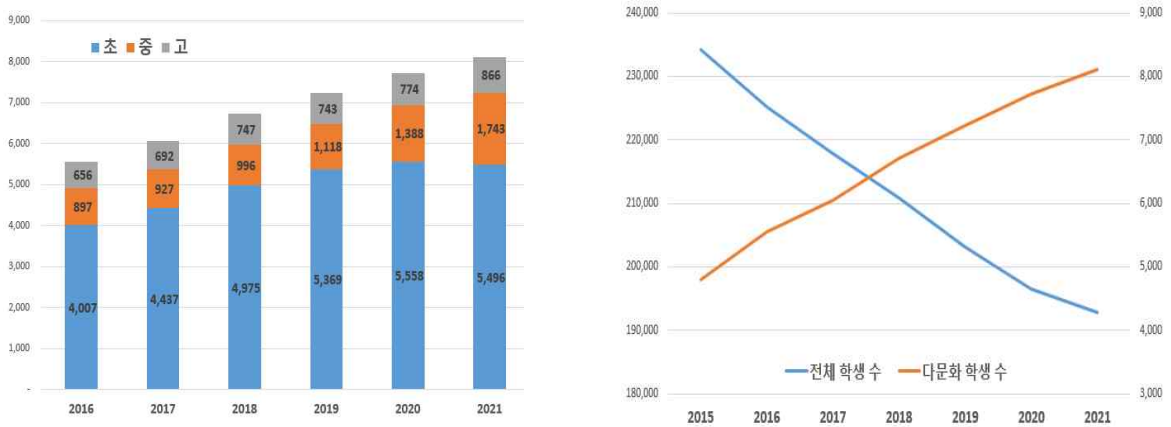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21. 4), * ( )안 숫자는 중도입국자녀 숫자임

[표 1-2] 전라북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규모 추이

(기준일 : 연도별 4.1. 단위 : 명)

연도	전체학생수 (초·중·고)	국제결혼가정 자녀(A)		외국인가정 자녀(B)		계(A+B)		전년대비 증가율 증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6	225,267	5,460	2.42	100	0.04	**5,560**	**2.47**	+ 0.44
2017	217,835	5,947	2.73	109	0.05	**6,056**	**2.78**	+ 0.31 (496명 증가)
2018	211,967	6,555	3.09	163	0.07	**6,718**	**3.17**	+ 0.39 (662명 증가)
2019	203,148	7,066	3.49	164	0.08	**7,230**	**3.56**	+ 0.39 (512명 증가)
2020	196,366	7,512	3.83	208	0.11	**7,720**	**3.93**	+ 0.37 (490명 증가)
2021	**192,793**	**7,831**	**4.06**	**274**	**0.14**	8,105	**4.20**	+ 0.27 (385명 증가)



[그림 1-2] 전북 연도별 초중고 다문화학생 현황과 추이(2016-202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정서적 및 학업성취도 등 취약성 증가와 심각화

○ 한편,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한국어 언어구사력의 저조, 외모차이에 의한 차별과 편견, 놀림 등 이주배경이란 특수 여건으로 심리·정서적 및 학업 성취도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취약성과 심각화가 나타나고 있음

○ 먼저 다문화학생의 등교거부와 학업 중단률은 전체 학생의 등교 거부와 학업 중단률에 비해 다소 높음. 학업·취업·직업훈련 등 어느 것도 하는 일 없는 니트(NEET) 상태에 있는 비율도 일반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국인 모가 가진 이중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자아정체성 발달의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반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은 공교육 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폭력 피해율 정도와 부모와의 대화 단절·부모 무시 등 부모와의 갈등정도도 높아 부모 뿐만 안 아니라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

났으며, 폭력 경험률도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등 교육의 격차와 학교의 부적응 및 관계적·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률 : 전체 취학률보다 중학생 5.1%p, 고등학생 4.5%p 낮음 (전국다문가족실태조사, 2018)[1)]
- 다문화가정 자녀 10.5% 부모와 대화 단절(일반청소년 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017)[2)]
- 자살시도율 : 다문화가정 학생 5.4%, 일반가정 학생 2.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자료 분석, 2019)[3)]
- 폭력 경험률 : 다문화가정 학생 6.8%, 일반가정 학생 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자료 분석, 2019)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관심 및 정책 수요 증가

○ 최근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전과 한국어 교육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다문화가정의 자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령기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대상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종합대책 발표 (2016.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내 다문화자녀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내용 추가, 최근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2020. 6.)

○ 한편,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중심의 한국어·언어발달 지원 사업과 생활지도 및 기초학습 지원 사업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 비율 중 초등학생인 경우가 여전히 약 68%로 가장 높지만, 향후 3 ~ 4년 안으로는 중·고등학생의 다문화학생 수도 지속 증가하여 그 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중·고등학생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대응 방안 모색도 시급함

○ 무엇보다 최근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국내출생의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또 다른 이주배경과 가정환경 및 한국어 능력 부족, 외모상의 차이 등 국내출생의 다문화자녀와 상이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지원 전략이 필요함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 3년마다 실시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실시예정
2)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됨
3)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 2020년 결과 발표함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및 내실화 강화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실태(양육·교육, 학교·가정생활, 부모-자녀 및 또래관계 등)를 파악하고, 학부모와 학령기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자 함

○ 그리고 기존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진단하여 전북지역 특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기별 및 유형별(국내출신, 중도입국 등) 특성들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기존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 학업 성장과 사회성 발달, 교육·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공정한 지역사회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표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유형별 개념과 현황 (통계자료, 2021.4.1.)

구분		주요 내용
국제결혼 가정자녀 (8,105명) 96.6%	국내출생 (7,613명) 93.9%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이하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 받음 ■ 대부분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도 강하나, 일부는 **학습에 필요**한 **문장, 어휘, 개념 이해 등**에 **어려움**을 겪음
	중도입국 (218명) 2.7%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 ■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후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 정체성 혼란, 무기력 등 심리적 문제, 한국어 역량 부족으로 공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외국인가정 자녀 (274명) 3.4%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91, 비준)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짐 ■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함** ■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하며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 등이 유입. 일부는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움 (※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교육기회 제공)

자료 : 2021년 전북 다꿈교육 추진계획. 전라북도교육청(2021. 1) 참고

2. 연구 내용

가. 전북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기본 현황

○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현황

- 연도별·지역별 외국인주민·국제결혼 현황, 다문화가정 현황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현황

- 연도별·지역별·학교급별(초중고)·유형별(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자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나.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사례 분석

○ 중앙의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 관련 법률 및 부처별 지원 정책

○ 전북 및 기초단체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 관련 조례 및 지원정책 현황과 진단, 추진체계 검토

○ 타 지자체(서울, 경기도 등)의 지원정책 사례 분석

다.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 분석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청소년)의 전반적 실태 : 2차 자료 분석

○ 다문화가정 부모와 학령기 자녀의 정책적 욕구 :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대상 심층면접조사

○ 현장실무자 관점의 실태파악·기존 지원정책 진단과 정책적 욕구 : 개별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라.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 방안

○ 기존 지원정책 제한점 및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제시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중앙 부처별(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및 타 지자체의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관련 행정자료, 현황보고서, 자료집, 단행본 등 검토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학교급별(초·중·고) 양육·교육 관련 학술논문, 정책연구 보고서, 인터넷 검색 등

○ 각종 통계자료 및 2차 자료 재분석

-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기본 통계자료 등을 통해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현황 및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다문화학생)의 현황과 특성 분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2018)와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0) 등의 통계 원시자료 재분석을 통해 전북(혹은 전라권)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다문화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정서 및 심리사회 생활, 진로 및 교육상황, 경제활동,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양육실태 등) 파악

○ 심층면접조사

- (목적)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학령기 자녀 대상, 양육·교육·가정 및 학교생활·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실태 및 정책적 욕구 파악
- (부모 면접) 학령기 자녀의 양육·교육 실태, 부모자녀관계, 가정과 학교생활, 경험하는 어려움,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이용도·도움정도와 문제점·개선사항, 필요한 지원정책 욕구 파악
- (학령기자녀 면접)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래관계, 부모와의 관계, 심리적 및 정신건강 어려움, 진로·직업 관련 고민 등 전반적인 실태 및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이용과 도움정도, 기존 지원 사업(서비스)의 문제점,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 지원 욕구 파악

○ 현장전문가 자문회의(현장실무자 간담회 변경 전환[4])

- (목적)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현장실무자 대상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주요 현안과 전북지역만의 특성, 기존 사업의 평가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사항, 필요 지원정

4)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 간담회를 개별 전문가 자문회의로 전환하여 진행

책,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발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현장실무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급별 학교교사(다꿈학교 담당자, 다꿈교육지원센터 실무자), 담당사업 공무원 등 전북지역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자

나. 연구 추진 절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 단계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방향과 범위, 연구 방법 및 내용 기획 - 주요 개념과 특성, 정책 동향 파악
2 단계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지원 정책사례 수집 및 분석 - 통계청 각 통계자료 분석 - 여성가족부·교육부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전국 조사 2차 데이터 재분석	-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법·제도 분석 - 관련 지원 정책 동향 분석 -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전북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학령기 자녀(다문화학생) 관련 현황 분석 - 전북(전라권) 다문화가정 및 학령기 자녀 관련 전반적 실태 분석
3 단계	- (학부모·자녀) 심층면접조사 - (현장실무자) 전문가 자문회의	-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실태·욕구파악 및 기존 지원정책 진단 - 전북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 실태파악, 주요현안, 기존지원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과 주요 과제 도출
4 단계	- 학계 등 다문화정책 전문가 자문	- 전북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개선방향 도출 - 세부 추진 과제(안) 도출

[그림 1-3] 연구 추진 절차

4. 연구 기대 효과

○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 맞춤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 및 건강가정 실현

제2장

전북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기본현황

1. 전북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특성
2. 전북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현황 및 특성
3.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전북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기본현황

1. 전북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특성

가. 외국인 주민 현황 및 추이

▮ 외국인 주민 현황과 구성비

○ 2019년 기준 전국 외국인 주민은 2,216,612명으로 총인구의 4.3%를 차지함.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은 충남이 5.8%로 가장 높았고, 경기(5.4%), 제주(5.2%), 서울(4.8%) 등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 외국인 주민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2.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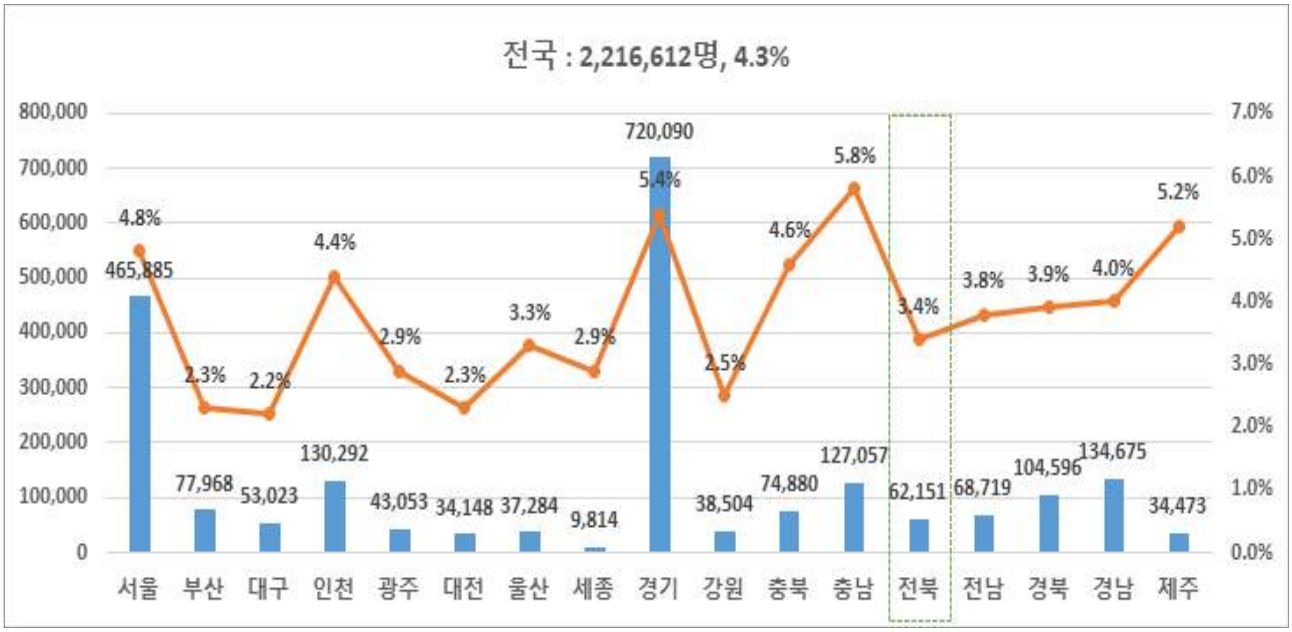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북 외국인 주민은 62,151명으로 전북 전체인구 1,807,423명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4.3%) 평균보다는 0.9%p 낮았음

[표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A)	비율 (B/A)	합계(B)		
			계	남	여
전국	51,779,203	4.3%	2,216,612	1,184,176	1,032,436
서울	9,639,541	4.8%	465,885	219,371	246,514
부산	3,372,692	2.3%	77,968	40,549	37,419
대구	2,429,940	2.2%	53,023	26,942	26,081
인천	2,952,237	4.4%	130,292	68,659	61,633
광주	1,489,730	2.9%	43,053	22,007	21,046
대전	1,498,839	2.3%	34,148	15,458	18,690
울산	1,143,692	3.3%	37,284	20,671	16,613
세종	338,136	2.9%	9,814	5,618	4,196
경기	13,300,900	5.4%	720,090	403,280	316,810
강원	1,520,127	2.5%	38,504	18,844	19,660
충북	1,629,343	4.6%	74,880	42,590	32,290
충남	2,188,649	5.8%	127,057	71,691	55,366
전북	1,807,423	3.4%	**62,151**	30,942	31,209
전남	1,787,543	3.8%	68,719	37,751	30,968
경북	2,668,154	3.9%	104,596	58,902	45,694
경남	3,347,209	4.0%	134,675	81,804	52,871
제주	665,048	5.2%	34,473	19,097	15,37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2020. 10월 발표).



[그림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 주민 현황(2019)

○ 지난 10년간 외국인 주민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외국인 주민 수는 2010년 1,139,283명에서 2019년 2,216,612명으로 약 1.9배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2010년 28,450명에서 2019년 62,151명으로 10년 간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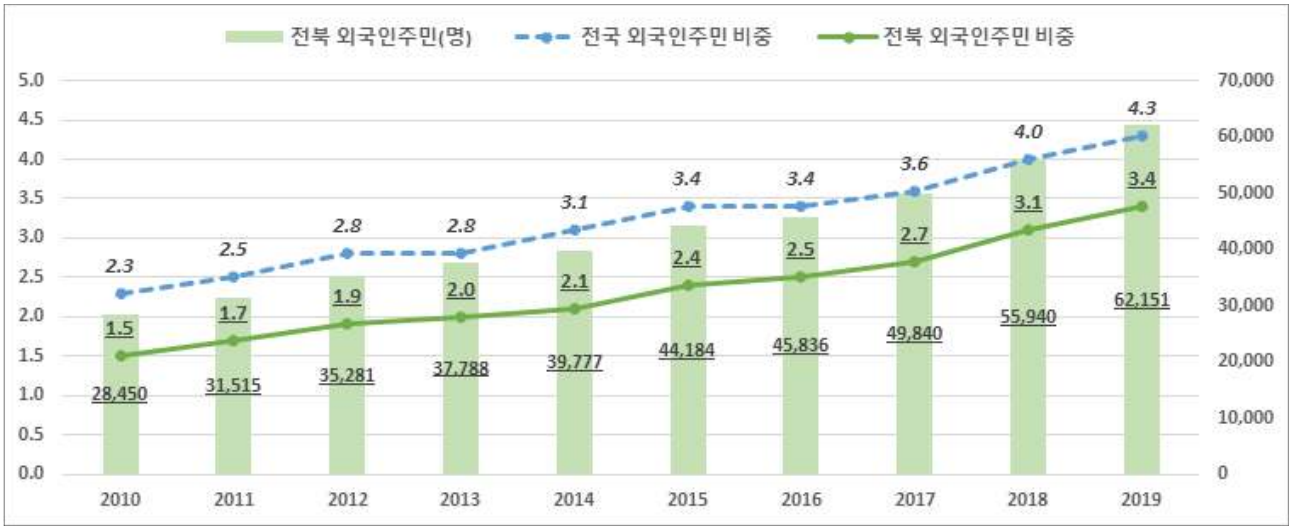
○ 이러한 추세 속에 전북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211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 증가를 기록하였음

[표 2-2]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주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외국인 주민	1,139,283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11,013	1,764,664	1,861,084	2,054,621	2,216,612
	비중	2.3	2.5	2.8	2.8	3.1	3.4	3.4	3.6	4.0	4.3
	증감률	-	*11.0*	*11.4*	*2.6*	*8.6*	*9.0*	*3.1*	*5.5*	*10.4*	*7.9*
전북	외국인 주민	28,450	31,515	35,281	37,788	39,777	44,184	45,836	49,840	55,940	62,151
	비중	1.5	1.7	1.9	2.0	2.1	2.4	2.5	2.7	3.1	3.4
	증감률	-	*10.8*	*11.9*	*7.1*	*5.3*	*11.1*	*3.7*	*8.7*	*12.2*	*11.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0~2019)..



[그림 2-2]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주민 추이

▮ 외국인 주민 유형별·연령별·체류기간별 현황

○ 전국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민(16.2%), 외국국적동포(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는 '외국인주민자녀' 비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민(18.7%), 외국인근로자(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결혼이주민 + 외국인주민자녀」 비중이 39.0%에 이르는 반면, 전국은 27.6%로 전국 대비 11.4%p가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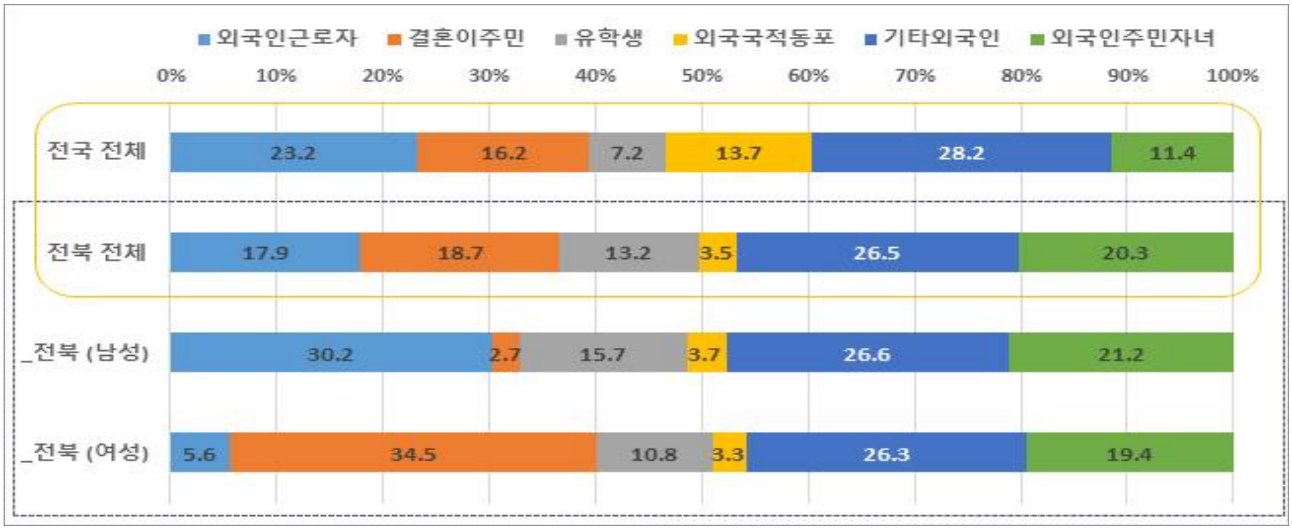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은 2.7%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34.5%임. 여성 외국인 주민의 경우 결혼이주여서 비율이 매우 높고, 남성 외국인주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2-3]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전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전국	전체	2,216,612	515,051	359,610	160,610	303,245	626,130	251,966
		100.0	23.2	16.2	7.2	13.7	28.2	11.4
전북	전체	62,151	11,096	11,595	8,234	2,177	16,453	12,596
		100.0	17.9	18.7	13.2	3.5	26.5	20.3
	남성	30,942	9,335	834	4,853	1,136	8,232	6,552
		100.0	30.2	2.7	15.7	3.7	26.6	21.2
	여성	31,209	1,761	10,761	3,381	1,041	8,221	6,044
		100.0	5.6	34.5	10.8	3.3	26.3	19.4

주 :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그림 2-3]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2019)

-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을 시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주/군산/익산/정읍/부안 지역은 '기타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지역은 '외국인주민자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분포 순위가 동일하였음. 한편, 완주군의 경우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김제시는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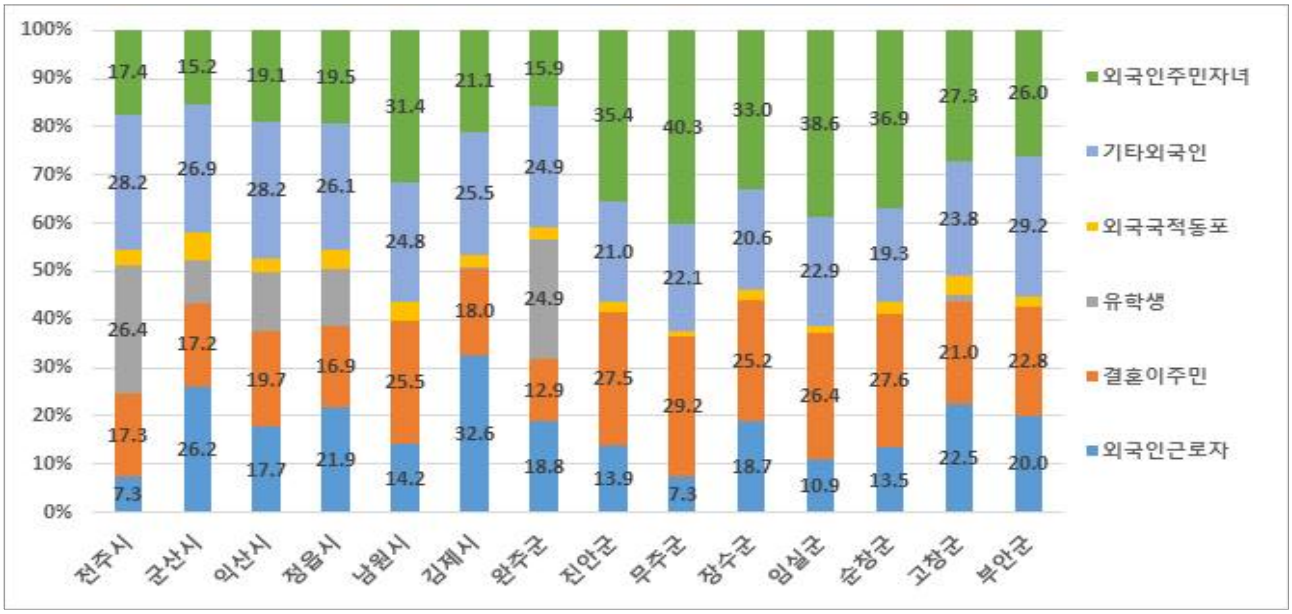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 주민 유형 중 기타외국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자녀'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시에 20.4%가 거주하고, 익산(15.0), 군산(12.7), 정읍(8.3%) 순으로 높았음. 즉 전주/군산/익산/정읍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자녀의 56.4%가 거주하고 있음

[표 2-4]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2019)

(단위 : 명)

구분	전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전북	62,151	100.0	11,096	11,595	8,234	2,177	16,453	12,596
전주	**14,733**	**23.7**	1,082	2,553	3,886	497	4,149	**2,566**
군산	**10,539**	**17.0**	**2,760**	1,817	929	592	2,838	1,603
익산	**9,874**	**15.9**	**1,751**	1,943	1,229	284	2,781	1,886
정읍	5,354	8.6	1,170	907	627	211	1,395	1,044
남원	2,573	4.1	365	655	1	104	639	809
김제	3,942	6.3	**1,286**	709	7	106	1,004	830
완주	**6,101**	**9.8**	1,145	788	1,519	163	1,518	968
진안	1,012	1.6	141	278	-	22	213	358
무주	709	1.1	52	207	-	7	157	286
장수	1,003	1.6	188	253	-	24	207	331
임실	1,032	1.7	113	272	-	13	236	398
순창	1,055	1.7	142	291	-	29	204	389
고창	2,252	3.6	507	473	36	85	536	615
부안	1,972	3.2	394	449	-	40	576	513

주 :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그림 2-4]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2019)

[표 2-5]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유형 순위(2019)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전북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전주시	기타외국인	유학생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군산시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외국인주민자녀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익산시	기타외국인	결혼이주민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정읍시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남원시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완주군	유학생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외국국적동포
진안군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무주군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장수군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임실군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순창군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고창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부안군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주 : '결혼이주민'은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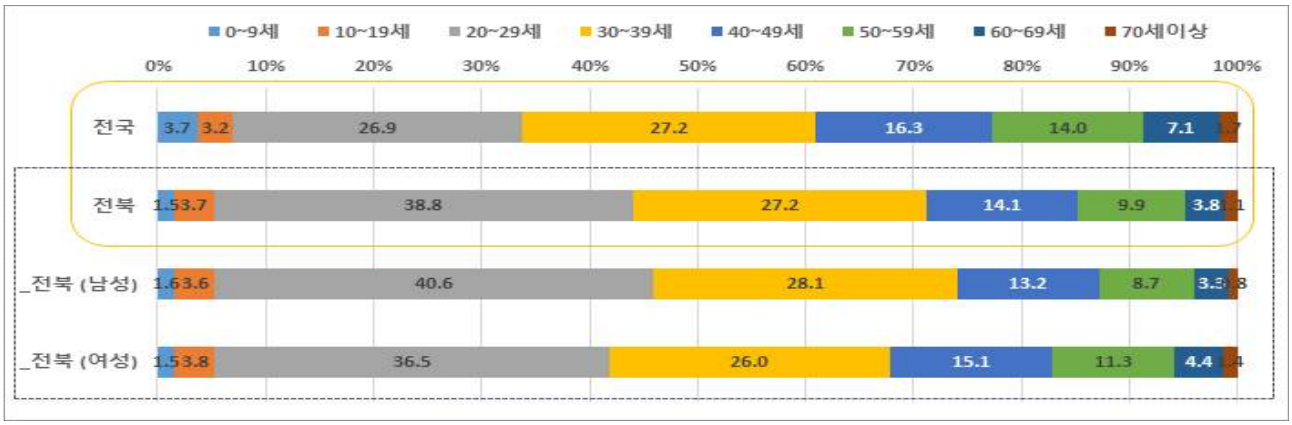
○ 전국 외국인 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연령층에서 전북은 38.8%를 차지하였고, 전국의 경우 26.9%로 차이를 보임. 전북의 20대 외국인 주민 비율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은 20대 연령층이 40.6%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36.5%를 차지하였음

[표 2-6] 전북 외국인 주민 연령별 현황(2019)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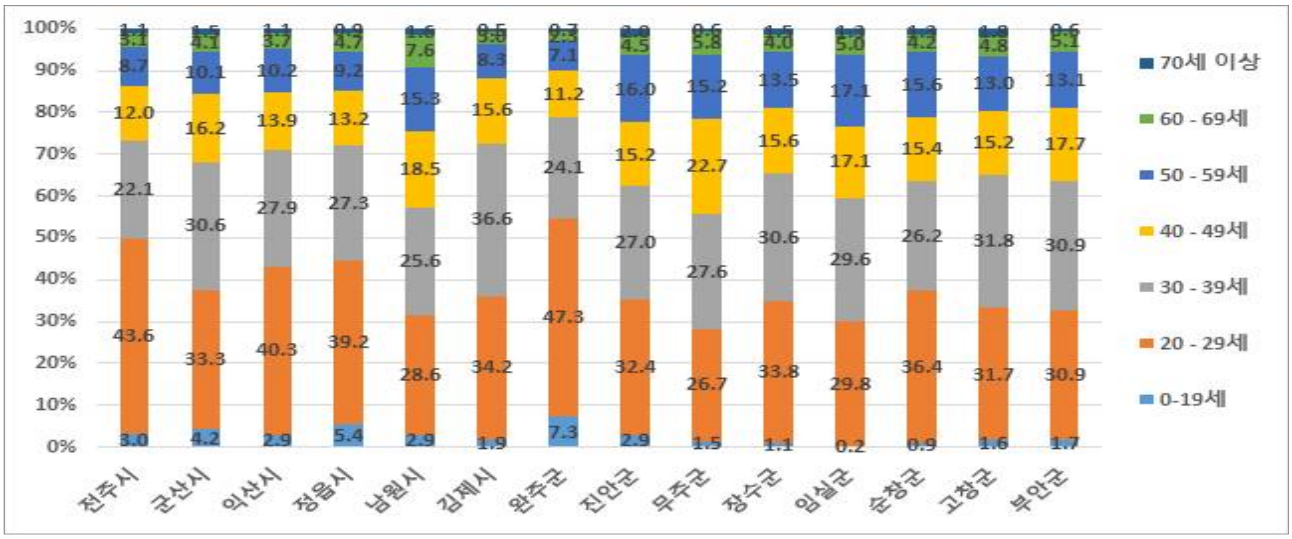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국	전체	1,778,918	65,250	56,707	478,997	483,489	290,198	248,435	126,431	29,411
		100.0	3.7	3.2	26.9	27.2	16.3	14.0	7.1	1.7
전북	전체	43,960	677	1,629	17,036	11,944	6,177	4,350	1,659	488
		100.0	1.5	3.7	38.8	27.2	14.1	9.9	3.8	1.1
	남성	24,077	383	876	9,781	6,777	3,169	2,100	789	202
		100.0	1.6	3.6	40.6	28.1	13.2	8.7	3.3	0.8
	여성	19,883	294	753	7,255	5,167	3,008	2,250	870	286
		100.0	1.5	3.8	36.5	26.0	15.1	11.3	4.4	1.4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그림 2-5] 전북 외국인 주민 연령별 현황(2019)

- 전북 외국인 주민 연령을 시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19세 이하와 20대 비중은 완주군(47.3%) 및 전주시(43.6%)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30대는 김제시(36.6%), 40대는 남원시(18.5%), 50대는 진안군(16.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6] 전북 시군별 외국인 연령 현황(2019)

[표 2-7]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연령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북	43,960	677	1,629	17,036	11,944	6,177	4,350	1,659	488
전주시	10,994	323	713	4,798	2,426	1,319	954	343	118
군산시	8,136	102	243	2,710	2,491	1,314	824	331	121
익산시	7,045	93	110	2,840	1,965	978	719	263	77
정읍시	3,838	41	168	1,504	1,048	506	354	181	36
남원시	1,475	18	25	422	377	273	225	112	23
김제시	2,748	22	29	940	1,005	428	227	83	14
완주군	4,713	58	286	2,230	1,134	530	335	107	33
진안군	512	3	12	166	138	78	82	23	10
무주군	330	0	5	88	91	75	50	19	2
장수군	527	*	*	178	161	82	71	21	8
임실군	480	*	*	143	142	82	82	24	6
순창군	527	*	*	192	138	81	82	22	7
고창군	1,410	10	12	447	449	214	184	68	26
부안군	1,225	3	18	378	379	217	161	62	7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 전국과 전북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의 비중은 전북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보였고, 3년 이상의 비중은 전북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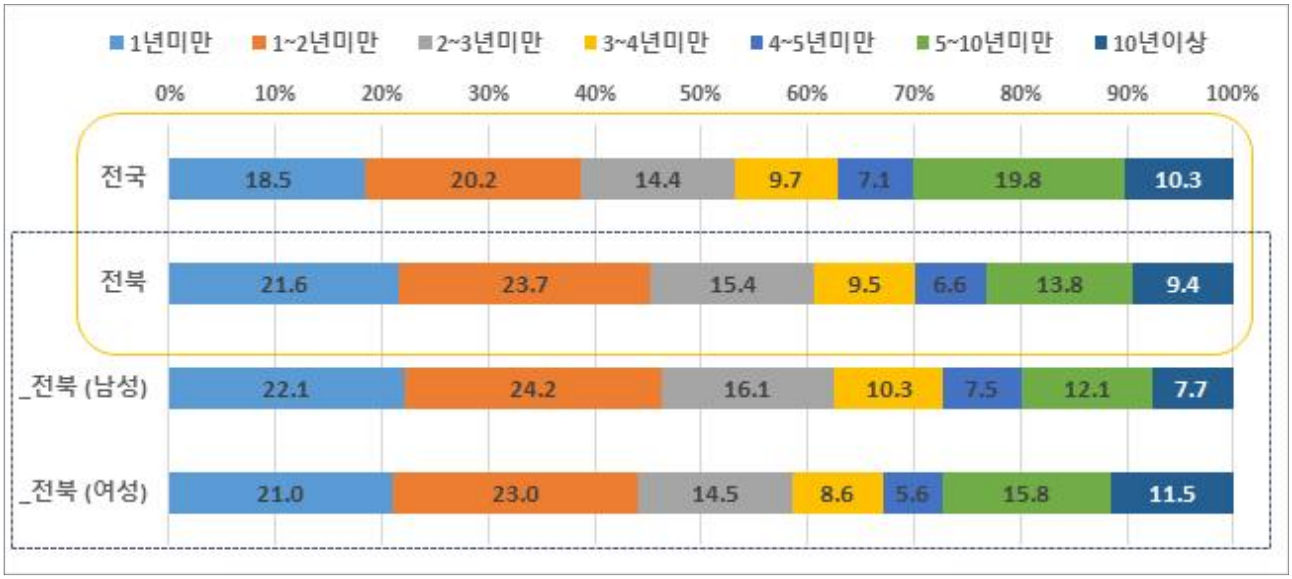
○ 전북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체류기간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남

[표 2-8] 전북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미상
전국	전체	1,778,918	328,266	358,743	257,008	172,461	126,423	352,066	182,656	1,295
		100.0	18.5	20.2	14.4	*9.7*	*7.1*	*19.8*	*10.3*	*0.1*
전북	전체	43,960	9,482	10,398	6,766	4,190	2,906	6,052	4,141	25
		100.0	*21.6*	*23.7*	*15.4*	9.5	6.6	13.8	9.4	0.1
	남성	24,077	5,309	5,828	3,883	2,484	1,799	2,914	1,845	15
		100.0	22.1	24.2	16.1	10.3	7.5	12.1	7.7	0.1
	여성	19,883	4,173	4,570	2,883	1,706	1,107	3,138	2,296	10
		100.0	21.0	23.0	14.5	8.6	5.6	15.8	11.5	0.1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그림 2-7] 전북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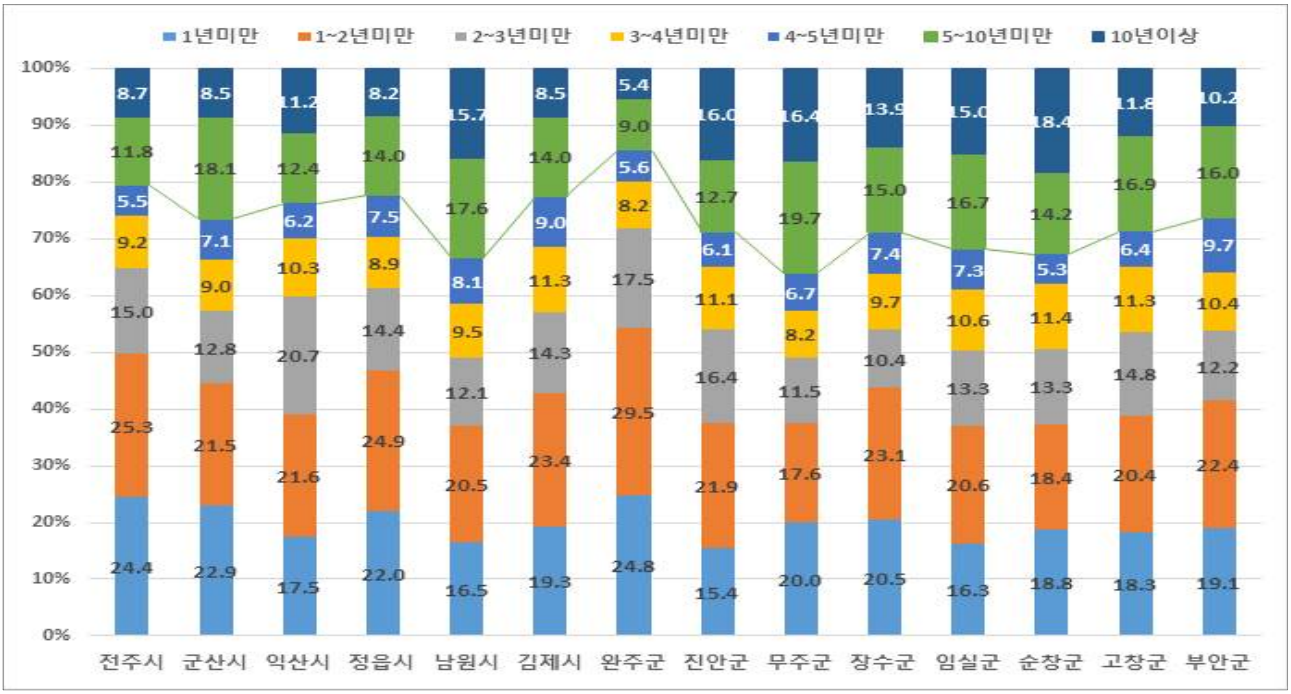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포를 보였고, 무주군이 가장 긴 분포를 보였음. 대체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 체류기간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보임

[표 2-9]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 현황(2019)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미상
전북	43,960	9,482	10,398	6,766	4,190	2,906	6,052	4,141	25
전주시	10,994	2,683	2,780	1,653	1,015	606	1,297	953	7
군산시	8,136	1,861	1,752	1,039	734	581	1,474	692	3
익산시	7,045	1,231	1,523	1,456	729	439	872	792	3
정읍시	3,838	844	954	553	342	287	539	316	3
남원시	1,475	243	303	178	140	119	260	232	0
김제시	2,748	530	644	394	311	248	386	234	1
완주군	4,713	1,168	1,392	824	386	262	426	253	2
진안군	512	79	112	84	57	31	65	82	2
무주군	330	66	58	38	27	22	65	54	0
장수군	527	108	122	55	51	39	79	73	0
임실군	480	78	99	64	51	35	80	72	1
순창군	527	99	97	70	60	28	75	97	1
고창군	1,410	258	288	209	160	90	238	166	1
부안군	1,225	234	274	149	127	119	196	125	1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그림 2-8]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 현황(2019)

나.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추이

▮ 다문화가정 규모

○ 2019년 전국 결혼이민자[5] 및 국적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173,882명, 국적 취득자 185,728명으로 총 359,610명으로 추산됨. 이 중 남성은 72,312명, 여성은 287,298명으로 여성비율은 79.9%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결혼이민자 6,000명, 국적 취득자 5,595명으로 총 11,595명이며, 여성비율은 9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평균보다 12.9%p 더 높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94.7%)에 이어 2번째로 높았음

○ 2009~2019년 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및 전북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경우 2009년 199,398명에서 160,212명(80.3%↑) 증가하였고, 전북은 2009년 6,940명에서 4,655명(6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표 2-10] 전국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2019)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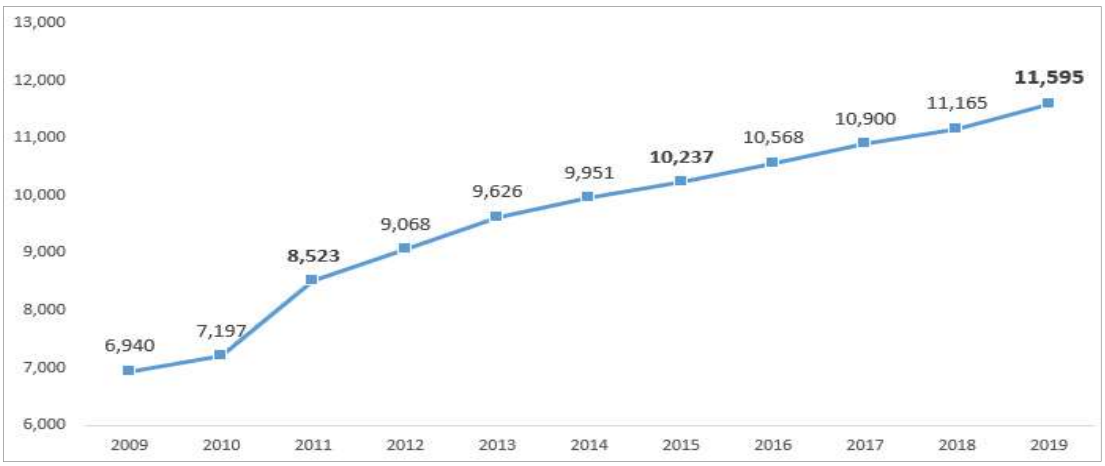
구분	계 (A+B)				결혼이민자 (A)			국적 취득자 (B)		
	계	남	여	*F(%)*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359,610	72,312	287,298	*79.9*	173,882	34,628	139,254	185,728	37,684	148,044
서울	75,489	22,832	52,657	*69.8*	33,281	10,032	23,249	42,208	12,800	29,408
부산	13,255	1,889	11,366	*85.7*	7,257	1,188	6,069	5,998	701	5,297
대구	9,712	1,318	8,394	*86.4*	5,382	869	4,513	4,330	449	3,881
인천	26,211	6,440	19,771	*75.4*	11,545	2,710	8,835	14,666	3,730	10,936
광주	6,932	764	6,168	*89.0*	3,635	510	3,125	3,297	254	3,043
대전	6,516	861	5,655	*86.8*	3,457	487	2,970	3,059	374	2,685
울산	6,648	964	5,684	*85.5*	3,503	545	2,958	3,145	419	2,726
세종	1,490	236	1,254	*84.2*	824	144	680	666	92	574
경기	113,100	26,839	86,261	*76.3*	52,697	12,115	40,582	60,403	14,724	45,679
강원	7,659	657	7,002	*91.4*	3,873	371	3,502	3,786	286	3,500
충북	10,983	1,369	9,614	*87.5*	5,601	765	4,836	5,382	604	4,778
충남	17,323	2,195	15,128	*87.3*	9,089	1,140	7,949	8,234	1,055	7,179
전북	**11,595**	834	**10,761**	*92.8*	**6,000**	521	5,479	5,595	313	5,282
전남	12,722	678	12,044	*94.7*	6,684	387	6,297	6,038	291	5,747
경북	15,125	1,380	13,745	*90.9*	8,007	882	7,125	7,118	498	6,620
경남	19,996	2,276	17,720	*88.6*	10,305	1,555	8,750	9,691	721	8,970
제주	4,854	780	4,074	*83.9*	2,742	407	2,335	2,112	373	1,73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표 2-11]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2009~2019)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343,797	359,610
전북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11,165	11,595



[그림 2-9] 전북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추이(2009-2019)

○ 2019년 전국 다문화가구[6]는 353,803가구로 전체 20,891,348가구 중 1.7%를 차지하였고, 전북의 다문화가구는 12,554가구로 전체 749,586가구 중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다문화가구원 수는 1,062,423명으로 전체 가구원 51,779,203명의 2.1%를 차지함. 한국인 배우자 326,481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347,677명, 자녀 261,606명, 기타 동거인 126,659명 등이었음
- 전북의 다문화가구원 수는 42,377명으로 도내 가구원 1,807,423명의 2.3%를 차지하였음. 한국인 배우자 14,551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1,336명, 자녀 12,630명, 기타 동거인 3,860명 등이었음
- 전북 시·군별 가구원 수 중 다문화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진안군이 전체 가구원 23,013명 중 다문화가구원이 1,181명으로 5.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수군(4.8%), 순창군(4.7%), 임실군(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2] 전북 시·군별 다문화가구원 현황(2019)

(단위 : 명)

구분	총 가구원	다문화 가구원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계	내국인	외국인
전국	51,779,203	1,062,423	326,481	347,677	173,085	174,592	261,606	12,466	249,140	126,659	74,243	52,416
전북	1,807,423	42,377	14,551	11,336	5,975	5,361	12,630	**291**	12,339	3,860	2,924	936
전주	662,086	8,798	2,881	2,513	1,376	1,137	2,579	**52**	2,527	825	637	188
군산	270,635	5,933	1,999	1,767	1,011	756	1,634	**55**	1,579	533	354	179
익산	290,119	6,683	2,216	1,888	995	893	1,910	**58**	1,852	669	495	174
정읍	107,348	3,301	1,086	877	432	445	1,046	**32**	1,014	292	213	79
남원	77,690	2,582	888	646	366	280	815	**15**	800	233	197	36
김제	80,422	2,732	959	695	341	354	830	**14**	816	248	191	57
완주	96,212	3,045	1,068	764	366	398	965	**22**	943	248	163	85
진안	23,013	1,181	417	271	136	135	366	**12**	354	127	101	26
무주	22,852	899	345	207	114	93	282	**1**	281	65	54	11
장수	21,267	1,029	361	249	108	141	321	**4**	317	98	83	15
임실	26,144	1,165	425	272	118	154	385	**0**	385	83	64	19
순창	26,642	1,263	463	290	152	138	381	**1**	380	129	113	16
고창	53,260	2,009	792	461	245	216	595	**9**	586	161	144	17
부안	49,733	1,757	651	436	215	221	521	**16**	505	149	115	3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

- 전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이 37.9%(2,27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27.5%), 일본(9.4%), 필리핀(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 전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2019)

▸ 다문화가구: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존재하는 일반가구(다문화 대상자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

▌다문화 혼인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 다문화 혼인은 24,721건이며, 전체 혼인(239,159건) 중 다문화 혼인 비율은 10.3%로 '18년 대비 1.1%p 증가함. 전북 다문화 혼인은 800건이며, 전북 전체 혼인(7,115건) 중 다문화 혼인 비율은 11.2%로 전국 평균보다 0.9%p 높고,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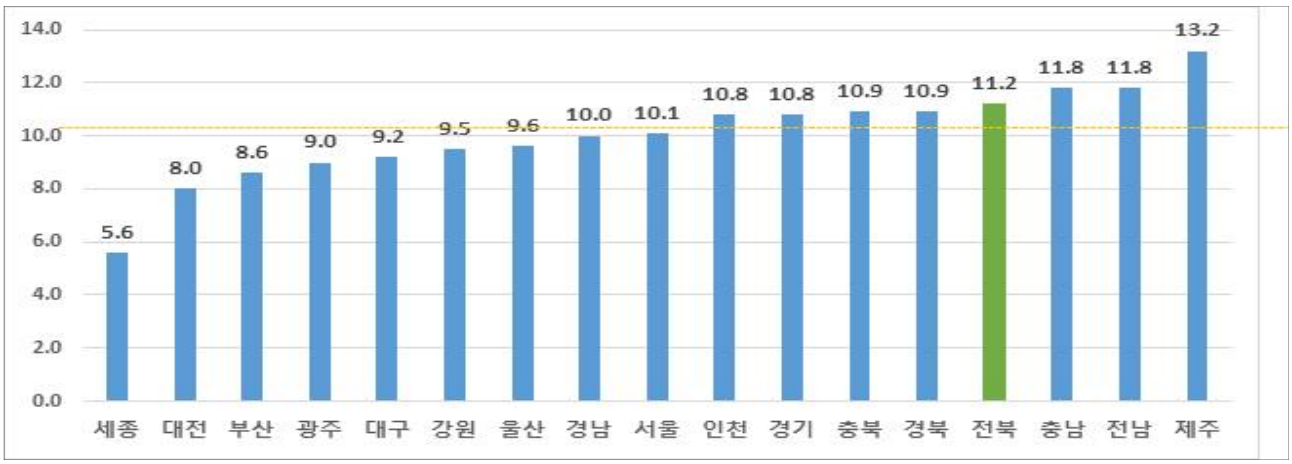
[표 2-13] 전북 다문화 혼인건수 추이(2015~2019)

(단위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전체 혼인건수	302,828	281,635	264,455	257,622	239,159
	다문화 혼인 건수	22,462	21,709	21,917	23,773	24,721
	다문화 혼인 비중	7.4	7.7	8.3	9.2	10.3
전북	전체 혼인건수	9,162	8,313	7,915	7,333	7,115
	다문화 혼인 건수	772	717	744	766	800
	다문화 혼인 비중	8.4	8.6	9.4	10.4	11.2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사건.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전국은 국외주소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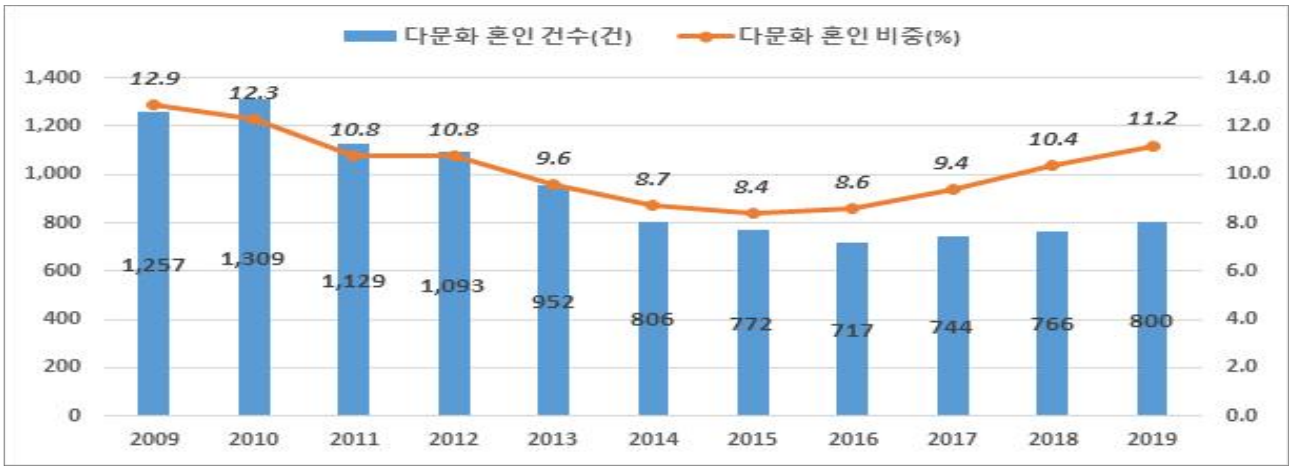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다문화 혼인 비중을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1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과 전남 11.8%, 전북 1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세종시가 5.6%로 다문화 혼인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1] 전국 시도별 다문화 혼인 비중(2019)

○ 지난 10년간 전북 다문화 혼인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257건에서 2010년 1,309건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

화되고 있음. 전북 전체 혼인건수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9%에서 2015년 8.4%까지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며 2019년 11.2%에 달함



[그림 2-12] 전북 연도별 다문화 혼인 건수와 다문화 혼인 비중(2009~2019)

○ 전북 다문화 혼인 현황을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혼인 건수는 전주시가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137건, 익산 110건 순이었음. 해당 시군별 전체 혼인건수 대비 다문화 혼인 비중을 살펴보면, 고창군이 21.7%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가 8.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4] 전북 시군별 다문화 혼인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혼인	2,878	1,118	1,020	381	273	247	361	78	88	76	102	94	203	196
다문화 혼인	232	137	110	56	41	39	43	14	15	12	17	12	44	28
다문화 %	*8.1*	*12.3*	*10.8*	*14.7*	*15.0*	*15.8*	*11.9*	*17.9*	*17.0*	*15.8*	*16.7*	*12.8*	*21.7*	*14.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9)」.



[그림 2-13] 전북 시군별 다문화 혼인 비중(2019)

○ 다음으로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유형을 보면, 전국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74.8%,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17.2%였으며, '18년 대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비율이 1.6%p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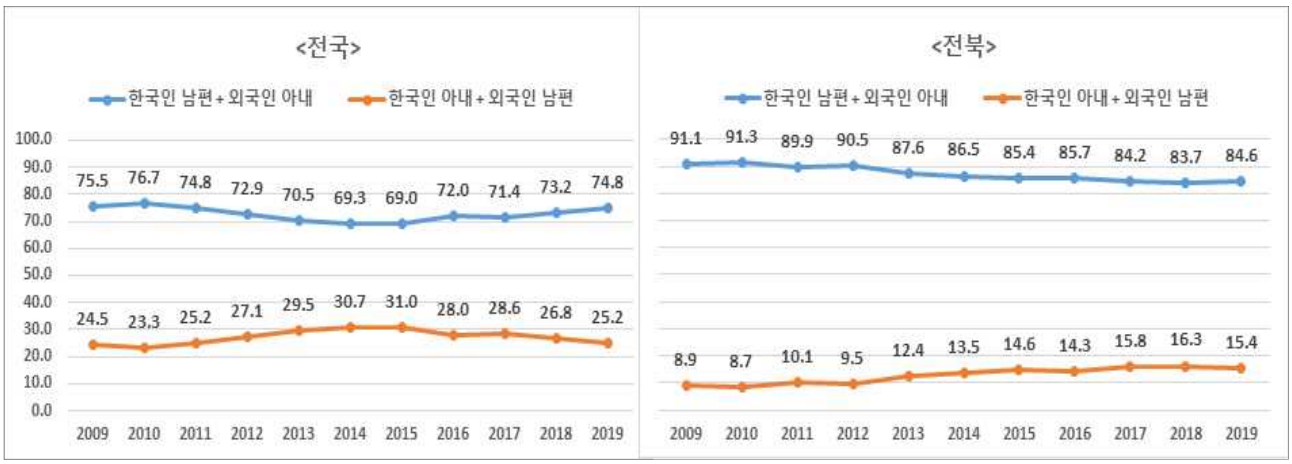
○ 전북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84.6%,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15.4%였으며, '18년 대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비율이 0.9%p 증가하였음. 전북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9.8%p 더 높았음

[표 2-15] 전북 외국인과의 혼인 유형(2011~2019)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한국남성+외국인 아내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17,687
	한국여성+외국인 남편	7,497	7,688	7,656	7,164	6,597	5,769	5,966	6,090	5,956
전북	한국남성+외국인 아내	999	972	818	668	634	599	604	622	649
	한국여성+외국인 남편	112	102	116	104	108	100	113	121	118

주: 읍면동 미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1~2019)」.



[그림 2-14] 전국 및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유형 추이(2009~2019)

○ 전북의 출신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국적이 333명(51.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14.3%), 태국(11.1%) 등의 순으로 많았음.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은 2011년~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국적이 가장 많았고, 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3번째로 높게 나타남

- 2011~2019년 혼인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46.9%), 중국(24.4%), 필리핀(7.5%) 순임

○ 한편,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경우, 2019년 기준 미국(28명), 베트남(21명), 중국(19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2011~2019년 누계 현황을 보면, 중국(23.0%), 미국(18.3%), 베트남(11.5%)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2-16] 전북 출신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1~2019)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명	구성비
외국인 아내	계	999	972	818	668	634	599	604	622	649	6,565	100.0
	필리핀	89	100	86	52	32	39	38	33	25	494	7.5
	베트남	403	433	356	293	299	296	330	333	334	3,077	46.9
	캄보디아	66	24	52	34	49	19	32	31	22	329	5.0
	태국(타이)	11	10	10	13	19	20	35	43	72	233	3.5
	몽골	10	10	5	2	5	10	5	8	7	62	0.9
	중국	331	295	233	197	142	142	81	85	93	1,599	24.4
	일본	25	27	23	19	22	14	17	29	18	194	3.0
	우즈베키스탄	13	16	9	9	15	8	8	7	12	97	1.5
	미국	8	10	8	7	11	7	10	7	9	77	1.2
	기타/미상	43	47	36	42	40	44	48	46	57	403	6.1
외국인 남편	계	112	102	116	104	108	100	113	121	118	994	100.0
	대만	2	5	6	2	4	2	1	4	3	29	2.9
	베트남	0	3	7	7	17	23	20	16	21	114	11.5
	파키스탄	2	3	3	3	2	4	3	2	0	22	2.2
	스리랑카	3	3	3	3	1	1	3	4	3	24	2.4
	중국	28	32	27	24	25	22	28	24	19	229	23.0
	일본	19	9	13	10	10	6	4	6	3	80	8.0
	캐나다	9	5	4	5	5	4	4	6	7	49	4.9
	미국	26	21	25	19	19	14	12	18	28	182	18.3
	오스트레일리아	3	6	7	7	4	2	4	4	1	38	3.8
	기타/미상	20	15	21	24	21	22	34	37	33	227	22.8

주: 읍면동 미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1~2019)」.



[그림 2-15] 전북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주요 출신국적별 혼인건수 추이

▌다문화 이혼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 다문화 이혼은 9,868건이며, 전체 이혼(110,831건) 중 다문화 이혼 비율은 8.9%로 '18년 대비 0.5%p 감소함. 전북 다문화 이혼은 332건이며, 전북 전체 이혼(4,034건) 중 다문화 이혼 비율은 8.2%로 전국 평균보다 0.7%p 낮고, 전년 대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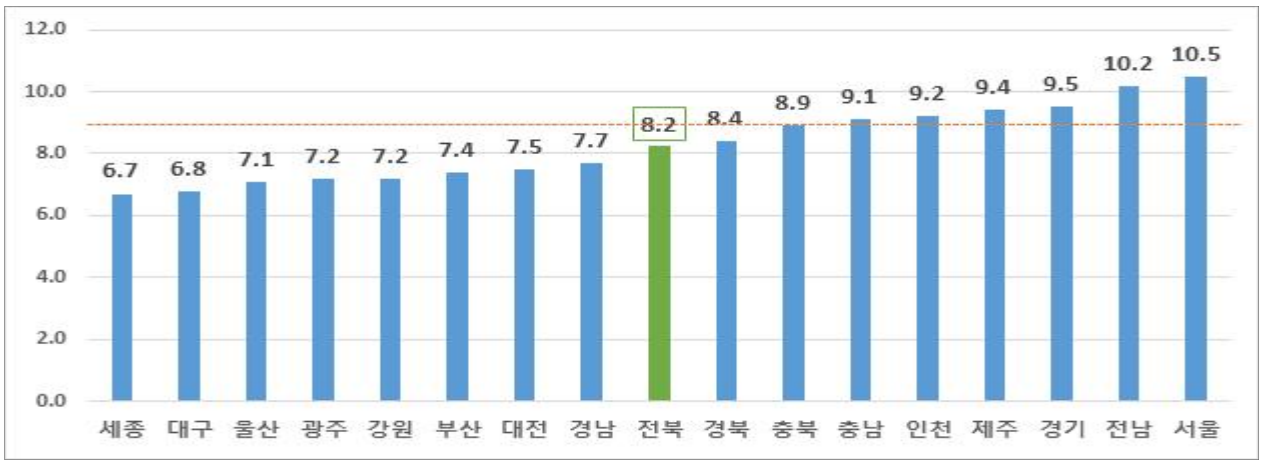
[표 2-17] 전북 다문화 이혼건수 추이(2015~2019)

(단위 : 명,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전체 이혼건수	109,153	107,328	106,032	108,684	110,831
	다문화 이혼 건수	11,287	10,631	10,307	10,254	9,868
	다문화 이혼 비중	10.3	9.9	9.7	9.4	8.9
전북	전체 이혼건수	3,794	4,007	3,729	3,968	4,034
	다문화 이혼 건수	442	447	356	404	332
	다문화 이혼 비중	11.6	11.2	9.5	10.2	8.2

*작성대상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이혼사건
*주소기준 : 부부 중 국내주소지 기준 집계(부부가 모두 국내주소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기준), 전국은 국외주소 포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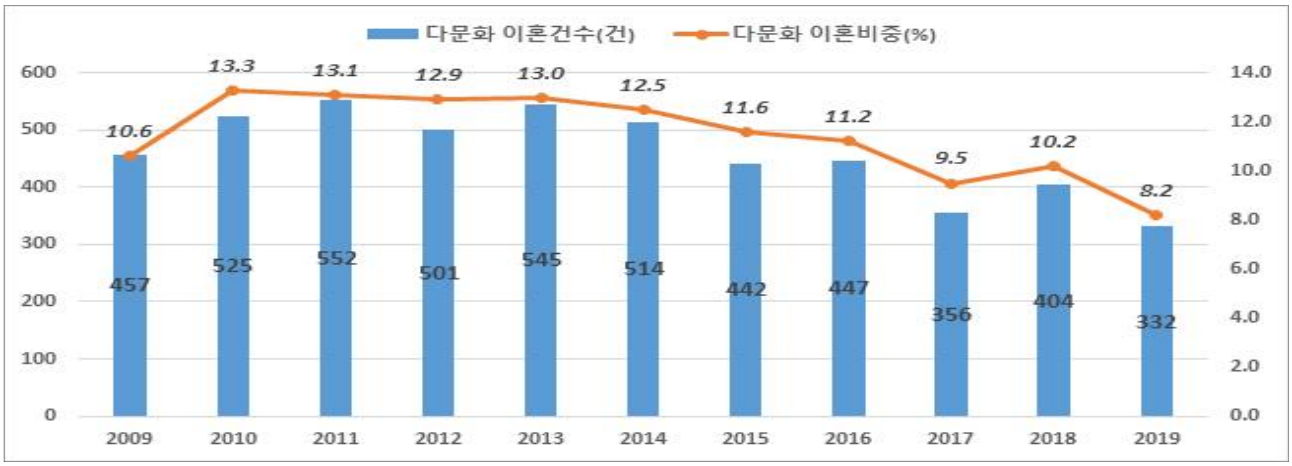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다문화 이혼 비중을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남 10.2%, 경기 9.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세종시가 6.7%로 전체 이혼건수 중 다문화 이혼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6] 전국 시도별 다문화 이혼 비중(2019)

○ 지난 10년간 전북 다문화 이혼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457건에서 2011년 552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임. 전북 전체 이혼건수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0.6%에서 2010년 13.3%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서며 2019년 8.2%(332건)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17] 전북 연도별 다문화 이혼 건수와 다문화 이혼 비중(2009~2019)

○ 전북 다문화 이혼 현황을 14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전주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56건, 군산 53건 순 이었음. 해당 시군별 전체 이혼건수 대비 다문화 이혼 비중은 순창군이 23.9%로 가장 높고, 전주시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8] 전북 시군별 다문화 이혼 현황(2019)

(단위 : 명,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체 이혼	1,298	704	682	262	172	236	206	42	55	46	56	46	108	121
다문화 이혼	61	53	56	28	16	25	19	5	13	5	10	11	15	15
다문화 %	4.7	7.5	8.2	10.7	9.3	10.6	9.2	11.9	23.6	10.9	17.9	23.9	13.9	12.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9)」.



[그림 2-18] 전북 시군별 다문화 이혼 비중(2019)

○ 다음으로 2019년 외국인과의 이혼유형을 보면, 전국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71.3%,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28.7%였으며, '18년 대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비율이 1.2%p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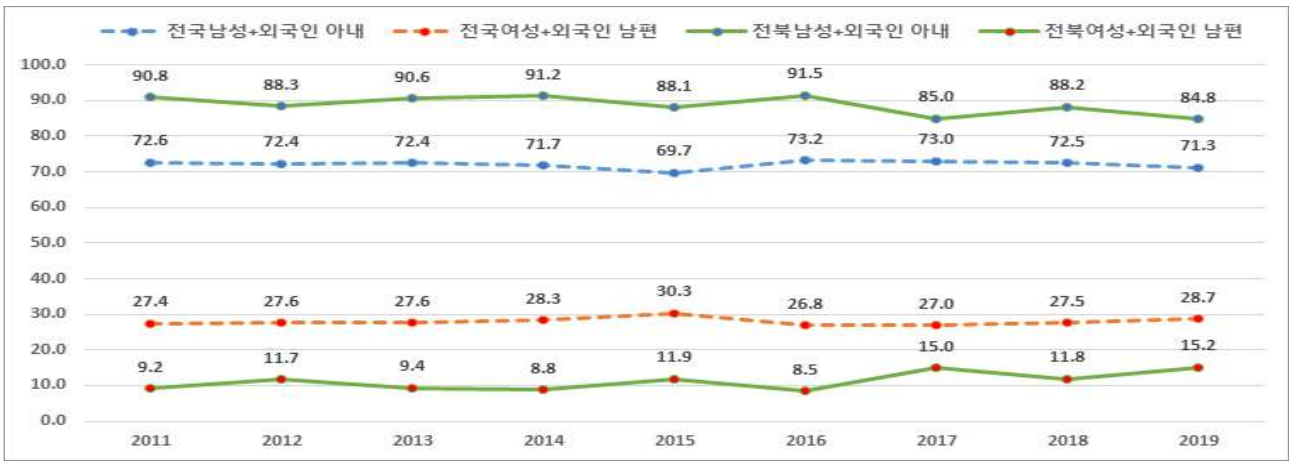
○ 전북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84.8%,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15.2%였으며, '18년 대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비율이 3.4%p 감소하였음. 전북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3.5%p 더 높았음

[표 2-19] 전북 외국인과의 이혼 유형(2011~2019)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한국남성+외국인 아내	8,349	7,878	7,588	6,998	5,743	5,610	5,206	5,174	4,917
	한국여성+외국인 남편	3,146	3,009	2,892	2,756	2,494	2,055	1,924	1,966	1,982
전북	한국남성+외국인 아내	397	341	368	344	259	270	204	231	184
	한국여성+외국인 남편	40	45	38	33	35	25	36	31	33

주: 읍면동 미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1~2019)」.



[그림 2-19] 전국 및 전북의 외국인과의 이혼 유형 추이(2011~2019)

○ 전북의 출신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총 187건 중 중국 국적이 78명(4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베트남(36.4%), 필리핀(3.8%) 등의 순으로 많았음.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은 2011년~2019년까지 중국과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았음

- 2011~2019년 이혼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48.9%), 베트남(31.6%), 필리핀(6.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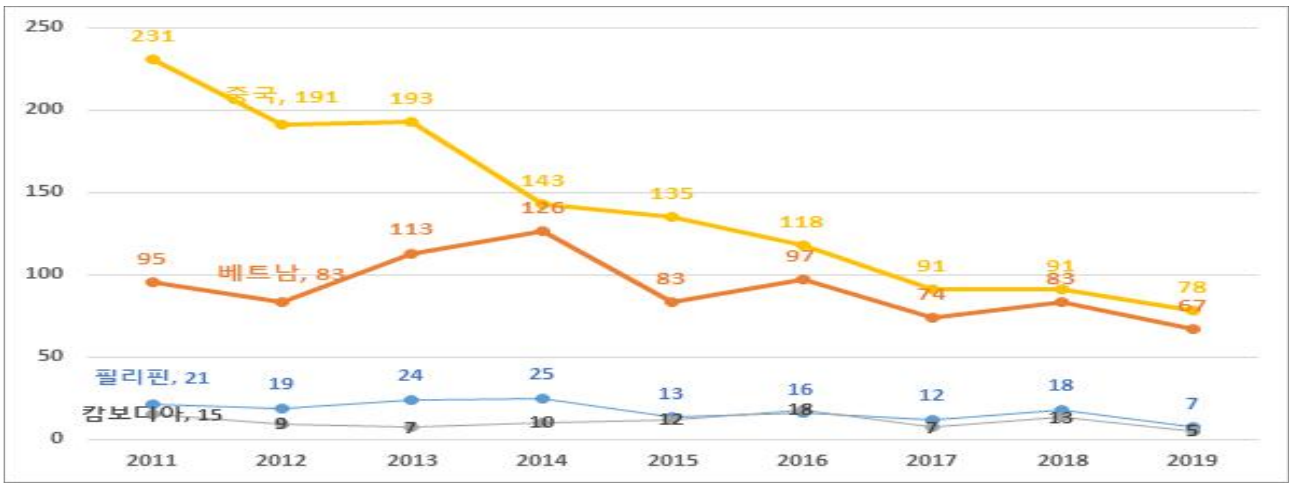
○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경우, 일본(9명), 중국(7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2011~2019년 이혼 누계 현황을 보면, 중국(38.0%), 일본(27.5%), 미국(11.7%) 등의 순으로 높았음

[표 2-20] 전북 출신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현황(2011~2019)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명	구성비
외국인 아내	계	397	341	368	344	259	270	204	231	184	2,598	100.0
	필리핀	21	19	24	25	13	16	12	18	7	155	6.0
	베트남	95	83	113	126	83	97	74	83	67	821	31.6
	캄보디아	15	9	7	10	12	18	7	13	5	96	3.7
	태국(타이)	3	4	4	6	3	1	2	5	3	31	1.2
	몽골	11	6	3	5	1	2	3	2	4	37	1.4
	중국	231	191	193	143	135	118	91	91	78	1,271	48.9
	일본	5	9	5	6	5	2	3	3	6	44	1.7
	우즈베키스탄	6	6	7	11	2	7	3	3	5	50	1.9
	미국	3	1	1	3	0	1	4	2	3	18	0.7
	기타/미상	7	13	11	9	5	8	5	11	6	75	2.9
외국인 남편	계	40	45	38	33	35	25	36	31	33	316	100.0
	대만	2	0	1	1	0	1	0	0	1	6	1.9
	베트남	1	0	1	0	3	1	1	3	4	14	4.4
	파키스탄	2	2	4	1	1	0	0	1	2	13	4.1
	방글라데시	0	0	0	1	0	0	0	0	1	2	0.6
	중국	15	19	13	11	17	13	14	11	7	120	38.0
	일본	13	15	10	12	5	6	8	9	9	87	27.5
	캐나다	1	1	1	1	0	0	2	0	0	6	1.9
	미국	5	6	5	3	5	3	5	1	4	37	11.7
	기타/미상	1	2	3	3	4	1	6	6	5	31	9.8

주: 읍면동 미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1~2019)」.



[그림 2-20] 전북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주요 출신국적별 이혼건수 추이

○ 한편, 전북의 2011년~2019년까지의 총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 총 6,565건의 혼인과 2,598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은 39.6%를 보였음.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경우 총 994건의 혼인과 316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이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을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몽골(59.7%), 우즈베키스탄(51.5%), 필리핀(31.4%), 캄보디아(29.2%), 베트남(26.7%), 미국(23.4%), 일본(22.7%), 태국(13.3%)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전국 다문화 이혼의 평균연령을 보면, 남편의 이혼 평균 연령은 49.7세, 아내 39.9세로 '18년 대비 남편 0.3세, 아내 0.6세가 각각 증가함. 다문화 이혼을 한 남편과 아내 간의 평균 연령 차이는 9.8세(출생기준 한국인 부부간 평균 이혼 연령차 2.8세)로 상대적으로 연령차가 큼을 알 수 있음

[표 2-21] 평균 이혼 연령(2017~2019)

(단위 : 세)

구분	전체			다문화 이혼[1]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4]		
							외국인·귀화자[2]			출생기준 한국인[3]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남편 연령	47.6	48.3	48.7	48.7	49.4	49.7	46.9	47.9	48.1	49.3	49.9	50.2	47.4	48.2	48.6
아내 연령	44.0	44.7	45.3	38.9	39.3	39.9	37.8	38.1	38.5	44.9	45.8	46.6	44.6	45.3	45.8

*연령미상 제외
1) 다문화 이혼 :남녀 어느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
2) 외국인·귀화자 : 이혼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3) 출생기준 한국인 : 배우자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다문화 이혼에 해당되지만, 이혼 당사자는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4)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 2019년 기준 전국 다문화 이혼 부부 중 미성년자녀를 둔 비율을 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중은 37.2%로 나타남. 한편,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 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비중이 매년 소폭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7년 36%, '18년 36.1%, '19년 37.2%)

[표 2-22] 다문화 이혼 시 미성년자녀 있는 비중(2017-2019)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			다문화 이혼[1]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2]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건수*	104,476	106,986	108,307	10,102	9,994	9,522	94,374	96,992	98,7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 있음	**47.9**	**46.1**	**45.2**	**36.0**	**36.1**	**37.2**	**49.2**	**47.2**	**46.0**
미성년자녀 없음	52.1	53.9	54.8	64.0	63.9	62.8	50.8	52.8	54.0

* 미성년자녀 유무 미상 제외
1) 다문화 이혼 : 남녀 어느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19년 기준 8.6년으로 지속 결혼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출생기준 한국인 간 이혼한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 16.7년에 비해 8.1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결혼기간별 현황을 보면, '19년 기준 '5년 미만'이 3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29.8%, '10년 이상 – 15년 미만' 이 25.5%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이혼한 부부의 약 62.4%가 결혼기간 10년 미만 내에서 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23] 다문화 이혼 부부의 결혼기간별 비중(2017-2019)

(단위 : 년)

구분		전체			다문화 이혼[1]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2]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건수		106,032	108,684	110,831	10,307	10,254	9,868	95,725	98,430	100,963
5년 미만		22.4	21.4	21.0	34.1	33.1	32.6	21.1	20.1	19.9
	1년 미만	3.6	3.5	3.4	8.0	7.7	7.8	3.1	3.0	3.0
	1~3년미만	9.8	9.1	9.0	14.0	14.1	14.7	9.3	8.6	8.5
	3~5년미만	9.0	8.8	8.6	12.0	11.3	10.2	8.7	8.5	8.4
5년 이상~10년 미만		19.3	18.5	18.0	36.6	32.7	29.8	17.4	17.0	16.9
10년 이상~15년 미만		14.0	14.3	14.4	21.8	24.9	25.5	13.2	13.2	13.3
15년 이상~20년 미만		13.1	12.5	11.9	4.4	5.7	8.0	14.0	13.2	12.3
20년 이상		31.2	33.4	34.7	3.1	3.6	4.1	34.3	36.5	37.7
평균 결혼생활 기간		**15.0**	**15.6**	**16.0**	**7.8**	**8.3**	**8.6**	**15.8**	**16.4**	**16.7**

1) 다문화 이혼 : 남녀 어느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2. 전북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현황과 특성

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규모와 현황

▌다문화 출생아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 전체 다문화 출생아 수는 17,939명으로 '18년 18,079명 보다 140명(⇩ 0.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19년 출생 전국 전체 출생아 수는 302,676명으로 이 중 다문화 출생아의 비율은 5.9%로 '18년(5.5%) 대비 0.4%p 증가함

○ 전국 시·도 지역별 다문화 출생아 수를 보면, 경기도가 4,80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053명, 경남 1,185명 순으로 많았음. 각 지역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문화 출생 비율을 보면 전북이 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과 제주가 7.8%, 충남 7.0%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이 2.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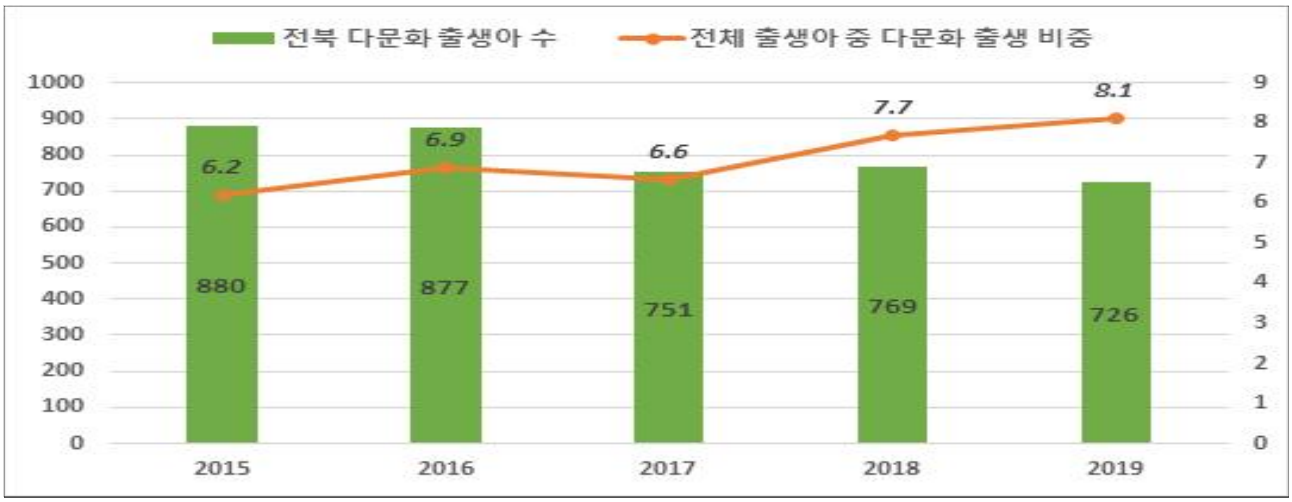
[표 2-24]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 및 다문화 출생 비중(2017-2019)

(단위 : 명, %)

구분	전체(A)			다문화 출생(B)						다문화 비중(B/A)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2017	2018	2019
전국	357,771	326,822	302,676	18,440	18,079	17,939	100.0	-140	-0.8	5.2	5.5	5.9
서울	65,389	58,074	53,673	3,288	3,097	3,053	17.0	-44	-1.4	5.0	5.3	5.7
부산	21,480	19,152	17,049	937	921	850	4.7	-71	-7.7	4.4	4.8	5.0
대구	15,946	14,400	13,233	695	643	691	3.9	48	7.5	4.4	4.5	5.2
인천	20,445	20,087	18,522	1,046	1,122	1,139	6.3	17	1.5	5.1	5.6	6.1
광주	10,120	9,105	8,364	451	444	449	2.5	5	1.1	4.5	4.9	5.4
대전	10,851	9,337	8,410	452	400	423	2.4	23	5.8	4.2	4.3	5.0
울산	9,381	8,149	7,539	419	355	358	2.0	3	0.8	4.5	4.4	4.7
세종	3,504	3,703	3,819	81	113	108	0.6	-5	-4.4	2.3	3.1	2.8
경기	94,088	88,175	83,198	4,834	4,851	4,804	26.8	-47	-1.0	5.1	5.5	5.8
강원	8,958	8,351	8,283	431	435	441	2.5	6	1.4	4.8	5.2	5.3
충북	11,394	10,586	9,333	624	629	614	3.4	-15	-2.4	5.5	5.9	6.6
충남	15,670	14,380	13,228	931	918	929	5.2	11	1.2	5.9	6.4	7.0
전북	11,348	10,001	8,971	751	769	726	4.0	-43	-5.6	6.6	7.7	8.1
전남	12,354	11,238	10,832	921	774	849	4.7	75	9.7	7.5	6.9	7.8
경북	17,957	16,079	14,472	1,016	961	970	5.4	9	0.9	5.7	6.0	6.7
경남	23,849	21,224	19,250	1,243	1,294	1,185	6.6	-109	-8.4	5.2	6.1	6.2
제주	5,037	4,781	4,500	320	353	350	2.0	-3	-0.8	6.4	7.4	7.8

자료: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최근 5년간 전북의 다문화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다문화 출생아 수는 726명으로 내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 전체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2-21] 전북 다문화 출생 추이(2015~2019)

○ 다문화 유형별 출생아의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전국 다문화 출생아 17,939명 중 외국인 모 출산이 11,524명으로 다문화 출생 전체 중 64.2%를 차지하고, 귀화자 출산이 4,005명으로 22.3%, 외국인 부 2,410명으로 13.4%를 차지함. 외국인 모와 귀화자 출산은 전년 대비 각각 1.5%와 1.2%가 증가한 반면, 외국인 부는 12.8% 감소하였음

[표 2-25] 전국 다문화 유형별 출생아 수와 비율(2017-2019)

(단위 : 명,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대비	
		비중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다문화 출생	18,440	100.0	18,079	100.0	17,939	100.0	-140	-0.8
외국인 모[1]	11,720	63.6	11,357	62.8	11,524	64.2	167	1.5
외국인 부[2]	2,852	15.5	2,763	15.3	2,410	13.4	-353	-12.8
귀화자[3]	3,868	21.0	3,959	21.9	4,005	22.3	46	1.2

1) 외국인 모 : 출생기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2) 외국인 부 : 외국인 부와 출생기준 한국인 모로부터의 출생
3) 귀화자 : 부와 모 중 한쪽이 귀화자 또는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
자료 :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 다문화 출생아 부모의 출신 국적별 현황을 보면, 외국인 모의 국적은 38.2%로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9.9%로 중국, 6.1%로 필리핀, 4.1%로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남. 한편, 베

트남 외국인 모의 출생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17년 34.7% → '18년 35.6% → '19년 38.2%)이며, 중국('17년 22.0% → '18년 20.8% → '19년 19.9%)과 필리핀('17년 7.3% → '18년 6.9% → '19년 6.1%) 모의 출생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다문화 출생아 부의 국적은 8.0%로 중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3%로 미국, 3.5%로 베트남, 1.4%로 캐나다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국('17년 7.57% → '18년 7.6% → '19년 8.0%)과 베트남('17년 2.8% → '18년 2.9% → '19년 3.5%) 외국인 부의 출생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미국 부의 출생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17년 5.5% → '18년 5.58% → '19년 4.3%)

[표 2-26] 전국 다문화 출생아 부모의 국적별 비율(2017-2019)

(단위 : 명, %)

부(父)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18,440	18,079	17,939
계*	100.0	100.0	100.0
한국	74.8	74.5	75.4
외국1)	25.2	25.5	24.6
중국	**7.5**	**7.6**	**8.0**
미국	**5.5**	**5.5**	**4.3**
베트남	**2.8**	**2.9**	**3.5**
캐나다	1.8	1.7	1.4
일본	1.5	1.3	1.0
호주	0.8	0.7	0.7
대만	0.7	0.8	0.7
기타	4.7	5.1	5.0

모(母)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18,440	18,079	17,939
계*	100.0	100.0	100.0
한국	16.0	15.9	14.0
외국1)	84.0	84.1	86.0
베트남	**34.7**	**35.6**	**38.2**
중국	**22.0**	**20.8**	**19.9**
필리핀	**7.3**	**6.9**	**6.1**
캄보디아	4.0	4.1	4.1
일본	3.9	3.8	3.8
태국	1.8	2.4	3.1
미국	2.2	2.2	2.1
기타	8.0	8.1	8.6

* 국적미상 제외
1)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은 출산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자료 : 2019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 2019년 기준 전국 외국인 주민 자녀(18세 이하)는 약 264,626명으로, 전년 대비 27,120명(11.4%↑)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69,439명으로 26.2%를 차지하였고, 제주도가 4,527명(1.7%)으로 가장 적었음(세종 제외)

- 전북의 경우 12,906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자녀의 4.9%를 차지함

○ 2011년~2019년 전북의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755명에서 2019년 12,906명으로 5,151명(↑66.4%) 증가함. '11년부터 '14년까지 증가하다가 '15년 감소추세를 보인 다음 '1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섬

[표 2-27]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1~2019)

(단위 : 명)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222,455	237,506	264,626
서울	24,084	26,008	29,285	30,226	30,447	30,761	31,052	32,930	36,532
부산	6,837	7,375	8,311	9,022	9,157	8,852	10,181	10,772	11,872
대구	4,475	5,125	5,829	6,305	6,423	6,388	7,501	7,985	8,919
인천	8,868	9,552	11,082	11,964	11,845	12,440	13,609	14,643	16,570
광주	3,403	3,926	4,519	4,997	5,090	4,881	5,597	5,978	6,651
대전	3,439	3,847	4,365	4,666	4,561	4,594	5,255	5,522	6,119
울산	3,233	3,582	4,092	4,437	4,376	4,400	4,962	5,197	5,694
세종	-	-	563	660	729	829	973	1,154	1,367
경기	37,519	42,365	48,138	51,960	50,313	52,446	56,584	61,476	69,439
강원	5,161	5,780	6,498	6,917	6,042	6,046	6,824	7,121	7,878
충북	5,675	6,445	7,272	7,718	7,089	7,424	8,381	8,963	10,047
충남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13,021	13,868	15,326
전북	7,755	8,766	9,989	10,316	9,744	9,751	11,256	11,864	12,906
전남	9,764	10,763	12,149	12,832	11,524	11,590	13,167	13,815	15,202
경북	9,246	10,251	11,574	12,578	11,775	11,755	13,721	14,491	15,999
경남	10,996	12,762	14,294	15,143	14,476	14,388	16,720	17,723	19,578
제주	1,580	2,013	2,358	2,600	3,051	3,214	3,651	4,004	4,52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22]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 추이(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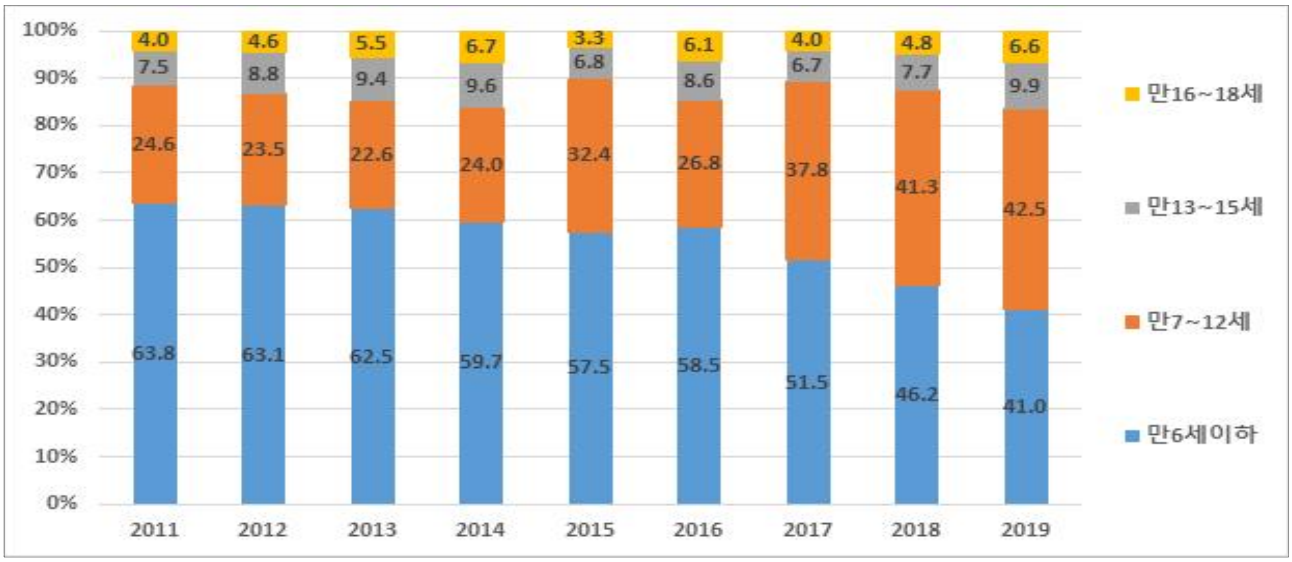
○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6세 이하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았을 때('05년-'08년) 결혼이주여성들이 입국하여 출산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초등학령기(7세~12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함을 알 수 있음. 이에 향후 약 5년 이내에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며 이에 중고생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2-28]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대별 현황(2011~2019)

(단위 : 명, %)

연도	연령별 현황					
	만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계	증가수(증가율)
2011	4,948	1,911	583	313	7,755	-
2012	5,533	2,064	768	401	8,766	1,011(13.0%)
2013	6,244	2,255	941	549	9,989	1,223(14.0%)
2014	6,163	2,473	986	694	10,316	327(3.3%)
2015	5,606	3,155	662	321	9,744	-572(-5.5%)
2016	5,706	2,609	838	598	9,751	7(0.1%)
2017	5,802	4,252	754	448	11,256	1,505(15.4%)
2018	5,477	4,904	908	575	11,864	608(5.4%)
2019	5,296	5,488	1,275	847	12,906	1,042(8.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그림 2-23]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의 연령대별 비중 추이(2011~2019)



[그림 2-24] 전북 외국인 주민 자녀의 연령별 현황(2019)

○ 2019년 기준 전북의 외국인 주민 자녀 12,906명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2,619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익산 1,951명(15.1%), 군산 1,659명(12.9%), 완주 993명(7.7%)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유형별로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익산(65명), 군산(56명), 전주(53명) 등에 많이 거주하였고, '국내출생 자녀수'는 전주(2,566명), 익산(1,886명), 군산(1,6003명), 정읍(1,044명)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국내출생 자녀	2,566	1,603	1,886	1,044	809	830	968	358	286	331	398	389	615	513
귀화/외국국적 자녀	53	56	65	35	16	14	25	12	1	5	0	1	11	16

[그림 2-25] 전북 시군별*유형별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2019)

나.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현황과 추이

▌다문화학생 현황 : 전북 다문화학생 8,105명,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4.20%

○ 2021년 4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160,056명으로 초등학생 111,371명(69.6%), 중등 33,950명(21.2%), 고등 14,735명(9.2%)으로 나타남

- 전국 전체 학생 수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1%로 나타남. 이중 학교급별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등 4.17%, 중등 2.51%, 고등 1.13%로 초등학교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국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면, 전국 160,056명 중 경기가 40,667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9,368명), 경남(12,315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반면, 세종 808명으로 가장 적었음

- 한편, 각 시·도별 다문화 학생 비중을 보면, 전남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4.59%), 전북과 경북이 각 4.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시가 1.46%로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임

○ 전북의 경우, 다문화 학생은 8,105명으로 전북 전체 학생(192,793명)의 4.20%를 차지하고, 이는 전국 평균 다문화 학생 비율(3.01%) 보다 약 1.2%p 더 높게 나타남

- 전체 초등학생 92,914명 중 다문화 학생은 5,496명으로 5.92%였으며, 17개 시·도 중 전남(7.40%), 충남(6.2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음
- 중학생의 경우 3.53%로, 이는 전남(4.96%), 경북(4.15%), 충남(4.06%)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
- 고등학생의 경우 1.71%로, 이는 전남(2.27%), 충북(1.77%), 충남(1.76%)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

[표 2-29] 전국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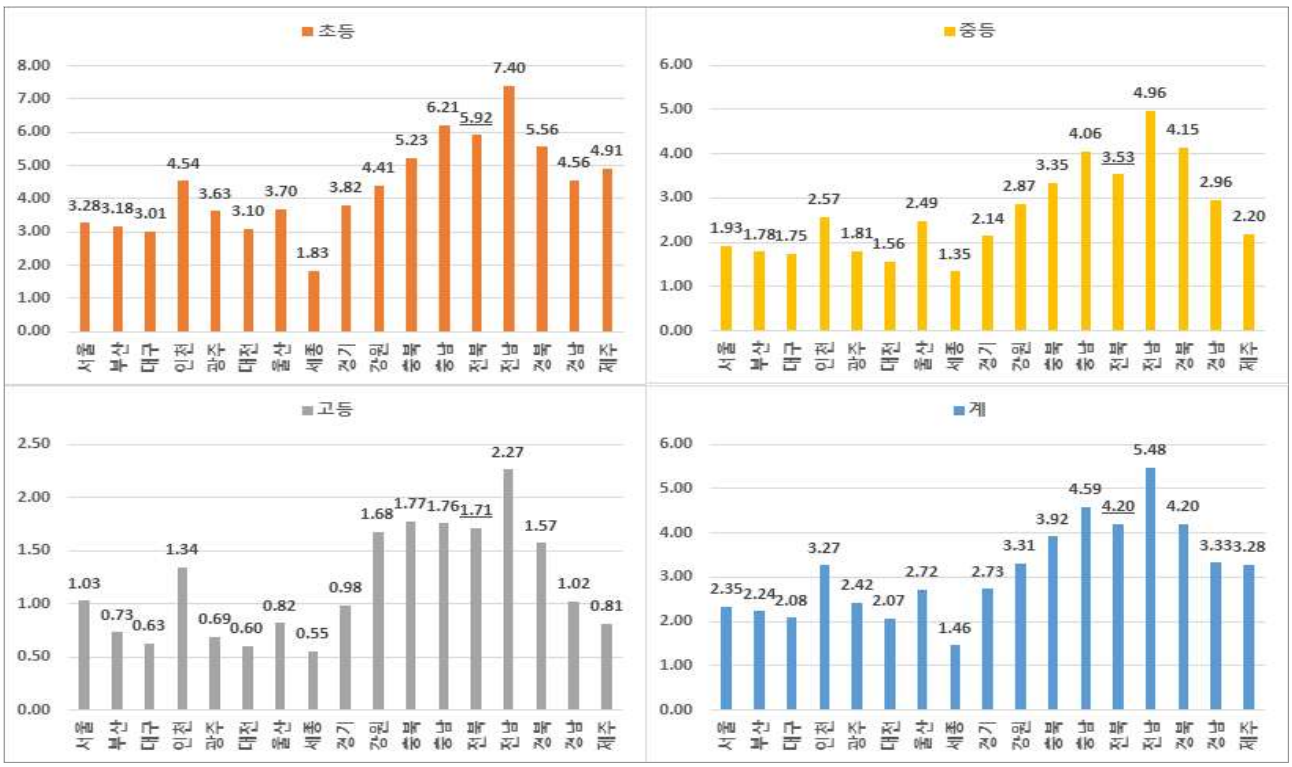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다문화 학생수					다문화 학생 비중			
	초등	중등	고등	계	초등	중등	고등	계	비율	초등	중등	고등	계
계	2,672,340	1,350,770	1,299,965	5,323,075	111,371	33,950	14,735	160,056	100.0	4.17	2.51	1.13	3.01
서울	399,435	209,749	216,319	825,503	13,093	4,049	2,226	19,368	12.1	3.28	1.93	1.03	2.35
부산	153,921	75,357	73,499	302,777	4,890	1,345	539	6,774	4.2	3.18	1.78	0.73	2.24
대구	121,308	62,755	63,074	247,137	3,650	1,099	396	5,145	3.2	3.01	1.75	0.63	2.08
인천	155,271	78,333	73,573	307,177	7,048	2,014	988	10,050	6.3	4.54	2.57	1.34	3.27
광주	84,998	43,942	43,694	172,634	3,089	794	300	4,183	2.6	3.63	1.81	0.69	2.42
대전	77,884	41,158	40,840	159,882	2,414	643	246	3,303	2.1	3.10	1.56	0.60	2.07
울산	66,919	32,766	30,535	130,220	2,475	817	250	3,542	2.2	3.70	2.49	0.82	2.72
세종	30,726	13,822	10,818	55,366	562	186	60	808	0.5	1.83	1.35	0.55	1.46
경기	763,912	378,472	345,024	1,487,408	29,159	8,116	3,392	40,667	25.4	3.82	2.14	0.98	2.73
강원	72,373	37,887	38,374	148,634	3,192	1,089	645	4,926	3.1	4.41	2.87	1.68	3.31
충북	84,263	42,438	40,246	166,947	4,405	1,421	714	6,540	4.1	5.23	3.35	1.77	3.92
충남	118,771	59,514	56,671	234,956	7,374	2,416	997	10,787	6.7	6.21	4.06	1.76	4.59
전북	92,914	49,347	50,532	192,793	5,496	1,743	866	8,105	5.1	5.92	3.53	1.71	4.20
전남	91,229	46,971	46,781	184,981	6,748	2,332	1,060	10,140	6.3	7.40	4.96	2.27	5.48
경북	127,912	63,732	64,967	256,611	7,118	2,646	1,023	10,787	6.7	5.56	4.15	1.57	4.20
경남	189,176	94,538	86,627	370,341	8,630	2,801	884	12,315	7.7	4.56	2.96	1.02	3.33
제주	41,328	19,989	18,391	79,708	2,028	439	149	2,616	1.6	4.91	2.20	0.81	3.28

*주: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21.4)」.



[그림 2-26] 전국 시도별 다문화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비율(2021)



[그림 2-27] 전국 시도별*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중(2021)

○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학령기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반면,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1만 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2021년에는 약 16만 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전체 학생 대비 약 3%)

○ 전라북도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06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8,105명으로 나타남. 전북지역의 전체 학생(192,793명)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전국의 다문화 학생 평균비율(3.01%)보다 약 1.2%p 더 높게 나타남. 전북의 다문화 학생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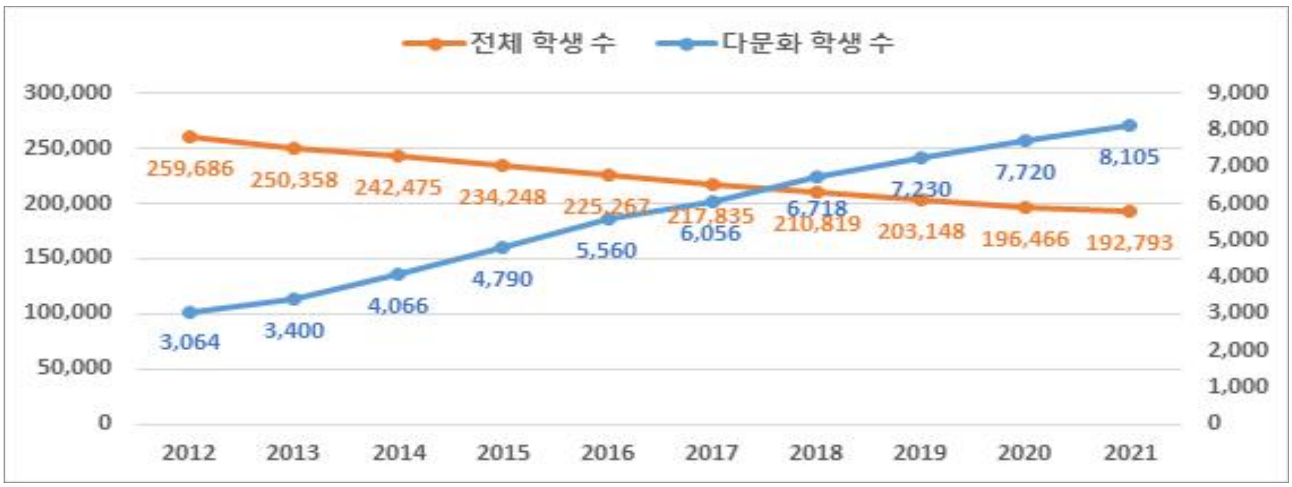
[표 2-30] 전북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2~2021)

(단위 : 명,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다문화 학생 수	46,951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6
	전체 학생 수	6,721,176	6,481,492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5,452,805	5,346,874	5,323,075
	다문화학생 비율	*0.70*	*0.86*	*1.07*	*1.35*	*1.68*	*1.89*	*2.17*	*2.52*	*2.76*	*3.01*
전북	다문화 학생 수	3,064	3,400	4,066	4,790	5,560	6,056	6,718	7,230	7,720	8,105
	전체 학생 수	259,686	250,358	242,475	234,248	225,267	217,835	210,819	203,148	196,466	192,793
	다문화학생 비율	*1.18*	*1.36*	*1.68*	*2.04*	*2.47*	*2.78*	*3.19*	*3.56*	*3.93*	*4.2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12~2021)」.

○ 한편, 전라북도 초·중·고 학령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28] 전북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 수 추이

○ 2021년 기준 전북 다문화 학생은 8,105명이며, 이 중 국내출생은 7,613명으로 전체 다문화학생의 약 94%를 차지함. 중도입국자녀 218명(2.7%), 외국인가정자녀 274명(3.4%)으로 나타남.

○ 전북 다문화 학생 8,105명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5,496명(6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학생 1,743명(21.5%), 고등학생 866명(10.7%)로 나타남. 한편, 중도입국 학생 218명의 55%는 초등학생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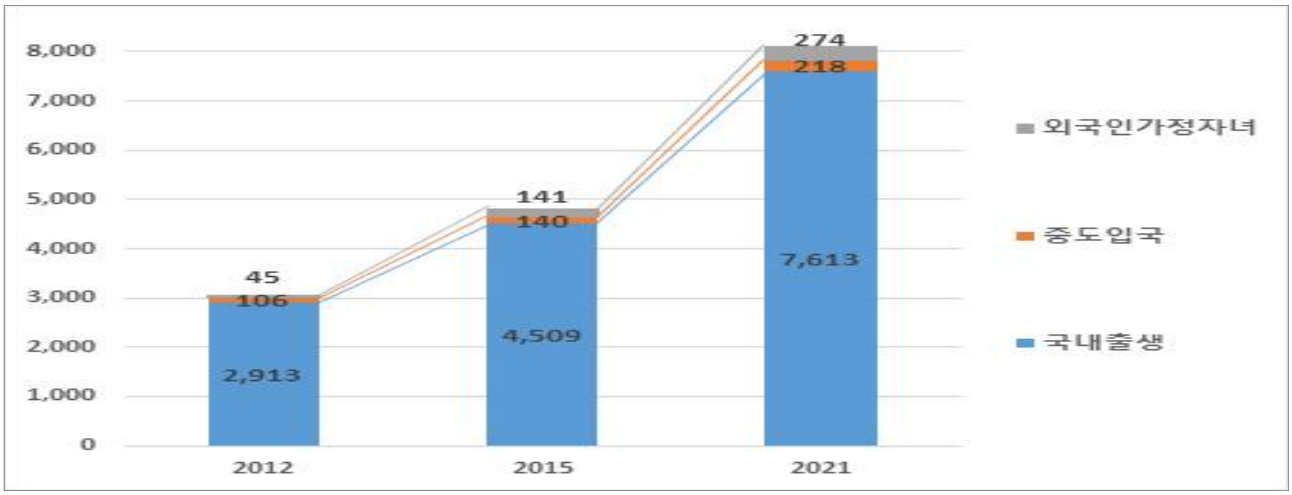
[표 2-31] 전라북도 학교급별*다문화유형별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5년				2021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2,070	645	198	2,913 (95.1)	3,155 (94.8)	841	513	4,509 (94.1)	5,180 (94.3)	1,649	784	7,613 (93.9)
중도입국	67	26	13	106 (3.4)	97 (2.9)	27	16	140 (2.9)	120 (2.2)	51	47	218 (2.7)
외국인가정자녀	38	4	3	45 (1.5)	75 (2.3)	24	42	141 (2.9)	196 (3.6)	43	35	274 (3.4)
계	2,175	676	214	3,064 (100.0)	3,327	892	571	4,790 (100.0)	5,496 (100.0)	1,743	866	8,105 (100.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 특히, 눈여겨봐야 할 현황은 다문화가정에서 국내 출생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즉, 다문화 청소년의 범위와 특성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국내출생의 다문화 청소년과는 배경과 환경이 다른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청소년의 실태와 사회적응, 그리고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도 함께 강구될 필요 있음. 그리고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의 내용과 범위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임



[그림 2-29] 전라북도 다문화유형별 학생 현황

○ 2020년 기준 전북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이 3,081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16.8%), 필리핀(15.6%), 남부아시아(7.5%)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경우는 베트남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고등학생은 필리핀 국적의 부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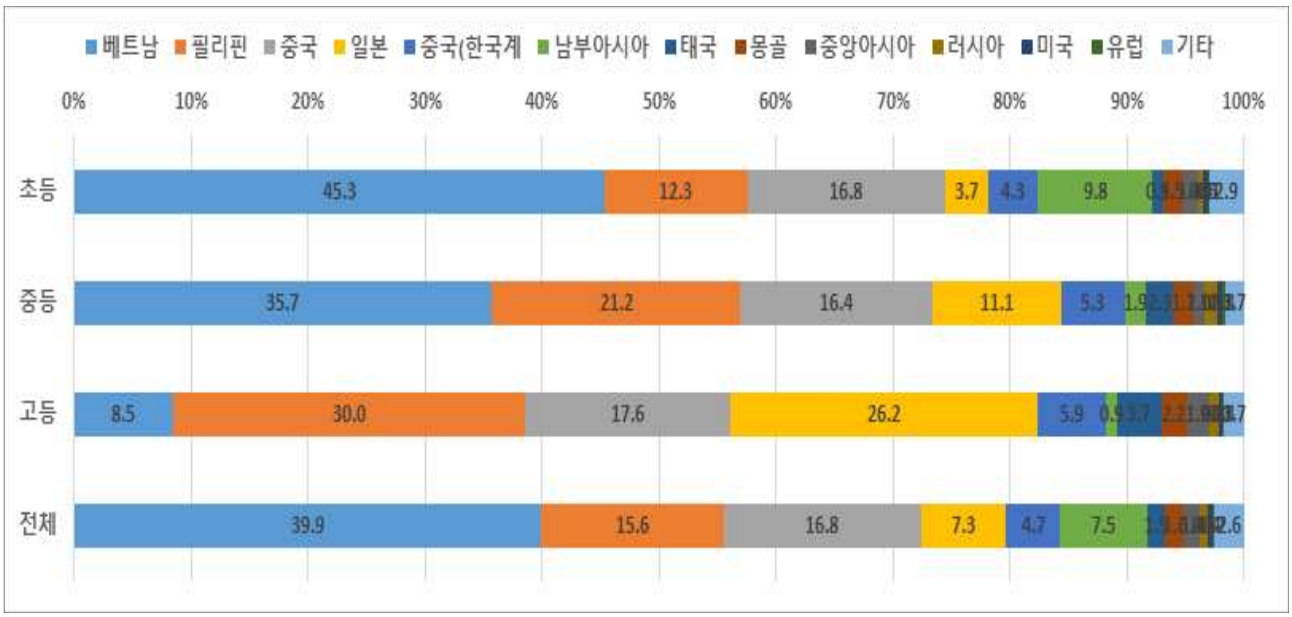
○ 학교급별 부모의 국적 비중은 초창기 결혼이주여성이 필리핀과 일본 국적이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과 남부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임

[표 2-32] 부모 출신 국적별 전북 다문화 학생 수(2020)

(단위 : 명)

구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중국(한국계)	남부아시아	태국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미국	유럽	기타	전체
초등	2,519	681	936	204	239	544	52	86	76	24	28	7	162	5,558
중등	496	294	228	154	74	26	32	24	14	15	4	4	23	1,388
고등	66	232	136	203	46	7	29	17	15	6	2	2	13	774
전체	3,081	1,207	1,300	561	359	577	113	127	105	45	34	13	198	7,72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통계연보(2020)」.



[그림 2-30] 전북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의 부모출신국 구성비(2020)

○ 전북지역 다문화 학생 8,105명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주(1,550명/19.1%), 익산(1,211명/14.9%), 군산(951명/11.7%), 정읍(680명/8.4%), 완주(606/7.5%명)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3]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2021)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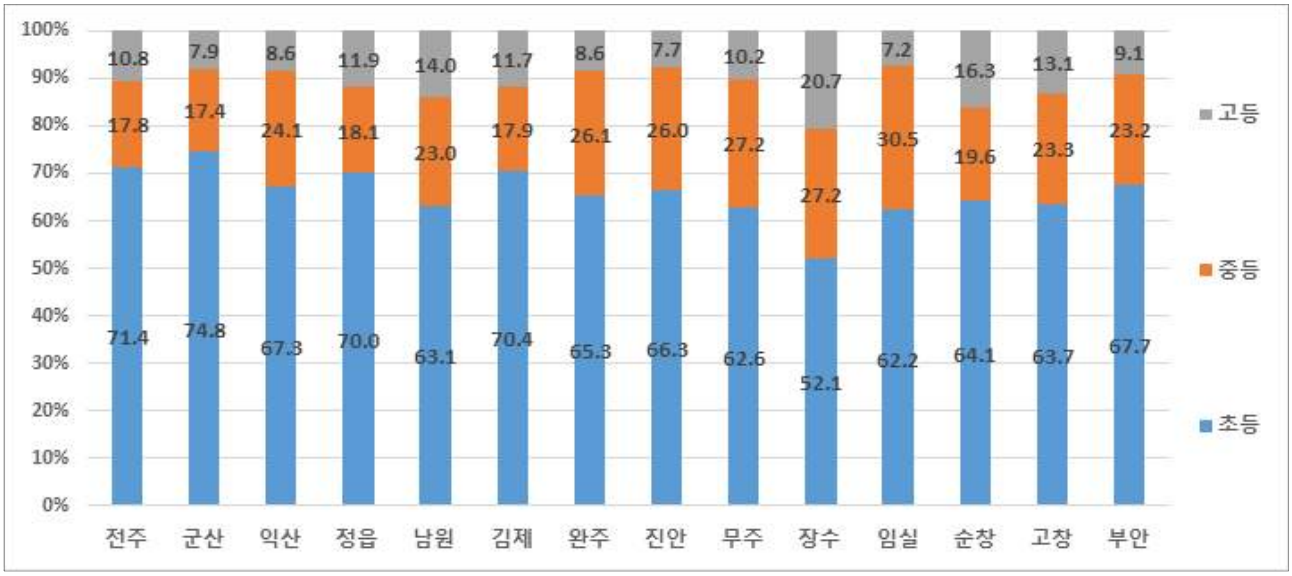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초등	1,107	711	815	476	343	355	396	181	129	151	155	173	282	222
중등	276	165	292	123	125	90	158	71	56	79	76	53	103	76
고등	167	75	104	81	76	59	52	21	21	60	18	44	58	30
계	1,550	951	1,211	680	544	504	606	273	206	290	249	270	443	328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2021)」.



[그림 2-31] 전북 시군별*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2021)

- 전북 14개 시·군의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을 보면, 모든 시·군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급별 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비율은 군산이 74.8%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중학생'은 임실(30.5%)의 중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비율은 장수(20.7%) 지역의 고등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순창군 및 장수군의 경우 다문화 학생 수는 적은 편이나, 이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순창(16.3%)/장수(20.7%)]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2-32] 전북 시군별 다문화 학생의 학교급별 비율(2021)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학교급별(초·중·고)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70% 이상의 비율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봄

○ 우선 전국 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111,371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5년(60,162명) 대비 51,209명(▵85%)이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0%p('15년 다문화가정 학생비율 2.2%)가 증가한 것임

○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자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1년 기준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77.6%가 국내출생 자녀였고, 다음이 외국인가정 자녀 18.0%, 중도입국 자녀 4.4%로 나타남

○ 한편,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자녀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출생 자녀의 비율은 '15년 83.4%에서 '21년 77.6%로 감소함
- 중도입국 자녀의 비율은 '15년 6.6%에서 '21년 4.4%로 감소함
-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율은 '15년 10.0%에서 '21년 18.0%로 증가함

○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면, 경기 29,159명, 서울 13,093명, 경남 8,630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 2,028명, 세종 562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반면,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을 보면, 전남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남 6.2%, 전북 5.9%(전국 3위) 순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1.8%로 나타남

○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전북·강원 등 지역은 국내 출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 중 '국내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96.0%), 전북(94.3%) 순이었음
-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7.8%)/서울(6.2%)/경기(5.9%)/제주(5.9%) 순이었음
-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8%), 경기(28.7%), 인천(28.7%), 충남(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전북지역의 경우, 2021년 기준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5,496명으로 전북 전체 초등학생 수의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국 초등학생의 다문화 학생 비율(4.0%) 보다 1.7%p 더 높았음 알 수 있음

○ 그리고 '15년(3,327명) 대비 약 65% 증가한 2,169명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6%p('15년 다문화가정 학생비율 3.3%)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0%p)보다 0.6%p 정도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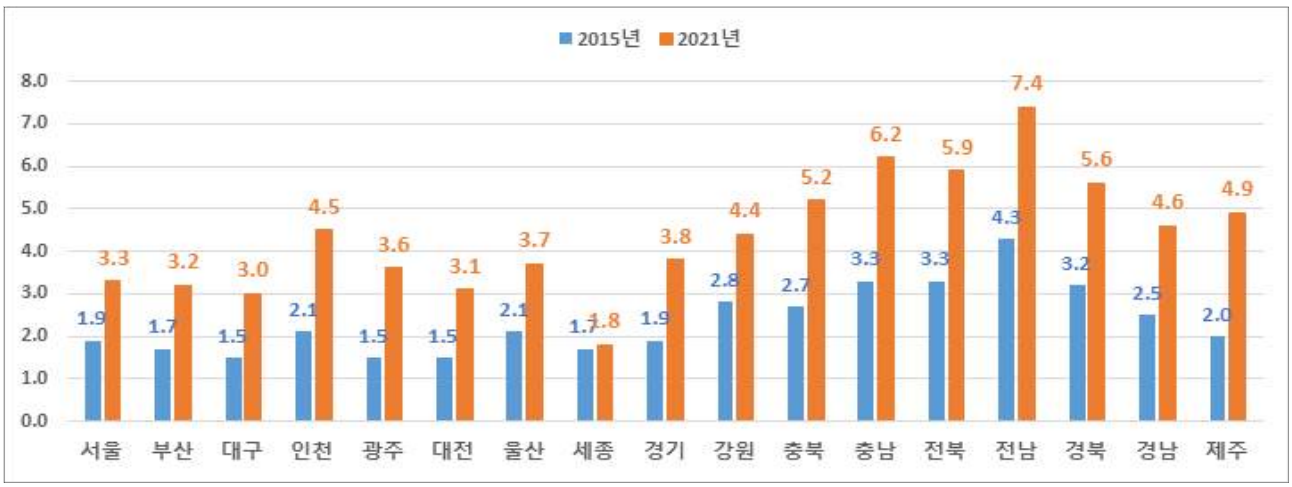
- 한편, 전북의 경우 '19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문화 출생아 수가 8.1%로 다문화 출생비율이 전체 출생의 8% 이상(전국 1위)을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약 7년 이후에는 이 다문화 출생아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이 되기에 이러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전북지역의 초등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더욱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34] 전국 시도별*다문화유형별 초등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21년				
	비율	다문화가정 학생수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비			비율	다문화가정 학생수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비		
			국제결혼가정·귀화자		외국인가정			국제결혼가정·귀화자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자녀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자녀
전국	**2.2**	**60,162**	**83.4**	**6.6**	**10.0**	**4.2**	**111,371**	**77.6**	**4.4**	**18.0**
서울	1.9	8,514	66.8	10.7	22.5	3.3	13,093	62.0	6.2	31.8
부산	1.7	2,562	85.9	8.5	5.5	3.2	4,890	88.8	5.8	5.4
대구	1.5	1,906	87.0	6.0	7.0	3.0	3,650	84.6	5.3	10.1
인천	2.1	3,340	79.6	9.3	11.0	4.5	7,048	66.0	5.3	28.7
광주	1.5	1,373	89.6	3.9	6.5	3.6	3,089	81.5	3.4	15.1
대전	1.5	1,373	89.6	3.9	6.5	3.1	2,414	88.4	3.9	7.7
울산	2.1	1,392	86.1	6.3	7.5	3.7	2,475	84.3	4.2	11.4
세종	1.7	232	94.8	2.6	2.6	1.8	562	84.3	7.8	7.8
경기	1.9	14,120	75.5	9.8	14.7	3.8	29,159	65.5	5.9	28.7
강원	2.8	2,177	93.0	3.6	3.4	4.4	3,192	93.5	2.8	3.7
충북	2.7	2,316	93.2	2.5	4.3	5.2	4,405	82.1	3.2	14.7
충남	3.3	3,825	87.2	4.2	8.7	6.2	7,374	79.2	3.3	17.5
전북	3.3	3,327	94.8 *3,155*	2.9 *97*	2.3 *75*	5.9	5,496	94.3 *5,180*	2.2 *120*	3.6 *196*
전남	4.3	4,101	97.9	1.3	0.8	7.4	6,748	96.0	1.9	2.2
경북	3.2	4,143	93.1	3.3	3.6	5.6	7,118	90.7	2.4	6.9
경남	2.5	4,760	91.3	3.1	5.6	4.6	8,630	88.3	2.6	9.1
제주	2.0	757	82.7	10.4	6.9	4.9	2,028	84.8	5.9	9.3

주 : 비율(%)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전체 학생 수 *100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1. 4. 1기준)



[그림 2-33]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2015, 2021)

○ 전북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국적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베트남 42.8%, 중국 18.1%, 필리핀 14.3%, 일본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베트남 45.3%, 중국 16.8%, 필리핀 12.3%, 남부아시아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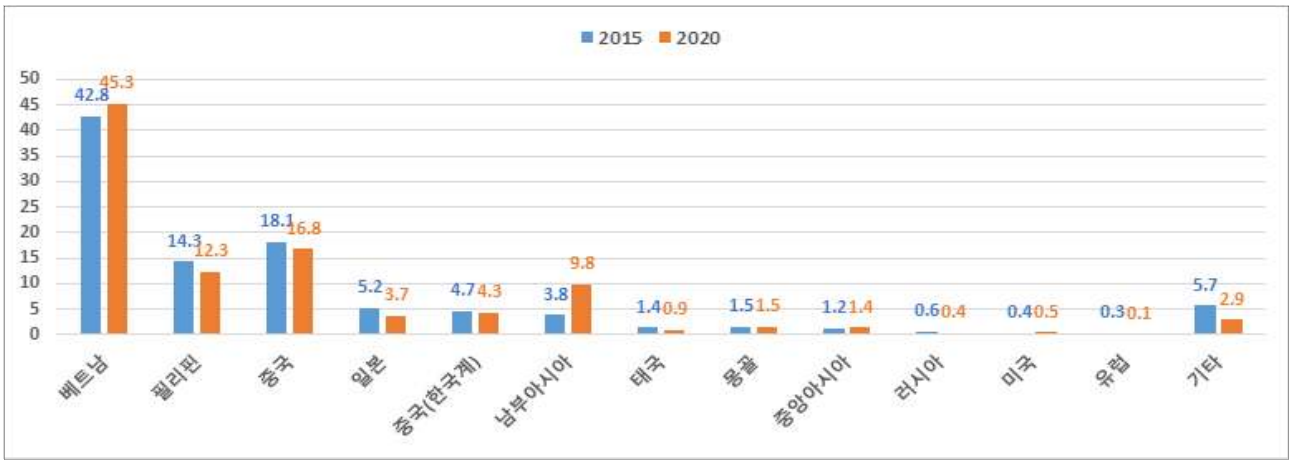
○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베트남과 남부아시아 출신국적의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부모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출신국적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부모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5] 전북 다문화 초등학생의 부모 출신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중국(한국계)	남부아시아	태국	몽골	중앙아시아	러시아	미국	유럽	기타	전체
2015	2,129	712	898	260	232	187	68	76	60	32	22	16	283	4,975
	42.8	*14.3*	*18.1*	*5.2*	*4.7*	*3.8*	*1.4*	*1.5*	*1.2*	*0.6*	*0.4*	*0.3*	*5.7*	*100.0*
2020	2,519	681	936	204	239	544	52	86	76	24	28	7	162	5,558
	45.3	*12.3*	*16.8*	*3.7*	*4.3*	*9.8*	*0.9*	*1.5*	*1.4*	*0.4*	*0.5*	*0.1*	*2.9*	*100.0*

자료: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통계연보(2020)」.



[그림 2-34] 전북 다문화 초등학생의 부모 출신국별 비율(2015, 2020)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현황

○ 전국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과 동일하게 연도별로 점차 감소 추세이나 전체 학생보다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다소 높은 수준임

○ 반면,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 비율은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임. 이는

다문화 학생은 이주배경 특성 상 해외축국이나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이주배경의 특성을 지닌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의 주요 이유는 해외축국과 미인정 유학이 약 69.3%로 나타남(초 87.8%, 중 51.6%, 고 22.2%)
- 학교 급별로는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초등학생 보다는 중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도 학교 급별이 높아질수록 다소 높은 수준임

○ 전북의 경우 전체 학업중단율과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 모두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국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2-36] 전국 및 전북의 연도별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2013~2019)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전체	0.93 (0.53)	0.83 (0.45)	0.77 (0.41)	0.81 (0.43)	0.87 (0.47)	0.94 (0.50)	0.96(0.51)
	다문화	1.03 (0.38)	1.01 (0.38)	0.85 (0.29)	0.88 (0.29)	1.17 (0.32)	1.03(0.27)	0.95(0.28)
전북	전체	0.64	0.66	0.61	0.62	0.64	0.67	0.64
	다문화	0.21	0.54	0.27	0.41	0.36	–	–

주 : (괄호) 안 내용은 부적응과 관련된 학업중단을 나타냄 (질병, 해외출국, 유학 등은 제외).
자료: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내부자료.

○ 전국의 학교급별 전체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을 보면,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7년 대비 18년에 모든 학교급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다문화학생은 소폭 감소함

[표 2-37] 전국의 학교급별 전체 학생과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2017, 2018)

(단위 : %)

구분	전체학생		다문화학생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전체	0.87 (0.47)	0.94 (0.50)	1.17 (0.32)	1.03 (0.27)
초등	0.61 (0.13)	0.66 (0.13)	0.99 (0.15)	0.87 (0.11)
중등	0.66 (0.27)	0.73 (0.32)	1.47 (0.52)	1.34 (0.44)
고등	1.47 (1.18)	1.62 (1.31)	2.11 (1.37)	1.91 (1.35)

주 : 괄호 안은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 (질병, 유학, 해외출국 제외).
자료: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내부자료(2019년과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전북 외국인 주민 현황과 특성

○ 2019년 기준 전국 외국인주민(2,216,612명)은 총 인구의 4.3%를 차지한 반면,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62,151명)은 총 인구의 3.4%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보다 0.9%p 낮았음

-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충남이 5.8%로 가장 높았고, 경기 5.4%, 제주 5.2%, 서울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의 외국인주민 비중이 22%p로 가장 낮았음

○ 지난 10년간의 외국인 주민 현황 추이를 보면, 전북의 경우 2010년 28,450명에서 2019년 62,151명으로 10년 간 약 2.2배(33,7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 총 인구의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북의 경우 '외국인주민자녀' 비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민(18.7%), 외국인근로자(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결혼이주민 + 외국인주민자녀」 비중이 39.0%로 전국 평균인 27.6% 보다 약 11.4%p가 높아 전북지역 내에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주민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전북 시·군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는 전주 14,733명, 군산 10,539명, 익산 9,874명, 완주 6,101명 순으로 많음, 한편, 무주가 70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의 분포를 보면, 전주/군산/익산/정읍/부안 지역은 '기타외국인' 비중이 높았고,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지역은 '외국인주민자녀' 비중이 높았으며, 완주의 경우는 '유학생' 비중이, 김제는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전북 다문화가정 규모와 현황

○ 전북의 경우 결혼이민자 6,000명, 국적 취득자 5,595명으로 총 11,595명이며, 여성비율이 92.8%임. 약 10년간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추이를 보면, 전북의 경우 매년 꾸준히 증가함. 즉 2009년 6,940명에서 2019년 4,655명(67.1%↑)이 증가한 11,595명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다문화가구는 12,554가구(전체가구의 1.7% 차지), 다문화가구원 수는 42,377명으로 전북 도내 가구원의 2.3%를 차지함

- 전북 14개 시·군 지역별 가구원 수 중 다문화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진안군이 1,181명으

로 5.1%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장수군(4.8%), 순창군(4.7%), 임실군(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37.9%(2,27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27.5%), 일본(9.4%), 필리핀(8.3%), 캄보디아(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 혼인) 2019년 기준 전북 다문화 혼인은 800건으로 전북 전체 혼인의 11.2%로 전국에서 충남, 전남 다음으로 전북(전국 3위)이 높음.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0.9%p가 높으며 전년 대비 0.8%p가 높은 것임

- 전북 다문화혼인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전주가 232건으로 가장 많고, 군산 137건, 익산 110건 순으로 나타남. 한편, 시·군별 전체 혼인건수 대비 다문화혼인 비율을 보면, 고창이 2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안 17.9%, 무주 17%, 김제 15.8% 순으로 나타남

- 전북 다문화혼인 한 외국인의 출신국적을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 외국인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333명(51.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 14.3%, 태국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은 2011년 ~ 2019년까지 베트남과 중국 국적이 가장 많았고, 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3번째로 높음

○ (다문화 이혼) 2019년 기준 전북 다문화 이혼은 332건으로 전북 전체 이혼의 8.2%로 차지하며, 이는 전국 평균 다문화이혼율 보다 0.7%p 낮고, 전년 대비 2.0%p가 감소한 것임

○ 지난 10년간 전북 다문화 이혼 현황을 보면, 2009년 457건에서 2011년 552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임. 다문화이혼 비율은 2010년 13.3%로까지 증가했다가 2011년부터 감소세로 2019년 8.2%까지 낮아짐

- 다문화이혼 현황을 14개 시·군별로 보면, 2019년 기준 전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56건, 군산 53건 순이었음. 해당 시군별 전체 이혼건수 대비 다문화이혼 비율은 순창군이 23.9%로 가장 높고, 전주가 4.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출신국적별 다문화이혼을 보면, 2019년 기준 외국인아내의 국적은 총 187건 중 중국이 78명(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36.4%), 필리핀(3.8%) 순으로 많았음. 즉 이혼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출신국적은 중국과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 다문화가정의 이혼 평균연령을 보면 남편 평균 연령은 49.7세, 아내 39.9세로 매년 증가수체이며, 다문화가정의 이혼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남편과 아내간의 평균 연령 차가 9.8세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 다문화가정의 이혼을 보면, 이혼한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은 2019년 기준 8.6년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현황과 특성

○ (다문화 출생아 현황) 2019년 전북 전체 출생아 수는 8,971명이며, 이중 다문화출생아는 72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8.1%를 차지함. 이는 전년 대비 0.4%p가 증가함. 전국 시·도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다문화 출생 비율을 보면 전북이 8.1%로 가장 높았음

- 최근 5년간 전북의 다문화 출생아 현황을 보면, 다문화 출생아 수는 매년 소폭 감소세를 보이나, 전북 전체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세임

○ 다문화 출생아 부모의 출신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3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9.9%), 필리핀(6.1%), 캄보디아(4.1%) 순으로 나타남. 한편, 베트남 모의 출생비율은 매년 증가세이나 필리핀 모의 출생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다문화학생 현황) 2021년 4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160,056명(초 111,371명, 중 33,950명, 고 14,735명)이며 전체 학생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3.01%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학교급별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등 4.17%, 중등 2.51%, 고등 1.13%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21년 4월 기준 다문화학생은 8,105명(국내출생 7,613명/93.9%, 중도입국 218명/2.7%, 외국인가정자녀 274명/3.4%), 전체학생(192,793명)의 4.20%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다문화학생 비율(3.01%) 보다 약 1.2%p 더 높게 나타남

- 2021. 4. 기준 전북지역 다문화학생 8,105명 중 다문화 초등생은 5,496명, 중학생 1,743명, 고등학생 866명으로 나타남
- 전북 다문화초등학생의 비율은 5.92%로. 17개 시·도 중 전남(7.40%), 충남(6.2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이었음
- 전북 다문화중학생의 비율은 3.53%로, 전남(4.96%), 경북(4.15%), 충남(4.06%)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
- 전북 다문화고등학생의 비율은 1.71%로, 전남(2.27%), 충북(1.77%), 충남(1.76%)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

○ 전라북도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2012년 3,064명에서 지속 증가하여 2021년 8,105명으로 증가함.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다문화학생이 거주하고 있고, 전북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은 매년 지속 증가세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 이외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또한 꾸준히 증가세임. 즉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범위와 특성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기에 국내출생의 다문화학생과 배경과 환경이 다른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실태와 사회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함

○ 2020년 기준 전북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국적을 보면, 베트남 국적이 3,081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16.8%), 필리핀(15.6%), 남부아시아(7.5%) 등의 순으로 많았음.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과 중등은 베트남이 가장 높았고, 고등은 필리핀 국적의 부모비율이 높게 나타남. 학교급별 부모의 국적 비중은 초창기 결혼이주여성이 필리핀과 일본 국적이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과 남부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임

○ 전북지역 다문화 학생 8,105명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1,550명/19.1%), 익산(1,211명/14.9%), 군산(951명/11.7%), 정읍(680명/8.4%), 완주(606명/7.5%)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14개 시·군의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비율을 보면, 모든 시·군에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보면, '초등학생'의 다문화학생 비율은 군산이 74.8%로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중학생'은 임실(30.5%), '고등학생'은 장수(20.7%)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순창군 및 장수군의 경우 다문화 학생 수는 적은 편이나, 이 중 중·고등학생의 비율[순창(16.3%)/장수(20.7%)]이 높은 특징을 보임

제3장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1. 중앙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2. 전북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3.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례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및 사례분석

1. 중앙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가.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결혼이민자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정책대상과 범위도 여성결혼이민자 중심에서 다문화가족 전체로 확대되어 다문화가족 대상별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을 추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후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그 범주를 출생 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귀화자)에서 인지 또는 귀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까지 확장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그리고 결혼이민자란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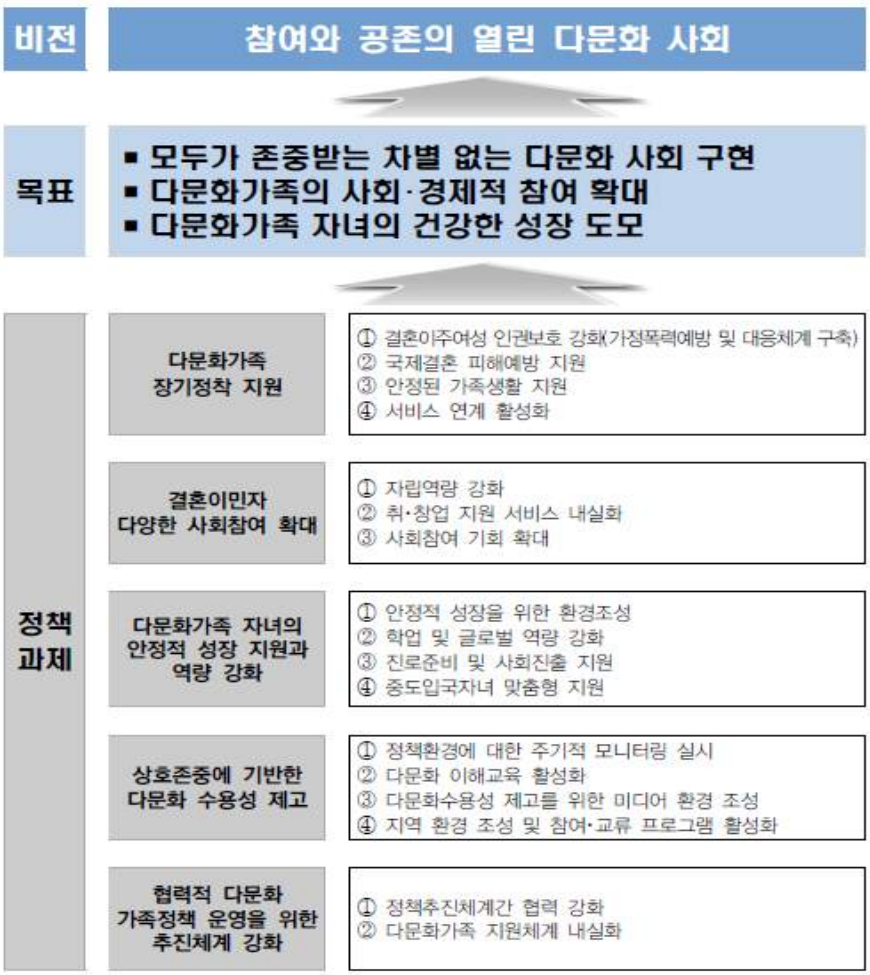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의거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수립하고 있음. 현재 제1차 ~ 제3차('22년)까지 수립되었으며, '22년에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이 발표될 예정임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현재 제3차 기본계획('18~'22)까지 발표됨. 3차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 장기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 발생으로 가족관계 증진과 한부모 가족 지원 및 가정폭력 피해 대응 등 안정된 가족생활 도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

-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령기에 본격 진입하여 학업·글로벌역량, 사회진출 지원 강화 및 중도입국자녀 지원 지속 추진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을 강화함

[표 3-1] 각 차수별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10 ~ 2012)	제2차 기본계획 (2013 ~ 2017)	제3차 기본계획 (2018 ~ 2022)
비전	다문화사회로 열린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목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책 지원 ◦다문화자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글로벌한 인재 육성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5대 영역, 61개 세부과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5대 영역, 70개 세부과제
정책과제	◦국제결혼 입국 전 검증 시스템 강화 및 국제결혼 중개 관리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강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다문화 자녀 건강한 성장발달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자녀의 발달과 성장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자녀 안정적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 ◦추진체계 강화
추진기관	<11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경찰청, 공정위, 여가부, 고용부, 국무총리실	<13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문화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 외교부, 방통위, 국무총리실	<18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산업통상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방통위, 경찰청, 국세청, 농진청, 소방청



[그림 3-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 ~ 2022)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4조(실태조사 등)에 의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현황 및 실태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 117079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09년 제1차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 2차 '12년, 3차 '15년, 4차 '18년, 그리고 '21년 8월 5차를 실시함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만 9～24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인터넷조사 등)로 실시함. 표본규모는 32,000명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 가구임
- 조사내용('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내용) 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조 사 항 목
가구구성표	· 가구구성원의 기본정보, 미취학자녀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 돌봄, 가구특성 문항으로 구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조사표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상태, 기타 일반사항을 조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배우자 조사표	·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와 비교 가능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상태, 기타 일반사항 영역으로 구성
자녀 조사표(만9~24세)	·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

자료 :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8. 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18세 미만 자녀의 취학 전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과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과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 지원을 할 수 있음
- 또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 2005년 2월에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은 만 9~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제시하는 다문화자녀 및 다문화청소년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는 대상보다 더 큰 광의의 의미인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용어로 지칭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국내출신 다문화청소년과 중도입국청소년 및 외국인가정의 청소년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탈북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여러 유형으로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함

[표 3-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이주배경청소년 개념

구분		대상 및 특성
다문화가족 자녀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 ◇ 국내 출생자이며 한국인
	국외출생 중도입국청소년	◇ 부모 중 한명인 한국인 ◇외국 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 입국 ◇ 귀화를 통한 한국국적자와 외국국적자 모두 존재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 출생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보인 국적 외국 ◇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 자녀
	국외 출생	◇ 부모모두 외국 국적 ◇ 본인 국적 외국 ◇미등록, 난민, 유학생
탈북청소년	남한 출생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 주민
	제3국 출생	◇ 부모 중 한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
	북한 출생	◇ 북한에서 출생 후 탈북한 청소년

자료 : 양계민(2019), 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24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제30조에 의거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 및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며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함(www.rainbowyouth.or.kr)

- (교육지원 : 레이보우스쿨)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학 지원, 진로지도 등

–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은 2009년 개발, 2010년 시범운영 및 지속 수정과 보완을 통해 2011년부터 전국 지역 기관에 위탁 형태로 보급 및 운영되고 있음

– 전국 16개 시도지역은 학습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약 1,100명의 규모로 운영하며, 이주배경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하고 안정적 정착과 글로벌 인적자원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

- (심리정서지원) 탈북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지원으로 기초 및 경제생활 체험, 대중교통 이용, 교육기관 탐방, 문화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시
- (인식개선)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실시.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민역량 단계적 강화하는 12차 프로그램. 전국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운영
- (연수개발)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예비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운영됨. 교육과정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과정, 예비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강화 교육과정, 청소년지도사 다양화역량강화 과정 등이 있음. 그 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조사연구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이슈, 동향 등 현안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 청소년복지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9~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 차원의 다문화학생 관련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다문화학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1998년 3월 제정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근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과 전학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에 속한 학구 안에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범위는 다문화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으로 규정함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2006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의 수용성 제고로 모든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세부 추진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049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9.>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함)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표 3-3] 중앙 부처별 다문화청소년 관련 법률·지원 대상·연령·전달체계 현황

부처	관련법률	대상	지원 연령	전달체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가정의 자녀 ·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가정 자녀	만 24세 이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만 9~24세 이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중도입국자녀 · 외국인가정자녀(미등록이주아동 포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시·도교육청 ·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만 6~24세 이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 시·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	만18세 미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자료 : 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10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자료

▌(시·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현황

○ 교육부 차원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기본적으로 부재함. 한편, 지방교육청은 최근 들어 지역별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교육부 중앙 차원의 기본법이 부재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17개 시·도는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청 조례를 2012년부터 제정하고 일부 내용들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2012. 1. 2. 제정함.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최초임. 전라북도교육청은 3년 뒤인 2015. 5. 8일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

○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다문화교육 진흥 및 활성화 조례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및 다문화교육진흥계획 수립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그 외 실태조사 실시(서울, 인천), 다문화특별학급운영, 한국어학급지정·운영, 한국어예비학교/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학력 인정 대안학교, 다문화직업교육대안학교, 거점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교(직)원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적시되어 있음

[표 3-4]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현황(2021. 10. 기준)

지역	조례명	제정일	조례 내용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3. 10. 10	기본계획수립, 사업(다문화이해교육사업, 교육지원사업), 실태조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다문화특별학급,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연구학교 등),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자율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원연수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3. 4. 3	진흥계획수립, 진흥위원회 구성,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한국어학급 지정·운영, 교원연수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6. 5. 20	진흥계획수립, 진흥위원회설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운영, 다문화이해교육실시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7. 11. 13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친화적학교운영(문화다양성교육 중점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지역특성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인력 지원), 한국어학급운영,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실태조사, 교직원 연수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	'12. 7. 31	기본계획수립, 진흥위원회 설치,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교원연수 등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4. 4. 18	기본계획수립, 사업(다문화이해교육사업, 학생/학부모 교육지원사업 등),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정책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3. 12. 26	진흥계획수립, 자문위원회의 구성,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등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2. 11. 12	기본계획수립, 진흥위원회 설치, 다문화교육특별학급설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경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2. 1. 2	기본계획수립, 사업(다문화이해교육사업, 교육지원사업), 위원회설치·기능,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한국어예비학급 설치,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교원연수
강원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3. 7. 26	진흥계획수립,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수준별 지도 가능하도록 연령별/수준별 특별학급 운영, 한국어와 이중언어로 동일 수업, 수업 진행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필요 예산 인력 지원 등) 설치, 다문화친화적 학교 지정·운영(예비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 다문화직업교육대안학교, 거점학교 등), 다문화이해교육실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5. 1. 2	기본계획수립, 위원회설치·기능,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다문화 예비학교/중점학교 지정·운영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14. 3. 20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센터운영,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등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5. 5. 8	기본계획수립, 사업(다문화이해교육사업,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교육지원사업),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거점학교 지정·운영(중도입국학생 위해 정책학교에 특별학급 설치운영, 지역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등),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원연수 등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3. 12. 26	진흥계획수립, 사업(다문화이해교육사업, 가정학습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다문화이해교육실시, 다문화교육 특별학교 설치·운영,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원연수 등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5. 12. 31	기본계획 수립, 협의회설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다문화교육 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직접 경비 예산지원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12. 3. 29	기본계획수립, 진흥위원회설치·운영, 다문화교육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원연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14. 10. 22	기본계획수립,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한국어예비학급 설치,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교직원 연수 등

자료 : 자치법규 사이트 검색(https://law.go.kr/LSW/main.html)

[표 3-5] 전국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규정 내용(2021. 10. 기준)

조례 조항 내용	규정 교육청
특별학급/다문화교육정책학교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원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안학교	인천, 강원, 충남
이해교육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다문화교육센터	광주만 제외하고 전부 규정
교원연수	대구, 강원, 충북, 경북 제외하고 전부 규정
실태조사	서울, 인천

자료 : 자치법규 사이트 검색(https://law.go.kr/LSW/main.html)

나. 중앙 부처별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 대상 지원정책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내용 관련 해당 법률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자녀 및 다문화학생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법률을 근거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주로 살펴봄

1)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동향

○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다문화가족 관련 주요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중앙 부처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매년 있는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심의 및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관련 다양한 합동추진 정책과 지원사업을 현안을 해결하고자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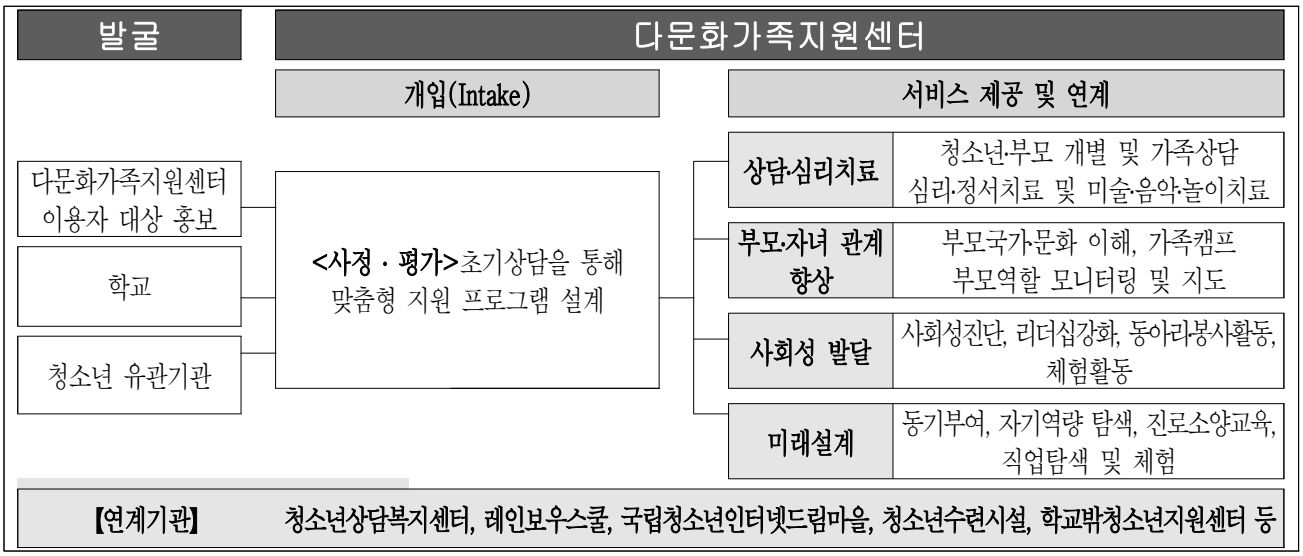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발표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 대책[7]'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중점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성장 대응 성장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이중 대표적인 사업이 다재다능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함

- '多재다능 프로그램' 신규 운영 및 중도입국자녀 입국 시 교육청으로 정보 연계 등 지원 시작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주요 세부 추진 내용

- [1]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 (영유아기) 언어발달 시기에 지체되지 않도록 언어 및 기초학습(다문화유치원 '15년 30개소 → '16년 60개소)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참여 가구 수 '15년 5,660가구 → '16년 8,000가구 이상) 규모 확대로 부모-자녀간 정서적 유대 강화와 정체성 확립 기여
  - (학령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적 역량 개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며 미래 글로벌 인재로 양성
    - ◇ **다재다능프로그램**('16년 다가센터 81개소에서 신규 운영) 추진으로 가족관계개선, 사회성 및 리더십 개발 지원, 대학생 멘토링 확대로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제고, 수학·과학 등 교과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발휘 지원 및 진로지도·직업교육기관 연계 등 지원 확대
  - (청년기)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회·경제적 주변화 문제 해소
    - ◇ 다문화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하여 인재 발굴·추천에 활용, 어학능력 갖춘 인재 선발로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 양성, KOICA해외 사무소 등 다문화청년 인턴채용 추진, 다문화장병 증가 대비 복무부적응 및 차별이 없도록 복무여건 조성



자료 : 다문화가족정책, 이제는 '자녀성장지원'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 3. 9)

[그림 3-2] 多재다능 프로그램 추진체계

7)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2016. 3. 9) 참고 작성

- [2]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진입지원) 학업중단, 니트 문제해결 위해 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정보연계로 공교육 진입 지원(학력증빙 곤란 시 학력심의위원회 통해 편입학 절차 지원, 조기적응 프로그램 확대로 법·제도·문화관련 정보제공)
  - (학업지원)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다문화예비학교 '15년 100개교 → '16년 110개교)으로 조기적응 지원, 학교 밖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레이보우스쿨 '15년 17개소 → '16년 22개소)
  - (취업지원) '내-일을 잡아라'프로그램('16년 6개소 신규 추진) 추진, 직업실무·자격증 취득 등 지원, 각종 직업훈련(취업성공패키지에 중도입국자녀 참여 가능성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 [3] 외국인 밀집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모델 구축 : 시·도교육청 등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지역 특성 맞춤 서비스 제공(전문인력 지원, 교원 연수, 다문화교육자료 개발·공유 등)
  - 방과후 아카데미 다문화 특화형 지정 확대 : 돌봄서비스 강화, 밀집지역 내 유치원·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각종 교육 정보 다국어 제공(다가센터 통번역지원사 282명 활동, 11개 언어 지원)
- [4]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장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눈높이 맞춤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건강한 또래 문화 조성
  -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확대('15년 150개교 → '16년 180개교)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문화다양성 교육 교구·교재 개발,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역할체험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15년 23개교 운영 → '16년 30개교 운영 → '17년 다문화중점학교 연계 검토) 확대

○ 2018년 3월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함.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이 '도입·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다문화자녀는 출생 및 초기 성장기에서 학령기(청소년기) 본격 진입함에 따른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와 진로지원 및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

[표 3-6]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방향 비교

구분	도입 및 성장기		정 착 기
	그간의 정책방향		3차 기본계획정책방향
다문화가정의 자녀	출생 및 초기 성장	→	학령기(청소년기) 비율 상승
	▫ 한국어 능력 향상	→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중심(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 글로벌브릿지 사업 등)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중심(예비학교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	→	▫ 성장배경 특수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취업사관학교 운영 훈련과정 확대)

[표 3-7] 제3차 기본계획의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정책 세부과제 주요내용

정책과제	세부과제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추진,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 (다재다능 프로그램) 사회성, 리더십 개발위해 부모-자녀관계 향상, 사회성발달, 진로코치 등 ▫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지원 강화 - 진로/진학 고민 상담, 자녀교육, 의사소통 등 해결을 위한 부모 상담 지원 - 다문화학생 특성 고려 전문상담교사 대상 다문화이해연수 실시 ▫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다양하게 추진 ▫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자녀양육 지원, 가족상담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자녀 학부모 대상 학교생활안내, 진로/진학 정보 영상콘텐츠 개발·보급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통해 위기다문화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 -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자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이중언어 교재 보급 확대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기초학습 지원 위해 '대학생 멘토링' 지원(지역아동센터 협업 멘토링 연계), - 지리적 여건 반영 '방문교육서비스 강화' - 언어발달/문해력 향상 지원 위해 교과내용 중 주요개념과 어휘 담은 보조교재 개발/보급 ▫ 언어, 수·과학 등 특화된 분야의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 ※ (글로벌브릿지사업) 잠재능력 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해 4개분야 특별 교육 프로그램 ▫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 참여 활성화 - 이중언어 재능 있는 다문화자녀 참여 기회 확대, KOICA 드림봉사단 선발 시 가산점부여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 진로체험지원센터 중 권역별 다문화청소년 거점센터 지정·운영, 다문화학생 중심 '진로체험처' 지속 발굴·확대 - '무지개 잡아라'(진로교육프로그램), '내일을잡아라'(직업교육프로그램 등 다문화청소년 진로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진로활동실 구축 교육청에 권장) ▫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교육과정(KSL) 개정 따른 교과개발과 교원연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사업 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 포함 운영 ▫ 중도입국자녀 조기적응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 온라인교과과정 개설, 야간 및 주말과정 운영, 레인보우스쿨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 ※ (레인보우스쿨) 한국어,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등 프로그램 제공 ▫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적 상담과 사례관리, 대인관계 향상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통합캠프 운영 ▫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학력증빙 어려운 중도입국청소년 편입학 지원, 학력심의위원회 활성화 ▫ 학교생활 조기적응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 특별학급(한국어KSL과정운영학급) 다수 운영하는 예비학교 지원강화,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사후학교적응 모니터링 실시. ※ (다문화예비학교)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제공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진입과 적응 지원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등 청소년 내일이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세부 과제 내용 참고

[표 3-8] 2021년 부처별 시행계획의 세부과제('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

	과 제 명	소관부처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①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여성가족부
	②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③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
	④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맞춤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①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②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③ 글로벌브릿지 사업 추진	-
	④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국가간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 참여 활성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② 다문화학생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강화	교육부
	③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 인턴 활성화	KOTRA, 외교부
	④ 직업교육훈련기관(다문화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등) 운영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고용노동부
	3-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①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②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③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④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교육부
	⑤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교육부
	⑥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여성가족부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 2022)’ 은 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다문화가족 자녀지원과 관련 있는 정책과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음. 즉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해 (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 과제들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4개의 세부 과제들은 또 19개의 주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표 3-8>)

-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18~'22) 개요 :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3대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다문화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과제) 5대 영역, 70개 세부과제

▌(2020. 6. 발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8)]

○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

- (추진배경) 다문화가족 정착주기 장기화, 초국가적인 이주 증가 등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비중 급증. 이에 이주배경의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격차와 편견 없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 구현의 중요성 대두

○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세부 추진 내용

- [1] 차별과 편견 없는 성장 환경 조성
  - *(일상생활)* 일상적 차별사례 모니터링, 국민참여 인식개선 공모전, 다양한채널(홍보단, 유튜브, SNS 등) 활용 수용성 제고
  - *(교육현장)* 예비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 포함,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등
- [2]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가정·지역사회 역할 강화
  - *가족기능회복* : (관계개선) 결혼이민자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하여 부모상담 실시, 정서적 안정·부모자녀 관계 회복 위한 프로그램 확대, (위기해소) 가정폭력 등 위기징후 조기 발견 및 복지·상담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 확대, 다문화학부모용 학교폭력 안내자료 제작·보급, (역량강화)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강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환경 조성, 다문화 학부모용 진로교육 자료(4개 언어) 보급
  - *지역사회 역할 강화* : (건강증진) 다국어의 심리 사회 적응 척도개발, 이중 언어 가능한 전문 상담 통역자 양성,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연계 지원, (자립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위한 기술교육 대안학교, 진로탐색 및 직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등 후기 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여 보호·지원 강화,

8)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보도자료(2020. 6. 25) 참고 작성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활용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지원

- [3] 촘촘한 자원연계망 통한 정책기반 마련
  - *(협의체 구성)* 지자체 중심의 민·관·학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체계적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시범사업('20년 안산, 화성 2개 지역 → '22년 10개 지역 확대) 추진
  - *(밀집지역 내 교육-행정 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내 교육청-지자체간 협업체계 통해 다문화학생의 교육 역량 제고
  - *(통계구축)* 각 부처에 산재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계 데이터 연계·통합하여 통계체계 마련
- [4]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공교육에 진입 지원* : (정보연계) 외국인 등록 시 자녀 진학여부 확인, 부처간 중도입국자녀 정보 연계로 체계적 정보제공 및 지원, (입학절차 개선) 중도입국 중학생 입학 시 학교장 허가에서 교육장이 학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 개선으로 원활한 진입 지원, (정보제공) 13개 국어로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 발송, 만 6세 자녀 학부모에게 추가 안내 등 공교육 진학 정보 제공
  - *학교에의 적응 지원* : (사전지원) 초·중학교 입학 전 준비교육(징검다리과정) 확대(초등→중학교),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급(326학급→372학급), 한국어 능력 진단-보정시스템(~'20년 초3~6년, 중·고등학교 → '21년 초1~2학년) 적용 확대, (위기예방 및 대응) 학생 정서·행동특성 온라인 검사지 10개 언어 번영으로 정확한 특성 조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 통·번역사, 다문화상담사 등 전문가 참여로 대응 강화
- [5]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완화 및 돌봄 공백 지원
  - *원격수업 지원* : 교과보조교재 전자책보급, 1:1학습지도, 통·번역지원 등 새로운 학습환경에서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 *돌봄지원* :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확대(280개→310개) 및 운영시간 연장, 급식지원 등 돌봄공백 지원
  - *부모역량 강화* : 다문화부모학교(가칭), 자녀학습지도 한국어교실 등 가정 내 원활한 자녀 학습 지원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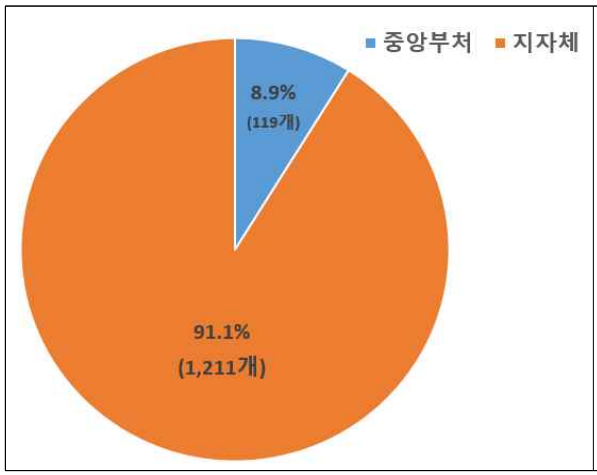
▮ 2021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중앙정부 시행계획[9] 내용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와 제3조의 4 근거,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발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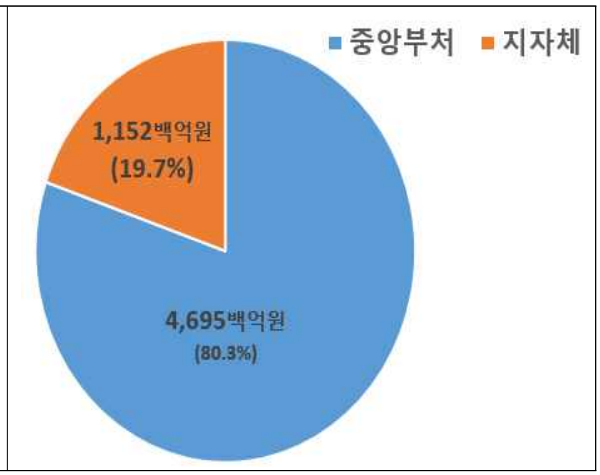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영역은 5대 영역 중 3번째 영역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정지원과 역량강화'에 해당되며, 관련 세부 과제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등 4개로 구성됨
- '21년 시행계획 보면, 추진과제는 중앙부처 119개(전체 과제수의 8.9%), 지자체 1,211개(전

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2021. 5) 자료 참고 작성

체 과제수의 약 91%)로 총 1,330개 추진하고, 예산은 중앙부처 4,695억 원(전체 예산의 80.3%), 지자체 1,152억 원(19.7%)전체 예산의 으로 총 5,847억 원 투입함



[그림 3-3] '21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과제 수 현황



[그림 3-4] '21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예산 현황

- '21년 과제 수 1,330개는 전년대비 123개 증가함. 예산 또한 전년대비 21,776백만원 증가
- '21년 중앙기관 과제 수는 119개로 전년 대비 2개 감소. 감소한 과제는 장기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분야이며 이는 여가부의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실태파악과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가 종료되었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 과제 수는 1,211개로 전년 대비 장기정착,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자녀성장, 다문화수용성 제고 분야에서 125개 과제 증가
  - 지방자치 증가 세부과제별 과제수를 보면 장기정착지원과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는 43개 증가, 사회적 다문화수용성제고 과제 31개 증가,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7개 증가, 다문화정책 추진체계강화 1개 증가

[표 3-9]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앙부처와 지자체 총괄 예산 및 과제(2021년)

세부과제명	소요예산(백만원)		과제수(개)	
	'20년	'21년	'20년	'21년
합계	562,929	584,705	1,207	1,330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363,002	384,160	313	355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54,556	63,360	268	310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102,020 (전 예산의 18.1%)	70,202 (전 예산의 12%)	275	282
4. 상호 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15,649	17,249	251	282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강화	23,420	32,324	89	90
(개책과제) 귀한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지원	4,282	17,410	11	11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표 3-10]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앙부처와 지자체 총괄 예산 및 과제(2021년)

세부과제명	과제현황(개)				예산현황(백만원)			
	중앙		지방자치		중앙		지방자치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합계	121	199▼	1,086	1,211▲	451,804	469,459▲	111,125	115,246▲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5	24▽	288	331△	332,823	353,849	30,179	30,311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23	22▽	245	288△	38,379	47,534	16,177	15,826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26	26	249	256▲	66,565	39,667▼	35,455	30,535▼
4.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27	27	224	255△	6,876	8,246	8,773	9,003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강화	9	9	80	81△	2,879	2,753	20,541	29,571
(개책과제) 귀한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지원	11	11	-	-	4,282	17,410	-	-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21년 중앙기관의 사업 예산은 4,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과제 분야별로는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의 예산(전년 대비 26,898백만원 감소)만 감소하고 그 외 분야별 과제 예산은 증가함. 예산규모는 여성가족부(393,516백만원), 교육부(34,807백만원), 고용부(16,831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은 1,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과제 분야별로는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분야와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전년 대비 4,920백만원 감소) 분야는 감소한 반면 나머지 3개 분야의 예산은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경남(16,601백만원), 강원(14,239백만원), 전북(11,364백만원), 경기(10,849백만원), 전남(9,990백만원) 순으로 나타나, 전북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3위로 높았음. 한편,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한 지역은 세종으로 426백억원이 투입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수 현황을 보면, 전남이 192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으로 충남 113개, 경남 108개, 경기 105개, 충북 86개 순으로 나타남. 한편 가장 적은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은 세종 20개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20년에 이어 '21년에도 52개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21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분야별 세부 사업 수는 중앙행정기관은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7개 증가한 반면, 예산은 전년 대비 중앙행정기관은 26,898백만원(약 40% 감소), 지방자치단체는 4,920백만원(약 14% 감소)이 감소함

[표 3-11] 전국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과제 수와 예산 현황

부처별	소요예산(백만원)		'21년도 예산 순위	과제수(개)		'21년도 과제 수 순위
	'20년	'21년		'20년	'21년	
계	111,125	115,246		1,086	1,211	
서울	6,111	6,036		50	55	
부산	9,036	7,714		75	69	
대구	2,949	3,133		65	59	
인천	6,656	5,333		92	77	
광주	7,022	6,601		49	47	
대전	2,228	3,194		61	64	
울산	1,737	2,459		41	39	
세종	403	426		18	20	
경기	11,475	10,849	4위	95	105	4위
강원	12,455	14,239	2위	44	45	
충북	3,236	3,609		82	86	5위
충남	4,289	4,157		95	113	2위
전북	7,903	**11,364**	3위	52	**52**	
전남	12,443	9,990	5위	84	192	1위
경북	8,763	7,063		38	38	
경남	12,234	16,601	1위	108	108	3위
제주	2,185	2,478		37	42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다문화자녀 규모 확대 및 일반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수립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 주요 과제를 3가지로 살펴봄

○ 첫째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다문화청소년 등 청소년 안전망 확충, 위센터·위클래스 상담교사 대상 다문화학생 상담이해 원격 연수, 자녀발달주기별 부모교육·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자녀 창의·인성 함양 지원 사업을 추진함.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 따른 언어·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과 성장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음

○ 둘째,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이중언어 인재 지속 발굴 및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 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사회공헌 사업 활용,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진로컨설팅, 진로진학 지도 및 결혼이민자 자녀 지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셋째,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여가부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스쿨(25개소)'을 한국어 특화형, 진학준비형, 진로특화형으로 세분화하여 정착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그리고 안정적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 양성·지원 및 심리사회적응척도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진로와 심리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 외 부처별 시행계획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관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과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제공을 위해 진로진학·전문상담교사 대상 맞춤형 원격 연수지원,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다문화학생이 학교 조기적응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해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000여명)' 사업 내실화,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80회)으로 다문화학생 강점과 진로탐색 지원, 온라인 전문상담 및 다국어 진로소식지(4개 언어) 제공, 법무부 정보연계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함.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취업취약계층 대상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으로 다문화 인재의 한국 사회 적응도 제고 및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등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제공을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다문화청소년 및 다문화청년 대상 집단상담·국민내일배움카드제·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있음

○ 부처별 시행계획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 예산과 과제 현황

[표 3-12] '21년 부처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분야 세부과제 예산과 과제 수

부처별	소요예산(백만원)		과제수(개)	
	'20년	'21년	'20년	'21년
여성가족부	18,964	19,077	13	13
교육부	14,650	14,502	9	9
외교부	4,306	4,157	2	2
산업통상자원부(KOTRA)	20	30	1	1
고용노동부	1,900	1,900	1	1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2) 교육부

▌교육부의 주요 정책동향

○ 학교 내에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국내 체류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매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 이제까지는 다문화가정의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중도입국 및 외국가정의 학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신규 대응을 위한 마련도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유아·미등록 아동·중도입국 청소년 등 정책 사각지대에 대비해 안정적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 다문화학생이 가진 다양성과 잠재력 발휘를 위한 미래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모든 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문화적 다양성 이제 제고를 위해 학교 내에서 다문화 친화적 교육 기반 조성을 하고 있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매년 수립·발표

○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교육부 차원에서 발표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이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2021년도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차원에서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각종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09년~)
- 한국어교육과정 도입 및 한국어교육 지원('12년~)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12년~)
- 주요 추진체계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12년~), 지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15년~)
- 학교 급별(초·중·고) 교과 보조교재 개발 및 이중언어교재 개발
- 한국어교재 개발 및 한국어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다문화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 ('08년, '10년) 출입국 및 외국인증명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거주 증명만으로 다문

화청소년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 ('13년) 학교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및 다문화학생 학력 인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설치·운영 시작

○ ('12년부터)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사회적응 제고를 위해 학교 내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예비학교'와 한국어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한국어교육 지원

○ ('14년부터)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제고 및 다양한 문화배경을 이해시키기는 등 다양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 설치 운영 시작

○ ('19년부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개편하여 지역 자율성 강화시킴

-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 초·중등, 한국어학급)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내에서 시·도교육청 자체 배분 방법으로 진행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개요>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친 다문화적 교육 환경 조성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일컬음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

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 시·군에 배치되어 통합적 교육 지향하는 학교
② 다문화교육 특별(한국어) 학급 :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에서 운영
③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④ 징검다리과정학교 : 학교 입학 전 예비학교 성격을 갖고 있음
⑤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발표 내용

○ 현재 교육부차원 다문화교육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격상하고 밀집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고등학교 입학과 편입학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중도입국청소년 및 외국인학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

어교육과정에 맞춘 진단과 보정시스템을 전 학년으로 적용할 예정임. 그리고 조기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실과 징검다리 과정 등 적응과정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교원 연수 과정을 신규 개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학생이 원격으로 한국어수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영상콘텐츠 제작·보급 및 원격수업 플랫폼에 탑재하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대학생 다문화 멘토링 운영방식 개선과 보조교재 기반 핵심개념 중심의 영상콘텐츠를 제작·보급 하고자 함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1) 다문화학생 교육기회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2)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이란 정책목표 아래 4개의 추진과제(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학교적응 및 안정적 성장지원,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 조성,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와 10개의 추진과제 및 22개 사업으로 구성됨

비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목표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추진과제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1]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 [2]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2.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1]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2] 학교 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1]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2]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3]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4.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1] 다문화교육 법·제도 개선 [2]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교육 지원 [3] 중앙-지역 및 부처간 협력 강화

[그림 3-5]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비전·목표·추진과제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구체적인 내용

○ [추진과제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함은 학습권과 다양한 기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대상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진입부터 학교교육 준비 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과제임. 세부 추진과제는 (1)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과 (2)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로 구성됨

○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해서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 지원 사업을 추진함

-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입학·편입학, 정책학교, 학적 생성 등 공교육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다문화학생 '중학교 진입'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있음. 그리고 다국어 학력심의 진단 도구를 보급하고 학력심의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육권 관련 법령상 근거와 공교육 진입 절차를 담은 안내 자료를 지속 개정·배포하고 있음

- 유관기관 협업 통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법무부 정보연계(연 2회)로 중도입국·난민자녀 대상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13개 국어) 및 클립형 영상 배포, 초등 입학예정 대상 만 6세 자녀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입학안내로 적기 입학 도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 등록 시 취학여부 파악 후 공교육 진입 지원,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방문이 잦은 유관기관 등에 공교육 진입 안내 자료 배포 등 실시

○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 단계부터 지원체계 마련과 초·중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을 안착시키는 사업을 추진함

-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되는 지원체계 마련 : 다문화유아 대상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기본통계 통해 '다문화유아'에 대한 기초조사 현황파악에서부터 중도입국·외국이 등 다문화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을 위해 교사 대상 도움자료 개발·보급, 개정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KSL) 연계한 한국어 진단도구 배포 및 유아교육·아동학과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멘토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학생 멘토링 활동 확대를 실시함

- **초·중학교 적응**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안착 : 초등학교 입학·편입학 예정 다문화자녀 대상 학교생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학습자특성을 반영한 준비교육(생활영역·학습영역 구성) 운영, 그리고 중학교 입학·편입학 예정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학교급 전환기·학습자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의사소통, 학교생활 구성)을 모국어·한국어 능력 고려하여 담임교사와 다문화 언어강사가 함께 지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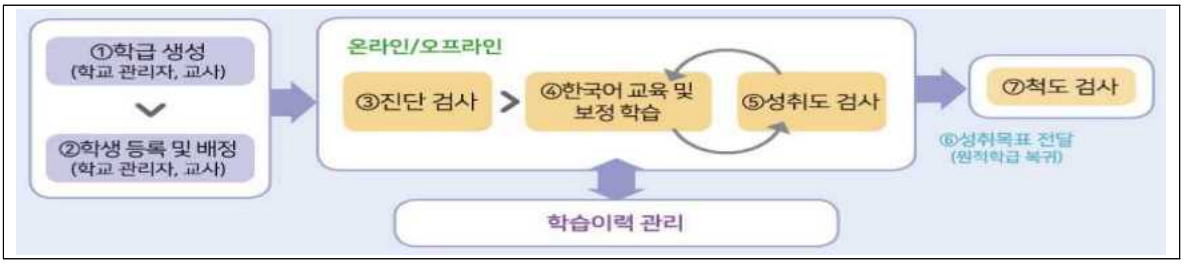
○ [추진과제 2]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대상 한국어와 기초학력 지원을 통해 다문화자녀의 적응을 지원하고 이주배경 특성을 강점으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한 과제임. 세부 추진 과제로는 (1)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2) 학교 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으로 구성됨

○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을 위해 '입국초기 한국어교육 강화'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하고 있음

-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강화 : 한국에 입국한 초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의 자녀(유아 포함)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는 '특별 학급' 운영 지원, 한국어학급 미운영 학교에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편입학 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인근 학교의 한국어학습 또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강사나 한국어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위해 원격 콘텐츠 및 학습 자료 제작·보급하고, 읽기와 말하기 등 한국어 보정을 위한 영상콘텐츠, 일상 어휘 학습을 위한 영상콘텐츠 등 개발, 그리고 다문화학생 원격 수업 콘텐츠 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기반으로 한 원격수업 영상콘텐츠 제작 확대,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어능력 진단·보정·관리까지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 적용 확대, 한국어 진단-보정시스템 연계 온라인 기반 상호작용의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협력 한국어교육 관련 교원 연수·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음



자료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2021. 2)

[그림 3-6] 한국어능력 진단 및 보정시스템 체계도

○ (학교 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 다문화학생과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학교 적응 및 인재양성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대학생 멘토링, 영상콘텐츠 제작)과 이중언어 감접 개발 지원 및 진로지도와 정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초학력 향상 지원 : 다문화학생 1:1 **'대학생 멘토링 지원'**으로 숙제지도, 교과목 학습, 고민상담 등을 체계적 및 개별적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다문화학생 멘토로 대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청과 주관대학 및 장학재단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3-13] 2021년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1:1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개요(안)

지원규모	4,000여명 예정
멘티 기관	초·중등학교, 국공립유치원 등
멘토	지도교육 추천 받은 참여 대학 대학생
멘토·멘티 매칭	·교육비/교육급여 수급자, 학습지원 학생 운선 매칭, 멘토링 사전 수요조사 도입으로 매칭률 제고, 지역별 주관대학 지정 통한 기관간 소통 강화
기타사항	멘토 - 다문화이해교육 원격 연수 필수 이수로 사전 교육 입국초기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위해 외국어능력 갖춘 대학생 멘토 선발로 모국어 멘토링 실시

자료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20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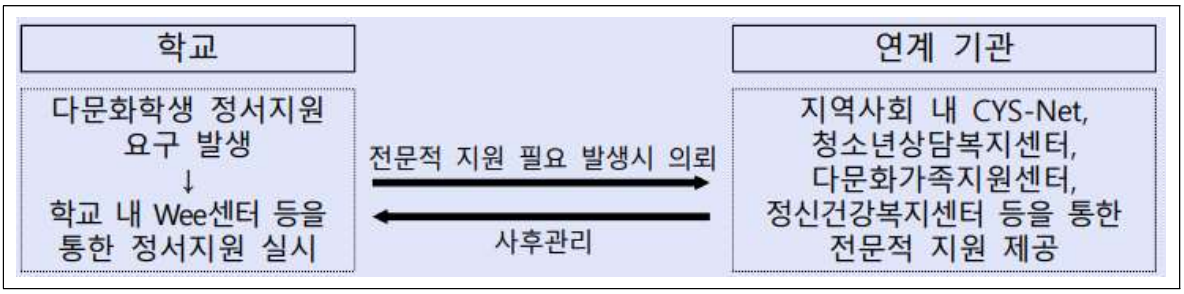
- 또한 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어휘 등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초등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및 중등 수학, 과학, 국어, 사회 등)와 연계한 영상콘텐츠 제작 및 주요 개념어를 한국어

및 5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함께 제시하고 보조교재의 QR코드로 영상 콘텐츠 연결하도록 하여 학습 효과 제고

-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이중언어 장려를 위해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 보급 및 활용, 이중언어학습 장려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민·관·학 협업의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개최, 이중언어능력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LG 다문화학교 언어과정(2년간 주1회, 1:1 언어교육 및 우수학생 몰입 교육 등 실시) 연계 실시

- 진로지도 및 정서지원 : 진로지도의 경우는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귀화인재 등 롤 모델 참여하는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운영, 다문화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위해 학교급별 '드림레터' 4개 국어(중/베/영/러)로 보급(연 6회) 실시함

- 정서지원의 경우는 한국어 버전(10개 언어)의 정서·행동 특성 검사지 제공으로 다문화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연사회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내 정서지원이 필요한 다문화학생 전문적 지원 강화



자료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2021. 2)

[그림 3-7] 다문화학생 정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체계

- 학교폭력 예방 및 후속 지원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어울림·사이버 어울림) 개발 시 다문화관련 내용 반영,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각종 안내 자료 다국어로 번역·보급

○ [추진과제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은 학교 교사와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역량 제고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학교 현장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과제임. 세부 추진 과제로는 (1) 전체 학교로 다문화교육 확대, (2) 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제고, (3)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 (전체 학교 대상의 다문화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다문화교육 실시와 다문화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학교의 다문화교육활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함

○ (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추진, 예비교원의 다문화 역량 함양, 그리고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통번역, 전문상담 등 통합 지원 실시, 마지막으로 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인 밀집지역 학교를 정책학교로 지정하여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체계 모델 발굴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학교의 교육능력 제고 지원

○ 마지막 [추진과제 4]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는 학교급별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진과제임. 이를 위해 (1) 다문화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과 (2)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교육 지원 및 (3) 중앙·지역 및 부처간 협력 강화 등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 추진함

○ (다문화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다문화학생 비중 증가 및 밀집학교 발생 등에 따른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생활적응, 그리고 다문화학생 맞춤 교육 환경 조성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검토. 구체적으로 다문화학생의 범위, 학교장의 지원 의무, 특별학급 지원근거, 밀집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국가·지역 지원센터 등

○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검토를 통해 미등록 다문화자녀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진입 제고 및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진입 절차 개선 검토 시행

○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보급·지원시스템 확대를 실시하고 '다문화학생 원격수업 콘텐츠 지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어교육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 및 e학습터 등 원격수업 플랫폼 탑재하여 보급하고자 함. 그리고 정책학교와 지역센터를 통해 '한국어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 지원하고 읽기·말하기 보정을 위한 각종 영상자료를 제작·보급함

○ 또한, 다문화학생 특성 고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특히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자녀·다문화학생 대상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17개 시·도) 중심으로 통·번역체계 구축하여 통번역 지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한국어학급 포함) 중심 원격 수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공유와 더불어 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주요 안내사항 등을 다국어자료로 지속 제작·배포 실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역 및 부처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중앙차원에서는 지역별 추천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활동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구

성하여 인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내 선도인력으로 시·도교육청별 '지역 다문화교육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연수·자료개발·컨설팅 등 활동을 실행함

○ 다음으로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다문화교육 모델 구축 등을 위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사업을 운영 추진함. 그리고 중앙차원의 부처간 합동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총체적으로 지원 제공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 등)를 통해 부처간 협력 및 국정과제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의 사업계획 수립·이행하고 있음

[표 3-14] 부처별 주요 협업 현황

법무부	중도입국·난민자녀 취학현황 파악 등을 위한 정보연계, 체류자격 및 외국인 인권 관련 협업
여성가족부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레인보우스쿨 등 사업간 연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활용, 교원연수 및 교재개발 등 한국어교육 관련 협업

자료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2021. 2)

[표 3-15] 2021년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주요 추진과제 목록

구분	과제명	세부사업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1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제도 안착	·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통해 입학·편입학 지원, 중학교 진입 모니터링, 학력심의 지원, 공교육 진입 절차 안내자료 배포
	· 유관기관 협업 통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취학절차 안내, 외국인취학정보 확인 , 잦은 유관기관 학부모 안내
2 학교교육 준비도 격차 해소	· 유치원부터 지원체계 마련	▫ 기본현황 파악, 유치원 도움자료 개발 보급, 한국어 진단도구 개발
	· 징검다리과정 운영 안착	▫ 초등/중등 입학·편입학 예정 준비교육 및 입학·편입학 예정 교육
2.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		
1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입국 초기 한국어 교육 지원	▫ 한국어집중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5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한국어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한국어보정 영상콘텐츠 개발,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 적용 확대, 교원 연수와 워크샵 실시
2 학교적응 및 인재양성 지원	· 기초학력 향상 지원	▫ 대학생 멘토링 확대 지원(체계적/개별적 학습 지원), 어려운 교과 주요개념과 어휘 등에 대한 보조교재 영상제작으로 학습지원
	·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 이중언어 학습 장려 위한 전자책 보급,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등
	· 진로지도 및 정서 지원	▫ 이주배경 특성 고려한 진로교육프로그램 보급, 귀화인재 롤모델 참여하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자녀진로 지도를 위한 다문화학부모용 '드림레터' 보급, 다국어 버전의 정서·행동특성검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다문화 내용 반영 등
3.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1 전체 학교의 다문화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다문화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교과/비교과 활동 실시 권고
	· 다문화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 시 한국어학급 운영, 등

2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제고	· 현직 교원에 대한 다문화 역량 강화	▫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위해 원격연수 실시,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 워크숍 지속 추진
	· 예비교원의 다문화 역량 함양	▫ 예비교원 대상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편성 운영
3 가정·지역사회와 연계	· 학부모 다문화 관련 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정책학교 중심의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여건 맞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통번역, 전문상담 등 지원, 밀집지역 학교 대상 정책학교 지정, 다문화학생 통합지원체계 모델 발굴, 지자체 협력 지역 내 학교 교육력 제고, 포럼, 성과공유회 개최 등

4.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내실화

1 다문화교육 법·제도 개선	· 다문화교육 법적 기반 조성	▫ 초·중등교육법 개정(범위, 지원의무, 특별학급 지원근거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검토 등
	·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절차 개선	▫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작 보급 및 지원시스템 확대, e학습터에 원격수업 플랫폼 탑재 등, 어려워하는 핵심어휘에 대한 교과보조교재 지속 보급 등
2 코로나19 대응 다문화교육 지원	· 온라인 기반 다문화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 특성 고려 학교 현장 지원	▫ 집중적 한국어 교육 1:1 또는 소그룹 맞춤형 지도,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중심 통번역체계 구축, 주요 안내자료 다국어로 제작 배포 등
3 중앙-지역 및 부처간 협력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단 통한 선도모델 교류 및 협력 강화	▫ 중앙차원의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구성, 시도교육청별 지역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 운영
	· 다문화교육센터 통한 긴밀한 추진체계 구축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 운영 통해 효과적 정책추진 및 성과 확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 특화사업 운영 등
	· 중앙차원의 부처간 협업 증진	▫ 법부처 합동 정책방향 설정 및 총체적 지원 제공 등

자료 :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2021. 2)

2. 전북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가. 관련 조례

1) 전라북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조항

○ 200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광역 시장과 도지사)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각 분야에서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제도·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도 및 시·군·구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담당 전문기관과 행정 공무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근거로 '16년 8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일부 내용을 여러 차례 지속 개정하고 있음

○ 전북도가 제정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중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자녀 지원 관련 내용을 보면, 제5조(지원계획수립) 2항에서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립·수행해야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이 제시되어 있음. 또한 제7조(지원범위)에서 외국인주민의 자녀 대상 보육과 교육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7조(지원내용)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 :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위한 교육과 홍보

–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사업, 가정폭력예방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등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 2016. 08.12)(일부개정 2018.06.29.)(일부개정 2020. 08. 14)(시행 2020. 8.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외국인주민"이란 전라북도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
2.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제6조(지원의 대상)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단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

제5조(지원계획수립)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 비전 제시,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관련 사항**(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인권보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다문화이해증진 교육·홍보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3.>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8.14.>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예술·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 타 시·도의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조례 내용(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중심)

○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2008년 11월 제정 이후 일부 내용을 지속 개정하면서 2016년 12월에 제5조(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 2항의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교육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신설함. 또한 2019년 1월에는 제18조의 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취학전 방문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학교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적응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다문화자녀의 성장발달단계별·유형별로 세부화 시켜 신설 조항으로 구성하여 명시함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내용을 지속 개정하면서 최근

에는 전남도의 경우는 2021년 4월, 경상남도는 2020년 5월에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밀화하여 별도의 신규 조항 묶어 개정함

-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조항을 살펴보면 취학전 학습지원, 가정학습 환경 조성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사항포함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시행
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
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지원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1.14.]
4.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19.1.14.]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아동의 보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1. 취학 전 학습 지원 (신설 2021. 4. 8.) 2. 가정학습 환경 조성 지원 (신설 2021. 4. 8.)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신설 2021. 4.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신설 2021. 4. 8.)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아동의 보육)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의2(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학 전 학습 지원 2.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newlaib/main.jsp) 관련 내용 검색('21. 10. 20. 기준)

2) 전북 14개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조항 내용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14개 시군 모두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함. 관련 조례 제정은 2007년 7월 정읍, 2007년 9월 부안이 가장 빠르게 조례를 제정함

○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김제, 부안은 다문화가족 이외 외국인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반면, 그 이외 11개 지역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거주외국인(외국인이주민) 지원 조례를 각각 별개로 제정함

-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거주외국인(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별개로 제정한 11개 지역 중 임실군만이 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 협조체계 구축 등), 외국인주민가정의 자녀 대상 보육과 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명시함

○ 한편, 전북 14개 시·군 중 순창군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이외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수반하여 지속 지원하고 있음

[표 3-16] 전북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	조례 조항 내용
전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2. 12. 27	지원계획(자녀의 양육/교육지원), 지원범위(자녀 보육/교육/한국어교육지원), 협의회설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참여, 시책사업(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통계/실태조사 등 현황조사), 외국인주민센터 등 운영, 지원단체 지원
군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3. 7. 26	지원사업(아동보육 및 교육지원사업),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다가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8. 3. 31	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 협조체계구축 등), 외국인주민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협의회설치, 외국인주민 정치참여,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익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0. 11. 30	지원사업(자녀 보육/교육/한국어교육 등 언어와 학습능력 제고 지원), 협의회설치, 다가센터운영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08. 4. 30.	지원범위(한국어/생활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지원) 자문위원회설치,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정읍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09. 7.24	지원사업(자녀 보육/교육지원), 위원회 설치, 다가센터 운영, 예산지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07. 12. 7	지원범위(한국어/생활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지원) 자문위원회설치,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남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5. 11. 11.	지원사업(자녀의 보육교육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적응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지원, 협의회 설치, 다가센터운영, 예산지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8. 10. 10.	지원범위, 시책위원회설치,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김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14.12. 3.	지원계획수립, 지원범위(자녀의보육교육 지원, 한국어지원 등), 협의회설치, 정책참여, 실태조사, 센터운영 등

완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15. 9.24	지원계획수립(자녀 양육/교육/한국어지원), 협의회 설치, 다가센터 운영, 예산지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07. 3. 7	지원범위(한국어/생활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지원) 자문위원회설치,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진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1. 4. 6	지원사업(자녀 보육/교육/심리·정서 지원사업), 정책위원회 운영, 다가센터 운영, 예산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7. 10. 10	지원범위(한국어/생활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지원) 자문위원회설치,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무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2.7.16.	지원사업(자녀의 보육·교육, 학습, 학교생활적응 지원, 한국어지원, 협의회설치, 다가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행정적 지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10. 4. 26	지원범위(한국어, 문화/체육행사 등), 위원회 설치,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장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3. 7. 12	지원사업(자녀의 보육/교육/한국어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다가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10. 9. 6	지원범위(한국어/생활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지원) 자문위원회설치,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임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5. 9. 30	지원사업(자녀의 보육/교육/한국어교육 지원), 협의회설치, 다가센터운영, 민간단체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07. 6. 5	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 협조체제 구축 등), 지원범위(외국인주민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협의회설치, 자문회의설치(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순창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1. 12. 1	지원사업(자녀의 보육·교육지원), 민간단체 지원, 다가센터 운영, 협의체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시행규칙	14. 4. 10	모국방문비용, 국제우편요금,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관련 내용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08. 11. 25**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학습활동 지원(학습하고 있는 학습시설에 지급)**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07. 4. 9	지원범위(한국어/생활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지원) 자문위원회설치, 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고창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1. 11. 14	지원사업(자녀보육·교육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운영회와 다가센터 지정 등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10. 11. 01	자문위원회 설치, 외국인지원단체 지원, 세계인의 날
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07 .9 .27.	지원계획수립, 지원범위(자녀의 보육·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협의회설치, 통계/실태 등 현황조사, 외국인주민센터 지정 운영,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제정적 지원, 세계인의 날,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newlaib/main.jsp) 관련 내용 검색('21. 10. 20. 기준)

나.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1) 2021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료 분석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과 과제 수 현황 분석

○ 2021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총 예산 규모는 11,364.2백만 원이며, 20년도에 이어 21년도에도 총 52개의 사업을 수행함

- 전북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 16,601백만 원, 강원 14,239백만 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를 정책과제 5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관련 사업'은 전년 대비 48백만 원이 증가한 1,980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 중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사업'은 전년 대비 33백만 원이 증가한 1,927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약 80%(1,634.5백만 원) 증가한 3,669.5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3%를 차지하며, '21년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 예산 또한 전년 대비 93.7백만 원이 증가한 784.7백만 원(전체 예산 규모의 6.9%)이며,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사업'도 전년 대비 1,748백만 원(전년 대비 139% 증가)이 증가한 3,003백만 원(26.4%)으로 나타남

- 전북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예산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분야는 '20년과 '21년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으로 각각 25.7%, 32.3%로 나타남

[표 3-17] '21년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예산과 과제 수 현황

부처별	소요예산(백만원)		과제 수(개)	
	'20년	'21년	'20년	'21년
합 계	7,903	11,364.2(100.0%)	52	52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2,028(25.7%)	1,980(17.4%)	11	11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1,894(23.9%)	1,927(17.0%)	14	12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2,035(25.7%)	3,669.5(32.3%)	15	13
4.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691(8.7%)	784.7(6.9%)	7	7
5.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1,255(15.9%)	3,003(26.4%)	5	9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 과제 수를 정책과제 5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과제가 52개 중 1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사업'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의 제고 사업'의 과제 수는 전년과 동일한 각각 11개와 7개인 반면,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추진과제 수는 전년 대비 각각 2개씩이 감소한 12개와 13개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사업'의 추진 과제 수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4개가 증가한 총 9개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현황 분석

○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18년부터 최근 4년간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규모·과제 수 및 '다문화자녀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규모·과제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지자체 전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총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총 과제수는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1년 지자체 전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총 예산규모는 '18년 72.192백만 원에서 43,054백만 원이 증가한 115,246백만 원이었고, 총 과제 수 또한 '18년 867개서 344개가 증가한 1,211개로 나타남. 지자체 전체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21년도 예산규모도 '18년 19,087백만 원에서 11,448백만 원 증가한 30,535백만 원이며, 과제 수도 '18년 대비 65개가 증가한 256개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총 과제 수는 '19년 주춤하면서 '20년과 '21년 52개로 동일하였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 강화 사업' 예산규모는 '18년 1,304백만 원에서 '19년 228백만 원 감소하였다가 '20년과 '21년 매년 증가함. 관련 과제 수는 '18년 12개에서 '20년까지 15개로 증가하였다가 '21년 전년 대비 2개가 감소한 13개로 나타남

[표 3-18] 연도별 지자체와 전북의 예산규모 및 과제 수

구분	지자체 전체				전북			
	전체		다문화자녀 관련		전체		다문화자녀 관련	
	예산(백만원)	과제수(개)	예산(백만원)	과제수(개)	예산(백반원)	과제수(개)	예산(백만원)	과제수(개)
2018년	72,192	867	19,087	191	6,273.2	51	1,304	12
2019년	79,591	1,087	22,617	266	6,432	50	1,076	14
2020년	111,125	1,086	35,455	249	7,903	52	2,035	15
2021년	115,246	1,211	30,535	256	11,364	52	3,669.5	13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분야'의 예산규모를 보면, 경기가 6,05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3,669.5백만원), 경남(2,848백만원), 인천(2,773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한편 세종(145백만원), 충북(166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분야' 비율을 보면, 대전이 6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55.8%, 울산 54.9%, 인천 52.0% 순으로 나타남. 한편, 광주가 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전북은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은 3,669.5백만원(전국 2위)으로 경기 다음으로 높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예산 비율은 32.3%(전국 5위)로 나타남

[표 3-19]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분야' 예산규모와 과제수 (2020-2021)

부처별	소요예산(백만원)				과제수(개)		
	'20년	'21년			'20년	'21년	
	다문화가족 자녀 분야		전체	비율	다문화가족 자녀 분야		전체
중앙 + 지자체	102,020 (18.0%)	70,202	584,705	12.0	275 (22.8%)	282 (21.2%)	1,330
서울	1,644	1,549	6,036	25.7	11	13	55
부산	6,160	2,303.6	7,914.4	29.1	20	20	69
대구	831	1,201	3,133.2	38.3	12	12	59
인천	4,210	2,773	5,333	52.0	20	15	77
광주	351	257.8	6,600.6	3.9	10	6	47
대전	1,005	2,053	3,194	64.3	9	11	64
울산	733	1,350	2,459	54.9	7	7	39
세종	127	145	426	34.0	6	7	20
경기	6,294	6,059	10,849	55.8	38	38	105
강원	1,906	2,037	14,239	14.3	11	12	45
충북	231	166	3,608	4.6	19	17	86
충남	182	429.7	4,156.5	10.3	22	26	113
전북	2,035	3,669.5	11,364.2	32.3	15	13	52
전남	3,991	926	9,990	9.3	16	30	192
경북	2,268	2,257	7,063	32.0	7	7	38
경남	2,913	2,848	16,601	17.2	20	18	108
제주	574	510	2,478	20.6	6	6	42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을 4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4개의 세부과제를 모두 계획·수행하는 지역은 '21년 기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5개 지역으로 나타남. 그 외 지역은 '환경조성' 및 '역량강화' 세부과제를 주력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세부과제와 '중도입국자녀 대상 사업' 세부과제를 모두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두 개의 세부과제 중 어느 한 개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시도별 '다문화가족자녀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의 세부과제별 예산과 과제 수 (2020-2021)

구분	2020년					2021				
	환경조성	역량강화	진로준비 사회진출	중도입국 자녀	전체	환경조성	역량강화	진로준비 사회진출	중도입국 자녀	전체
서울	251 (5)	891 (5)	100 (1)	402 (1)	1,644 (12)	210 (5)	1,009 (6)	80 (1)	250 (1)	1,549 (13)
부산	1,057.4 (8)	1,069.6 (7)	210 (2)	130 (3)	2,467 (20)					
대구	498 (6)	292.8 (5)	-	40 (1)	830.8 (12)	721 (5)	462 (6)	-	18(1)	1,201 (12)
인천	1,770.6 (9)	490 (5)	57 (1)	1,892 (4)	4,209.6 (19)	529 (6)	555 (5)	55 (1)	1,634 (3)	2,773 (15)
광주	11.5 (2)	146 (3)	142 (3)	51.5 (2)	351 (10)	7.8 (1)	166 (3)	-	84 (2)	257.8 (6)
대전	7 (3)	998 (6)	-	-	1,005 (9)	29 (3)	2,017 (7)	7 (1)	-	2,053 (11)
울산	410 (3)	323 (4)	-	-	733 (7)	919 (3)	431 (4)	-	-	1,350 (7)
세종	13 (2)	58.8 (3)	-	55 (1)	126.8 (6)	15 (2)	93 (4)	-	37 (1)	145 (7)
경기	3,249 (15)	1,709 (18)	-	1,336 (5)	6,294 (38)	3,070 (14)	1,673 (17)	-	1,316 (5)	6,059 (36)
강원	35 (3)	1,871 (8)	-	-	1,906 (11)	35 (3)	2,002 (9)	-	-	2,037 (12)
충북	140 (10)	70.9 (6)	20.5 (3)	-	231.4 (19)	41 (4)	69 (6)	52 (6)	4 (1)	166 (17)
충남	105 (10)	324.5 (12)	12 (3)	22 (2)	46.5 (27)	98.0 (9)	303.3 (12)	9.,5 (3)	18 (2)	429.7 (26)
전북	1,170.5 (7)	764 (7)	100 (1)	-	2,034.5 (15)	2,234 (5)	1,345.5 (7)	90 (1)	-	3,669.5 (13)
전남	3,348.28 (7)	387 (7)	36 (1)	220 (1)	3,991.28 (16)	300 (22)	626 (8)	-	-	926 (30)
경북	70 (1)	2,178 (5)	-	20 (1)	2,268 (7)	70 (1)	2,179 (5)	-	8 (1)	2,257 (7)
경남	738 (12)	2,148 (5)	25 (2)	2 (1)	2,913 (20)	1,873 (8)	858 (5)	35 (4)	82 (1)	2,848 (18)
제주	276 (2)	278 (3)	-	20 (1)	574 (6)	291 (2)	219 (3)	-	- (1)	510 (6)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전라북도의 경우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사업'은 예산투입과 과제가 계획·수립·시행되지 않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분야' 4개 세부과제 중 대부분의 예산과 과제는 '환경조성'과 '역량강화'에 투입·실행되고 있었음

○ 한편, '20년 대비 '2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분야'의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이는 '환경조성'과 '역량강화' 세부과제 실행에 증가 투입된 반면,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관련 세부과제는 오히려 전년 대비 10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문화정책 전체 예산 대비 예산 비율 또한 17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평균 비율 보다 높은 상황임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와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역량강화' 세부 추진 과제 약 19개의 사업 중 단 13개 사업만을 추진 중이며 이 중 3개 사업(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양성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예산을 매칭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나타남

○ 다문화자녀의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 사업은 도비와 시·군 매칭으로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직업유형 사전검사·유형별 진로설계·진로직업체험캠프·진로직업현장체험활동·관련 자료집 제작·배부 등의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 그 외 중도입국자녀 개별 맞춤형 지원은 별도의 사업 발굴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일부분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

2) 전라북도 사업 현황 분석

▮ 2021년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 대상 전북 도비 정책과 사업 예산 현황

○ '21년 전라북도는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전체 다문화가족정책 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4개 영역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중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총 3,669.5백만원의 예산규모에 13개의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음

○ 첫 번째 세부과제 영역인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예산은 2,234백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3개 영역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고, 세부 사업 수는 5개였음. 즉 순창군의 인성·정체성교육 및 스피치아카데미운영 사업, 진안·익산의 심리·정서지원사업, 진안의 엄마나라문화 바로알기 지원 사업, 김제시의 다문화엄마학교사업,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매칭의 다문화가족방문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음

○ 두 번째 세부과제 영역인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예산은 1,345.5백만원으로 총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고창의 이중언어발표회, 순창의 자녀학습활동지원과 희망찾기 지원사업, 남원의 배움지원사업 이외 여가부 매칭의 언어발달지도, '20년

에는 코로나19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다문화청소년 글로벌 연수 사업을 추진함

○ 마지막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영역에서는 도비 지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직업유형사전검사, 유형별 진로설계, 진로·직업체험캠프, 진로·직업현장체험, 활동관련 자료집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전북 지방비 중심의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내용(2021)

구분	대상	예산	사업내용
3-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순창군) 다문화자녀 인성·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	초·중·고 자녀 약 30만원	순창군비 15,000천원	스미피교육, 마술스피치교육, 인성캠프, 스피치 대회 5개반, 12회기, 65명
(진안·익산) 다문화자녀 심리·정서지원 사업	미취학 자녀 초등학생		사전검사 통한 심리상태 진단, 개인별 맞춤놀이·미술치료 부모상담 및 교육 등 진안군 27명, 익산시 10명
(진안) 엄마나라 문화 바로알기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진안군비 30백만원	문화이해교육, 엄마나라 현지 학교탐방, 기관방문 체험활동 등 초·중·고 자녀 14명
(김제)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초등고학년둔 결혼이민자	김제시비 27백만원	초등 고학년 둔 학부모(결혼이민자) 초등교과 과정 지도 참여인원 24명, 초등교과 7개 온라인방식 교육, 엄마의 가정학습지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여가부 매칭사업 2,086백만원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 양육정보제공,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학습/정서지도 방문교육지도사 119명, 지원 실적 798명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고창) 이중언어 발표회	다문화가족 12팀	군비 1.2백만원	다양한 장르의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발표회 1회
(순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초·중·고 자녀	군비 100백만원	보습, 영어전문, 예체능 중 1인당 2과목 학습지 지원 (군 60%, 학습시설 10%, 자부담 30%), 학습비 지원 958명 월 110명 지원
다문화가정 희망찾기 지원사업	초등 1년-6년	군비 15백만원	(복흥다문화의집) 창의인성 우리놀이, 몸과 마음 토닥토닥, 생활요리만들기 등
(남원)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 사업	미취학 및 초등 1-2학년 자녀	남원시비 27백만원	▫ 교육지원서비스 : 만 5-8세 자녀 60여명, 학습지 통한 독서지도와 동화구연교육 ▫ 심리·정서지원서비스 : 약 10여명 자녀, 심리치료 5-6개월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도	만 12세 이하 자녀	여가부 매칭사업 811백만원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 언어발달정도 평가 및 교육, 언어발달체크 및 상담, 발음진단, 어휘/구문발달 촉진, 대화/의사소통/사회성 증진 언어교육 언어발달지도사 23명
다문화청소년 글로벌연수	20여명	도비	부모나라 학생교육 및 언어·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취소
3.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다문화청소년 100여명	도비 90백만원	직업유형사전검사, 유형별 진로설계, 진로·직업체험캠프, 진로·직업현장체험, 활동관련 자료집제작, 351명 실시,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지원과(2021.5):

○ 전북 14개 시·군 중 특히 순창군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었음. 여성가족부와의 매칭 사업 이외 순창군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학부모 대상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다문화자녀 진로 지원사업(기초학력향상 '꿈을 향해 쑥쑥', 진로진학 1:1컨설팅, 2021.6 ~ 12, 20,000,000원), 20년도에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외부지원을 통해 다양한 차, 나의 문 - 진로교육 및 체험 사업(2020.1-12, 4,000,000원)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외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 활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문화가족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음. 지원 내용을 보면 보습, 영어전문, 그리고 예체능 중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2개 과목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순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22]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환경사업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구분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지원대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임신중-생후12개월 -12개월-48개월 -48개월-만12세이하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만3세~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어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 중 1개의 서비스만 제공 가능.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교육내용	자녀양육지원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한국어교육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독서코칭, 학습지도, 기본생활습관 등 정서지원
운영시간	주 2회, 40회기, 회당 2시간	주 2회 80회기, 회당 2시간	
신청방법	센터 전화 및 내방 신청		

자료 : 2021년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용 참고

<언어발달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언어발달지도사 파견)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다문화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서비스 및 부모 상담과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제공
지원내용	다문화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교육과 부모상담
이용방법	신청-초기면담-초기평가-서비스대상 서정-언어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이중언어코치 파견)	영유아자녀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미취학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다문화자녀가 가정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녀의 정체성 확립 지원
지원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
이용방법	신청-초기면담-사전검사-프로그램참여-개별상담 및 코칭-사후검사

자료 : 2021년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용 참고

○ 전주시에서는 도비 지원 매칭의 만 12세 ~14세 청소년을 대상 총 10회기(매월 2, 4째 주 토요일, 약 4시간 동안)의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성

교육, 대학학과체험, 제빵체험, 로봇공학, 경찰체험,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해 진로교육과 직업 체험 경험을 갖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었음. 그 외 전주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약 30명) 여름방학 동안 즐길 수 있는 간편 식품 꾸러미(밥친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즉 중도입국청소년 회원 20명과 신규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의 중도입국 청소년 발굴의 기대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자녀학습지도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 등을 안내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제한점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제한점으로 첫째, 전라북도에서 2016년 8월에 제정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을 지속 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개정된 조례 조항처럼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 지원 조항)이 별도로 세분화되어 개정되어 있지 않음

- 전라북도 조례는 제5조 2항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립·수행 내용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관련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 언급하고 있을 뿐 경기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처럼 조례의 별도 조항으로 구성하여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 내용(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학과 외 및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아동·청소년 사회적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을 언급한 조항 내용은 부재함

○ 둘째,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시행계획 자료를 근거로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책의 제한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5개 다문화가족정책 영역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 영역의 예산 비율이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대비 학령기 다문화자녀 대상의 사업과 예산 비율을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특히 초등학생 다문화자녀가 향후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진학하기에 중·고등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의 고민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전북지역 학령기 다문화자녀 또한 국내 출생한 다문화자녀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었으나 최근 들어 초·중·고 학생 대상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방향과 사업도 중도입국 자녀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관련 사업 발굴과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자녀 대상의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사업(언어발달서비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은 진로·직업 체험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인 경우와 프로그램 내용이 진로검사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 학교 급별(초, 중, 고)과 성별 및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자녀 대상별 특성과 성장단계의 이슈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반영한 관련 지원서비스 발굴이 필요함.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란 단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부(父)와 학령기 자녀, 모(母)와 학령기자녀,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세대와 가족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가족구성원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 및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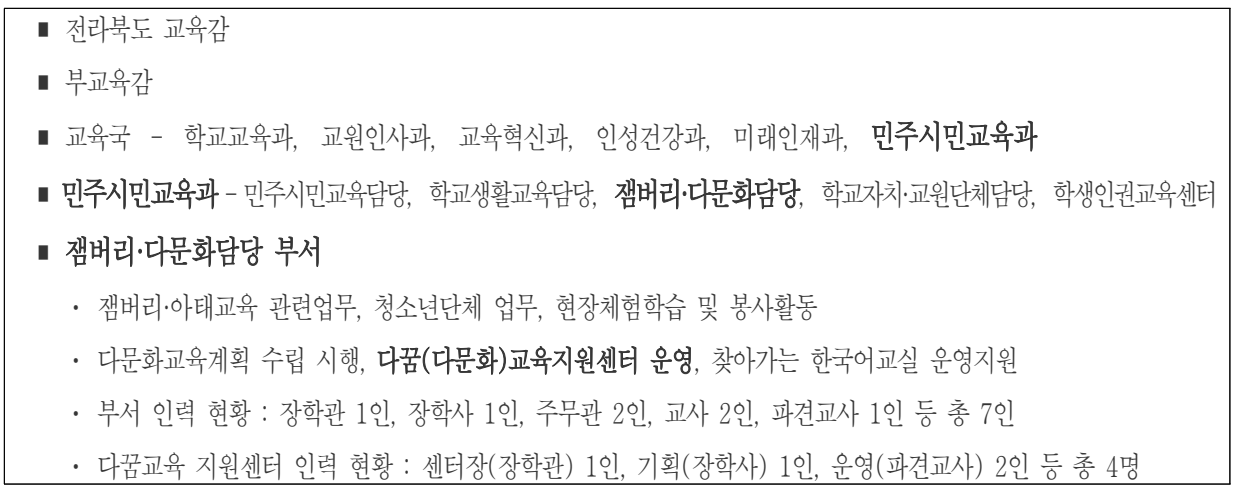
3) 전라북도 교육청 운영 사업현황 및 분석

▌전북교육청 다문화학생 및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담당 부서(조직도)

○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다문화학생 및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잼버리·다문화' 담당부서임

○ 민주시민교육과의 잼버리·다문화담당 부서는 장학관, 장학사 각 1인, 주무관과 교사 2인, 그리고 파견교사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 관련 사업 전반을 주관하면서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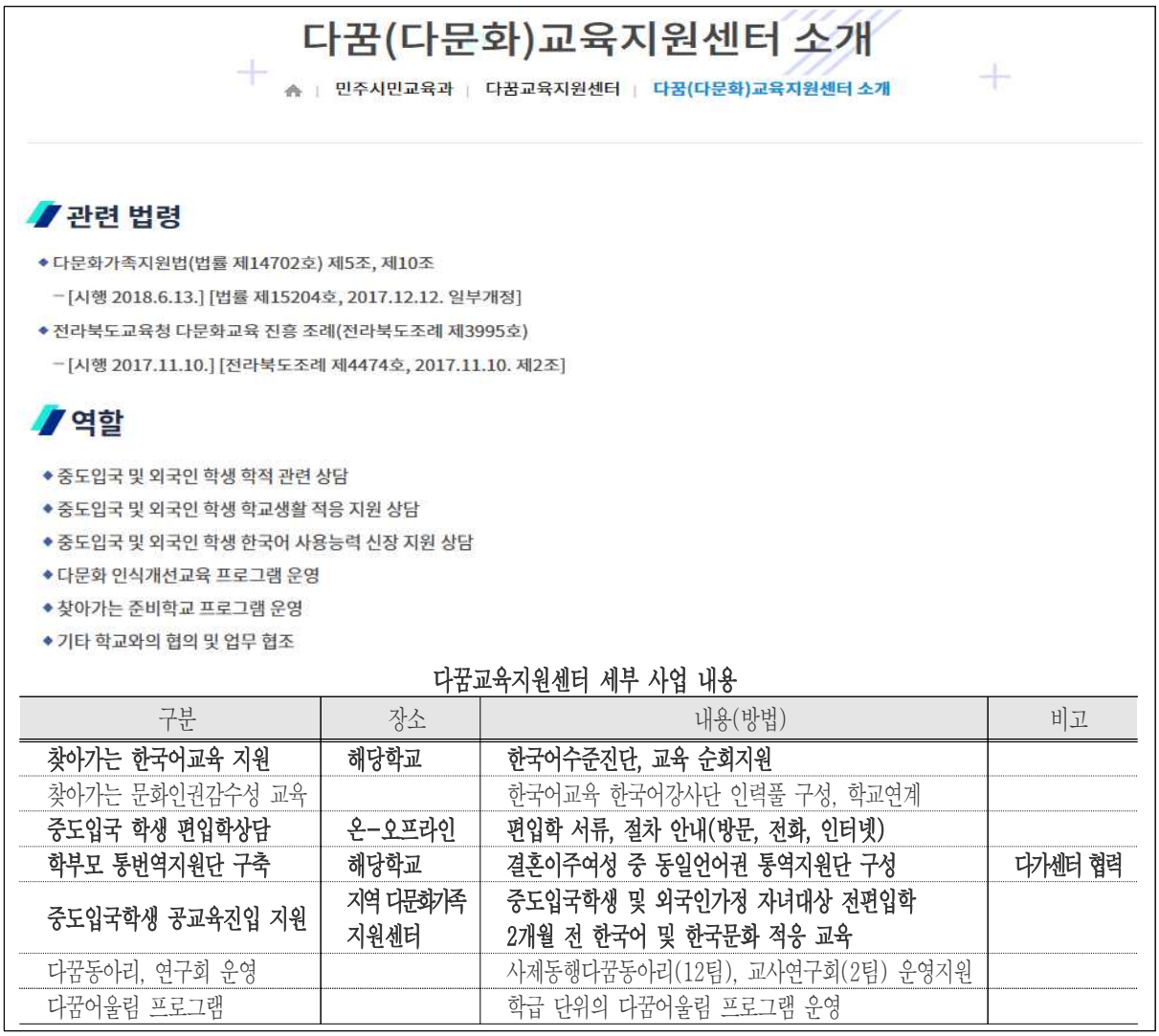
○ 잼버리·다문화담당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꿈교육 계획수립, 다꿈학교(정책학교) 운영 및 컨설팅 운영,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 계획 수립(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및 다꿈교육지원단 운영, 부모나라언어교실, 징검다리과정 운영,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지원, 다꿈부모나라체험 학습 추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운영 및 순회지원, 중도입국 학생 편입학 상담, 이중언어말하기 전국대회 참가 관리, 한국어진단·정보 시스템 관리, 다꿈교육동아리와 연구회운영 및 사례나눔 추진, 학부모 통·전역 지원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8] 전라북도 교육청 다문화담당 부서 및 다꿈교육지원센터

○ 잼버리·다문화담당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와 10조 및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를 근거로 센터장, 부센터장, 담당 장학사와 파견교사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의 학적관리 상담·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한국어 사용능력 신장 지원 상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준비학교 프로

그램 운영 이외 학교와의 협의 및 업무를 협조하고 있음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개

민주시민교육과 | 다꿈교육지원센터 |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소개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4702호) 제5조, 제10조
  - [시행 2018.6.13.] [법률 제15204호, 2017.12.12. 일부개정]
-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전라북도조례 제3995호)
  - [시행 2017.11.10.] [전라북도조례 제4474호, 2017.11.10. 제2조]

역할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학적 관련 상담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
-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한국어 사용능력 신장 지원 상담
-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준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학교와의 협의 및 업무 협조

다꿈교육지원센터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장소	내용(방법)	비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해당학교	한국어수준진단, 교육 순회지원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 교육		한국어교육 한국어강사단 인력풀 구성, 학교연계	
중도입국 학생 편입학상담	온-오프라인	편입학 서류, 절차 안내(방문, 전화, 인터넷)	
학부모 통번역지원단 구축	해당학교	결혼이주여성 중 동일언어권 통역지원단 구성	다가센터 협력
중도입국학생 공교육진입 지원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가정 자녀대상 전편입학 2개월 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 교육	
다꿈동아리, 연구회 운영		사제동행다꿈동아리(12팀), 교사연구회(2팀) 운영지원	
다꿈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단위의 다꿈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그림 3-9] 전라북도 다꿈교육지원센터 역할과 세부 사업 내용

▌2021년 전북교육청 다꿈(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세부 내용

○ 2021년도 다문화교육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이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현
-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 다꿈학교 운영 및 학교 지원 내실화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실시
-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찾아가는 한국어교육·문화인권감수성 교육, 다꿈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실시

○ 2021년 다꿈(다문화)교육 추진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상호 존중과 재려의 「다꿈교육」 실현'이란 목표 아래, 문화감수성과 문화다양성 기반 교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다꿈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꿈학교 운영 등 3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함. 이외 추진과제 5개 영역별 총 2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추진과제 1) 다꿈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꿈교육 지원단 운영,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조성·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추진과제 2) 다문화가정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운영,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한국어교육과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 (추진과제 3) 학교구성원 대상 문화다양성교육으로 교육과정연계 교육, 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다꿈사제동아리(12팀)운영,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 운영, 한베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
- (추진과제 4) 다문화정책학교한국어학급, 다문화정책학교, 다꿈사랑방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다꿈학교 운영
- (추진과제 5)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학부모 통번역지원단 구축, 의사소통능력 신장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와 교사연구회 운영, 중도입국학생 전·편입학 지원, 다꿈어울림프로그램 실시

목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다꿈교육' 실현
추진 전략	▮문화감수성과 문화다양성 기반 교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다꿈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꿈학교 운영

추진과제		
1. 다꿈교육지원체계 구축	1 다꿈교육 지원단 운영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2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2. 맞춤형 교육 지원	1 대학생 멘토링 운영 3 한국어교육, 학교적응 지원	2 중도입국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4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3. 문화다양성교육	1 교육과정연계 교육 3 다꿈사제동아리 운영 5 한베학생중심 평과교육 교류	2 문화인권 감수성 교육 4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 운영
4. 다꿈학교 운영	1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3 다문화정책 유치원	2 다문화정책학교 4 다꿈사랑방학교
5.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1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3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교육 5 중도입국학생 전·편입학 지원	2 학부모 통번역 지원단 구축 4 교원역량강화 연수 및 교사연구회운영 6 다꿈어울림프로그램 운영

[그림 3-10] 2021년 전라북도 다꿈교육 추진목표 및 과제

○ 추진과제별 총 22개의 세부사업 중 학령기 다문화자녀와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추진과제 1. 다꿈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문화업무담당 장학사·다꿈학교 관련 전문성 있는 교장·교감·교사를 구성하여 **다꿈교육 지원단**을 **운영**하며,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

급, 다문화정책학교, 다꿈사랑방학교 대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전라북도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에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정기회의 1·5·9월)으로 다꿈교육 추진계획과 예산 심의 및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논의함.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자치단체,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력과 지역자원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함

○ 추진과제 2. 다문화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학기와 방학 중 주 2회 이상 방문하는 **대학생 멘토링** 운영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한국문화, 기초학습과 문해력,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함. 또한, **중도입국학생 공교육진입 지원**을 위해 **4개의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초기적응 지원,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정 학생 위탁교육, 전·편입학 처리 등을 지원함. 그리고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집중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운영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함. 마지막으로 다문화자녀와의 소통·학교생활 적응·진로진학 지도 및 사춘기 자녀 대상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추진과제 4. 다양한 형태의 다꿈학교 운영으로 먼저는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난민가정자녀 등 한국어능력이 저조하고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고 사료되는 이주배경 청소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집중 교육하는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을 운영함. 다음으로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개별 맞춤별 교육을 지원하면서 다문화 및 비다문화 학생의 인권·반편견·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문화정책학교**를 운영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학교적응 지원 및 다문화 및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하는 문화다양성교육·예술·놀이활동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함양시키는 **다꿈사랑방학교**를 운영함

○ 추진과제 5. **다꿈교육지원센터**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 대상 **'찾아가는 1:1 한국어 집중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학부모 통번역 지원**단을 구축·강화하며, 다문화학생의 기초 문해력과 기초학력 시장을 위한 담임교사 책임 지도와 함께 인성교육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 외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가정 자녀의 전·편입학 지원과 다꿈교육 주간(5/17~5/22)에 학급별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감수성을 증진 시키고 있음

○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해 총 1,730,130천원을 투입하고 있음. 5개의 추진과제 중 추진과제 4인 다꿈학교 운영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다꿈학교 유형 중 다꿈사랑방학교(180개교) 운영을 위한 예산이 700,00천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다문화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순회 지원' 사업(365,700천원) 예산이 높게 나타남

[표 3-23] 전북 다꿈교육 2021년 주요 변경 내용 요약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대학생 멘토링 •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 다꿈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꿈교육 지원단 활성화 **• 다꿈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한-베트남 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활동**	
문화 다양성 교육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강사단: 도교육청은 인력풀 구성, 학교에서 계약 운영 • 다꿈부모나라언어교실운영(12교) • 다꿈어울림 캠프운영 • 중도입국학생 공교육진입 지원(위탁기관 2기관)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 다꿈부모나라언어교실운영(10교) **• 다꿈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중도입국학생 공교육진입 지원 (위탁기관 4기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확대 중도입국학생 공교육진입지원 강화
다꿈학교 운영	•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 5교	•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 4교	특별학급(3교)
	• 다문화정책학교(초·중등) 15교	• 다문화정책학교(초·중등) 15교	
	• 다꿈사랑방학교 107교	**• 다꿈사랑방학교 115교**	사랑방학교 확대
	합계 : 175교(유48, 초·중·고 127)	합계 : 186교(유52, 초·중·고 134)	

[표 3-24] 2021년 전북 다꿈교육 예산 현황

영역	추진 과제	추진 내용	2021년(총액)
다꿈교육지원체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회의 운영	3,330
	다꿈교육지원단 운영	▸ 다꿈학교(유치원) 컨설팅, 현장지원	5,100
맞춤형 교육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지원**	**20,000**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순회지원**	**365,700**
	다꿈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다꿈어울림프로그램 운영	20,000
문화 다양성교육	문화인권감수성교육	▸ 찾아가는 문화·인권감수성교육 수당 등	30,600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 학부모동아리 및 아버지학교 등**	**53,900**
	한-베트남 학생중심평화교육 교류활동	▸ 한-베트남 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활동 운영(1회)	45,900
다문화역량강화연수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지역별 교원역량강화연수 운영 지원	0
	다꿈학교 담당교원 연수	▸다꿈학교 및 다꿈유치원 담당교원 연수	5,100
	다꿈교육 역량강화 원격직무 연수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원격직무연수	20,000
	다꿈교육 교사연구회	▸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연구회	4,000
	사제동행 다꿈동아리	▸ 학생교사 동아리 지원 및 사례 나눔	14,400
다꿈학교운영 및 이중언어교육	**다꿈부모나라언어교실**	**▸ 언어교육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정체성 확립**	**25,300**
	중도입국학생 공교육진입 지원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위탁 지원**	**42,300**
	징검다리과정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 지원**	**4,500**
	다꿈학교 및 유치원 157개교(원) 운영	**▸ 다꿈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운영(4개교)**	**110,000**
		▸ 다꿈정책학교 운영(15개교)	120,000
		▸ 다꿈정책유치원 운영(7개원)	49,000
		▸ 다꿈사랑방학교 운영(180개교)	700,000
	민간보조사업지원	▸다문화공동체놀이, 미취학다문화아동 어울림 배움터	18,000
다문화 교육 분담금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구축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 위탁운영	20,000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분담금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53,000
총 예산액			1,730,130

3.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례분석

1) 대구_ 다문화자녀 드림브리지(Dream Bridge) 운영

▮ 추진배경

○ 대구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자녀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다문화자녀 약 1,500여명)가 2017년 4월부터 다문화자녀 성장에 맞춘 특색 있는 사업 추진

○ 대구 달서구는 다문화자녀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학령기 진입 본격화에 맞춰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성장 발달단계별 꿈과 희망 및 재능을 이어준다는 의미의 '다문화자녀 드림브리지(Dream Bridge)사업' 본격화

○ 다문화청소년 외국어, 예체능 등 재능성장 지원, 또래관계, 가족관계 증진 및 진로지도 등 지원으로 다문화자녀의 고민 해결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내용

○ 대구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자녀의 성장발달단계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업 지원

○ (미취학 아동 대상 사업) 가족 유대관계 제고에 주력. 유아체육(신체놀이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아빠와 함께하는 무지개 놀이학교' 등을 매월 1회씩 실시하며 그 외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 등의 사업도 실시함. 그리고 한국역사 이해교육 등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 공부방' 운영

○ (초등학생 대상 사업)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또래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와 비다문화 자녀 40여명이 함께 풋살교실, 레고놀이,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또래관계 향상 증진

○ (중·고등학생 대상 사업) 적성검사 등을 통해 자기발견,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설계, 가상직업 체험 등 향후 진로·직업 결정을 위한 미래 설계를 본격적으로 지원함

○ (대학생 자원봉사자 1:1 멘토링 사업)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자녀와 1:1 멘토링 자기 주도 학습 지원

○ (중도입국자녀 대상 사업)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활동 등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 기대효과

○ 다문화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및 미래지향적 진로 직업 설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기대



자료 :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

[그림 3-11] 대구 달서구 다문화자녀 드림브리지 프로그램

2) 서울_ 서울온드림교육센터(Seoul OnDream Education Center)[10]

▮ 추진배경

○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21조를 근거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협력기관인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협력하여 (사)이주민센터 친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 기관임. 즉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공교육 진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학교적응 및 개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이 한국사회 전체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센터가 정의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 후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혹은 귀화한 청소년, 이민자·외국인·귀화자의 자녀, 난민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및 그의 자녀, 이주노동자의 해외출생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국내출생 청소년

10)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ondreamedu.com/) 참고 작성



자료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중도입국청소년 개념(http://www.ondreamedu.com/sp.php?p=15)

[그림 3-12]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

○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어습득, 공교육 진입 및 적응, 학업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설계, 사회문화적 적응 등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개인별 특성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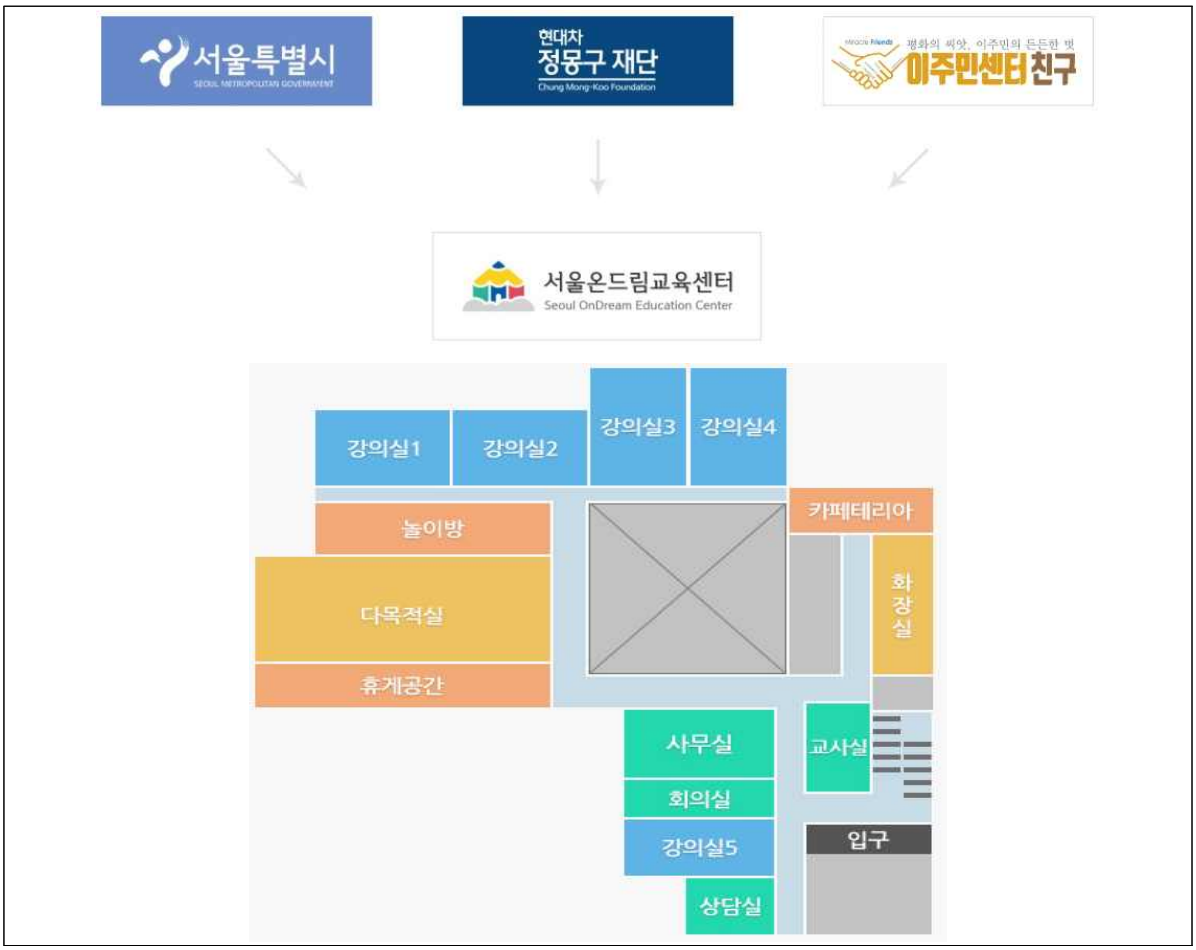
-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사회와 학교 적응을 넘어 자기 자신의 개성과 소질 및 진로를 찾아가고 하나의 인격체이자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제공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 전문상담,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진로상담, 검정고시 준비 등 지원

○ 2015년 9월 개소식과 함께 운영계획을 체결하고 운영 시작. 2016년 3월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꿈향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개관 5년됨

▮ 조직 및 센터 사업 현황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B동 501호)는 현대차 정몽구재단, 서울특별시, 그리고 (사)이주민센터친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 이외 한국어교육 운영·관리 및 상담서비스 운영·관리하는 사원 1명과 개별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사원 1명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3]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협력기관 및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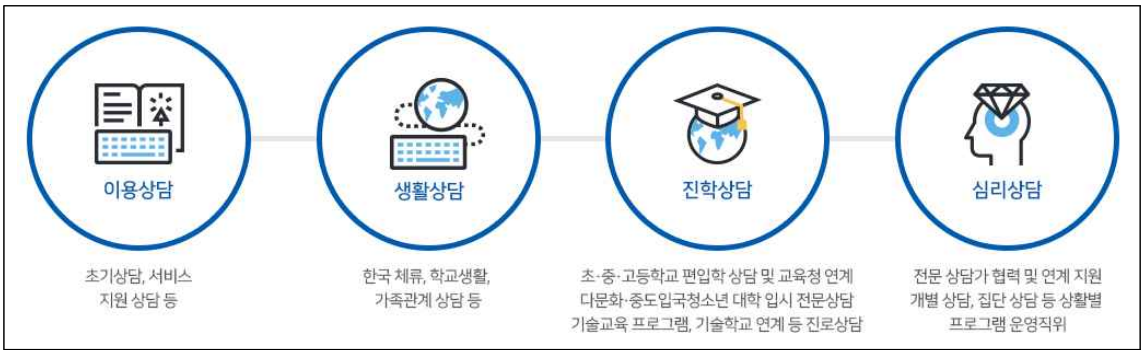
○ 주요 사업은 (1)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어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2)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상담·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3)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 (5)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다문화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 총 6개 영역에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어 지원 : 사회 정착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적·전문적 교육
  - 정규한국어 교육과정 : 평일 2시간씩 운영, 한 과정당 약 50일 수업 운영, 레벨테스트 후 수준에 맞는 수업청취 및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승급
  - 탄력적 한국어 교육과정 : 글자반(자모반), 토픽대비반, 한국어발음교정반 등 운영
- 교육 및 학습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재학여부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검정고시 대비 지도 : 본국의 서류문제 등 집안 사정상 학업을 못하는 경우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검정고시반 운영

- 교과목 학습 지도 :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미숙한 한국어와 학교적응 부족으로 인한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교과목 학습지도 제공하여 학업성취향상과 안정적인 학교 적응 지원

• 개별 맞춤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외부기관과의 연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

- 상담하기(꿈담기) : 중도입국청소년과 그 가족 맞춤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 파악 후 신속하게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 개별서비스(꿈향기) : 상담을 통해 파악된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 맞춤 개별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연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그림 3-14] 맞춤지원 절차

• 적응 지원 : 한국 사회적응을 위해 한국 생활과 문화 등 기본 정보 제공 및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사회 이해교육 : 월 2회 실시, 입국 초기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
- 글로벌 문화탐방 : 월 1회 실시, 주요문화시설과 역사 명소, 박물관 등 시설 견학
- 중도입국청소년 또래관계 향상 사업 : 중도입국청소년간 공감대 및 상호간 친밀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캠프 운영, 연극·뮤지컬 등 문화공연 관람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와 또래와의 친밀도 제고
- 봉사 : 월 1회, 마을청소의 날 행사 통해 지역사회 주변을 돌며 마을 정화활동, 중도입국청소년과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방인이 아닌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 공유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서울시, 현대차정몽구재단, 비영리법인(사업수행)

○ 추진절차 : 서울시(장소제공), 현대정몽구재단(재원/운영비 조달, 센터운영·사업수행 위탁), 비영리법인(서울온드림교육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21년 기준) : 250백만원(시비), 현대차정몽구재단 300백만원 별도

▮ 센터 이용 현황

○ 2020. 10월 말 기준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이용한 실 인원 354명이며, 20세 이상이 38.4%(13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7~19세가 31.9%(113명), 14-16세가 18.9%(67명)로 많았음

[표 3-25]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이용자 현황(2020. 10월 말 기준)

연령별 구분	합계	13세 이하	14-16세 이하	17-19세	20세 이상
	354명 (100.0)	38명 (10.7)	67명 (18.9)	113명 (31.9)	136명(38.4)

국적별 구분	합계	중국동포	중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기타
	354명 (100.0)	208명 (58.8)	84명 (23.7)	18명 (5.1)	6명 (1.7)	5명 (1.4)	33명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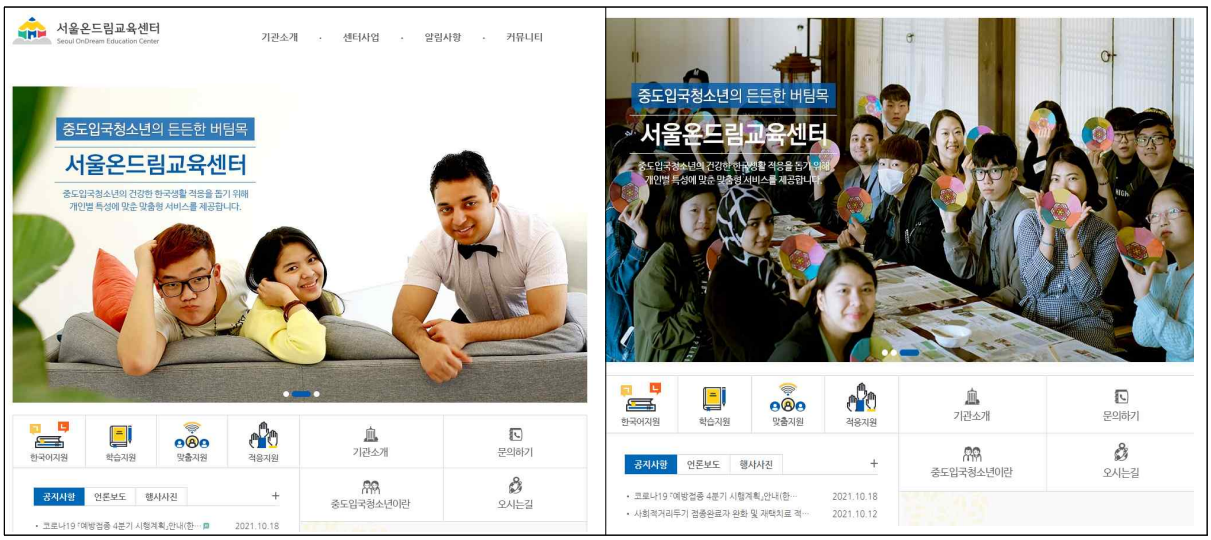
자료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료(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사업 내용 참고

○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사업별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12월 말 12,724명으로 한국어 지원이 6,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도입국자녀 개인 맞춤형 지원이 2,953명으로 나타났음

[표 3-26]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지원 사업별 이용자 현황('20. 12월 말 기준)

한국어지원	교육(진로) 지원	개별 맞춤 지원	적응 지원	총계(연인원)
6,516명(1,057회)	2,152명(477회)	2,953명(2,458회)	1,103명(35회)	12,724명(4,027회)

자료 : 2021년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업무계획자료, 서울특별시 사업 내용 참고



[그림 3-15] 서울온드림교육센터(중도입국자녀 중점지원기관) 홈페이지

3) 서울 동작구_ 구립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11)]

▌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설치 배경 및 시설현황·지원내용

○ 서울 동작구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대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다문화아동 맞춤형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립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를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2021년 1월 개관함

- 서울 동작구내 다문화가정 아동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동작구에서도 신대방1동의 다문화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4월 신대방1동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건립 대상지 확정, 설계공모 통해 2020년 1월 착공함
-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59.47㎡ 규모, 약 40여명 이상의 아동 수용 가능
  - 1~2층 지역아동센터 운영, 3층 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통 공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으로 조성 운영
  - 지역 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요리 공간도 마련함

○ 서울 동작구는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기 어려운 예절교육, 이중언어지도, 적성개발 및 다문화이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 적응제고를 추구할 계획



[그림 3-16] 서울 동작구, 구립다문화특화지역아동센터 조감도

11) 인터넷 관련 신문기사(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010080947001)참고 작성

4) 전남도 _ '다문화 엄마학교' 사업 운영

▌추진배경

○ 전라남도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엄마학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다문화엄마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다문화 엄마학교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학령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자녀의 가정학습 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혹은 중·고생 다문화자녀의 교육을 챙길 수 있도록 엄마의 학습 능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양성하는 지원 사업임

- 다문화가정 자녀가 초·중·고등학생 등 학령기로 접어들고 그 규모가 증가 추세
-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령기 자녀의 교과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의 학습지도와 학교적응 지원 등 학령기 다문화자녀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엄마 역량 강화 사업임

▌사업내용

○ 한마음교육봉사단을 통해 총 60여명의 다문화 엄마 교육

○ 교육과정은 상반기·하반기 2기(기당 20주, 30명)

○ 초등학교 과정 7개 과목(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을 온라인교육과 대면 출석수업(월2회,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으로 운영



[그림 3-17] 나주 다문화엄마학교 8기 졸업식 및 9기 입학식

5) 인천 _ 다문화자녀 맞춤형 심리·정서·학습 지원 위한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배경

○ 인천시교육청, 6개 구청(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리고 디지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에듀와 함께 다문화가족(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

○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은 민·관 상호협력으로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 자녀의 맞춤형 심리·정서·학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장을 지원·돕고자 추진하게 됨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문화자녀 개별 맞춤식 학습과 교육지도,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학습 자료 분석을 통한 개인별 특별관리, 그리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의 영어와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 등 다국어로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여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을 선도함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개별 맞춤형 심리 및 정서 프로그램 제공

○ Big-Data와 AI 학습프로그램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서비스 제공

○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 선도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공동협력 추진

○ 다문화가족의 학부모가 다문화자녀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학부모용 AI 다국어 생활기록부 제공으로 다문화자녀와 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인천시는 사업의 총괄 및 운영, 그리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시교육청은 다문화자녀 등 학습 대상자 모집과 선발 및 해당 구청에서는 학습 대상자 모집의 총괄과 사업 전반의 진행을 추진하는 업무를 분할하여 진행함.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듀는 다문화자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스마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함

▌기대효과

○ 인천형 다문화자녀 맞춤형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은 1:1 개인별 맞춤 학습관리, 학년별 학교 학습 진도를 보완하고 다양한 다국어로 디지털 콘텐츠 활용으로 정보제공 함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격차와 학습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자녀들

의 기초학력 및 문해력 역량 강화

○ 다문화자녀의 개별 맞춤형 심리·정서·학습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 혜택 제공



[그림 3-18] 인천형 다문화자녀 맞춤형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6) 서울, 대전 등 _ 다문화청소년 1:1 진로컨설팅, 진로탐색워크숍, 직업체험등

▮ (서울) 다문화청소년 1:1 맞춤 온라인 상담 컨설팅

○ 서울시가 다문화청소년을 위새 진로, 힐링,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 온라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

○ 심리측정에서부터 전문 컨설턴트와 비대면으로 약 3회(진로, 힐링, 학습) 온라인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짐.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자신의 감정을 뒤돌아보고 개인의 학습 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서울시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진로지원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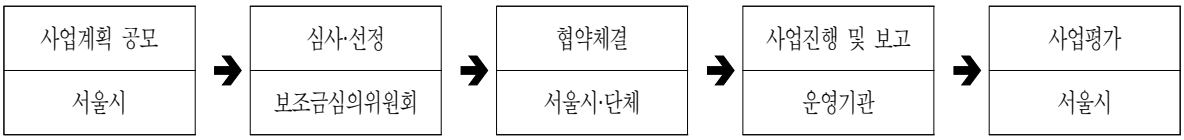
▮ (서울)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모사업)[12]

○ 서울시는 다문화가족과 학령기 자녀 대상 맞춤형 진로·진학 관련 정보제공에서부터 진로·진학 상담 및 진로·진학체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분야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적)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학률 및 취업률 제고와 진로탐색 역량 제고
- (사업명) 다문화가족 맞춤형 진로·진학 사업
- (사업대상) 만 9~24세 청소년
- (소요예산) 100백만원(단체별 40백만원 ~ 60백만원)
- (사업 분야 및 내용) ① 진로지도(진로그룹컨설팅, 워크숍,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동아리 운영 등), ② 진학지원(학부모 진학설명회, 1:1 진학상담, 입시전략 워크숍 등) 등
- (신청자격) 비영리법인·민간단체로 다문화가족 또는 진로·진학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최소 1년 이상 있는 단체
- (지원 절차)

12) https://m.blog.naver.com/kr8861/221485808949 내용 참고 작성



▮ (대전) 미래설계 비대면 직업체험[13]

○ 대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비대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함.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특수분장사, 푸드스타일리스트, 한복디자이너, 캘리그라퍼 등 총 4개 직업에 대한 체험을 각 집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체험 키트를 제공하여 추진함

○ 실시간 진행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 보고 직접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진행 절차) 진행일정에 맞춰 각 직업체험 대상자의 직업체험 키트를 받아 집에서 동영상을보며 직업 및 키트를 활용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직접 키트 활용해 체험해 보고 나서 체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직업 전문인의 피트백을 받는 프로그램임

4. 요약 및 시사점

▮ 중앙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 첫째, 다문화가족 및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 조항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신속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마련함. 주로 언어발달과 학습지원 등 언어와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범위에는 국내출생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이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난민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대상 연령도 만 24세

13) https://www.facebook.com/1726889547535771/posts/2746249865599729/ 관련 내용 참조하여 작성

이하로 단편적·포괄적 제시 및 자녀 연령대와 학령기별 특성 맞춤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그 지원 내용을 구체화, 나열화 할 필요 있음

○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이주배경청소년(국내출신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청소년)이란 개념을 수립하고,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하에 사회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려움 겪는 청소년의 사회적응,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의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지원, 심리·정서지원, 인식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개발, 조사연구, 이슈와 동향 등 현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입학과 전학 지원) 내용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는 최근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격상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폭넓은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음

○ 이상으로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 등 관련된 유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고, 각 개념과 지원 대상의 범위 및 범위 내 대상자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법에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용어 통일, 정의와 개념 및 범주, 지원 대상의 유형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명확한 개념 정의부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중앙 부처별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 먼저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다부처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2016년 3월, 2018년 3월, 최근 2020년 6월에 지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의 자녀지원 종합대책 수립, 학업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취학자녀 대상의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21년도 시행계획 예산을 보면, 전체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의 약 12%(70,202백만원, 282과제)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관련 사

업으로 투입되고 있었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의 사업 예산과 과제 수를 양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령기 자녀보다는 미취학자녀 대상과 학령기 중에서도 초등학생 대상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중·고등학생 대상의 지원은 단편적인 진로 지원에 머물러 있음

○ 다음으로 교육부 차원에서는 매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발표하여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초등학생 대상의 사업 이외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사회 적응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예를 들어 대학생 멘토링, 한국어교육과정 도입 및, 한국어교육지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중앙 및 지역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교과 보조교재 개발 및 이중언어교재 개발 등

▮ 전북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

○ (여성가족부 차원의 지원정책) 전라북도는 200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 2016년 8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14개 시·군 모두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주, 김제, 부안을 제외한 11개 지역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별개로 각기 제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는 2021년에 예산 11,364.2백만원의 규모로 총 52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0%(1,634.5백만 원) 증가한 3,669.5백만 원(전년 대비 2개 감소한 13개 과제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총 예산의 32.3%를 차지하며 '21년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예산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전북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예산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분야는 '20년과 '21년 모두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으로 각각 25.7%, 32.3%로 나타남
- 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예산 규모는 3,669.5백만원(전국 2위)으로 경기 다음으로 높은 예산을 투입함. 다문화가족정책 전체 예산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예산 비율은 32.3%(전국 5위)로 나타남

○ 전국 시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중 '다문화가족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을 4개의 세부과제별로 구

분하여 보면, 4개의 세부과제를 모두 계획·수행하는 지역은 '21년 기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5개 지역으로, 그 외 지역은 '환경조성' 및 '역량강화' 세부과제를 주력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세부과제와 '중도입국자녀 대상 사업' 세부과제를 모두 수행하지 않거나 혹은 두 개의 세부과제 중 어느 한 개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사업'은 예산투입과 과제가 계획·수립·시행되지 않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분야' 4개 세부과제 중 대부분의 예산과 과제는 '환경조성'과 '역량강화'에 투입·실행되고 있었음. 한편, '20년 대비 '2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역량강화 사업 분야'의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환경조성'과 '역량강화' 세부과제 실행에 증가 투입된 반면,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관련 세부과제는 오히려 전년 대비 10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정책 중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와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역량강화' 세부 추진 과제 약 19개의 사업 중 단 13개 사업만을 추진중이며 이 중 3개 사업(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양성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예산을 매칭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나타남

- 다문화자녀의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사업은 도비와 시·군 매칭으로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직업유형 사전검사·유형별 진로설계·진로직업체험캠프·진로직업현장체험활동·관련 자료집 제작·배부 등의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 그 외 중도입국자녀 개별 맞춤형 지원은 별도의 사업 발굴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일부분 지원되고 있음

○ (교육청차원의 지원정책) 전북교육청에서 다문화학생 및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담당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잼버리·다문화 담당부서임. 이 부서에는 대면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의 다꿈교육을 계획 수립하여 발표하여 관련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다꿈학교(정책학교) 운영 및 컨설팅 운영, 다꿈교육지원센터운영(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및 다꿈교육지원단 운영, 부모나라언어교실, 징검다리과정 운영,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지원, 다꿈부모나라체험 학습,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운영 및 순회지원, 중도입국 학생 편입학 상담, 이중언어말하기 전국대회 참가 관리, 한국어진단·정보시스템 관리, 다꿈교육동아리와 연구회 운영 및 사례나눔 추진, 학부모 통·전역 지원 운영 등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례분석

○ 먼저 대구의 다문화자녀 드림브리지(Dream Bridge) 사업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학령기 진입 본격화에 대응하여 미취학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성장단계별 세부화된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 지원 사업임. 미취학 아

동 대상으로는 가족유대관계 제고에 주력하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원활한 학교생활과 또래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적성검사 등을 통한 자기발견, 부모와함께하는 진로설계 등 진로·직업결정 등 미래 설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함.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연령과 학교급별 및 대상 유형별 그 특성들을 구분지어 수요가 가장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각기 별도의 사업을 세부화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사업 방향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의 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정몽구재단 및 시민단체가 서로 연합하여 추진하는 중도입국자녀 중점 지원하는 기관임. 최근 소폭씩 지속 증가하는 중도입국자녀의 대상의 한국사회 적응과 공교육 진입 제고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에서부터 특기적성 교육, 멘토링·상담·관계형성 및 개인별 특성 맞춤형 서비스 등 총 6개 영역에서 관련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센터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이용 연령대는 20세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7-19세, 14-16세로 나타남.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채워주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중도입국자녀를 중점 지원하는 기관으로 중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 이에 전북지역도 중도입국자녀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기에 중도입국자녀 중심의 집중 지원과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 동작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만을 집중 케어 맞춤 케어 해줄 수 있는 구립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 계획에 있음. 한국인 자녀와는 이주배경의 문화를 지닌 다문화자녀들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적돌봄기관인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에게 배우기 어려운 예정교육, 가족상담, 이중언어지도, 학습지도, 적성개발, 그리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과 역할 및 다문화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전북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집중·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문화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마지막으로 인천은 코로나19 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다문화자녀 맞춤형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등을 통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지원해 주는 '온라인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 구축 사업은 인청시 교육청 이외 6개구(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리고 디지털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에듀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최로로 추진하고 있음. 무엇보다 ㈜아이스크림에듀라는 전문 학습 지원 지관과의 협약으로 다문화자녀의 취약한 학습지원을 체

계적으로 관리·감독 및 지도하여 이끌어 줌으로써 성취도 제고에 높은 효과가 기대됨. 특히 전북지역 내 사교육이 어렵고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으로 추진한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습 지원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제4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분석

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 실태
2.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면접조사 결과분석
3. 현장실무자의 지원정책 진단 및 욕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욕구분석

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 실태 (2차 자료 분석)

○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매해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원자료 중 전라권(전라 + 제주)지역 자료 추출을 통한 재분석을 토대로 전라권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 및 전국과 타 시도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과 특성을 파악함

○ 둘째, 질병관리청에서 매해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자료 중 전북자료 추출에 의한 재분석으로 전북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정서 내용 비교 및 전국 시·도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심리·정서 수준과 특성을 파악함

○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 및 전국 시도별과의 차이점이 두드러진 분야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전북지역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 따른 전라권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의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전북지역이 포함된 전라권(전북, 전남, 제주)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8년 데이터를 이용해 2차 분석을 실시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일반청소년(비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다문화자녀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며, 2011년(1차, 초4년)부터 패널 구축하여 2021년(11차)까지 총 11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후 결과를 토대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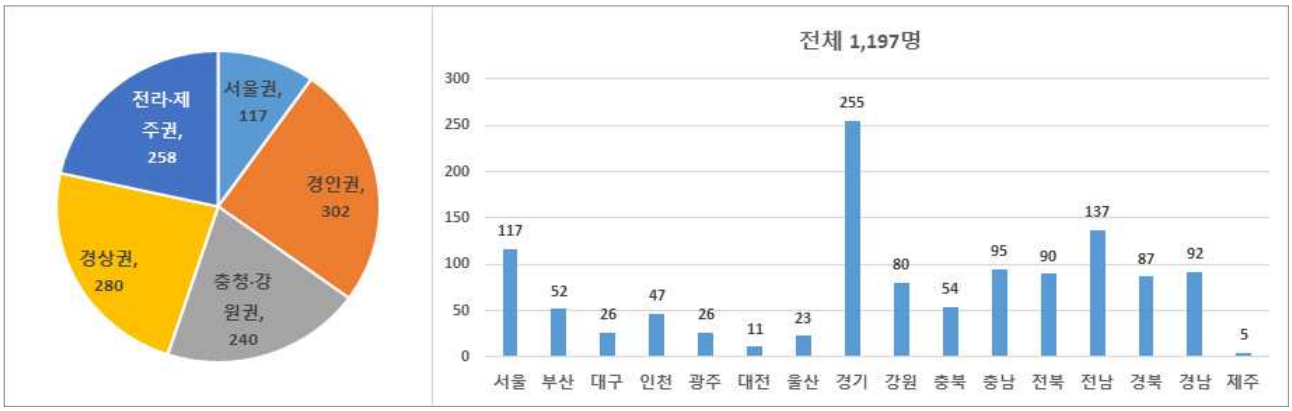
○ 2018년(8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1,188가구의 다문화청소년(1,197명)과 그 부모(1,166명)가 참여함.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1,197명 중 남학생 587명(49.0%), 여학생 610명(51.0%)임[14)]

○ 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1,197명의 5개 권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권 117명(9.8%), 경인권 302명(25.2%), 충청·강원권 240명(20.1%), 경상권 280명(23.4%), 전라·제주권 258명(21.6%) 등으로 나타남[15)]

[표 4-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8차) 조사대상자(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97	117	52	26	47	26	11	23	255	80	54	95	**90**	**137**	87	92	**5**
100.0	9.8	4.3	2.2	3.9	2.2	0.9	1.9	21.3	6.7	4.5	7.9	**7.5**	**11.4**	7.3	7.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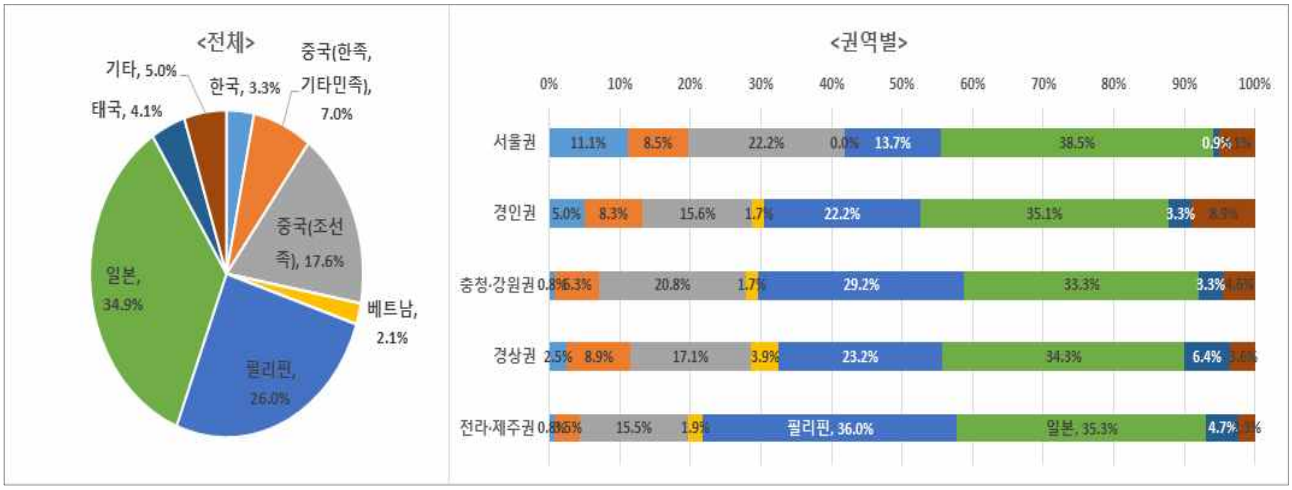
[그림 4-1] 전국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8차)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 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1,197명)의 모(母)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일본 418명(34.9%), 필리핀 311명(26.0%), 중국(조선족) 211명(17.6%), 중국(한족, 기타민족) 84명(7.0%), 태국 49명(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제주권의 경우, 필리핀 36.0%(9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35.3%(91명), 중국 15.5%(40명) 등의 순으로, 지역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 분포가 차이를 보임(X^2=96.515, p<.001).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는 결혼이주남성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 권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중이 차이를 보임

14) 조사인원은 원자료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은 인원임. 따라서 본 연구의 수치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총괄보고서에 보고된 수치와 다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1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1~8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15) 다문화청소년의 거주지역의 경우 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다양한 계열로 진학하게 되고, 해당지역의 해당 계열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소수인 경우가 있어, '개인식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6개 시도를 5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경상, 전라/제주)로 분류하여 제공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1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1~8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그림 4-2]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출신국 분포

○ 조사내용은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적 특성,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 3개 대분류로 구분됨. 이를 바탕으로 소분류는 언어능력, 이중문화 경험, 지원정책의 태도, 신체, 사회·정서·행동, 인지, 진로결정,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학업중단 요인, 학습활동 등 총 13개 영역으로 구성됨

○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의 경우 배경변인, 다문화 특성, 그리고 개인 및 환경 특성 등 3개 대분류로 구분됨. 이를 바탕으로 소분류는 가족특성, 언어능력, 이중문화 경험, 지원정책의 태도, 신체·심리특성, 자녀교육 특성, 진학·진로지도 특성, 양육특성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8차)의 다문화청소년용과 학부모용 조사 내용

구분	대분류	소분류	조사 항목
다문화 청소년용	다문화적 특성	언어능력	부모의 외국인 여부, 부모와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부모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사용가능한 외국어, 외국출신 부모나라 언어실력
		이중문화 경험	국적에 대한 인식, 외국출신 부모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국가 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지원정책의 태도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경험, 향후 원하는 지원내용
	개인 특성	신체	건강상태, 신체만족도
		사회·정서·행동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위축, 비행,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인지	학교성적, 성취동기
		진로결정	고교 졸업 후 계획, 희망직업, 학교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부모님 진로 관련 행동
	환경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활동 및 대화
		학교생활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지역사회 지지망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 주는 사람 여부 및 도움 주는 사람
		학업중단 요인	생활 및 태도

		학습 활동	교과목 관련 학습 활동 참여 유형,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용	배경변인	가족특성	혼인상태, 월평균 소득수준, 주관적 소득수준
	다문화적 특성	언어능력	모국어, 한국어 수준
		이중문화 경험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 국적 정체성
		지원정책의 태도	자녀 다문화가족지원 수혜 경험, 향후 원하는 지원
	개인 및 환경 특성	모의 신체·심리특성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
		자녀교육 특성	자녀교육 주 의사결정자, 자녀 학교교육 도움 정도,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선호도, 사교육 여부 및 가계부담 정도
		진학·진로 지도 특성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지원 욕구, 진로/진학 설명회 참여의향 및 희망 개최 기관
		양육 특성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정도, 자녀가 잘하기 바라는 언어

자료: 양계민 외(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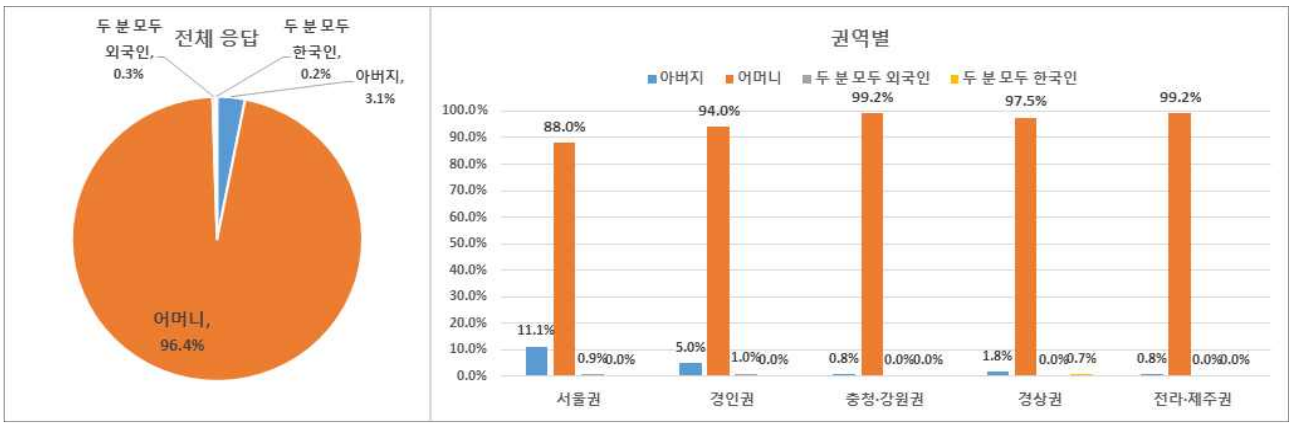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용과 학부모용으로 설문지가 구분되어 있음. 이에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 분석과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관련 내용 분석을 함께 살펴봄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 분석

① 다문화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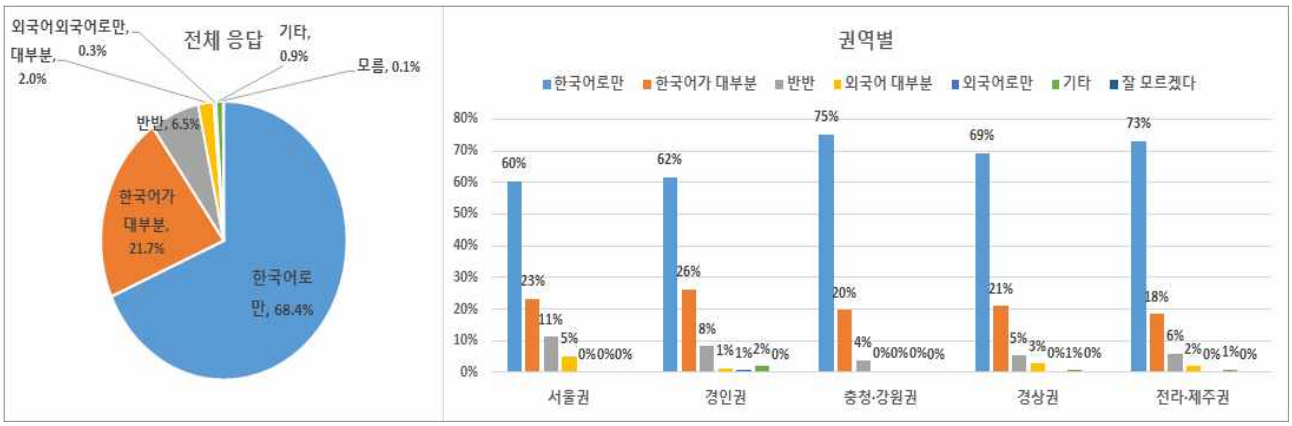
○ 언어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부모님 중 어느 쪽이 외국출신인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응답이 96.4%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라는 응답은 3.1%였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 이라는 응답은 99.2%로 전국에 비해 2.8%p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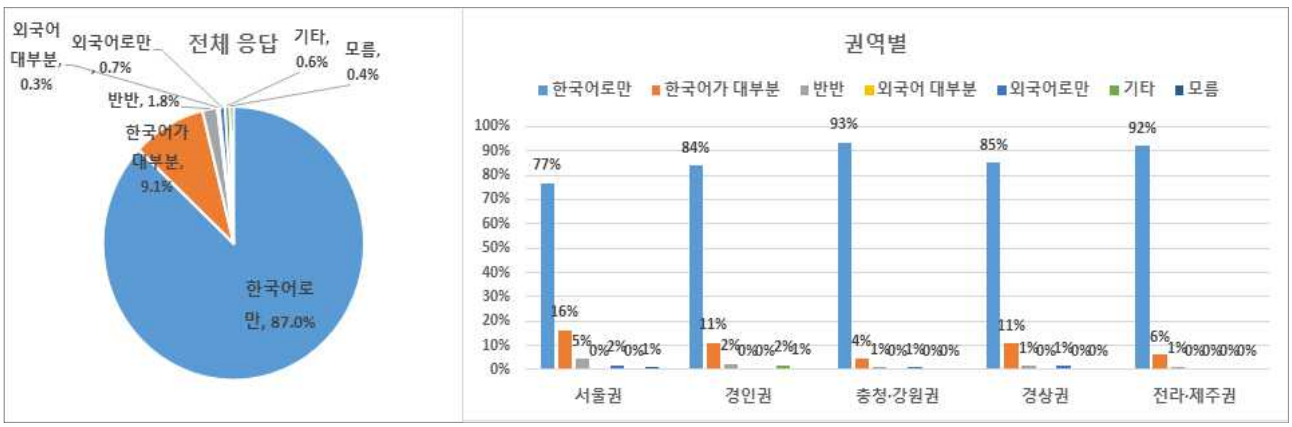
[그림 4-3] 부모의 외국인 여부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외국인 부모님과 서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8.4%가 '한국어만 사용'함. 전라·제주권의 경우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73%로 전국에 비해 5%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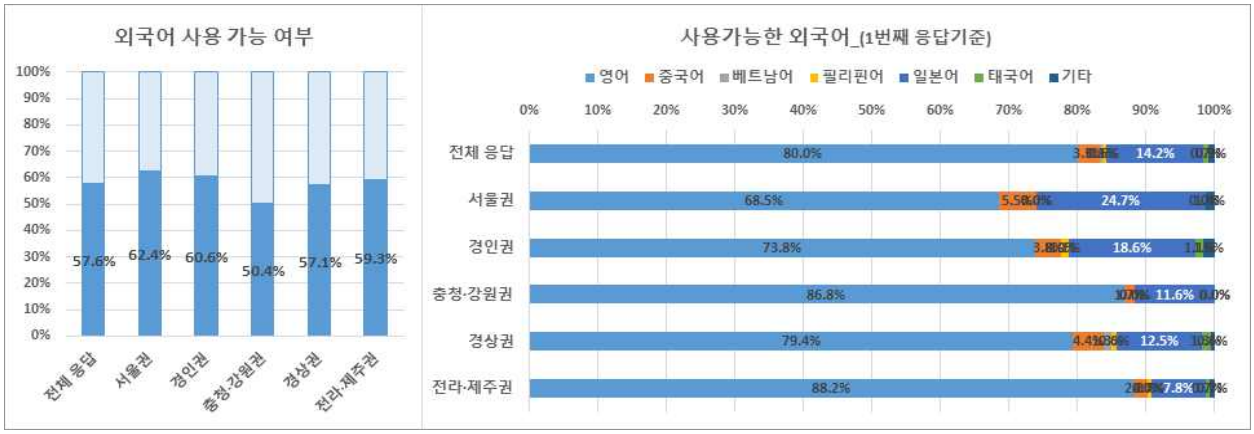
[그림 4-4]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부모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화할 때 어느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의 87.0%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간 사용언어보다 부모 간 대화 시 한국어만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았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92%로 전국에 비해 5%p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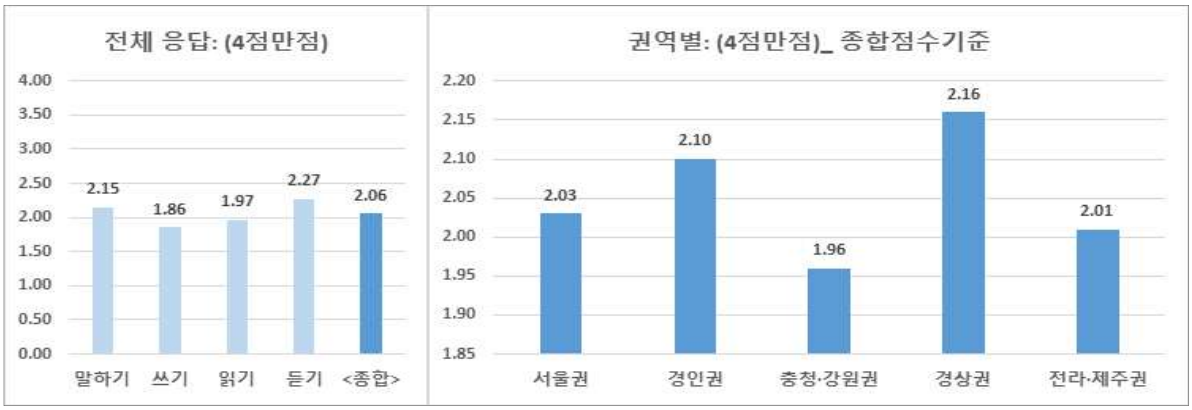
[그림 4-5]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사용가능한 외국어) 현재 한국어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7.6%가 사용가능한 외국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59.3%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1.7%p 더 높았음.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의 경우 '영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라·제주권의 경우 영어 사용비율이 88.2%로 전체보다 8.2%p 더 높았음. 이는 외국인 어머니의 필리핀 국적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함



[그림 4-6] 사용가능한 외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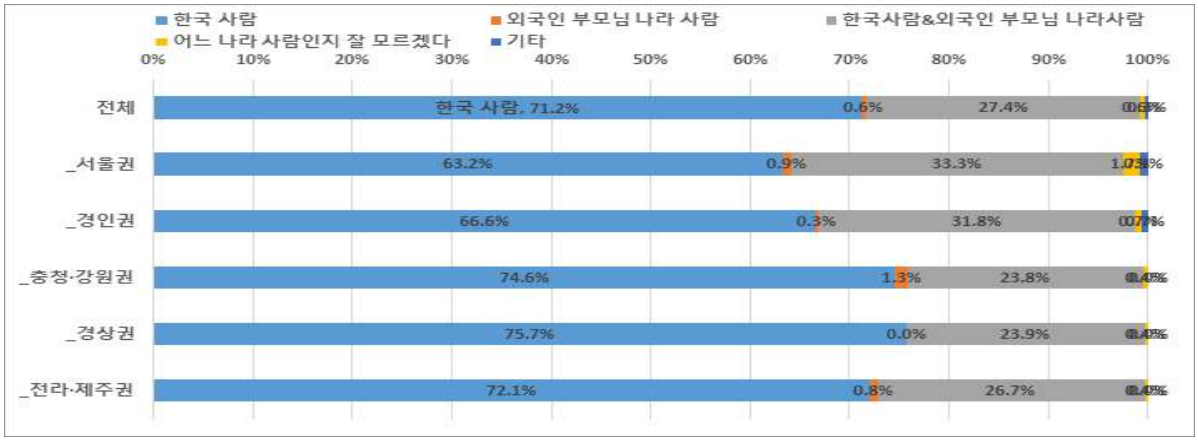
- (외국 출신 부모나라의 언어 실력) 외국인 어머니 가정을 기준으로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점 만점으로 듣기(2.27점), 말하기(2.15점), 읽기(1.97점), 쓰기(1.86점) 순으로 종합점수 2.06점으로 '못하는 편'으로 나타남.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전라·제주권의 경우 2.01점이었으며, 권역별 평균점수 차이는 충청·강원권(1.96점)이 타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F=2.37$, $p<.05$)



[그림 4-7]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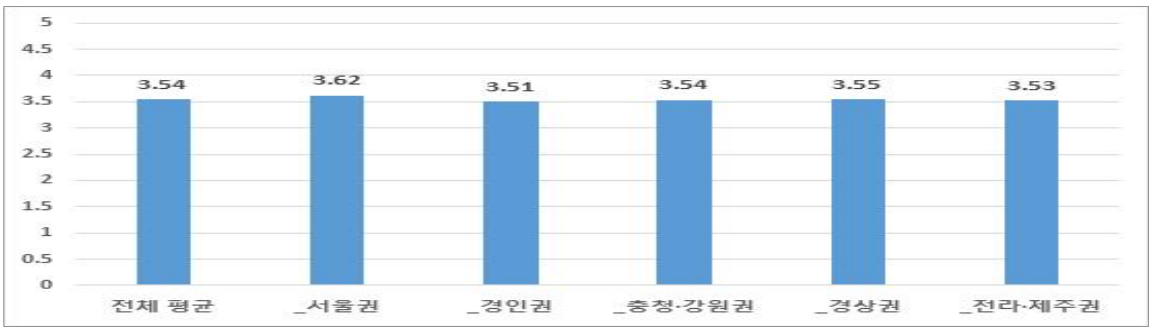
○ 이중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71.2%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부모님 나라 사람'이라는 응답은 27.4%였음. 권역별로는 서울과 경인권의 경우 한국사람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는 응답(26.7%)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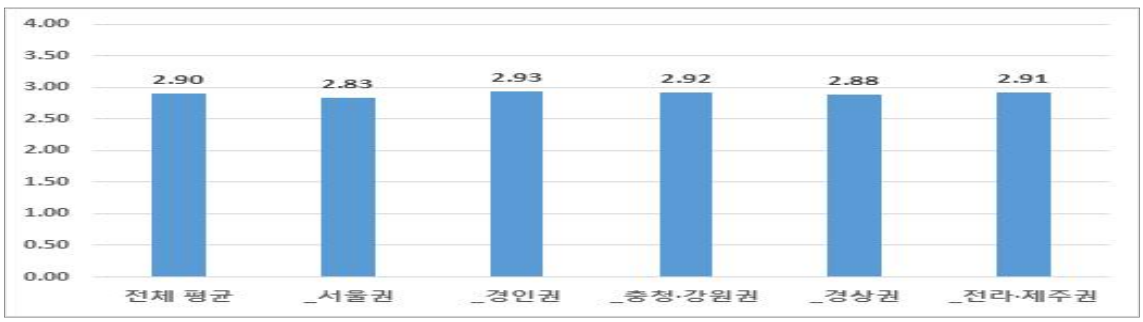
[그림 4-8] 국적에 대한 인식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5점 기준 3.54점으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서울권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3.55점), 충청·강원권(3.54점), 전라·제주권(3.53점), 경인권(3.5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외국 출신 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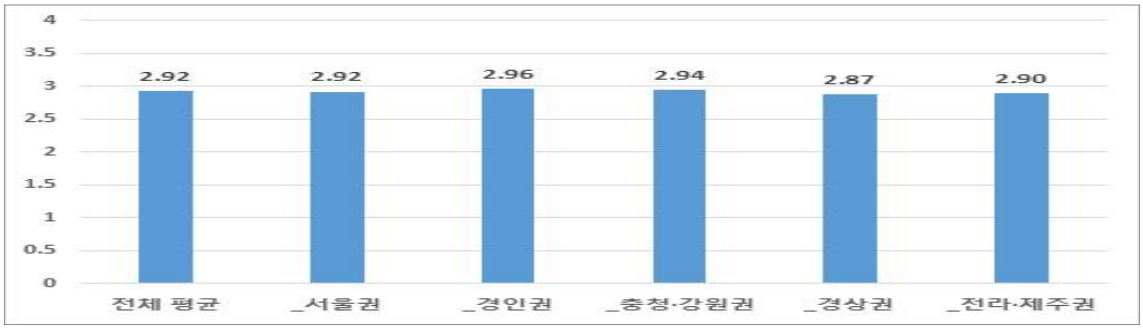
- (국가 정체성)[16] 한국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4점 기준 2.90점으로 국가정체성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경인권(2.93점), 충청·강원권(2.92점), 전라·제주권(2.91점), 경상권(2.88점), 서울권(2.8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국가정체성(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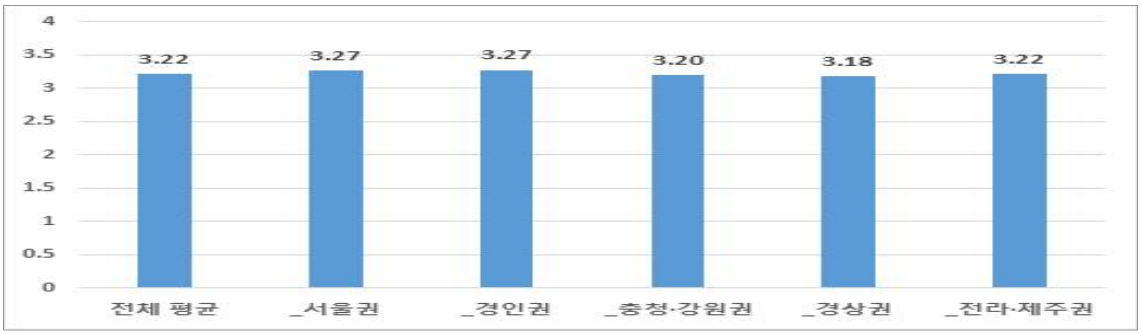
16) 국가정체성: 한국에 대한 생각 항목으로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이중문화 수용태도)[17] 한국 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살펴보면, 4점 기준 2.92점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경인권(2.96점), 충청·강원권(2.94점), 서울권(2.92점), 전라·제주권(2.90점), 경상권(2.8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 이중문화수용태도(4점 만점)

- (다문화수용성)[18]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수용 정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4점 기준 3.22점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서울권 및 경인권 각 3.27점, 전라·제주권(3.22점), 충청·강원권(3.20점), 경상권(3.1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2] 다문화수용성(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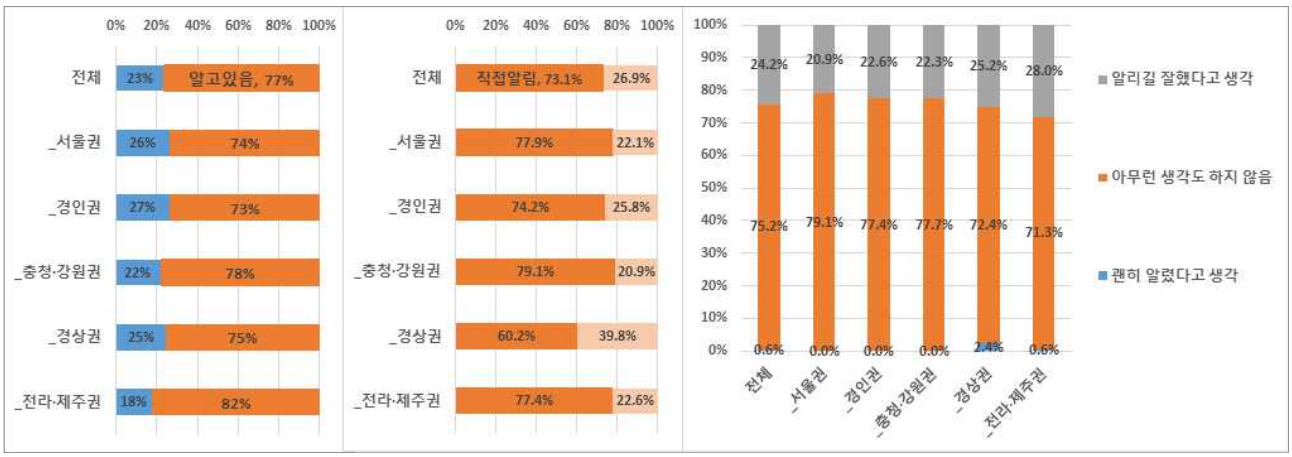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학교 친구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아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5%p 더 높은 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직접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73%의 학생들이 직접 알렸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4%p 더 높은 77%의 학생들이 직접 알렸다고 응답함

  – 자신이 직접 알렸다면, 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24%의 학생들이 알리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4%p 더 높은 28%의 학생들이 알리길 잘했다고 생각하였음

17) 이중문화수용태도: 한국 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 관련 항목으로 "나는 한국문화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즐기는 편이다" 등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18)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 수용 정도 관련 항목으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즉, 전라·제주권의 다문화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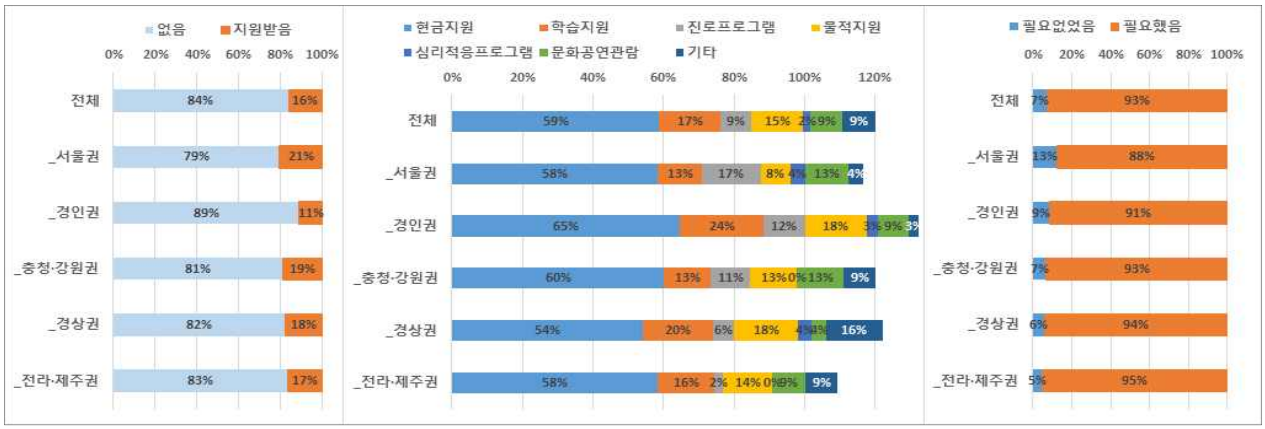
[그림 4-13]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 여부

○ 지원정책의 태도

-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지원 경험)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6%만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17%로 수혜율이 낮은 수준이었음

  –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받았던 내용은 현금지원이(59%), 학습지원(17%), 물적지원(15%) 등의 순이었음. 한편, 전라·제주권의 경우 진로프로그램 수혜율이 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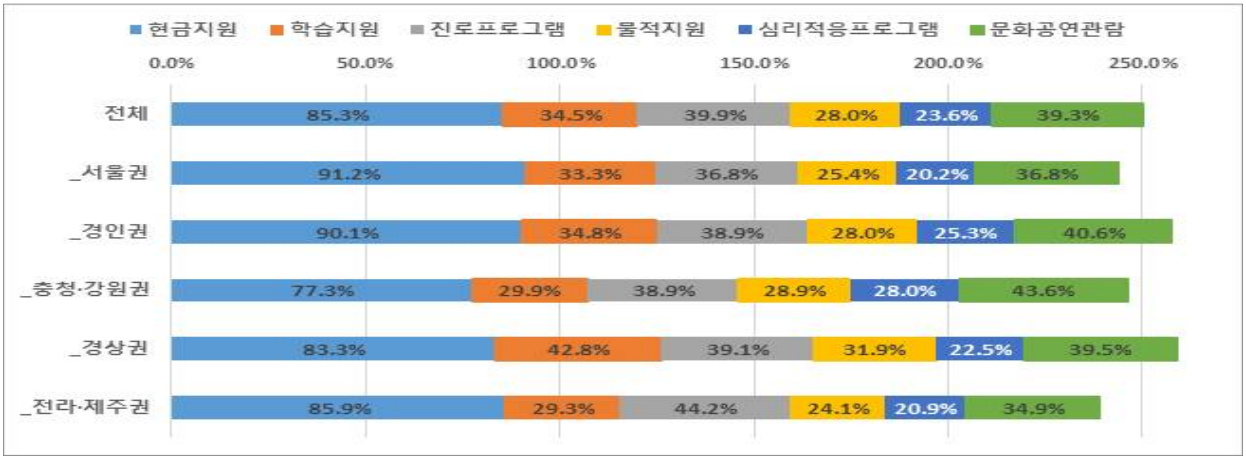
  – 해당 지원은 필요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가 필요했던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95%로 권역별 중에서 정책지원 적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4]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지원 경험

- (향후 원하는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현금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로프로그램, 문화공연관람, 학습지원 등의 순이었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마찬가지 순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프로그램 관련 정책욕구가 높은 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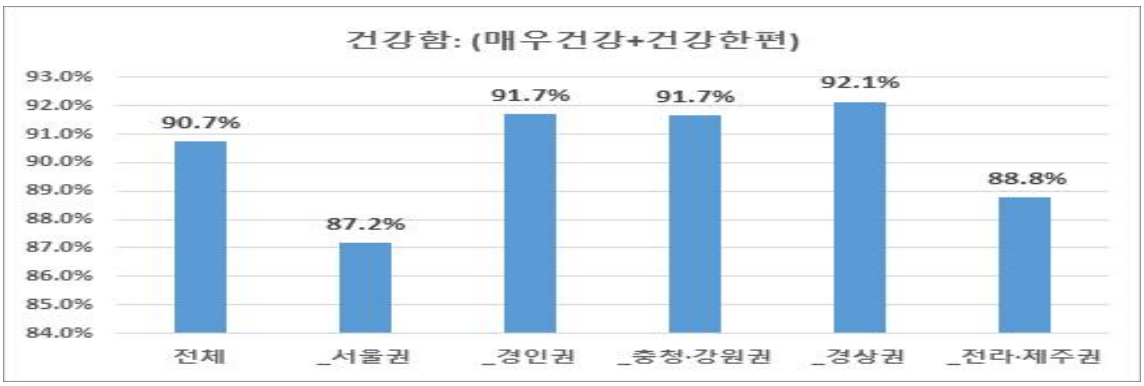
[그림 4-15] 향후 원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정책(다중응답)

② 개인적 특성

○ 신체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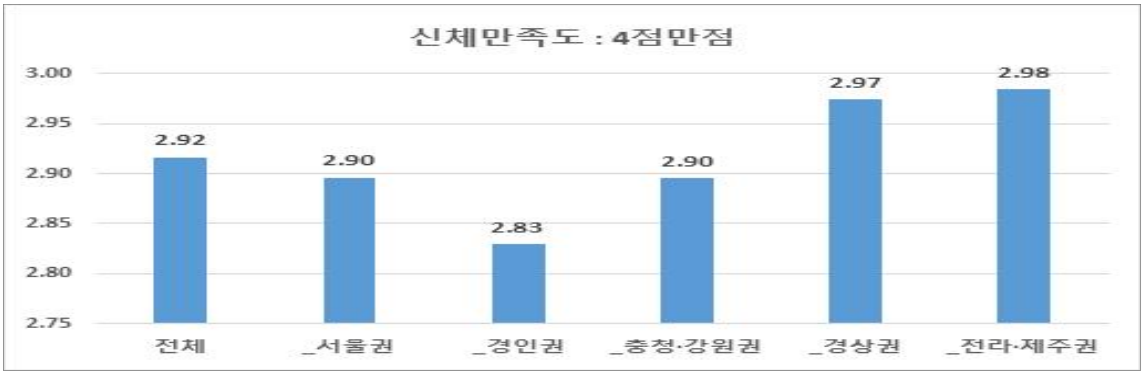
- (건강상태)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약 91%가 '건강하다(매우건강+건강한편)'고 인식하였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약 89%로 전국 평균보다 2%p 더 낮게 나타남

- (신체만족도)[19]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4점을 기준으로 2.92점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2.98점으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높긴 하였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특히 경인권은 2.83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음(F=4.37, p<.01)



[그림 4-16]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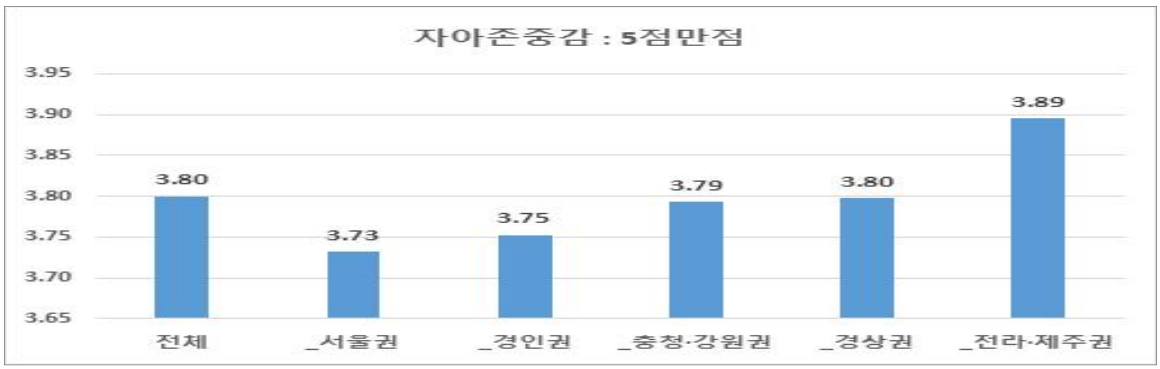
19) 신체만족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 항목으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그림 4-17] 신체만족도에 대한 평가

○ 사회·정서·행동

- (자아존중감)[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5점을 기준으로 3.80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3.89점으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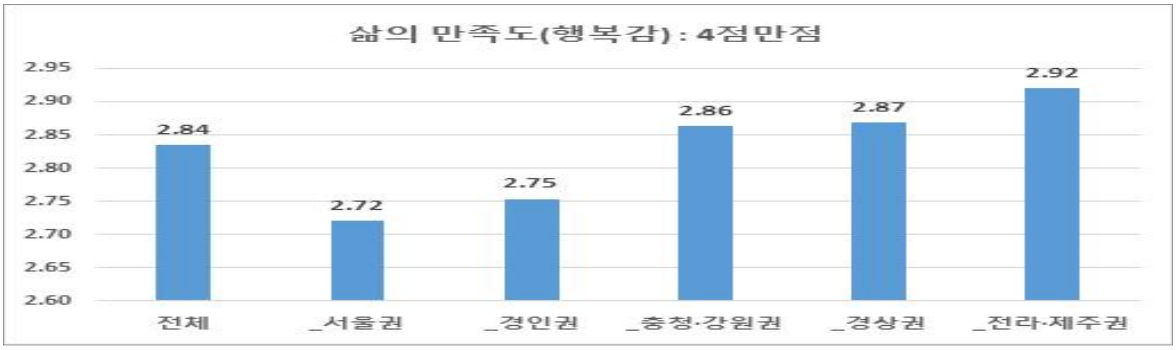


[그림 4-18] 자아존중감 수준

- (삶의 만족도)[21] 현재 삶의 행복함 정도를 살펴본 결과, 4점을 기준으로 2.84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2.92점으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높긴 하였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특히, 서울권은 2.72점으로 타 권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음($F=4.34$,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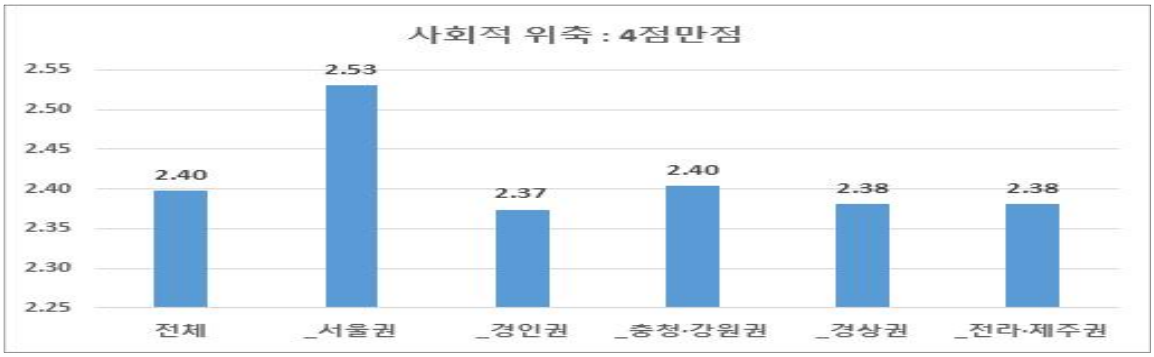
20)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 정도 관련 항목으로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등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1) 삶의 만족도: 행복함 정도 관련 항목으로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그림 4-19] 삶의 만족도 수준

- (사회적 위축)[22] 현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2.40점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서울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2.38점으로 5개 권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림 4-20] 사회적 위축 수준

-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23]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 진로/진학 관련 고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부·성적 > 경제형편 > 성격문제 > 건강 > 외모 > 친구관계 > 부모와의 갈등 > 이성친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진로/진학 관련 고민이 가장 높았고, 공부·성적 > 경제형편 > 건강 > 성격문제 > 친구관계/외모 > 부모와의 갈등 > 이성친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공부·성적 관련 고민은 서울권 및 경인권에서 특히 높았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충청·강원권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진로/진학 관련 고민은 경인권 > 서울권 > 충청·강원/전라·제주 > 경상권 순으로 높았음

  – 경제형편 관련 고민은 서울권 > 경인권 > 경상권 > 충청·강원권 > 전라·제주권 순으로 높았음

  – 부모와의 갈등 관련 고민은 충청·강원권 > 서울권 > 경인권/경상권 > 전라·제주권 순으로 높았음

22) 사회적 위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으로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23) 고민/걱정: 해당 항목에 대한 평소 고민/걱정 관련 문항으로 리커트 4점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1점)~매우 걱정한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민/걱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이성친구 관련 고민은 충청·강원권에서 특히 높았고, 경인권/경상권 > 서울권 > 전라·제주권 순임

– 친구관계 관련 고민은 서울권 > 경인권/충청·강원권 > 전라·제주권 > 경상권 순으로 높았음

– 성격문제 관련 고민은 서울권에서 특히 높았고, 경인권 > 충청·강원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순임

– 외모 관련 고민은 경인권에서 특히 높았고, 서울권 > 충청·강원권 > 경상권 > 전라·제주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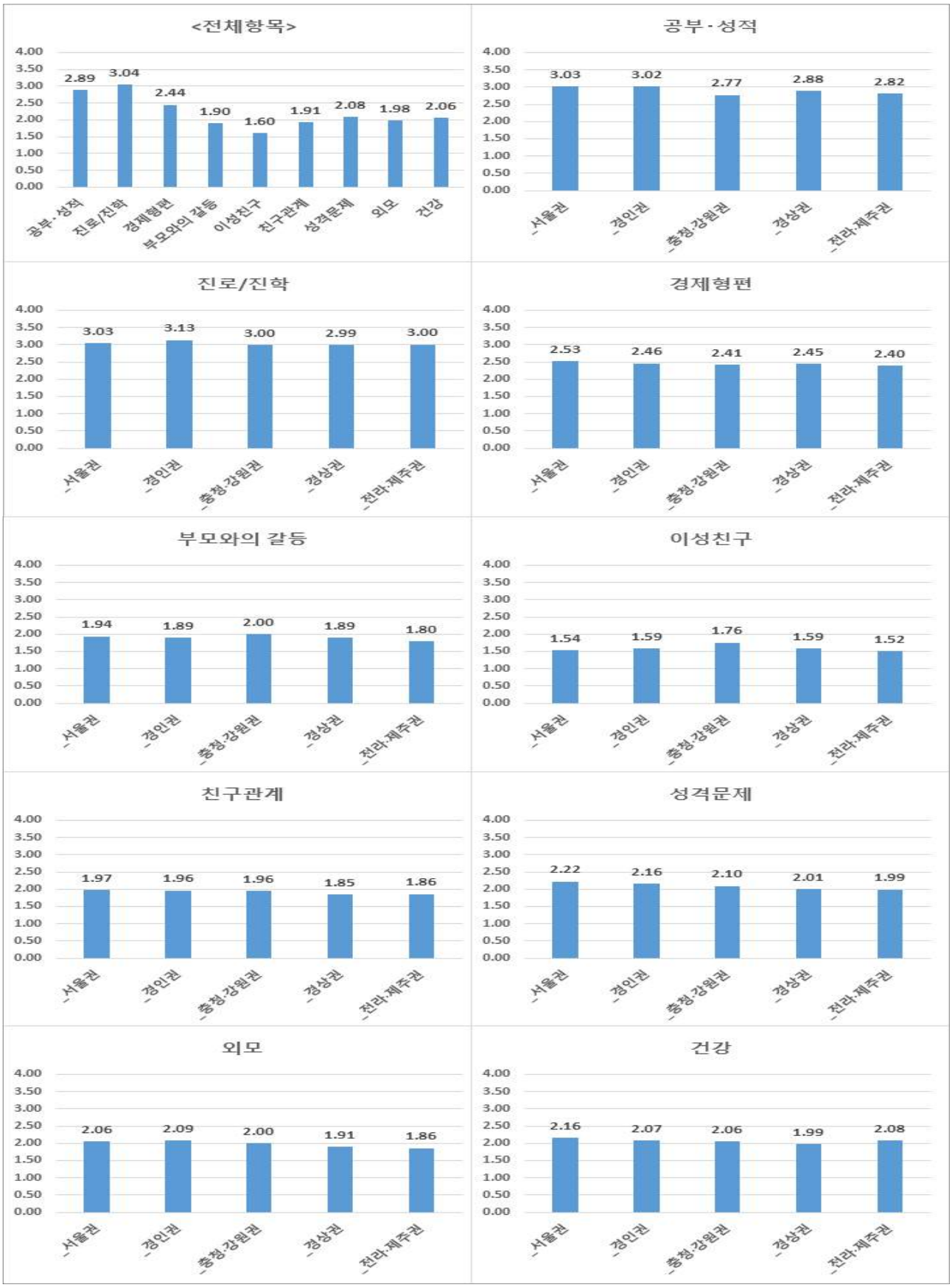
– 건강 관련 고민은 서울권 > 전라·제주권 > 경인권 > 충청·강원권 > 경상권 순으로 높았음

[표 4-3]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단위 : 점/4점기준/D)

구분	전체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F*
공부·성적	**2.89**	**3.03b**	**3.02b**	**2.77a**	**2.88ab**	**2.82a**	***4.80******
진로/진학	3.04	3.03	3.13	3.00	2.99	3.00	*1.69*
경제형편	2.44	2.53	2.46	2.41	2.45	2.40	*0.62*
부모와의 갈등	1.90	1.94	1.89	2.00	1.89	1.80	*1.93*
이성친구	**1.60**	**1.54a**	**1.59a**	**1.76b**	**1.59a**	**1.52a**	***3.75****
친구관계	1.91	1.97	1.96	1.96	1.85	1.86	*1.38*
성격문제	**2.08**	**2.22b**	**2.16ab**	**2.10ab**	**2.01a**	**1.99a**	***2.78****
외모	**1.98**	**2.06bc**	**2.09c**	**2.00abc**	**1.91ab**	**1.86a**	***3.54****
건강	2.06	2.16	2.07	2.06	1.99	2.08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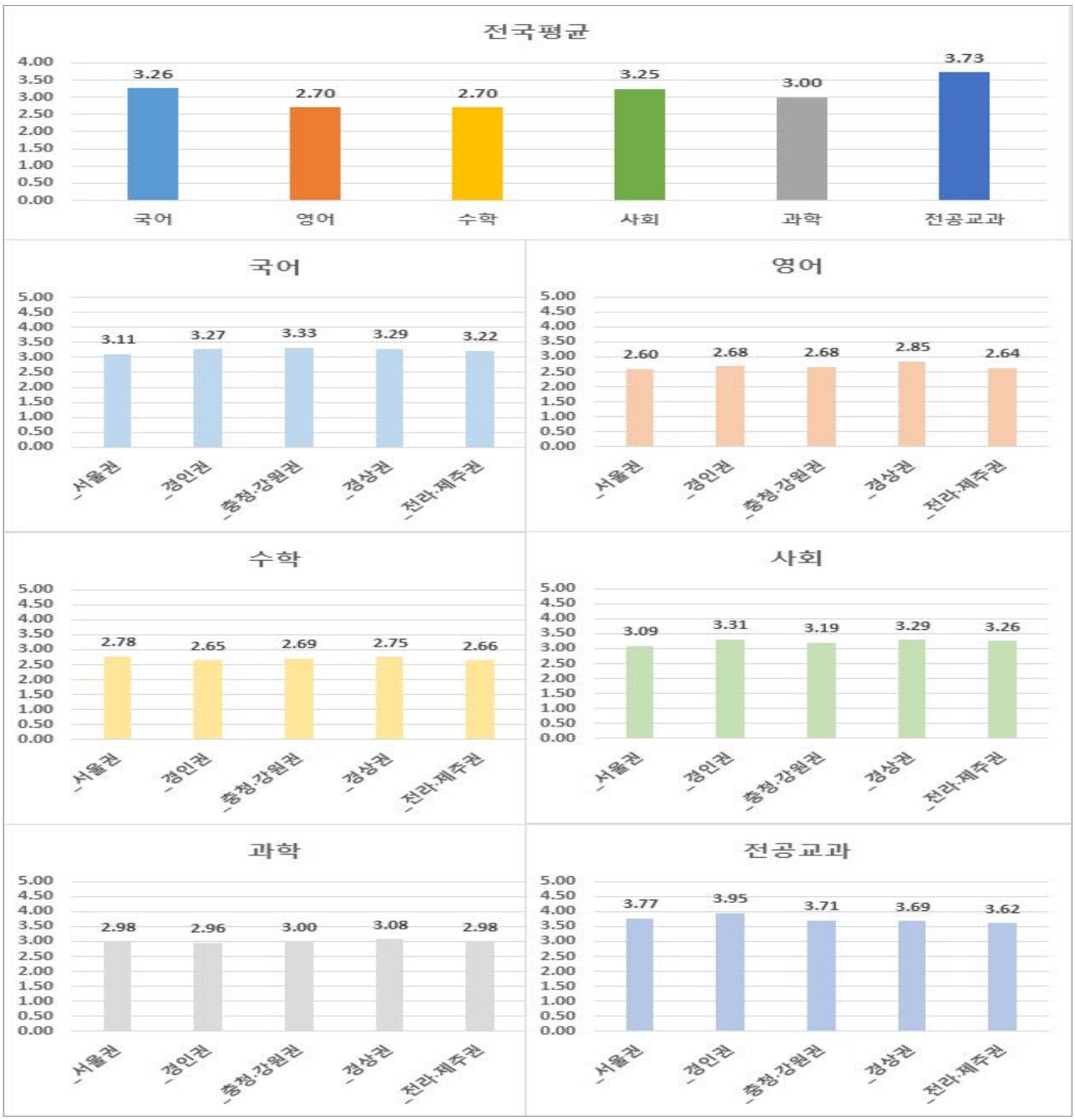
*p<.05, **p<.01, ***p<.001, 사후검증 Duncan a < b < c



[그림 4-21] 현재 고민 및 걱정거리

○ 인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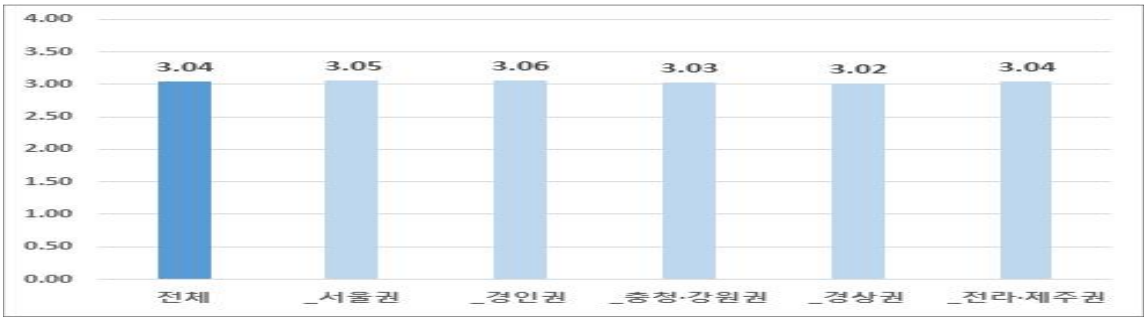
- (학교 성적)[24] 학교에서 과목별 학습성적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보면, 전공교과(3.73점), 국어(3.26점), 사회(3.25점), 과학(3.00점), 영어/수학(2.70점) 순으로 평가하였음. 영어와 수학 과목의 경우 보통수준이하로 평가하였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전국평균 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학교성적

24) 각 과목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것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함을 의미함.

- (성취 동기)[25] 성취동기 수준을 살펴본 결과, 4점을 기준으로 3.04점으로 성취동기 수준은 보통 수준이며, 5개 권역별로 유사한 수준을 보임



[그림 4-23] 학업 성취동기 수준

○ 진로결정의 특성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6.7%가 대학 진학, 취업 20.7%, 미결정 14.0% 등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100명 중 55명은 대학진학, 22명은 취업, 13명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남



[그림 4-24]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43.1%),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24.4%),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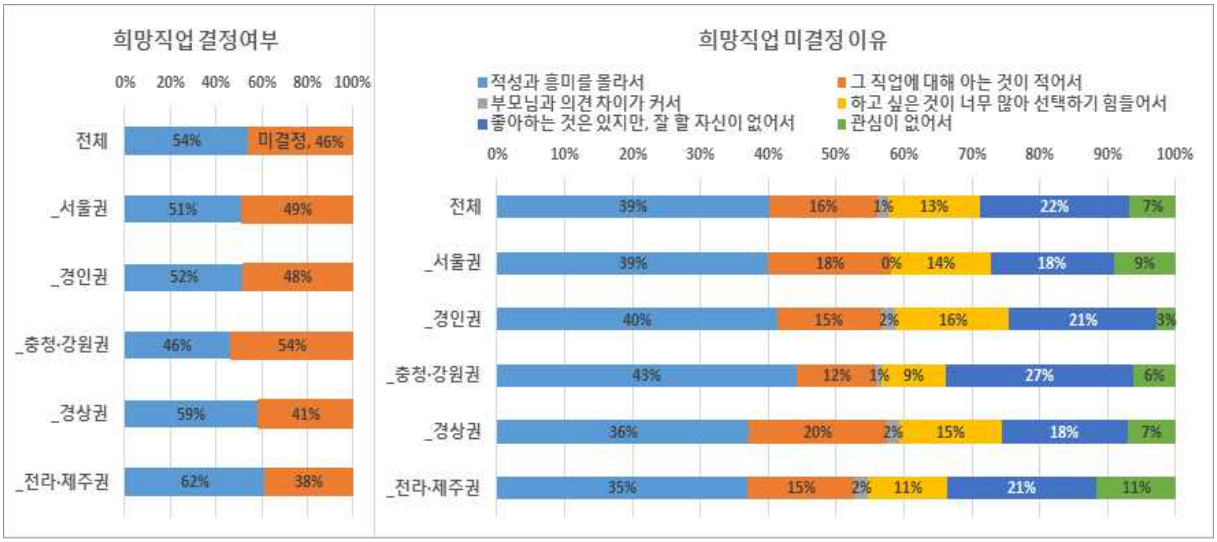
–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이 취업을 하려는 이유는 '관심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23.7%),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18.6%), 앞으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11.9%),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이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25) 성취동기: 성취동기와 관련한 항목에 대한 문항으로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등 총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커트 4점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는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함.

몰라서(44.1%), 생각해 본 적 없어서(26.5%),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이 어려워서(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희망 직업)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약 54%가 결정하였고, 46%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희망 직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62%로 5개 권역 중에서 가장 높았음. 한편, 결정하지 못한 46%의 학생의 경우 그 이유로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잘할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반면,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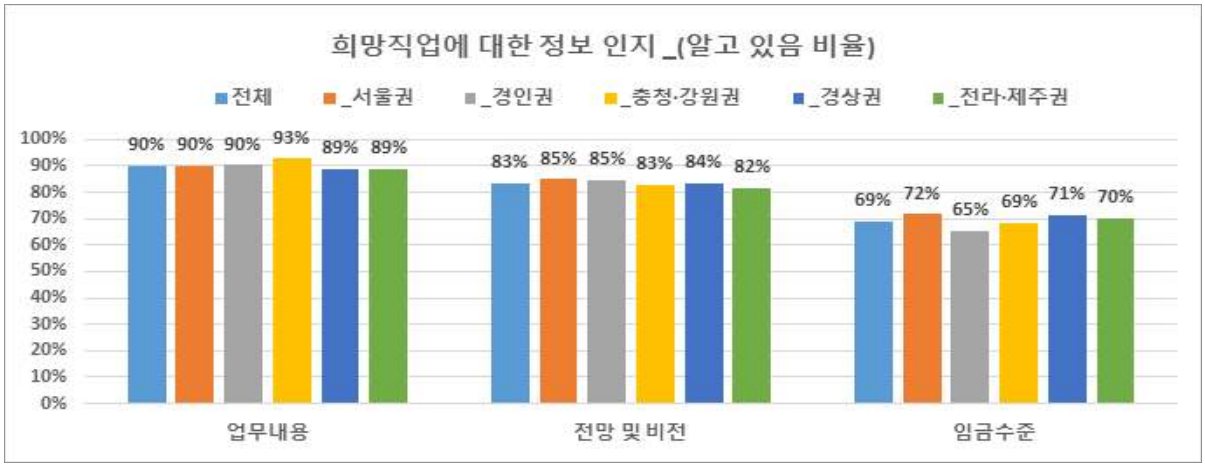
[그림 4-25] 장래 희망직업 결정여부 및 미결정 사유

-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 100명 중 약 62명꼴로 희망직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중분류 기준으로 상위 4개 직업을 살펴보면,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희망직업 1위가 타 권역과는 유일하게 다르게 나타남

[표 4-4] 희망직업을 결정한 경우, 희망하는 직업 TOP4

구분	1위	2위	3위	4위
전체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서울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경인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충청·강원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상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전라·제주권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희망직업을 결정한 경우, 그 직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업무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90%대, 전망 및 비전에 대한 인지율은 80% 초반대,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70%대 인지율을 보임. 전라·제주권의 경우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소폭 낮게 나타남



[그림 4-26] 희망 직업에 대한 관련 정보 인지율

- (학교의 진로교육·활동 만족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율이 6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심리검사(55.6%), 진로상담(44.2%) 등의 순으로 높았고, 직업 실무체험(9.9%), 현장 직업체험(16.5%) 순으로 낮았음

-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학 학과체험 및 현장 직업체험이 각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 실무체험(3.83점), 현장견학(3.80점) 순으로 높았음. 참여율이 낮았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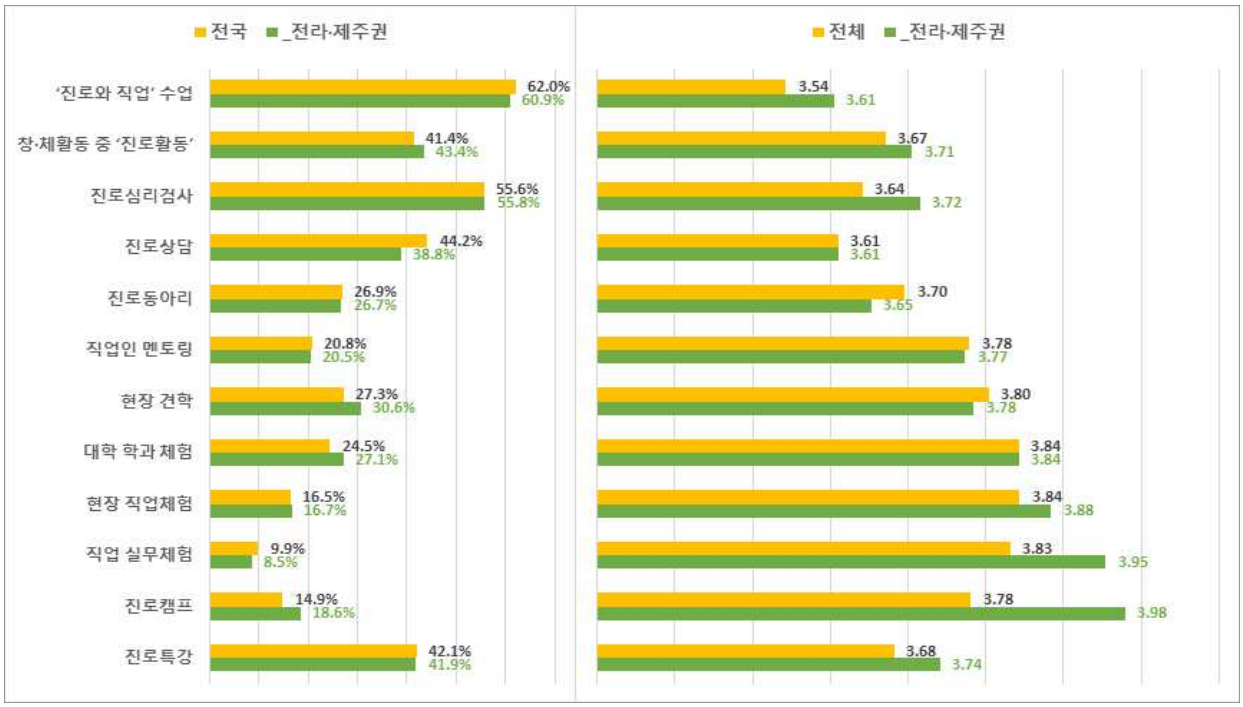
[표 4-5]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단위: %, 점/5점기준)

구분	전체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진로와 직업' 수업	62.0	*3.54*	57.3	*3.52*	59.6	*3.44*	63.8	*3.58*	66.1	*3.57*	60.9	*3.61*
창의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41.4	*3.67*	43.6	*3.67*	37.7	*3.53*	44.6	*3.73*	40.0	*3.73*	43.4	*3.71*
진로심리검사	55.6	*3.64*	43.6	*3.69*	53.0	*3.48*	64.6	*3.61*	55.7	*3.75*	55.8	*3.72*
진로상담	44.2	*3.61*	38.5	*3.60*	40.4	*3.55*	55.4	*3.65*	46.1	*3.64*	38.8	*3.61*
진로동아리	26.9	*3.70*	20.5	*3.67*	26.2	*3.67*	30.0	*3.78*	27.9	*3.69*	26.7	*3.65*
직업인 멘토링	20.8	*3.78*	23.9	*3.93*	20.9	*3.79*	20.4	*3.71*	20.0	*3.75*	20.5	***3.77***
현장 견학	27.3	*3.80*	26.5	*3.87*	23.8	*3.68*	26.3	*3.90*	29.3	*3.83*	30.6	***3.78***
대학 학과 체험	24.5	*3.84*	20.5	*4.04*	14.9	*3.98*	27.1	*3.74*	31.8	*3.80*	27.1	***3.84***
현장 직업체험	16.5	*3.84*	17.1	*4.00*	10.6	*3.78*	18.8	*3.62*	20.7	*3.97*	16.7	***3.88***
직업 실무체험	9.9	*3.83*	11.1	*4.15*	7.3	*3.77*	11.3	*3.59*	12.5	*3.86*	8.5	***3.95***
진로캠프	14.9	*3.78*	8.5	*4.00*	8.6	*3.77*	20.8	*3.56*	15.7	*3.77*	18.6	***3.98***
진로특강	42.1	*3.68*	38.5	*3.87*	31.8	*3.63*	50.4	*3.54*	47.9	*3.75*	41.9	***3.74***

– 전라·제주권의 경우,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율이 60.9%로 가장 높고, 진로심리검사(55.8%), 창의체험활동 중 진로활동(43.4%), 진로특강(41.9%) 순으로 높았음. 만족도의 경우 진로캠프가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 실무체험(3.95점), 현장 직업체험(3.88점) 등의 순임

– 전국 및 전라·제주권의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전라·제주권의 '진로상담' 참여율은 -5.4%p 낮았고, 진로캠프(▲3.7%p)와 현장견학(▲3.3%p) 참여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만족도의 경우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링, 현장 견학 프로그램의 경우만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4-27] 학교 진로교육 참여율 및 만족도

- (부모님 진로관련 행동) 부모님의 진로지도 관련 행동 수준을 살펴보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해 긍정적 지지를 해주는 정도가 아버지는 2.63점, 어머니는 2.82점으로 부모님 모두 지지 정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게서 좀 더 높았음

- 자녀의 진로에 대해 간섭 수준 이상의 부정적 행동 수준은 아버지 1.75점, 어머니 1.81점으로 학생이 간섭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낮은 편이었음. 반대로 관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아버지 1.88점, 어머니 1.87점으로 학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음

  – 전국 및 전라·제주권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의 경우, 지지, 간섭, 관여부족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어머니의 경우, 지지와 관여 부족 항목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고, 간섭 항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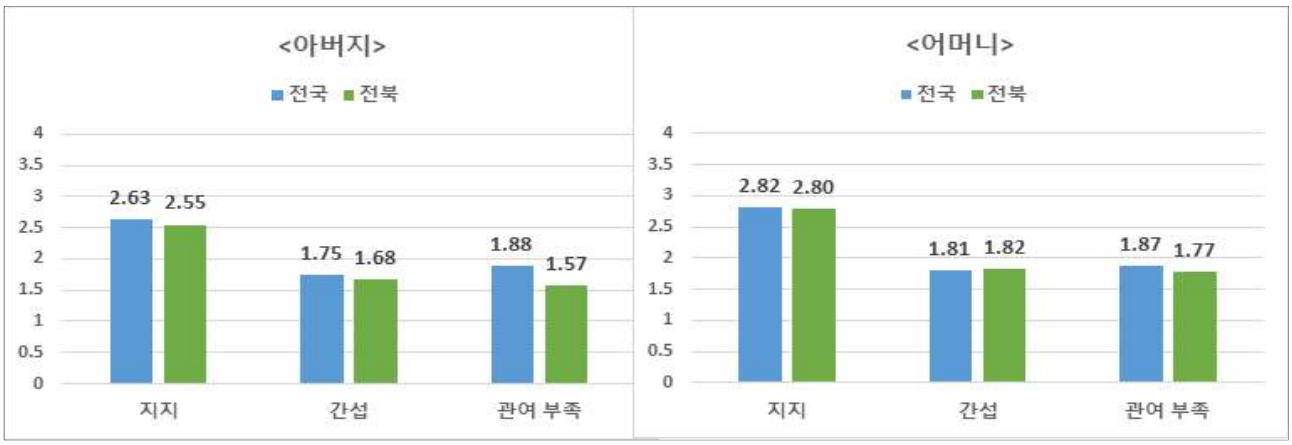
  – 한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관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부모님의 진로 관련 행동

(단위: 점/4점기준)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체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전체	서울권	경인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지지	2.63	2.46a	2.66b	2.67b	2.69b	2.55ab	2.82	2.67	2.83	2.84	2.86	2.80
		F=2.83, p<.05						F=1.83, p>.05				
간섭	1.75	1.57a	1.65a	1.88b	1.88b	1.68a	1.81	1.75ab	1.68a	1.91b	1.86bc	1.82bc
		F=8.88, p<.001						F=4.91, p<.001				
관여 부족	1.88	1.77a	1.81a	2.00b	1.95b	1.57a	1.87	1.93	1.85	1.95	1.88	1.77
		F=4.29, p<.01						F=2.08, p>.05				

* 지지: '나에게 가능한 진로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등 3개 문항 리커트 4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
* 간섭: '나의 진로에 대해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등 3개 문항 리커트 4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간섭 정도가 높음을 의미
* 관여부족: '직장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으시다' 등 3개 문항 리커트 4점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



[그림 4-28] 부모님의 진로 관련 행동

③ 환경적 특성

○ 부모와의 관계 특성

- (부모님과의 활동)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음' 응답을 기준으로 모든 활동 항목에서 전라·제주권 가정의 자녀와의 활동 빈도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외식은 3.4%p 더 높았고, 영화/연극은 0.8%p, 박물관/음악회 7.0%p, 여행/낚시 8.1%p, 운동 1.4%p 더 높게 나타남. 여행이나 박물관 등 여가 및 문화생활 영역의 활동이 전라·제주권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제주권 다문화가정 자녀 100명 중 80명은 부모님과 박물관이나 음악회는 문화생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부모님과의 활동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회/1년	1-2회/한학기	1-2회/월	1-2회/주	3회이상/주
외식하기	전국	*8.6*	15.4	22.4	43.4	8.9	1.3
	전라·제주권	*12.0*	16.7	26.4	36.4	7.4	1.2
영화/연극	전국	*37.6*	28.2	20.1	12.5	1.1	0.5
	전라·제주권	*38.4*	31.0	17.4	11.6	0.8	0.8
박물관/음악회	전국	*73.6*	18.0	6.2	1.8	0.1	0.3
	전라·제주권	*80.6*	13.2	4.7	0.8	0.4	0.4
여행/낚시	전국	*38.0*	40.5	16.4	4.6	0.2	0.3
	전라·제주권	*46.1*	34.5	14.7	3.9	0.0	0.8
운동	전국	*49.0*	18.6	10.1	13.7	4.8	3.7
	전라·제주권	*50.4*	18.2	7.8	15.5	3.9	4.3

-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를 살펴보면, '전혀 하지 않거나', '1년에 1-2번' 대화를 하는 응답을 기준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라·제주권 가정의 자녀와의 대화 빈도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남

  - 학교생활은 0.5%p, 나의 흥미와 적성 4.5%p, 나의 미래직업 4.4%p, 학교 및 학과 선택 3.8%p, 삶의 가치관 5.6%p 더 높게 나타남

  - 전라·제주권 다문화가정 자녀 100명 중 42명꼴로 삶의 가치관에 대해 전혀 하지 않거나, 1년에 1-2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6명꼴로 자녀의 학교 및 학과 선택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8]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하지 않음*	1-2회/1년	1-2회/한학기	1-2회/월	1-2회/주	3회이상/주
학교생활	전국	*6.6*	4.9	10.2	25.4	30.8	22.1
	전라·제주권	*8.1*	3.9	10.9	21.3	35.7	20.2
나의 흥미와 적성	전국	*7.9*	9.3	18.4	30.9	22.7	10.9
	전라·제주권	*10.1*	11.6	16.7	28.3	20.5	12.8
나의 미래 직업	전국	*6.6*	10.7	21.6	31.2	20.6	9.4
	전라·제주권	*10.5*	11.2	17.8	29.8	19.0	11.6
학교 및 학과 선택	전국	*9.8*	12.0	22.6	30.5	17.5	7.7
	전라·제주권	*11.6*	14.0	18.2	27.9	18.6	9.7
삶의 가치관	전국	*20.9*	15.4	18.6	23.5	13.7	7.9
	전라·제주권	*25.2*	16.7	15.9	18.2	14.3	9.7

○ 학교생활

- (교우관계)[26] 평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5점을 기준으로 4.05점으로 교우관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권역별로는 전라·제주권 학생들의 만족도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음
- (선생님과의 관계)[27] 평소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5점을 기준으로 3.88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며, 권역별로는 충청·강원권 학생들의 만족도가 3.92점으로 가장 높았음
- (학교생활 만족도)[28] 현재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5점을 기준으로 3.72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며, 권역별로는 전라·제주권 학생들의 만족도가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합해보면, 다문화학생들은 교우관계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며, 다음으로 선생님과의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9]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및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 지역사회 지지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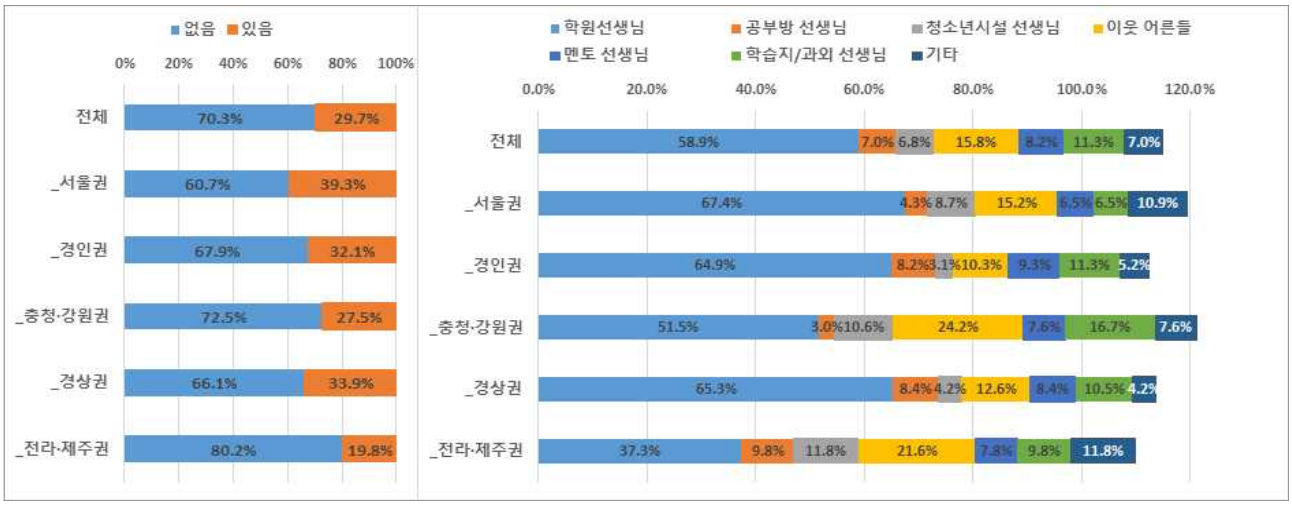
- (학교 밖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해 29.7%만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권역별

26) 교우관계: 평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관련 항목으로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나는 친구들과 방과 후에도 어울린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음을 의미함.

27) 선생님과의 관계: 평소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관련 항목으로 "선생님들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등 총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함.

28) 학교생활 만족도: 현재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리커트 5점척도로 매우 불만족 한다(1점)~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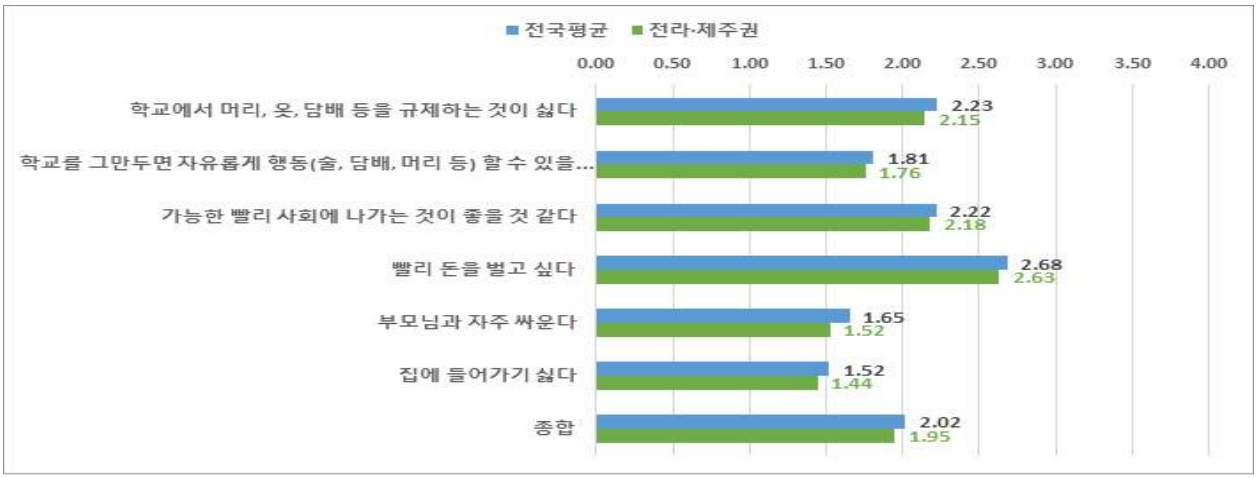
로는 전라·제주권에서 19.8%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0%p 더 낮았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학원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습지/과외 선생님 순이었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공부방 및 청소년시설 선생님, 이웃 어른들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전라·제주권의 사설학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4-30] 학교 밖에서 도움을 주는 성인 여부 및 대상

○ 학업중단 요인

- (생활 및 태도)[29] 학업중단 위험요인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종합 2.02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전라·제주권 학생들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1.95점으로 나타남. 한편,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응답은 전국(2.68점), 전라·제주권(2.63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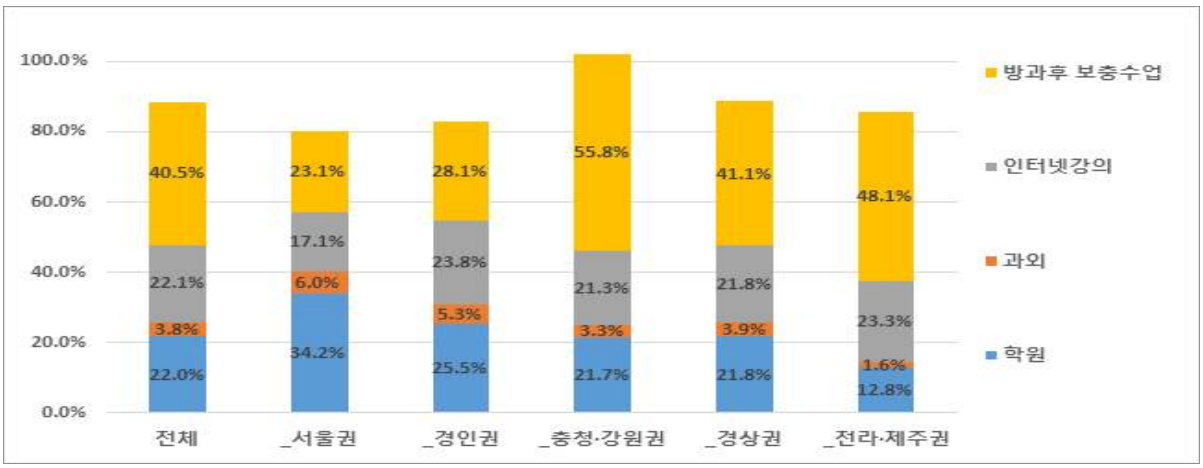


[그림 4-31] 학업중단 위험요인

29) 학업중단 위험요인: 평소 생활 및 태도 관련 항목으로 해당 문항에 대해 리커트 4점척도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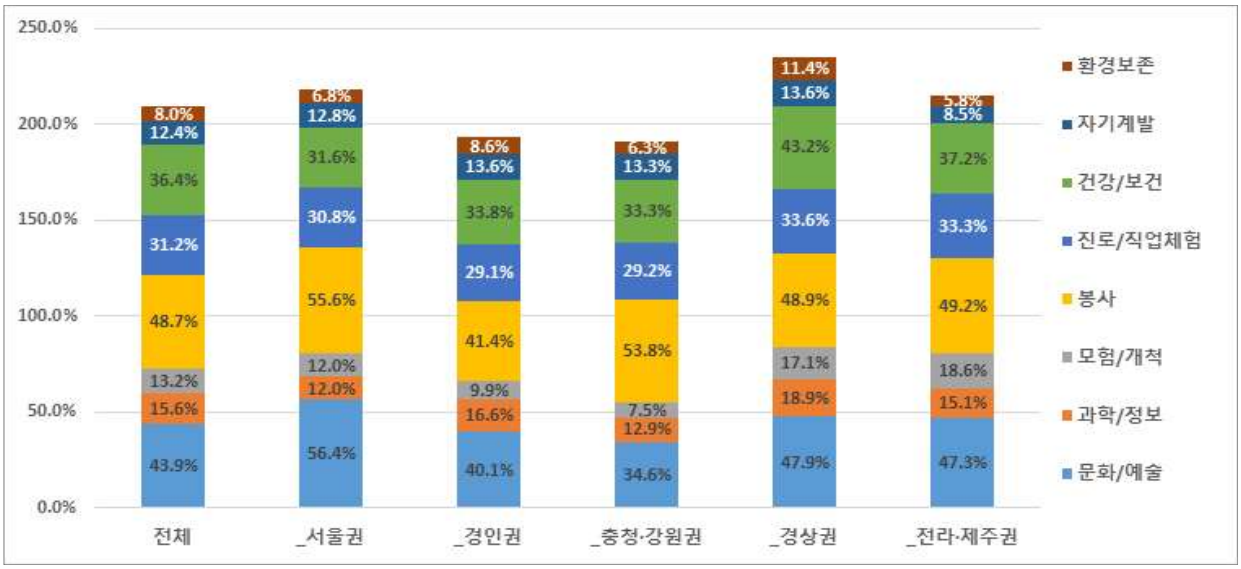
○ 학습활동

- (교과목 관련 학습활동 참여유형) 공부를 위한 학습활동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방과후 보충수업 참여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강의(22.1%), 학원(22.0%) 등의 순임. 전라·제주권의 경우 학원 및 과외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인터넷강의 및 방과후 보충수업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2] 교과목 관련 학습활동 참여유형

-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이 4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 43.9%, 건강/보건활동 36.4%, 진로/직업체험활동 3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소폭 높게 나타남



[그림 4-33] 청소년활동 참여유형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관련 내용 분석

① 배경변인

○ 가족특성

- (혼인상태)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결혼상태가 90.2%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별 4.3%, 이혼 3.9% 순임. 서울권은 이혼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별거 비율이 2.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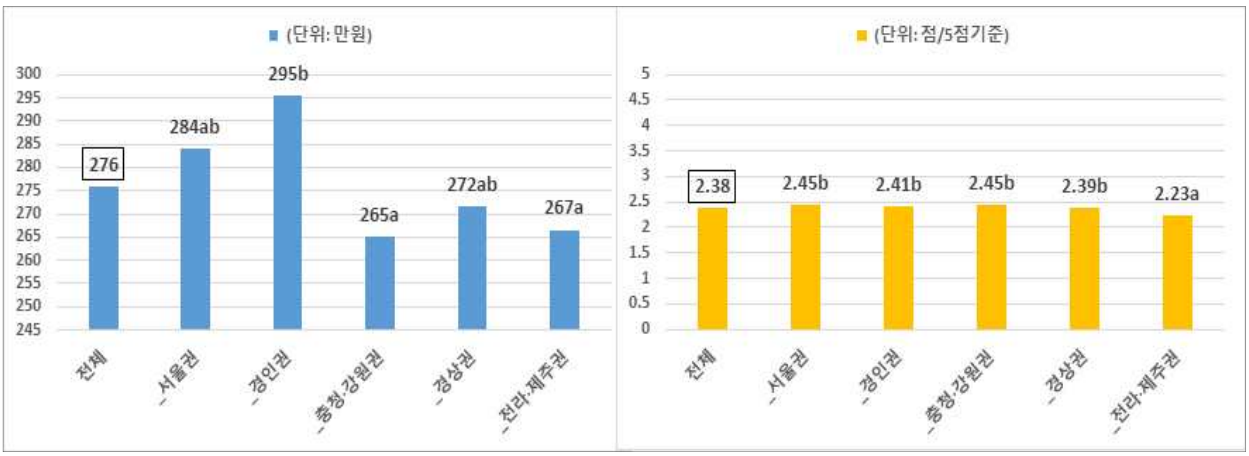
[표 4-9] 현재 혼인상태

(단위: %)

구분	결혼	이혼	별거	사별	동거
전 체	**90.2**	**3.9**	**1.2**	**4.3**	**0.3**
서울권	86.5	6.3	0.9	5.4	0.9
경인권	90.1	5.5	0.7	3.4	0.3
충청·강원권	91.1	1.7	0.9	6.4	0.0
경상권	91.5	3.7	1.1	3.3	0.4
전라·제주권	89.8	3.5	2.4	3.9	0.4

- (소득수준) 현재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세전)을 살펴보면, 평균 276만원이었으며, 경인권이 29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강원권(265만원) 및 전라·제주권(267만원) 순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F=2.71, p<.05)

- (주관적 소득수준)[30] 현재 가정 경제상황에 대한 지각수준을 살펴보면, 2.38점이었으며, 전라·제주권의 경우 2.23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여 차이를 보임(F=3.58, p<.01)



[그림 4-34] 월평균 소득수준 및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30) 주관적 소득수준: 현재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으로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여, 아주 어렵다(1점)~아주 잘 산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잘 산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② 다문화적 특성

○ 언어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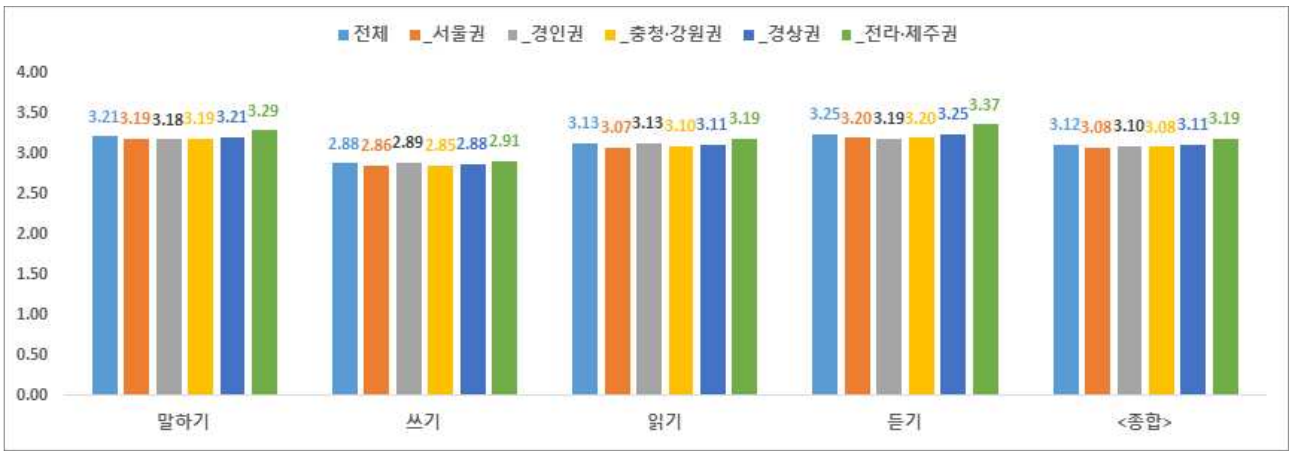
- (모국어) 현재 한국거주기간은 평균 19년으로 일본어가 37.1%, 필리핀어 25.0%, 중국어 24.9% 등의 순으로 많았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필리핀어가 34.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10] 모국어

(단위: %)

구분	영어	중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대만어	태국어	일본어	기타
전체	**1.4**	**24.9**	**0.4**	**25.0**	**1.9**	**2.0**	**0.5**	**4.2**	**37.1**	**2.8**
서울권	0.0	32.0	0.0	14.4	4.1	0.0	1.0	1.0	46.4	1.0
경인권	0.7	25.3	1.1	22.0	3.6	1.4	1.1	3.2	38.3	3.2
충청·강원권	2.2	26.9	0.4	27.3	1.3	1.3	0.0	3.5	34.4	2.6
경상권	1.9	25.7	0.0	20.7	1.1	4.2	0.0	6.9	35.6	3.8
전라·제주권	1.2	19.0	0.0	34.7	0.4	1.6	0.4	4.4	36.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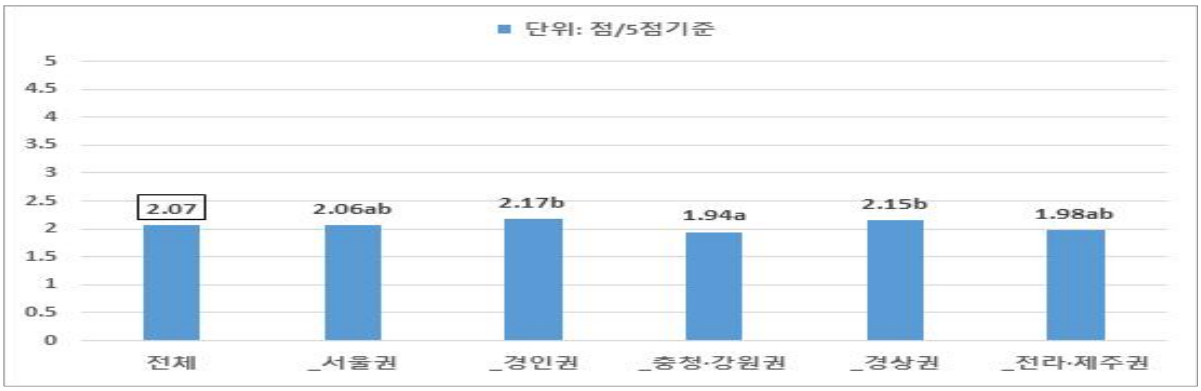
- (한국어 수준) 현재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4점 기준으로 듣기(3.25점), 말하기(3.21점), 읽기(3.13점), 쓰기(2.88점) 순으로 종합 3.12점으로 '잘하는 편'으로 평가하였음. 권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전라·제주권이 점수가 가장 높았음



[그림 4-35] 한국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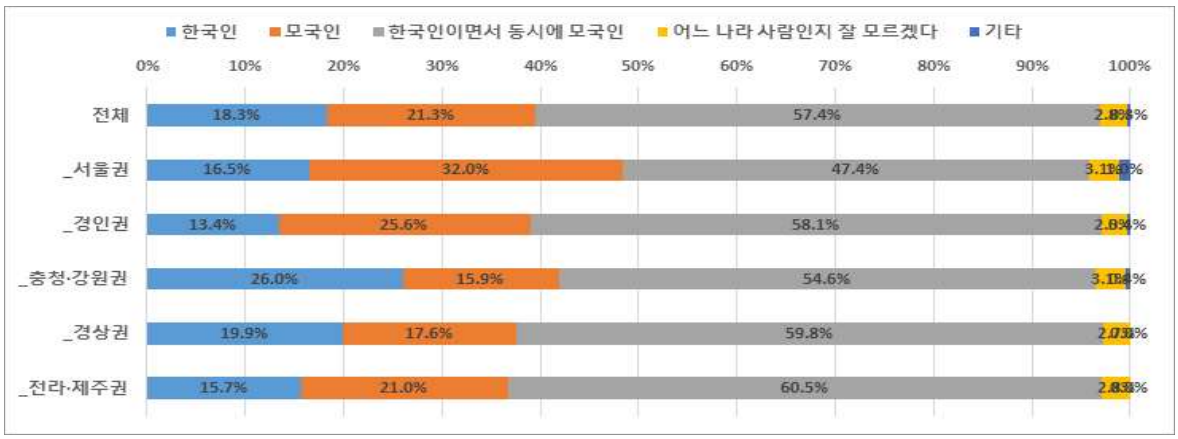
○ 이중문화 경험

-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5점으로 기준으로 2.07점으로 19년 거주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충청·강원권이 어려움 정도가 가장 낮았고, 경인권(2.17점)과 경상권(2.15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F=3.09$, $p<.01$)



[그림 4-36] 문화적 차이의 어려움

- (국적 정체성)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국이면서 동시에 모국인' 응답이 5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국인 21.3%, 한국인 18.3% 순이었음. 한편, 서울권, 경인권, 전라·제주권의 경우,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모국인이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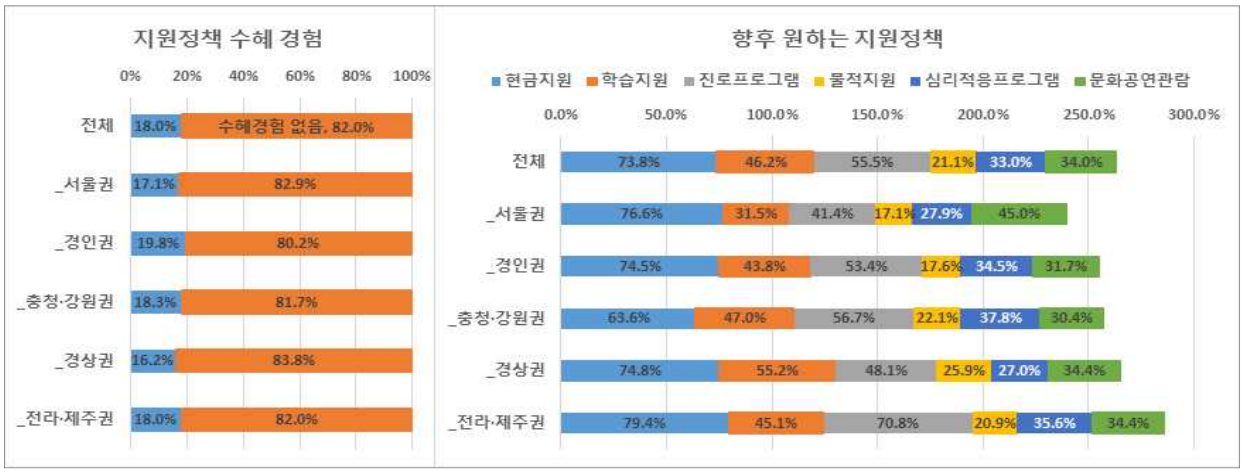
[그림 4-37] 국적 정체성

○ 지원정책의 태도

- (지원정책 수혜 경험)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2.0%가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권역별로 유사한 비율이었음

- (향후 원하는 지원)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현금지원(73.85%)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진로프로그램(55.5%), 학습지원(46.2%)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라·제주권의 경우 현금지원(79.4%)과 진로프로그램(70.8%)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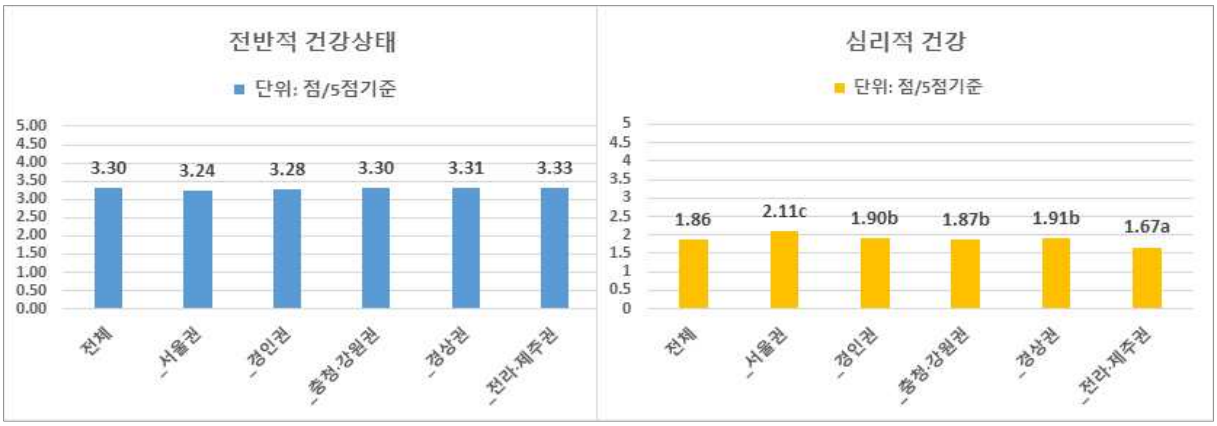
[그림 4-38] 지원정책 수혜경험 및 향후 원하는 지원정책

③ 개인 및 환경 특성

○ 모(母)의 신체·심리적 특성

- (건강상태)[31]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3.30점으로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음

- (심리적 건강)[32]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1.86점으로 심리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심리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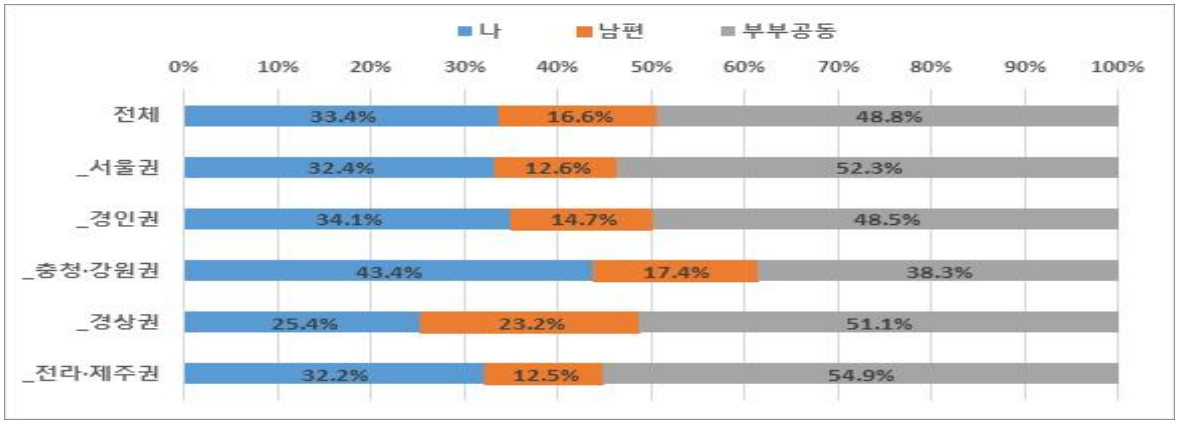


[그림 4-39] 어머니의 신체·심리적 특성

31)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나쁘다(1점)~매우 좋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32) 심리적 건강: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쉽게 잠들거나, 깊이 자는 것이 힘들다", "불행과 우울함을 느낀다" 등 총 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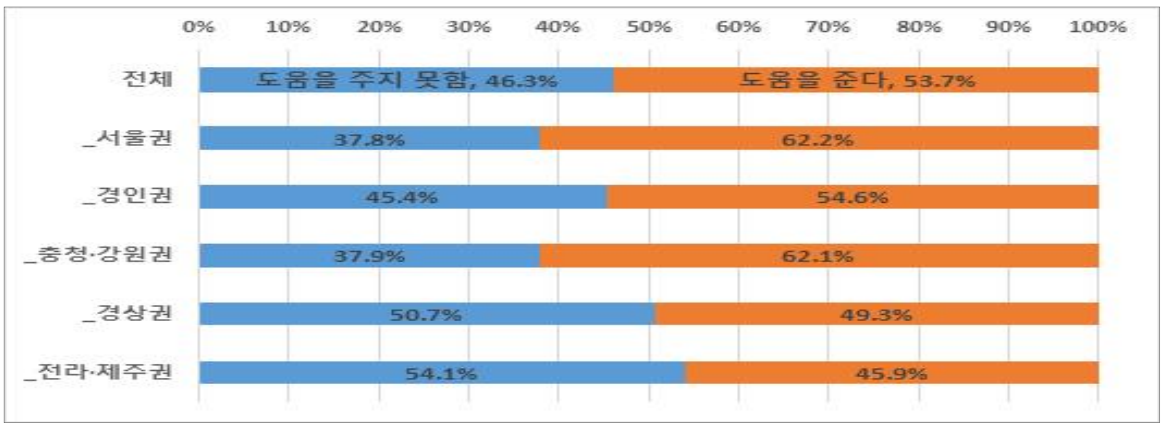
○ 자녀교육 특성

- (자녀교육 주 의사결정자) 가정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주로 누가하는지 살펴보면, 부부공동 48.8%, 내가 33.4%, 남편 16.6% 등의 순이었음. 경상권의 경우 남편이 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부부공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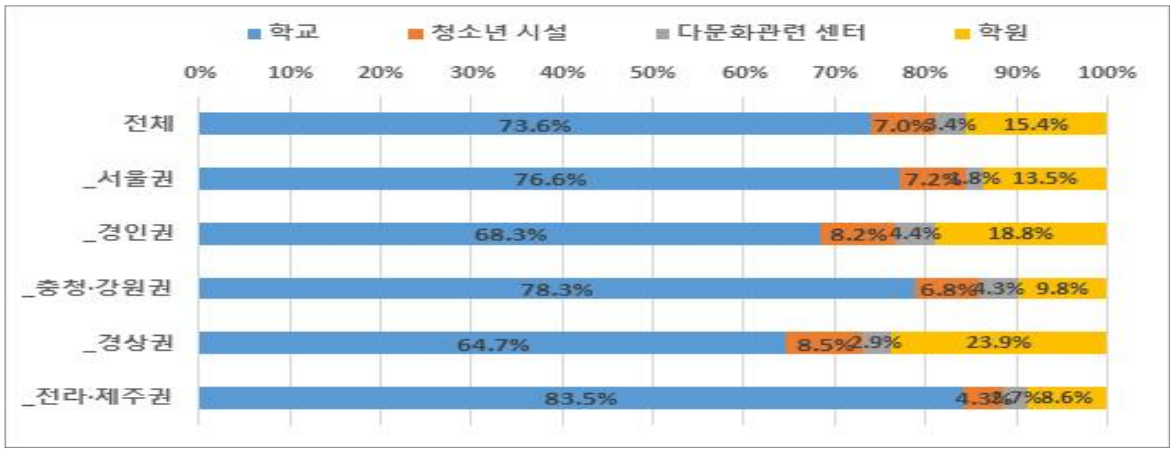
[그림 4-40] 자녀교육 관련 주된 의사결정자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53.7%로 나타났고, 전라·제주권의 경우 반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응답이 54.1%로 더 높았음



[그림 4-41]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선호도)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면 어디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학교(73.6%), 학원(15.4%), 청소년시설(7.0%) 등의 순이었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학교 비율이 83.5%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42]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선호도

- (사교육 여부 및 가계 부담 정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교육 참여 여부를 보면 사교육을 시킨다는 응답은 33.5%였고, 사교육비 가계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이로 인해 가계 부담 정도도 73.8%로 가장 낮았음



[그림 4-43] 지원프로그램 제공 장소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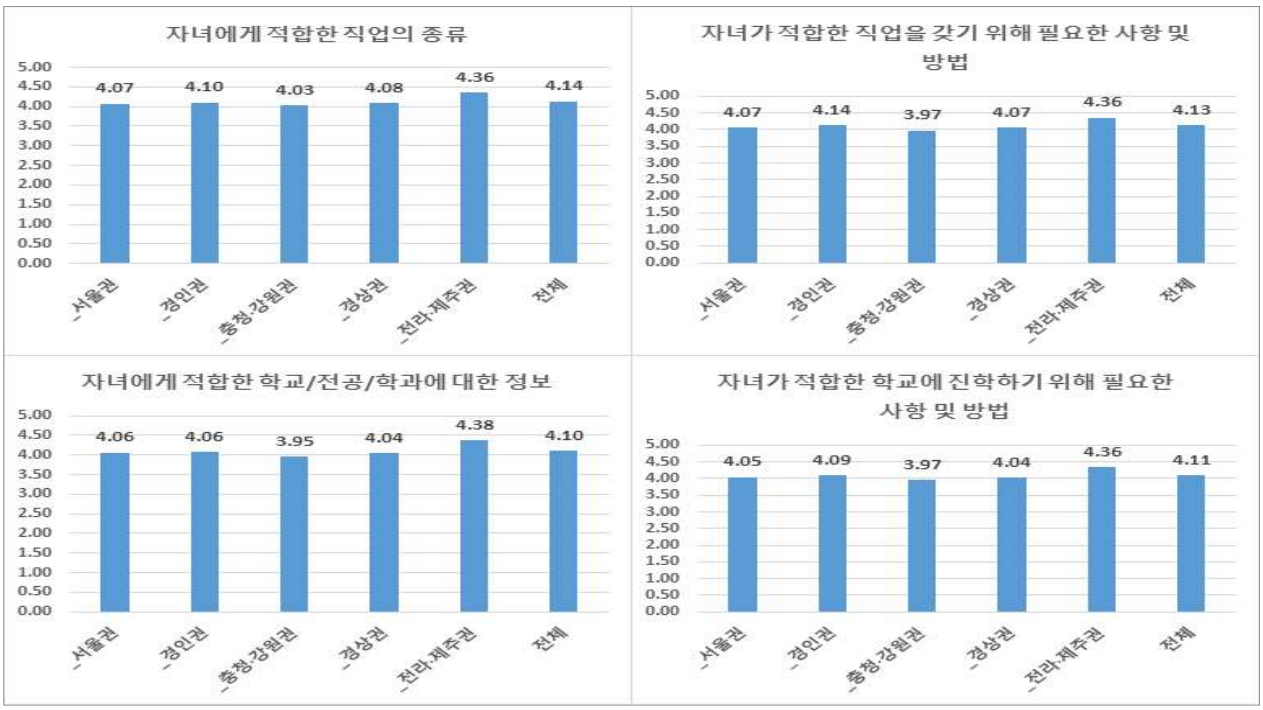
○ 진학·진로지도 특성

-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자녀가 나중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등이 높은 비율을 보임. 자녀가 바라는 직업과 부모가 바라는 직업에는 다소 차이를 보임

[표 4-11] 장래 직업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바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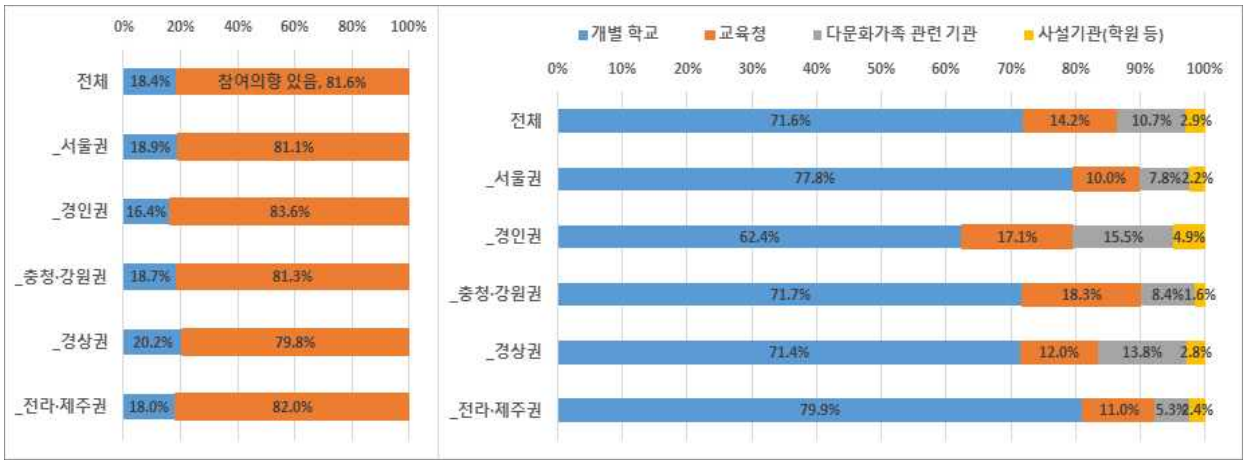
구분	자녀			부모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전체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서울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경인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충청·강원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상권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전라·제주권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지원 욕구)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지원에 대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적합한 직업의 종류 4.14점, 자녀가 적합한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방법 4.13점, 진학에 필요한 방법 4.11점, 학교/전공/학과에 대한 정보 4.1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4] 자녀의 진로지도 관련 지원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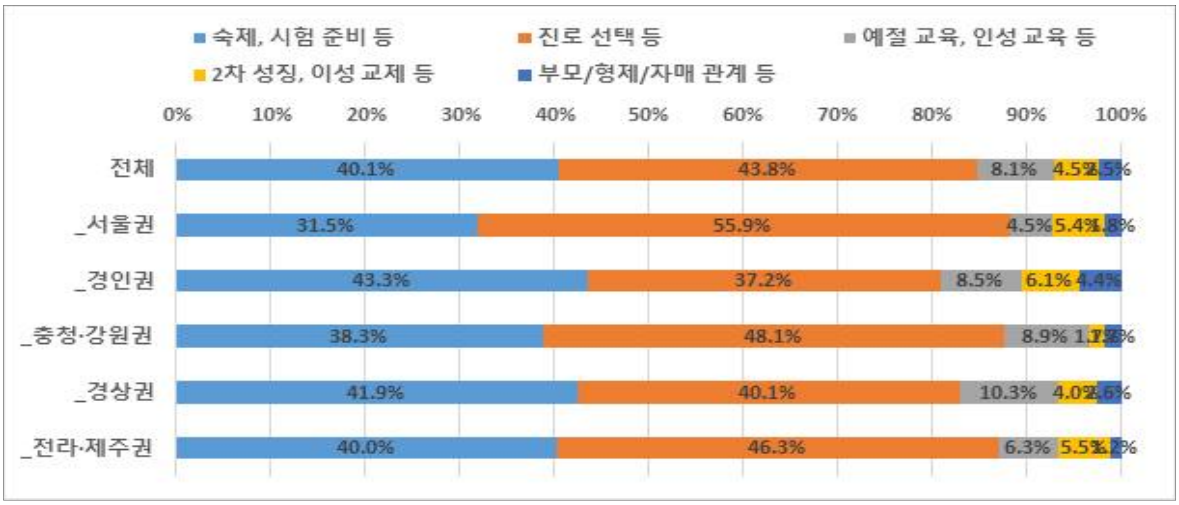
- (진로·진학설명회 참석의향 및 희망 개최 기관)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할 의향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1.6%가 참석을 희망하였고, 개최기관으로는 학교(71.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청(14.2%), 다문화가족센터(10.7%) 순이었음. 전라·제주권의 경우 희망 개최기관으로 학교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응답은 낮게 나타남



[그림 4-45] 진로진학설명회 참석의향 및 희망하는 개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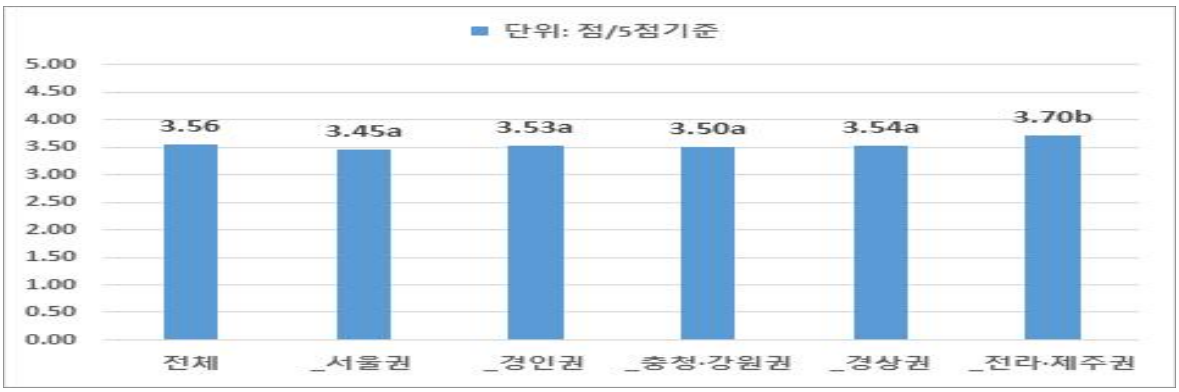
❍ 양육특성

-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진로(43.8%)와 학습(40.1%) 관련 부분으로 나타남. 전라·제주권의 경우 전국 응답과 유사한 분포였으나,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4-46]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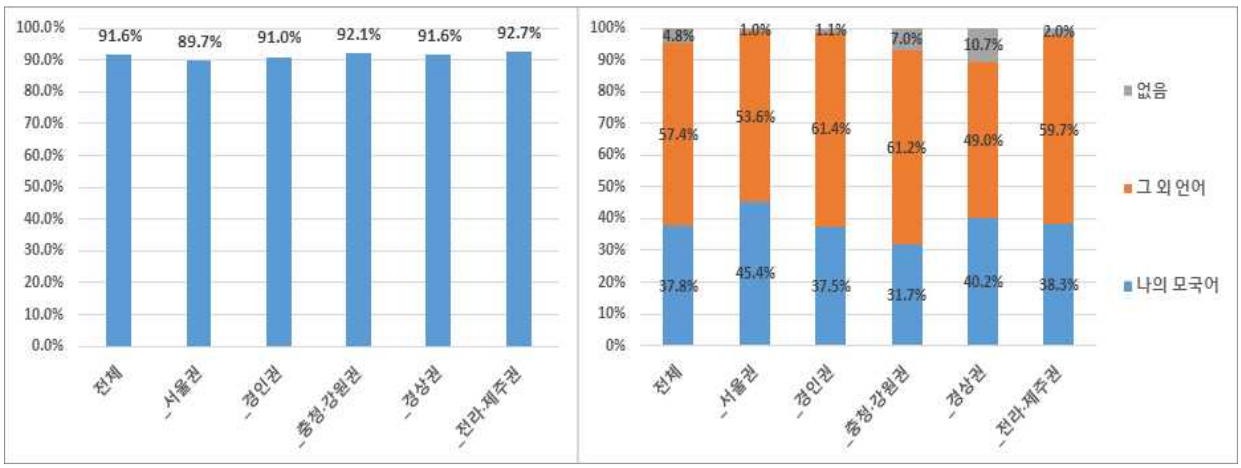
- (부모효능감)[33]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 충족 정도를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부모효능감 수준은 3.56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전라·제주권 부모의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권역과 차이를 보임(F=6.97, p<.001)



[그림 4-47] 부모효능감 정도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1.6%로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권역별로는 전라·제주권에서 조금 높았음

-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언어) 한국어 외에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언어는 모국어가 아닌 그 외 언어가 57.4%로 나타남. 모국어를 잘했으면 하는 응답은 37.8%였음



[그림 4-48]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한국어 외에 자녀가 배웠으면 하는 언어

33) 부모효능감: 부모의 역할 충족 정도 관련 항목으로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아이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등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함.

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른 전북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실태

1)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4년 '국가의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사임. 조사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교육부와 공동으로 매년 중 1년 ~ 고 3년까지의 청소년을 적게는 5만 5천명에서 많게는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음

○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 전반의 행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고, 학교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됨. 그리고 국가 간 비교 분석이 가능한 청소년 보건 지표 및 국내외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함

○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의 대표성 강화와 조사결과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표본설계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2018년부터 조사명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로 변경됨

▮ 2차 자료의 개요 및 조사 내용

○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중·고등학교이며, 중·고등학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17개 시·도를 44개 지역군으로 분류하고 표본배분은 중학교 50 대 고등학교 50 비율로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과 성별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각각 400개인 800개교의 1,200개 학급(학년별 1개 학급)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함. 이에 전국적으로 중 1학년 ~ 고 3학년 학생 약 6만 여명이 매년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 2020년에 실시한 제16차 조사는 57,9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54,948명으로 94.9%의 참여율을 보임. 조사에 응답한 54,948명 중 남학생 28,353명, 여학생 26,595명임.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28,961명, 고등학생 25,987명(일반계 20,975명, 특성화계고 5,012명) 이었음

[표 4-1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참여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참여자 수			구분	참여자 수		
	계	비다문화	다문화		계	비다문화	다문화
전체	54,948	53,883	1,065	전체	54,948	53,883	1,065
서울	7,691	7,537	154	중학교	28,961	28,208	753
부산	3,326	3,280	46	중1	10,005	9,655	350
대구	2,767	2,717	50	중2	9,564	9,350	214
인천	3,020	2,955	65	중3	9,392	9,203	189
광주	2,069	2,039	30	고등학교	25,987	25,675	312
대전	2,069	2,038	31	고1	8,907	8,779	128
울산	1,779	1,750	29	고2	8,907	8,813	94
세종	900	883	17	고3	8,173	8,083	90
경기	12,236	12,022	214	남학생	28,353	27,856	497
강원	2,054	2,008	46	여학생	26,595	26,027	568
충북	2,104	2,057	47				
충남	2,335	2,277	58				
전북	2,351	2,298	53				
전남	2,278	2,216	62				
경북	2,905	2,830	75				
경남	3,668	3,606	62				
제주	1,396	1,370	26				

○ 조사 내용은 총 15개 영역의 120 여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및 '건강형평성' 영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함

- 15개의 조사영역과 120여개 문항 구성 : 흡연(19문항), 음주(6문항), 신체활동(5문항), 식생활(7문항), 비만 및 체중조절(4문항), 정신건강(13문항), 손상 및 안전의식(3문항), 구강건강(4문항), 개인위생(2문항), 성행태(4문항), 아토피·천식(8문항), 약물(2문항), 인터넷중독(3문항), 건강형평성(21문항), 폭력(1문항), 기타(1문항)

[표 4-13]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정신건강·인터넷중독·건강형평성 문항구성 및 조사 내용

영역	문항 수	조사 주요 내용
정신건강	13	**스트레스 인지, 스트레스 원인**, 주관적 수면 충족, 주중/주말 수면시간,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시도 후 병원치료경험, **외로움 경험**[34], **범불안장애(GAD-7)**[35], **주관적 행복감**
인터넷중독	3	주중/주말 스마트폰 사용 경험, 주중/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
건강형평성	21	성별, 출생연월, 가족구성원, 친부모/양부모 동거 여부, 친부모 학력, **친부모 태어난 나라,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적 상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현재 거주형태,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제적 도움, 가구 풍요도, 학년

34)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
35) Seven-item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의 약자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차 데이터 분석 결과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차 데이터 분석은 정신건강·인터넷중독·건강형평성 영역 등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및 시도지역별 수준과 특성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함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내용 분석

○ **스트레스 인지율** 관련 분석결과

- 전국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청소년은 34.2%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은 33.4%로 전체 학생보다 0.8%p 낮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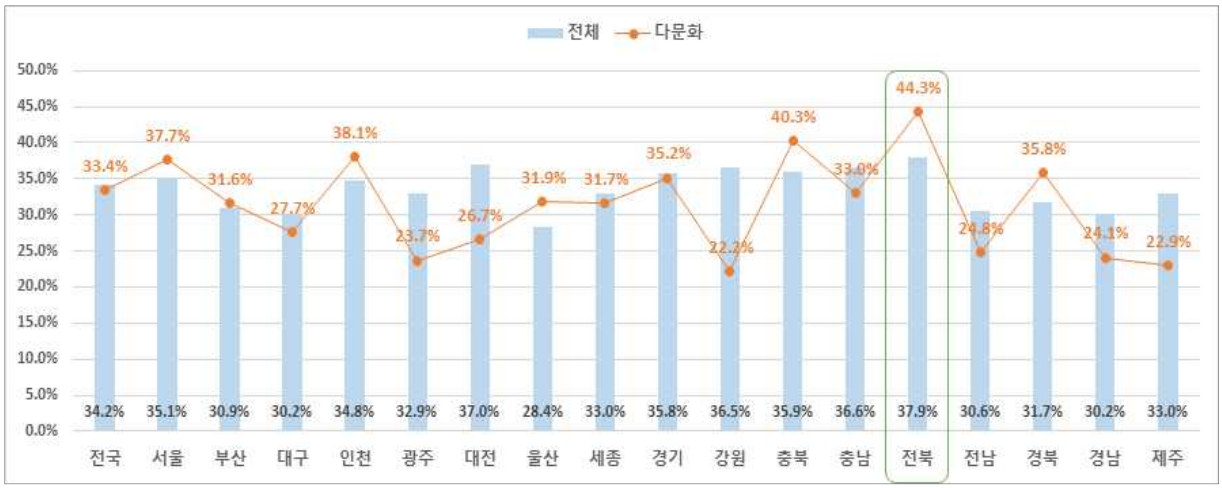
-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40.3%), 인천(38.1%), 서울(3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원도가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청소년(37.9%)보다 5.8%p 더 높은 수준임

[표 4-14]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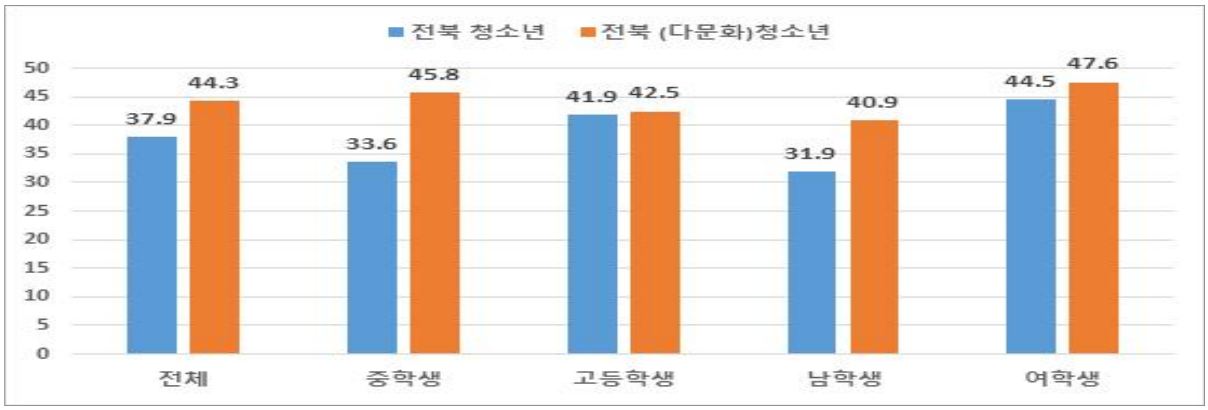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34.2	30.4	37.9	28.1	40.7	33.4	33.8	32.6	27.3	38.7
서울	35.1	29.5	40.3	29.8	40.8	37.7	37.9	37.0	23.1	49.5
부산	30.9	29.4	32.5	24.9	37.5	31.6	30.5	33.6	33.3	30.6
대구	30.2	29.3	30.9	25.7	35.0	27.7	27.3	28.4	23.0	32.0
인천	34.8	30.8	38.9	27.9	42.1	38.1	42.8	26.0	45.0	33.4
광주	32.9	31.2	34.5	25.8	40.6	23.7	23.0	24.8	11.0	41.1
대전	37.0	31.9	41.8	29.1	45.4	26.7	23.6	34.7	22.0	32.2
울산	28.4	27.3	29.6	21.7	35.9	31.9	28.3	41.6	33.3	31.0
세종	33.0	30.8	35.7	24.3	41.5	31.7	26.9	47.3	29.0	32.9
경기	35.8	31.9	39.9	30.3	41.6	35.2	35.5	34.6	34.3	35.8
강원	36.5	34.8	38.1	28.0	45.9	22.2	25.7	17.0	16.9	28.5
충북	35.9	32.0	39.8	29.9	42.5	40.3	38.6	43.2	31.3	51.2
충남	36.6	30.9	42.2	28.8	45.1	33.0	39.1	0.0	17.0	45.5
전북	37.9	33.6	41.9	31.9	44.5	44.3	45.8	42.5	40.9	47.6
전남	30.6	25.6	35.3	23.0	38.8	24.8	23.3	26.7	14.3	36.9
경북	31.7	29.5	33.7	25.6	38.6	35.8	34.5	39.4	29.9	42.8
경남	30.2	26.6	33.9	24.8	36.1	24.1	25.6	17.5	18.7	29.7
제주	33.0	27.7	38.6	26.3	40.4	22.9	15.0	40.5	11.6	34.0



[그림 4-49]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3%p 더 높았고, 다문화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전체 중학생의 스트레스보다 무려 12.2%p 더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6.7%p 더 높았고, 다문화 여학생의 스트레스는 전체 여학생의 스트레스보다 3.1%p 더 높게 나타남



[그림 4-50] 전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원인** 관련 분석결과

- 전국 17개 시·도별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면,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모(16.1%), 부모님과의 갈등(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은 충북(62.8%)에서 가장 높았고, 외모는 광주(29.5%), 부모님과의 갈등은 울산(32.5%), 친구관계는 전북(1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5] 전국 시도별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

(단위 : %)

구분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선후배)관계	성적·진로 부담	건강문제	외모	기타
전체	14.3	5.1	0.5	5.3	40.8	5.1	16.1	12.8
서울	10.5	5.3	0.0	3.0	39.3	3.7	21.4	16.7
부산	12.5	8.5	0.0	8.8	53.2	0.0	13.8	3.2
대구	19.2	3.7	0.0	2.5	37.8	7.2	19.4	10.3
인천	20.4	3.1	1.2	0.0	40.7	5.2	9.3	20.1
광주	14.4	9.7	0.0	11.3	20.4	2.4	29.5	12.4
대전	25.8	7.9	0.0	0.0	33.2	13.0	10.4	9.7
울산	32.5	1.6	0.0	1.6	46.2	0.0	7.3	10.8
세종	3.9	0.0	0.0	1.3	55.0	0.0	28.5	11.3
경기	13.9	5.8	0.0	4.9	41.2	6.6	15.7	11.9
강원	7.9	9.2	0.0	12.0	37.1	2.5	10.4	21.0
충북	10.4	2.1	2.6	1.1	62.8	0.0	11.2	9.7
충남	27.3	7.5	0.0	6.6	25.8	5.1	18.2	9.5
전북	13.2	4.8	2.9	16.5	31.1	3.7	18.4	9.3
전남	6.4	1.6	4.5	9.9	46.8	6.2	14.9	9.6
경북	10.0	2.9	0.0	2.6	43.7	6.0	21.3	13.6
경남	18.1	3.7	0.0	7.9	44.8	9.9	3.7	11.9
제주	2.0	4.9	0.0	6.1	41.1	3.0	25.5	17.5

- 전국 및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을 비교해 보면, 교사와의 갈등, 친구(선후배)관계, 외모 등의 원인은 전북 다문화청소년이 전국 다문화청소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건강문제 등의 원인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북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외모 >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친구관계」 순으로 높았으나, 전국평균은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외모 > 부모님과의 갈등」 순으로 높았음
  - 전북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친구관계 > 외모」 순으로 높았으나, 전국평균은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외모 > 부모님과의 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친구관계 > 외모」 순으로 높았으나, 전국평균은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부모님과의 갈등 > 외모」 순으로 높았음
  - 전북 다문화 여학생의 경우,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외모 > 부모님과의 갈등」 순으로 높았고, 전국평균은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 외모 > 부모님과의 갈등」 순으로 동일하였음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은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관계, 외모 등에서 고등학생보다 높았고, 고등학생은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원인에서 2배가량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친구관계, 가정상태 등에서 여학생보다 높았고, 여학생은 선생님과의 갈등,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 외모 항목에서 더 높았음

[표 4-16] 전국 및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비교

(단위 : %)

구분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선후배) 관계	성적*진로 부담	건강문제	외모	기타
전국	**14.3**	5.1	0.5	5.3	**40.8**	5.1	**16.1**	12.8
중학생	16.6	4.7	0.1	5.7	34.1	5.7	19.2	13.9
고등학생	9.6	5.8	1.4	4.4	54.5	4.0	9.8	10.5
남자	15.3	4.4	0.7	4.3	37.9	7.3	13.6	16.5
여자	13.4	5.6	0.4	6.1	43.2	3.3	18.3	9.7
전북	**13.2**	4.8	2.9	**16.5**	31.1	3.7	**18.4**	9.3
중학생	16.6	3.9	0.0	18.0	22.2	3.7	23.8	11.8
고등학생	9.2	5.8	6.3	14.9	41.6	3.7	12.2	6.4
남자	12.0	9.8	0.0	20.1	28.6	7.6	16.9	5.0
여자	14.4	0.0	5.6	13.2	33.6	0.0	19.9	13.4

- 전북 전체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을 비교해보면, 다문화청소년은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선후배)관계, 외모 등에서 전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친구관계 항목에서는 2배가량 높았음

  – 전북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친구관계, 외모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평균보다 가정상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관계, 외모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가정상태, 친구관계, 외모 항목에서 전체 남학생 평균보다 더 높았고, 여학생은 부모님과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관계, 외모 등에서 전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표 4-17] 전북 전체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급별,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비교

(단위 : %)

구분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선후배) 관계	성적*진로 부담	건강문제	외모	기타
전체	**11.1**	2.8	1.1	8.3	**51.9**	3.2	10.9	10.7
중학생	13.1	2.6	1.6	10.1	42.0	3.0	14.7	12.8
고등학생	9.4	3.0	0.7	6.6	60.8	3.3	7.4	8.8
남자	12.3	3.1	1.5	7.0	48.6	4.9	9.7	12.8
여자	9.9	2.4	0.7	9.6	55.4	1.3	12.1	8.5
다문화	**13.2**	**4.8**	**2.9**	**16.5**	31.1	3.7	**18.4**	9.3
중학생	16.6	3.9	0.0	18.0	22.2	3.7	23.8	11.8
고등학생	9.2	5.8	6.3	14.9	41.6	3.7	12.2	6.4
남자	12.0	9.8	0.0	20.1	28.6	7.6	16.9	5.0
여자	14.4	0.0	5.6	13.2	33.6	0.0	19.9	13.4

○ **우울감 경험률** 관련 분석결과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5.2%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은 25.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음

-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42.2%로 가장 높았고, 경기(30.6%), 서울(30.3%), 인천(29.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충북이 7.8%로 가장 낮았음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17.0%로 전국평균(25.8%)보다 8.8%p 더 낮은 수준임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17.5%p 더 높았음. 전북 전체 중학생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험률은 전체 고등학생 경험률보다는 낮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10.9%p 더 높았으나, 전북 전체 여학생 경험률보다는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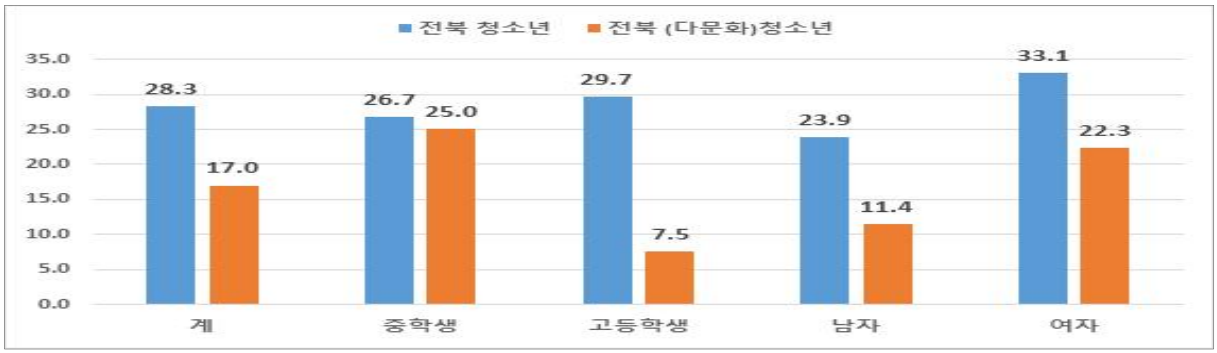
[표 4-18]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25.2	22.9	27.4	20.1	30.7	25.8	24.6	28.2	19.0	31.6
서울	25.4	21.9	28.6	21.2	29.9	30.3	30.4	30.1	24.7	34.8
부산	23.2	22.6	23.9	17.8	29.2	42.2	26.4	69.9	27.2	50.7
대구	21.6	21.6	21.7	17.4	26.3	13.5	9.2	22.6	12.9	14.1
인천	23.3	19.8	26.9	18.3	28.5	29.9	33.6	20.1	24.7	33.4
광주	25.4	23.1	27.6	19.5	31.9	26.0	19.8	35.7	9.0	49.3
대전	25.7	23.6	27.8	20.3	31.6	18.2	18.5	17.4	4.6	34.5
울산	24.8	22.0	27.6	18.8	31.5	24.4	25.3	21.9	4.7	37.9
세종	25.3	25.2	25.4	17.3	33.1	12.6	1.7	47.3	0.0	18.1
경기	26.8	24.3	29.4	21.4	32.5	30.6	27.9	35.1	24.3	35.1
강원	28.5	26.6	30.3	22.4	35.2	20.0	10.6	34.7	17.1	23.3
충북	25.2	23.5	26.9	21.5	29.2	7.8	6.6	9.8	5.4	10.7
충남	25.3	23.1	27.5	18.9	32.4	28.1	28.5	26.0	23.6	31.6
전북	28.3	26.7	29.7	23.9	33.1	17.0	25.0	7.5	11.4	22.3
전남	24.0	21.7	26.2	16.9	31.7	17.7	20.7	14.2	10.3	26.3
경북	22.6	20.5	24.4	17.8	27.9	24.4	24.7	23.6	23.4	25.5
경남	23.3	21.4	25.2	18.4	28.6	19.5	20.3	16.4	14.9	24.5
제주	24.7	24.4	24.9	22.2	27.4	17.4	18.2	15.7	9.9	24.8



[그림 4-51]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그림 4-52] 전북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 **자살생각률(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경우)** 관련 분석결과

- 전국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을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은 10.9%였으며, 다문화 청소년 역시 10.9%로 동일하였음

-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 다문화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이 1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14.7%), 경북(14.3%), 제주(14.1%)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구가 1.1%로 가장 낮았음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전국평균(10.9%)보다 4.6%p 더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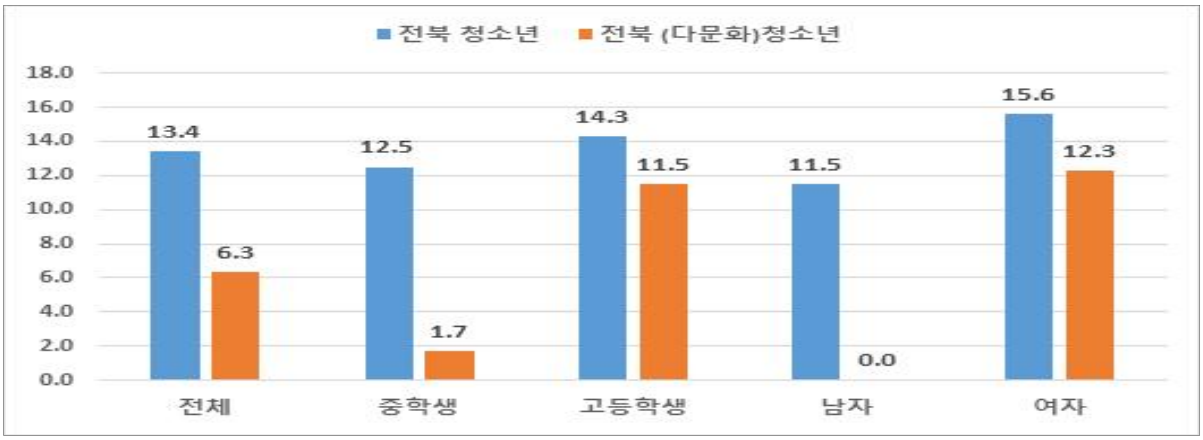
[그림 4-53]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표 4-19]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단위 : %)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10.9	10.2	11.5	8.1	13.9	10.9	10.2	12.3	8.3	13.0
서울	11.2	10.2	12.2	8.8	13.8	13.1	12.3	14.9	12.0	13.9
부산	10.3	10.6	10.0	7.0	13.9	19.6	13.9	29.6	13.5	23.0
대구	8.4	9.6	7.2	6.6	10.2	1.1	1.7	0.0	0.0	2.2
인천	9.1	8.9	9.3	5.9	12.5	14.7	18.0	6.4	15.2	14.3
광주	11.6	12.4	10.9	8.2	15.3	10.5	17.2	0.0	10.1	11.0
대전	12.3	9.7	14.8	8.5	16.5	7.2	10.0	0.0	0.0	16.0
울산	9.5	7.9	11.2	6.7	12.6	6.8	6.6	7.2	4.7	8.2
세종	9.7	10.0	9.4	7.4	12.0	5.8	7.7	0.0	15.2	1.9
경기	11.3	10.9	11.8	8.4	14.4	12.4	10.9	15.0	8.9	15.1
강원	14.0	11.1	16.8	10.9	17.5	13.2	7.4	22.5	10.3	16.6
충북	11.1	10.6	11.7	8.5	14.0	4.1	6.3	0.0	0.0	9.0
충남	11.7	11.0	12.5	9.3	14.4	11.8	11.2	14.9	5.3	16.8
전북	13.4	12.5	14.3	11.5	15.6	6.3	1.7	11.5	0.0	12.3
전남	9.1	7.7	10.5	7.0	11.4	6.0	6.1	5.9	11.3	0.0
경북	9.5	8.1	10.7	6.9	12.4	14.3	12.2	19.5	14.4	14.1
경남	10.2	9.5	10.9	6.8	13.9	3.9	4.0	3.6	0.0	8.0
제주	11.0	11.3	10.7	8.6	13.7	14.1	13.5	15.7	9.9	18.1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자살생각률이 9.8%p 더 높았고, 다문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전체 학생의 자살생각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살생각률이 12.3%p 더 높았고, 다문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체 학생의 자살생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54] 전북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 **외로움 경험** 관련 분석결과

-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는지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률은 5점을 기준으로 2.41점이며, 다문화청소년은 2.53점으로 소폭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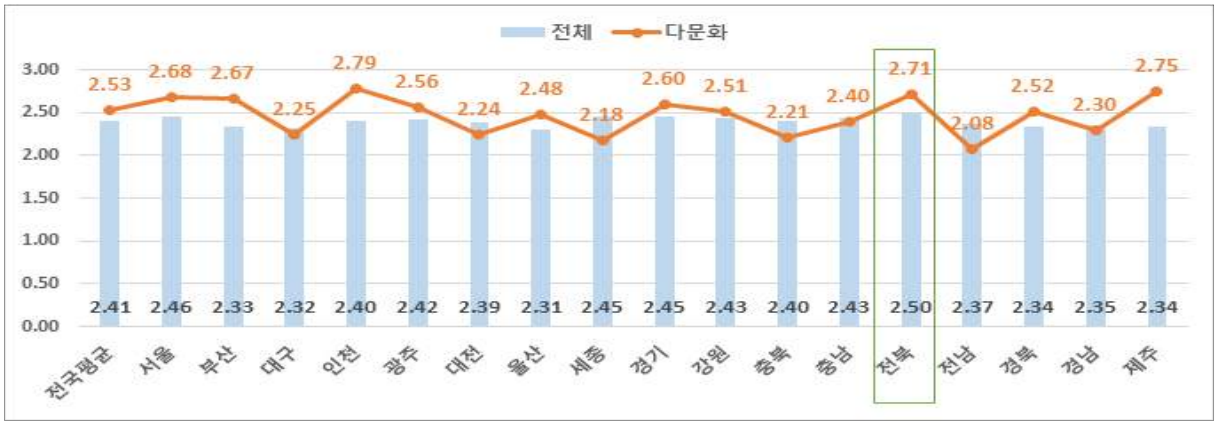
-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 다문화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이 2.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2.75점), 전북(2.71점), 서울(2.68점), 부산(2.67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이 2.0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은 전국평균(2.53점)보다 0.18점 더 낮은 수준임

[표 4-20]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

(단위 : 점/5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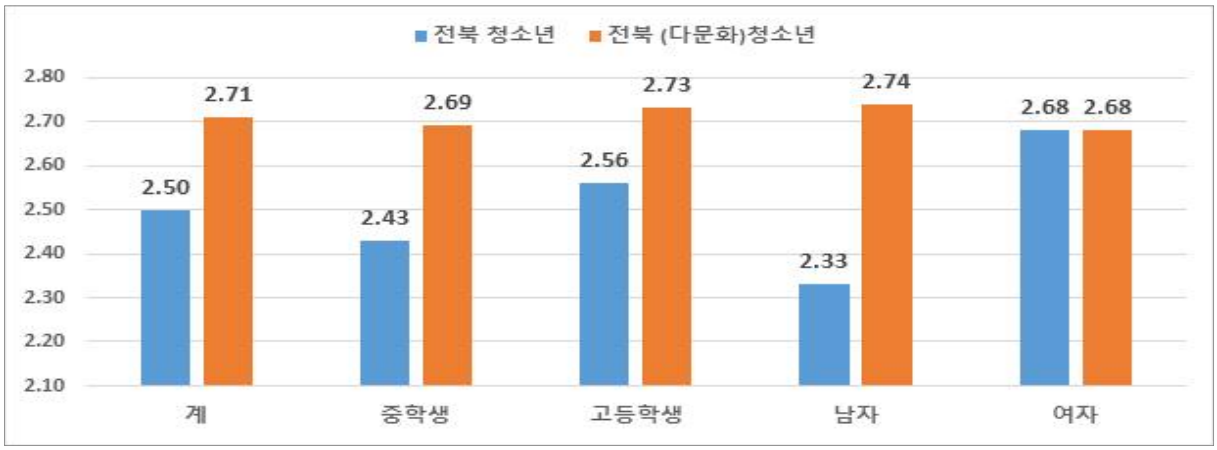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2.41	2.34	2.48	2.23	2.60	2.53	2.52	2.56	2.30	2.73
서울	2.46	2.38	2.53	2.28	2.64	2.68	2.70	2.64	2.48	2.84
부산	2.33	2.29	2.36	2.14	2.52	2.67	2.46	3.02	2.21	2.92
대구	2.32	2.30	2.34	2.17	2.50	2.25	2.25	2.25	1.95	2.53
인천	2.40	2.32	2.47	2.20	2.60	2.79	2.75	2.88	2.59	2.92
광주	2.42	2.41	2.44	2.22	2.65	2.56	2.45	2.73	2.50	2.64
대전	2.39	2.29	2.49	2.25	2.54	2.24	2.28	2.13	2.18	2.30
울산	2.31	2.21	2.41	2.09	2.56	2.48	2.29	3.00	2.12	2.73
세종	2.45	2.38	2.52	2.25	2.64	2.18	2.09	2.47	1.76	2.36
경기	2.45	2.37	2.53	2.28	2.63	2.60	2.61	2.59	2.27	2.85
강원	2.43	2.36	2.48	2.16	2.72	2.51	2.40	2.68	2.07	3.01
충북	2.40	2.33	2.47	2.21	2.60	2.21	2.31	2.02	2.04	2.40
충남	2.43	2.37	2.49	2.24	2.64	2.40	2.47	2.05	2.23	2.54
전북	2.50	2.43	2.56	2.33	2.68	2.71	2.69	2.73	2.74	2.68
전남	2.37	2.29	2.43	2.19	2.55	2.08	2.23	1.90	1.96	2.22
경북	2.34	2.25	2.42	2.16	2.54	2.52	2.52	2.52	2.39	2.67
경남	2.35	2.30	2.40	2.15	2.57	2.30	2.21	2.71	2.14	2.47
제주	2.34	2.24	2.44	2.18	2.52	2.75	2.63	3.01	2.63	2.88



[그림 4-55]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외로움 경험 수준이 조금 더 높았고, 다문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교급별 전체 학생의 외로움 경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외로움 경험 수준이 좀 더 높았고,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전북 전체 남학생의 외로움 수준보다 0.41점 더 높은 수준이었음



[그림 4-56] 전북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

○ 범불안장애(Generalizes Anxiety Disorder scale, GAD-7)[36] 관련 분석결과

- 전국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을 살펴보면, 4점을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은 1.56점이었으며, 다문화청소년은 1.60점으로 전체 학생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음

-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이 1.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1.68점), 경기(1.67점), 부산(1.66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광주가 1.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은 전체 청소년(1.60점)보다 0.17점 더 높은 수준임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0.21점 더 높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평균보다 0.12점 더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전체 남학생 평균보다 0.24점 더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전체 여학생 평균보다 0.07점 더 높게 나타남

36) 지난 2주동안 불안 관련 7개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방해를 느꼈는지에 대하여 리커트 4점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방해받지 않음(1점)~거의 매일 방해 받음(4점)으로 구성됨. 문항의 예로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등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범불안장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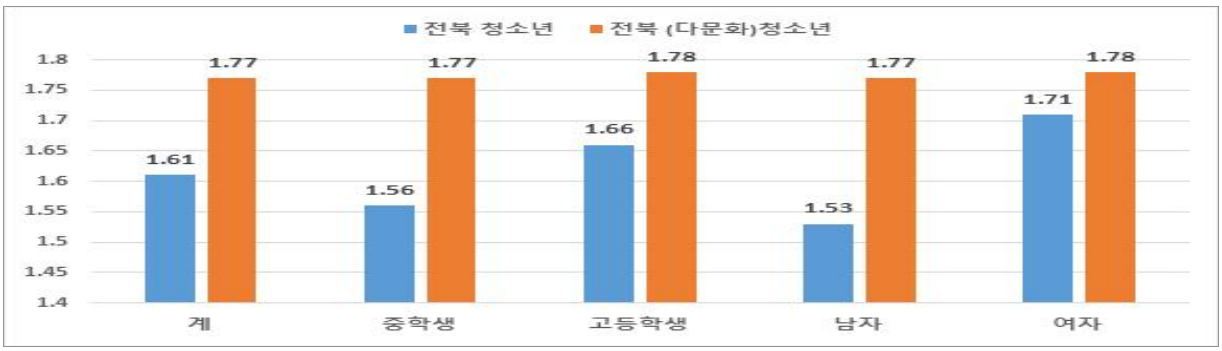
[표 4-21]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

(단위 : 점/4점 기준)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1.56	1.52	1.60	1.45	1.68	1.60	1.60	1.62	1.48	1.71
서울	1.58	1.54	1.62	1.48	1.69	1.65	1.69	1.57	1.46	1.81
부산	1.49	1.47	1.51	1.37	1.62	1.66	1.57	1.81	1.53	1.73
대구	1.48	1.47	1.49	1.41	1.57	1.50	1.41	1.68	1.35	1.64
인천	1.55	1.52	1.57	1.42	1.67	1.68	1.73	1.54	1.51	1.80
광주	1.55	1.53	1.57	1.45	1.66	1.32	1.35	1.28	1.18	1.52
대전	1.58	1.50	1.65	1.46	1.70	1.44	1.44	1.43	1.23	1.70
울산	1.51	1.46	1.56	1.38	1.64	1.55	1.55	1.57	1.34	1.70
세종	1.57	1.57	1.56	1.46	1.67	1.53	1.62	1.27	1.44	1.57
경기	1.60	1.55	1.65	1.49	1.71	1.67	1.64	1.71	1.54	1.76
강원	1.59	1.55	1.62	1.46	1.73	1.61	1.73	1.44	1.61	1.61
충북	1.56	1.50	1.62	1.45	1.68	1.52	1.49	1.58	1.40	1.67
충남	1.57	1.52	1.62	1.47	1.68	1.44	1.48	1.23	1.37	1.49
전북	1.61	1.56	1.66	1.53	1.71	1.77	1.77	1.78	1.77	1.78
전남	1.53	1.49	1.57	1.41	1.66	1.40	1.34	1.48	1.28	1.55
경북	1.51	1.48	1.55	1.40	1.64	1.62	1.51	1.89	1.59	1.65
경남	1.52	1.51	1.54	1.41	1.65	1.59	1.60	1.53	1.55	1.63
제주	1.55	1.54	1.55	1.43	1.67	1.53	1.61	1.35	1.42	1.63



[그림 4-57]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



[그림 4-58] 전북 청소년의 범불안장애 수준

○ **주관적 행복감**[37] 관련 분석결과

- 전국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을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은 3.81점이었으며, 다문화청소년은 3.72점으로 전체 학생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었음
- 시도별로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은 세종시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4.02점), 대구(3.96점), 충북(3.92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은 3.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은 전체 청소년(3.72점)보다 0.21점 더 낮은 수준임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을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의 행복감이 더 높았으며,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0.04점 낮았고,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평균보다 0.37점 낮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보면, 다문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행복감이 더 높았으며,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전체 남학생 평균보다 0.12점 낮았고, 여학생의 경우 전체 여학생 평균보다 0.22점 낮은 수준이었음
  –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생일수록, 여학생일수록 행복감 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남

[표 4-22]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행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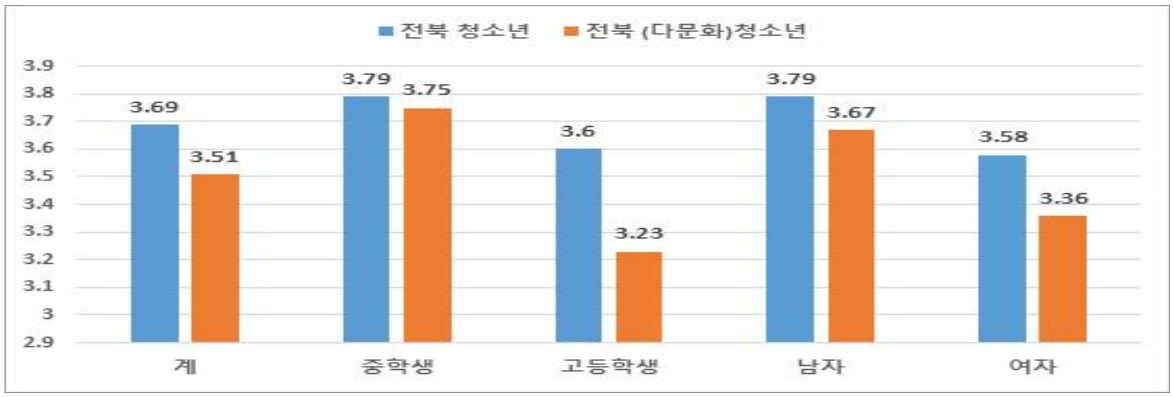
(단위 : 점/5점기준)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3.81	3.88	3.73	3.90	3.70	3.72	3.73	3.71	3.84	3.62
서울	3.77	3.88	3.68	3.83	3.72	3.66	3.63	3.73	3.70	3.63
부산	3.93	3.96	3.90	4.04	3.80	3.57	3.79	3.20	3.88	3.40
대구	3.85	3.88	3.83	3.94	3.75	3.96	3.90	4.06	4.14	3.78
인천	3.83	3.90	3.77	3.96	3.70	3.59	3.55	3.69	3.66	3.55
광주	3.76	3.80	3.73	3.85	3.67	3.62	3.70	3.48	3.58	3.67
대전	3.78	3.86	3.70	3.90	3.66	3.77	3.80	3.70	3.97	3.52
울산	3.94	4.00	3.89	4.08	3.79	3.77	3.94	3.29	3.87	3.70
세종	3.85	3.89	3.80	3.95	3.75	4.17	4.21	4.05	4.37	4.08
경기	3.76	3.85	3.67	3.84	3.68	3.70	3.68	3.73	3.79	3.63
강원	3.77	3.85	3.70	3.92	3.62	3.54	3.38	3.80	3.48	3.62
충북	3.84	3.92	3.75	3.94	3.72	3.92	3.99	3.78	3.99	3.83
충남	3.79	3.86	3.71	3.90	3.66	3.52	3.41	4.09	3.85	3.25
전북	3.69	3.79	3.60	3.79	3.58	3.51	3.75	3.23	3.67	3.36
전남	3.85	3.95	3.76	3.97	3.72	4.02	4.02	4.02	3.95	4.11
경북	3.85	3.94	3.77	4.00	3.69	3.90	3.86	4.03	4.13	3.64
경남	3.87	3.93	3.80	3.98	3.75	3.84	3.88	3.64	4.16	3.51
제주	3.94	4.04	3.83	4.06	3.80	3.89	4.08	3.48	3.95	3.84

37) 평상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행함(1점)~매우 행복함(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그림 4-59]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행복감



[그림 4-60] 전북 청소년의 행복감

▌다문화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내용 분석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38] 관련 분석결과

- 전국 및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청소년은 19점이었으며, 다문화청소년 19점으로 '일반군'으로 분류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제주도가 2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20.4점), 인천(19.9점), 세종(19.7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도가 1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전체 청소년(18.9점)보다 1.5점 더 높은 수준임

38) '과의존 수준은 3개 하위요인의 10문항(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4점의 4점 척도) 구성. ① '조절실패'는 스마트폰 이용 조절 관련 문항(3문항), ② '현저성'은 스마트폰 이용 욕구와 관련된 문항(3문항), ③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한 결과와 관련된 문항(4문항), 총점은 최저 4점 ~ 최고 40점, 점수가 높을수록 과의존 수준이 높음(부정적)을 의미함. 24점 이상은 (잠재적)위험군, 23점 이하는 일반군으로 분류됨



[그림 4-61]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표 4-23]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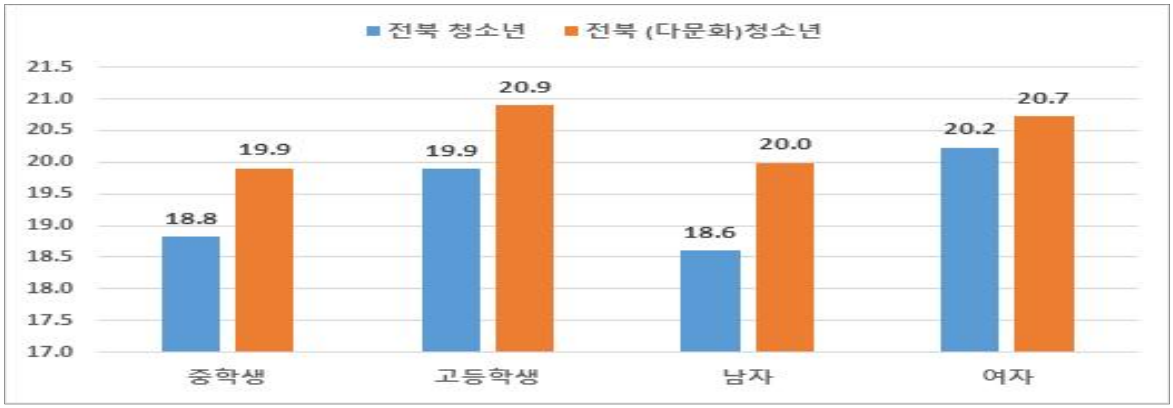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19	18	19	18	20	19	19	19	18	20
서울	19	19	19	18	20	20	20	18	19	20
부산	17	17	18	16	18	19	18	19	19	19
대구	17	17	18	17	18	17	17	17	15	19
인천	18	18	18	17	19	20	20	18	18	21
광주	19	18	19	18	20	18	17	19	17	18
대전	19	18	19	18	19	18	16	24	19	18
울산	18	18	19	17	19	18	17	19	19	17
세종	19	19	19	18	20	20	20	18	20	20
경기	19	19	19	18	20	19	19	19	18	20
강원	19	18	19	17	20	19	21	18	19	20
충북	19	19	19	18	20	19	19	19	18	20
충남	19	19	18	17	20	19	20	15	18	20
전북	19	19	20	19	20	20	20	21	20	21
전남	19	18	19	18	19	16	16	17	16	17
경북	19	18	19	18	20	18	17	21	18	19
경남	18	18	19	17	19	18	18	18	17	20
제주	19	19	19	18	20	21	20	22	19	22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19.9점) 보다는 고등학생(20.9점)의 과의존 수준이 더 높았으며,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1.1점 더 높았고,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평균보다 1.0점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남학생(20.0점)보다는 여학생(20.7점)의 과의존 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전체 남학생(18.6점) 평균보다 1.4점 더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전

체 여학생(20.2점) 평균보다 0.5점 더 높은 수준이었음

–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생일수록, 여학생일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임



[그림 4-62] 전북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형평성 관련 내용 분석

○ 주관적 학업성적[39] 관련 분석결과

- 전국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을 살펴보면, 5점을 기준으로 3.06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2.81점(중하)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은 전남이 3.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세종(3.29점), 경남(3.12점), 울산 및 경북 3.04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도가 2.10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은 2.81점으로 전체 청소년과 동일하였음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보다는 중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을 더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문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전북 전체 중학생과 고등학생 평균보다 낮게 인식하였음

- 성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학업성적 수준을 좀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문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북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가정의 고등학생일수록, 남학생일수록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

39)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하(1점)~상(5점)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학업성적이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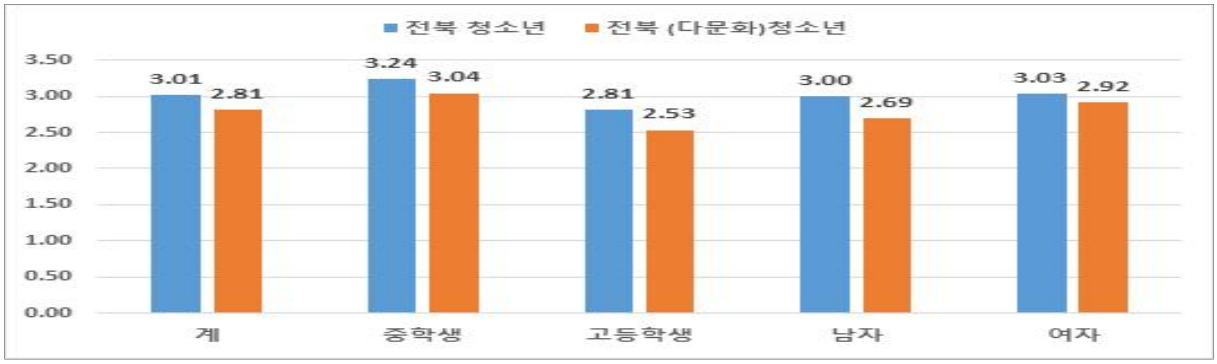
[표 4-24]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단위 : 점/5점기준)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3.06	3.25	2.87	3.07	3.05	2.81	2.82	2.81	2.88	2.76
서울	3.16	3.37	2.96	3.16	3.16	2.75	2.80	2.65	2.78	2.73
부산	3.16	3.37	2.96	3.19	3.12	2.89	2.86	2.93	3.38	2.61
대구	3.04	3.16	2.92	3.10	2.97	3.00	2.92	3.16	2.85	3.14
인천	3.00	3.13	2.88	3.01	3.00	2.60	2.54	2.75	3.03	2.31
광주	3.01	3.19	2.83	3.00	3.01	2.18	2.30	1.99	1.98	2.44
대전	3.03	3.18	2.88	3.01	3.04	2.75	2.45	3.50	2.94	2.51
울산	3.15	3.33	2.96	3.14	3.15	3.04	3.15	2.74	2.77	3.23
세종	3.11	3.39	2.78	3.11	3.12	3.29	3.38	3.00	3.45	3.22
경기	3.06	3.29	2.83	3.05	3.08	2.73	2.84	2.53	2.75	2.71
강원	3.02	3.19	2.86	3.07	2.96	2.48	2.37	2.65	2.41	2.56
충북	3.04	3.21	2.86	3.08	2.98	3.01	2.78	3.42	3.01	3.01
충남	2.94	3.12	2.75	2.91	2.97	2.86	2.73	3.54	2.80	2.90
전북	3.01	3.24	2.81	3.00	3.03	2.81	3.04	2.53	2.69	2.92
전남	3.00	3.15	2.86	3.03	2.97	3.33	3.03	3.69	3.39	3.26
경북	3.03	3.21	2.87	3.02	3.05	3.04	2.83	3.58	3.28	2.75
경남	2.99	3.20	2.78	3.03	2.95	3.12	3.23	2.67	3.22	3.02
제주	3.04	3.19	2.88	3.12	2.95	2.10	2.13	2.02	2.18	2.01



[그림 4-63]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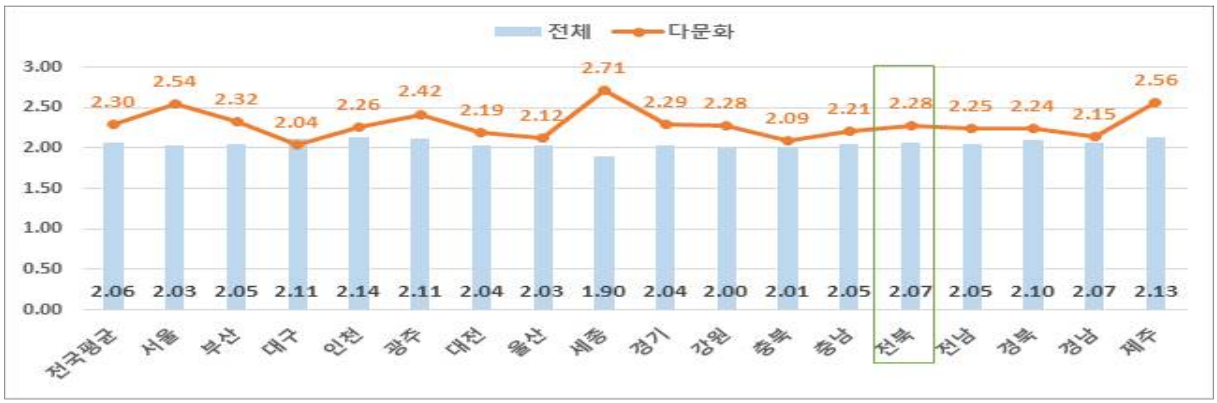
[그림 4-64] 전북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적 수준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40] 관련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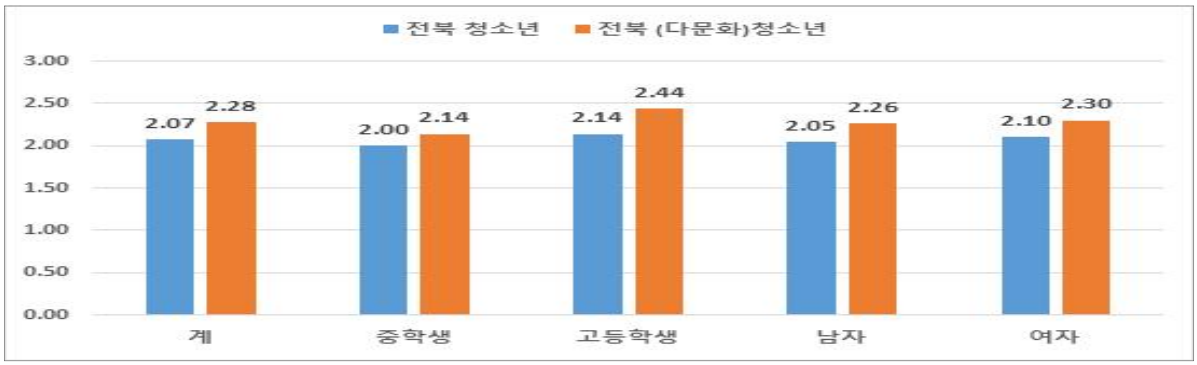
- 전국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수준을 살펴보면, 4점을 기준으로 전국 청소년은 2.06점, 다문화청소년은 2.30점으로 전체 학생보다 다문화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17개 시·도별로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수준은 세종시가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2.56점), 서울(2.54점), 광주(2.42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구가 2.0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 변화 수준은 전국 다문화청소년(2.30점)과 유사한 수준임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증가하였으며,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0.14점 높았고,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평균보다 0.3점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보면, 다문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변화수준이 더 컸고, 남학생의 경우 전체 남학생 평균보다 0.21점, 여학생의 경우 전체 여학생 평균보다 0.2점 더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림 4-65]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수준



[그림 4-66] 전북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수준

40)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상태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표 4-25] 전국 시도별 청소년의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상태 변화 수준

(단위 : 점/4점기준)

구분	전체					다문화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여자
전체	2.06	2.02	2.09	2.05	2.06	2.30	2.27	2.36	2.26	2.33
서울	2.03	2.00	2.07	2.04	2.03	2.54	2.54	2.55	2.46	2.61
부산	2.05	1.99	2.11	2.09	2.01	2.32	2.34	2.29	2.07	2.46
대구	2.11	2.06	2.17	2.12	2.10	2.04	2.08	1.95	1.95	2.12
인천	2.14	2.10	2.18	2.12	2.17	2.26	2.28	2.22	2.46	2.13
광주	2.11	2.06	2.15	2.08	2.14	2.42	2.26	2.67	2.43	2.41
대전	2.04	2.01	2.07	2.02	2.06	2.19	2.21	2.12	2.28	2.08
울산	2.03	2.01	2.06	2.00	2.07	2.12	2.09	2.21	1.85	2.31
세종	1.90	1.84	1.99	1.94	1.87	2.71	2.77	2.53	2.56	2.77
경기	2.04	2.02	2.06	2.03	2.05	2.29	2.22	2.41	2.27	2.31
강원	2.00	1.95	2.05	2.02	1.98	2.28	2.15	2.46	2.10	2.48
충북	2.01	2.01	2.02	2.05	1.97	2.09	2.09	2.07	2.39	1.72
충남	2.05	2.04	2.06	2.03	2.07	2.21	2.21	2.19	2.01	2.37
전북	2.07	2.00	2.14	2.05	2.10	2.28	2.14	2.44	2.26	2.30
전남	2.05	1.98	2.11	2.03	2.06	2.25	2.16	2.35	2.28	2.21
경북	2.10	2.01	2.17	2.10	2.09	2.24	2.16	2.43	2.08	2.42
경남	2.07	2.04	2.10	2.06	2.08	2.15	2.18	2.00	2.13	2.17
제주	2.13	2.08	2.18	2.14	2.11	2.56	2.55	2.58	2.74	2.39

2.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면접조사 결과분석

가. 면접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기존 통계자료 2차 분석에 의한 수치 현황만으로는 전라권 및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구체적인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2차 통계자료 분석에서 파악하지 못한 심도 있는 실태 파악과 주요 현안 및 기존 서비스 수혜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원욕구에 수요 파악 등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보다 면밀

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령기(초·중·고) 자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함

- 면접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현실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 모색
-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평가와 진단
- 특히 학령기 자녀 대상의 진로 및 학업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 모색 및 과제 도출

▌조사대상자 및 조사 방법

○ 조사대상자는 전북지역에서 학령기(초·중·고)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다문화 한부모 포함 등)와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초·중·고) 자녀 대상 면접조사 실시함

○ 면접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14명, 학령기 자녀는 9명임

- 최대한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고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특성 및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전북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에 따른 2021년 통계자료(전북교육청 통계자료)'를 토대로 학교급별(초·중·고)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구성별(국내출생자, 중도입국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선정하고자 노력함

  ※ '21년 기준 전북 다문화학생 학교급별 비율(초 70 : 중 20 : 고 10)을 토대로 조사대상자 수 선정 고려

  ※ 전북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가 75% 이상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국적별로 모두 조사하기에는 시간적 및 예산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 주요 출신 국적에 대한 통계현황 파악을 통해 하고, 주요 출신국적(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캄보디아)을 중심으로 부모를 선정하고자 했음

  ※ 전북 다문화학생 부모의 주요 출신국적 비율이 높은 국가는 베트남(45.5%), 중국(26.8%), 필리핀(8.2%)으로 이 세 나라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를 고려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했음

○ 면접조사 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여 1:1 개별 대면 면접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였고, 혼자 면접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거나 친분이 있어 면접내용을 공유해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2명 정도로 구성하여 집단면접을 병행함. 그리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조사를 병행 실시함

- 면접조사 질문지는 선행 연구보고서 고찰과 통계자료 2차 자료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항들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 형식으로 구성·작성함

○ 면접 참여자 섭외는 본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학교·기관·센터 등의 시설장 및 사업 담당자

(교사) 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면접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학령기 자녀에 대한 섭외 협조 요청 후 면접조사에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대면 면접의 경우 면접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최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실시함. 대면 면접조사의 경우 면접 참여자의 의견 고려와 사회적 거리와 생활방역을 준수한 장소에서 실시함
- 전화조사의 경우 면접 참여자가 약 1시간 정도의 전화 통화 가능한 일정을 선행적으로 예약한 뒤 예약된 일정에 면접조사를 위해 전화 통화로 실시함
- 무엇보다 면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관련 질문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 참여자가 답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며 조사시간 절약과 다양한 답변들을 얻을 수 있었음

○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의 면접 조사 기간은 '21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됨

▌분석 방법 및 주요 면접내용

○ 분석 방법은 면접조사 전 면접 참여 대상자에게 사전에 면접 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녹취한 면접 내용을 전사한 자료와 면접조사 시 현장에서 노트 필기한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그 결과를 도출함

○ 면접조사 내용 및 질문지는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용과 학교급별 학령기 자녀용으로 그 대상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 구성함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①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연령, 국적, 맞벌이유무,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취업, 자녀 수·성별·연령(학년), 자녀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파악, 부모의 한국어 수준, 자녀 학교적응도, 자녀 학교 성적 등
- ② (자녀 양육·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주요 현안)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양육·교육 시 느끼는 어려움, 양육·교육을 위해 모국에서 부모·형제자매 오거나 향후 모국 유학 의사 및 사유 등,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교육의 주요 주관자 등
- ③ (기존 수혜 사업(서비스) 현황 및 진단) 수혜 사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 ④ (정책적 욕구) 학령기 자녀를 양육·교육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가 필요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파악 등

[표 4-26]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용 주요 면접 내용

항 목		주요 면접 내 용
부모	응답자 특성	• 연령, 국적, 맞벌이유무,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취업, 자녀 수성별·연령(학년), 자녀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파악, 부모의 한국어 수준, 자녀 학교적응도, 자녀 학교 성적 등
	실태 및 주요 현안	•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현안과 실태 –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과 주요 대화 주제 – 한국어와 모국어 사용정도, 하루일과에 대한 경험담 – 양육·교육 시 느끼는 어려움, 사교육의 정도와 사교육 과목, – 자녀 진로에 대한 결정 유무 및 진로결정의 어려운 점 – 향후 자녀관련 가장 걱정/고민되는 점,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교육의 주요 주관자 등
	기존사업 문제·개선	• 기존 수혜 받은 사업(서비스) 현황, 사업에 대한 만족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정책적 욕구	• 필요 한 지원 정책적 욕구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① (학령기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연령, 성별, 부모의 국적, 부모의 맞벌이 유무 및 경제활동 상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파악, 부모의 한국어 수준 등
- ② (가정생활 실태) 부와 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부와 모와의 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은 부모 중 누구와 더 잘되는지, 한국어와 외국어 사용정도, 하루일과에 대한 경험 등
- ③ (학교생활 실태) 재학 여부 및 학업중단 시 시기와 이유, 학교폭력 경험·유형·피해대응방법,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 부적응 정도와 그 이유, 현재 학업성적, 사교육 유무와 과목 및 시간, 또래와의 관계, 가장 친한 친구 수,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 ④ (정서 및 진로 관련 실태) 차별경험, 주요 고민과 고민 상담 대상, 교육수준, 진로에 대한 결정정도 및 하고 싶은 일, 학교수업의 어려움,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려운 점 등
- ⑤ (기존 사업(서비스)의 평가와 진단) 사업 수혜(이용경험)정도,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
- ⑥ (정책적 욕구)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파악 등

[표 4-27]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용 주요 면접 내용

항 목		주요 면접 내 용
학령기 자녀	응답자 특성	• 연령, 성별, 부모의 국적, 부모의 맞벌이 유무 및 경제활동 상태 •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파악, 부모의 한국어 수준 등
	실태 및 주요 현안	• 가정생활(부와 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부와 모와의 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은 부모 중 누구와 더 잘되는지, 한국어와 외국어 사용정도, 하루일과에 대한 경험 등) • 학교생활(전북 재학 여부, 학업중단 시 시기와 이유, 학교폭력 경험·유형·피해대응방법 •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 부적응 정도와 그 이유, 현재 학업성적, 사교육 유무와 과목 및 시간, 또래와의 관계, 가장 친한 친구 수,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 정서 및 사회생활(우울정도, 차별경험, 주요 고민과 고민 상담 대상) • 진로(향후 교육수준, 진로에 대한 결정정도 및 하고 싶은 일, 학교수업의 어려움,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 등)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아르바이트 종류,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려운 점,
	기존사업 문제·개선	• 기존 사업(서비스) 수혜(이용경험)정도,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정책적 욕구	• 필요한 지원 정책적 욕구

나.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의 면접 내용 분석 결과

○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일반적 특성)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와 모는 총 14명임. 세부 집단별로 초등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7명, 중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5명, 고등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2명임

- 14명의 면접참여자 중 한부모 가정은 2명이었고,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은 학교급별(초·중·고)로 각각 1명씩이 면접에 참여함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한 어머니는 평균 14년 이상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짧게는 9년 길게는 약 20년가량 한국 사회에서 결혼생활과 더불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구성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자녀와 부부가 생활하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 중 단 1명만이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결혼이주여성 11명 중 주부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시간제 형식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강사, 초등학교

학교버스 기사도우미, 미용실 근무, 카페 종업원 및 남편의 농사 일 등을 시간제로 지원하는 일을 하며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인 모의 출신국적은 캄보디아 2명, 베트남 3명, 중국 4명, 필리핀 2명이었음

[표 4-28]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일반적 특성

학교 학급	성별	연령	지역	결혼 기간	학력	가족형태	경제활동	배우자상태	자녀	국적
초	여	33세	순창	12년	고졸	시부모+부부+자녀	학교버스기사도우미 및 농사	학교버스 기사	초3, 초5	캄보디아
	여	41세	순창	12년	고졸	부부 + 자녀	가정경제 책임 고추농사 등	지적장애인 요양병원입원	초4	캄보디아
	여	30세	완주	10년	고졸	부부+자녀	수박, 오이, 대파 농사 지원	농사	7세, 초 2	베트남
	여	36세	완주	11년	고졸	한부모	농사	-	초3, 초2	베트남
	여	35세	전주	13년	대졸	부부+자녀	파트파임 근무	제조업 근로자	초4, 초2	베트남
	여	39세	군산	16년	대졸	부부+자녀	파트타임 근무	서비스업	초2	중국
	남	44세	완주	10년	고졸	부부+자녀	농사일	농사일 지원	초5, 초3	한국
중	여	43세	전주	16년	대졸	한부모	카페종업원 (3교대)	-	중3, 중1	중국
	남	49세	완주	16년	고졸	부부+ 자녀	공장 근로자	주부	중3, 중2, 초4, 초3, 3세	한국
	여	41세	완주	15년	대졸	부부+자녀	미용실 파트파임	2교대 근무 근로자	중2	중국
	여	47세	완주	16년	대졸	부부+ 자녀	주부	공장 근로자	중3, 중2, 초4, 초3, 3세	필리핀
	여	34세	전주	15년	대졸	부부+자녀	파트파임 근무 한국어교육 강사	전문직	중3, 중1	중국
고	여	43세	정읍	19년	고졸	부부+자녀	남편사업 지원	판매·유통업	고3, 고1, 중1	필리핀
	남	50세	정읍	19년	고졸	부부+자녀	식자재 판매유통	사업지원		한국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의 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내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 내용을 정리함

○ 첫째,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관점에서 자녀 양육·교육 등에 대한 전반의 경험 실태와 학령기 자녀 학습 및 진로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경험 실태, 둘째, 이용 경험이 있는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개선사항 등에 대한 평가와 진단, 그리고 셋째, 학령기 자녀를 둔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내용 등을 요약·정리함

[표 4-29]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구분/범주	주요 내용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주요 현안	다문화가정이란 이유로 자녀가 비행 및 탈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 큼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 크고 학년 오를수록 더 힘들어짐
	바쁜 직장일(생업 담당)로 방과 후 자녀 방치, 돌봄·학습지도·학습 습관 형성 부재
	다문화가정 내 갈등·폭력·별거·이혼·사별 등 가정의 불안정성 큼
	사춘기 자녀에 대한 대응 어려움 및 향후 다가올 자녀 사춘기에 대한 걱정·염려 큼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지리적 접근성 취약, 이용의 한계
	자녀 취학 전 지원 사업 대비 취학 후 학령기별 지원 사업 미흡
	학령기 자녀 대상의 일회성·단기간 사업 지원, 아쉬움 큼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욕구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학령기별(초·중·고) 추가 맞춤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 학령기별(초·중·고) 맞춤 학습지원 확대 및 지원 방법 다양화
	상담·성격유형검사 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자녀의 사춘기, 현명한 대응방법 및 부모교육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진학 및 입시 관련 정보·교육 안내 강화

1)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주요 현안

▮ 다문화가정이란 이유로 자녀가 비행·일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 큼

○ 한국생활이 보통 10년 이상인 학령기 자녀의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는 이주배경의 문화를 가진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자녀가 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생활 부적응하거나 따돌림과 왕따 등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자녀 초등학생 시기에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과 염려, 또래관계 및 사회성(학교폭력,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자녀의 사춘기로 인한 부모-자녀간 갈등 관계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교 성적과 교과목별 학습 진도에 따른 학습 지원(사교육), 자녀의 진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나타남

▮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 크고 학년 오를수록 더 힘들어짐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자녀의 학년이 오를수록

학습지도가 더 힘들어짐을 토로함. 초등학생 시기까지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학습 지도를 어떻게든 해결하거나 학교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었음. 그러나 자녀의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학교 교과목별 수준이 보다 전문적이고 양도 많아져 다문화가정의 부와 모 수준에서 학습을 지원하고 개입하는데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는 학령기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주요 교과목별 학습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 지원 자체가 어렵고, 한국사회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및 정보 부족으로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커서 학령기 자녀 곁에 누군가가 혹은 사교육을 통해 학습 지원을 적극 도와주기를 기대함

▮ 바쁜 직장일(생업 담당)로 방과 후 자녀 방치, 돌봄·학습지도·학습 습관 형성 부재

○ 다문화가정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재(사별, 별거 등) 및 지적장애인 등으로 인한 남편의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결혼이주여성인 모가 그 가정의 경제적 수입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다문화가정의 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고 정서적 교류와 돌봄을 하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생계를 위해 직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처지로 학교 방과 후에도 자녀들끼리만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자녀들끼리만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학교 숙제 및 학습을 스스로 하기 보다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등을 주로 시청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과 학습 지도 및 돌봄을 책임져야 할 다문화가정의 모가 당장 시급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주위 환경으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 및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이러한 환경은 향후 중·고등시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및 심화된 정서·행동 문제로 표출되는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었음. 이에 당장의 생계를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부모를 대신해 저녁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주며 학습 지도 등을 관리해 줄 돌봄 지원과 학습 도움을 받기 위해 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함

▮ 다문화가정 내 갈등·폭력·별거·이혼·사별 등 가정의 불안정성 큼

○ 다문화가정의 많은 가정은 빈곤 문제와 경제적 문제 및 부부간 큰 연령차 등으로 갈등, 폭력, 별거 및 이혼, 남편 사별 등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많으며 가정의 불

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다문화가정 내 불안정성은 학령기 자녀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학습 성취도 및 자신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상당수는 결혼을 논의할 때부터 결혼이주여성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매월 보내주는 것에 대한 갈등(폭력 등)이 크고, 경제적 문제와 빈곤 문제 및 남편을 대신해 가정의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모는 공장 등에서 시간제 및 종일제 형식의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돌봄과 학습지원 및 정서적 교류 등 지지기반 자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사춘기 자녀에 대한 대응 어려움 및 향후 다가올 사춘기에 대한 걱정·염려 큼

○ 중학생 이상의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경우 민감한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보이는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일탈·비행으로 잘못 될까봐 염려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성장 발달과정 상 경험해야 할 자녀의 사춘기 시기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사춘기 자녀가 일탈을 할까봐 어떠한 대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녀와의 대치 및 갈등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관련 교육 및 정보를 필요로 했음. 예를 들어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공감대화법, 자녀의 민감한 언행·감정·행동 등에 대한 효과 좋은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리고 저학년의 초등학생을 둔 다문화가정은 앞으로 다가올 자녀의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었고, 자녀의 사춘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2)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지리적 접근성 취약, 사업 이용의 한계

○ 결혼생활 시작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센터를 많이 이용하였으나, 자녀 출생 이후 자녀 돌봄과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리적으로 센터와 근접해 있지 않은 한 센터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부터는 어머니(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리적 접근성의 취약과 동시에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개발과 지리적으로 이용·접근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경제적 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다문화가정의 지원 서비스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녀 취학 전 지원 사업 대비 취학 후 학령기별 지원 사업 미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대부분은 정책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집중·한정되어 있으며, 지원서비스 또한 한국어 및 취업 지원에 머물러 있음을 한계로 지적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주요 지원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의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내용 또한 한국어교육(언어발달)이 사업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중요시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자녀 학습지원 사업의 양과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원 사업 또한 일회성이면서 단기간에 그치고 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함

▌지원사업의 일회성·단기성의 한계와 학령기별(초·중·고) 및 개인 특성별 지원 내용 다양화 필요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녀의 학습지원 관련 서비스는 자녀 당 한 번씩만 이용할 수 있는 일회성이면서 단기간 동안만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함

○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학령기 자녀의 정책 수요에 따라 동일 사업을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학령기별(초·중·고) 및 다문화가정자녀 유형별(국내출진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자녀 등)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 지원 기간과 지원 횟수를 탄력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함

○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의 지원 서비스 이외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및 청년 등 각기 필요로 하는 수요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의 지원 서비스 발굴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욕구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학령기별(초·중·고) 추가 맞춤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서는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면서도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추가적 지원과 자녀 학령기별(초·중·고) 단계에 맞는 지원 기간 등 고려해 개별 맞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중심의 학령기 자녀 한 명당 약 10개월 동안 단 1회 지원해 주는 자녀생활지도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지원기간이 약 9개월 2주 정도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 및 학업 성취도와 동기부여를 심어주기에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을 지적하면서 단 1회성에 그치지 말고 학령기별로 추가 맞춤 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요구함

▌다문화가정 자녀 학령기별(초·중·고) 맞춤 학습지원 확대 및 지원 방법 다양화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학령기 자녀의 학교 교과목별 학습 지원과 학습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많이 토로함. 한국인 남편은 자녀 공부와 학습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교육체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정보가 거의 없고 한국어 수준의 한계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을 지도 감독해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자녀의 학년이 오를수록 많아지는 과목별 학습량 및 전문적이면서 심화되는 학습내용을 한국어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이 지도해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초·중·고별로 구분지어 학령기별로 필요로 하는 학습지원을 자녀 맞춤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해주기를 요구함.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만 모아서 집중 케어하고 학습 지도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심의 소그룹 학습 지원 등도 필요로 함

▌상담·성격유형검사 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교육 중심의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다문화가정의 부모 대상 혹은 부모와 자녀 대상의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와 자녀간 서로의 성격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자녀관의 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부-자 및 모-자, 혹은 가족 전원이 참석 가능한 1박 2일 캠프형식의 프로그램 등을 요구함. 즉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함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공유, 성격유형 파악, 부모자녀관계 증진 등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사춘기, 현명한 대응방법 및 부모교육 지원 확대

○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인 13세부터 17세까지 찾아오는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장 발달상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과 여건 때문에 비행이나 가출 등의 문제 발생 없이 자녀가 사춘기를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춘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향후 사춘기를 겪게 될 예비 사춘기자녀 부모들은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춘기 자녀와의 공감 대화법, 사춘기 자녀에 대한 대응방법 및 부모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즉 사춘기란 무엇이고 사춘기를 겪는 자녀의 감정반응과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이를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방법·대화법·부모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해 주기를 요구함. 또한 자녀의 성교육과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로 함. 그리고 생애주기 중 자녀의 사춘기와 부모의 갱년기를 모두 포괄하여 다뤄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로 했음

▮ 중·고등학교 진학 및 입시 관련 정보·교육 안내 강화

○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히 모는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원과 더불어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사회의 교육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부재하며 이러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함께 공유해 줄 사람도 부재하여 학령기 자녀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대해 힘들어 하고, 바쁜 경제적 활동으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녀 진로를 위한 중요 선택과 결정이 부모가 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기별 학습 지도와 진학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보를 출신국적별 모국어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에게 지속 제공하고 관련 교육과 안내도 기관별 연계하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령기 자녀의 진로를 집중적으로 선택·결정해야하는 중·고등학교 진학과 입시 관련 정보 및 관련 절차 안내, 더불어 대입 입시 준비를 위해 다문화가정 맞춤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면접조사에서 도출된 사례를 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적별 및 학령기별(초·중·고) 자조모임을 온·오프라인으로 형성·운영하고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관련된 진로 및 진학·입시 등 최신 정보 공유와 교육 안내 등을 필요로 함

다.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면접 내용 분석 결과

○ (면접조사에 참여한 학령기 자녀들의 일반적 특성)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등 총 10명임. 이 중 중도입국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1명으로 국내출생 이후 부모 이혼으로 잠시 어머니 모국인 베트남에서 조부모와 생활하다 한국에 온지 약 2년 정도 됨. 나머지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자녀(9명)는 모두 국내 출생 성장하였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 국적은 필리핀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2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 1명 순으로 나타남. 가정형태는 한부모인 경우가 3명, 연로한 지적장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 해 있어서 어머니가 가정과 경제적 생활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1명, 그 외 나머지는 부모와 자녀 혹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음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공장·미장원·카페·농사(밭농사)·시간제(학교통학차량 도우미, 남편 사업지원) 등 단순노무직에 근무하고 있었음

○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문해력의 저조를 가장 많이 꼽았고, 모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학교 공부(특히 역사, 국어)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음

[표 4-30]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학교 급별	성별	연령(학년)	지역	모의 국적	맞벌이 유무	정책적 수요	비고
초	여	초 4년	순창	베트남	맞벌이	국어 어려움, 엄마 일(공장일) 때문에 바쁨	
초	남	초 5년	순창	필리핀	맞벌이	국어 어려움	
초	남	초 5년	전주	캄보디아	맞벌이	한국어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진	모 생업
초	남	초 6년	전주	베트남	한부모	의사소통 어려움 큼(이혼, 모와 생활)	중도입국
중	여	중 3년	전주	중국	한부모	학습 지원(수학 학원비 및 과외지도 등)	
중	여	중 1년	전주	중국	한부모	예체능 활동 지원(특기적성 및 진로탐색 등)	
중	여	중 3년	완주	필리핀	주부	진로지원(멘토 연계, 성공한 멘토 이야기)	
중	여	중 2년	완주	필리핀	주부	역사, 수학, 영어 등 학습지원 필요	
고	남	고 3년	정읍	필리핀	파트타임	개별 맞춤 입시컨설팅, 국어 취약	
고	남	고 1년	정읍	필리핀	파트타임	국어 취약, 사교육비 지원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대상의 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내용을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교 급별로 각기 구분하여 각각이 처한 입장과 관점에서 첫째, 가정·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등 전반의 경험 실태와 여러 차원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실태, 둘째,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지원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혜 경험에서부터 수혜 받은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평가·진단,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가 가정과 학교 적응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욕구 등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음

[표 4-31]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구분/범주	주요 내용
학령기 자녀 관점의 전반적 실태와 주요 현안	모의 한국어 발음문제와 일(생업)로 의사소통 어려움·관계 소원
	문해력 저조로 국어·역사 과목 어려움
	학교 공부의 어려움, 학교 공부해야 하는 동기 부재
	중학교 때부터 진로와 성적에 대한 고민 커짐
기존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한시적인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
	일시적·형식적인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욕구	학원비·개별 과외 등 중학교부터 학습 지원 강화 필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다양한 필요
	입시 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대입 컨설팅 필요

1)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관점의 전반적 실태와 주요 현안

▌모의 한국어 발음문제와 일(생업)로 의사소통 어려움·관계 소원

○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부터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은 특히 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음을 토로함

○ 다문화가정 모(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발음문제로 의사소통 시 의사전달에 대한 어려움과 대화내용에 대한 이해 저조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매번 직면하면서 점진적으로 의사소통이 적어지고 대화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아예 대화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모와의 갈등 해결 꾀하려 하다 보니 의사소통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는 자녀의 사춘기와 맞물려 다문화가정 모와의 갈등과 모에 대한 무시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 모(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생활단어 언어 수준에서 자녀의 학년 수준에 맞춘 단어·어휘량 수준을 맞춰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한국어 발음도 지속 교정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자녀의 학년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어수준과 어휘력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모의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보다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해력 저조로 국어·역사 과목 어려워 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은 한국어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국어, 역사, 사회 등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초등 학생때부터 한국어 쓰기(받아쓰기), 읽기, 말하기 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되지 않고 있어서 일반가정의 학령기 자녀들보다 독해력, 문해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학교과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과목 중 국어, 사회, 역사 등의 교과목 성취도와 연계되어 나타났고, 인문계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수능 국어 점수 취득을 위해 사교육을 집중 받고 있음에도 성적이 저조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음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대상 한국어 능력을 학교 급별 수준에 맞춰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문해력과 독해력 및 기초학력 증진을 시키기 위해 개별 맞춤형의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학습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정 모의 바쁜 일(생업)로 자녀 방임, 학습지도·정서적지지 미흡

○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국 남편과의 큰 연령차로 남편 대신 가정의 생업을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음. 이에 다문화가정 모의 많은 수는 이른 아침 출근과 늦은 시간까지의 바쁜 경제적 활동으로 자녀들끼리만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고, 학령기 자녀 초등학생 때부터 모의 제대로 된 학습 지원과 학습 습관 지도 부재로 자녀가 학습부진과 더불어 문해력 및 기초학력 저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자녀들과의 정서적 교류와 모의 정서적지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중학교 때부터 진로와 성적에 대한 고민 커짐

○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발달단계로 진로를 탐색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선택 등을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임. 중학교에 진학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음

○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종료된 중학교 2학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학업성적에 대한 고민이 더욱 심해지며 자신의 정체성과 향후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이 함께 병행되어 나타남. 특히 한부모 및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은 학교 공부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바램을 갖고 있지만 집안의 경제적 형편 상 언급조차 못하고 인터넷 강의나 혼자 늦은 시간까지 독학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음

○ 무엇보다 고입과 대입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부와 모 모두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혼자서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하여 관련 고민을 하는 등의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음

○ 이에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들 중 중학교 진입 이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해 주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2)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한시적인 대학생 멘토링·방문교육지도 지원 사업

○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초등학생 시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방문교육지도 사업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이용한 경험은 있지만 사업 지원 기간이 짧았다는 한계를 지적함

○ 다문화가정의 자녀 기억에는 방문교육지도사 및 대학생 선생님께 학교 공부를 배우고 습득하며 즐거웠으나 사업 지원 기간이 짧았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었고, 초등학교 시기에 지원 받은 유사한 사업이 중학교 시기에도 지원 받고 싶었으나 한 가정에 한 자녀당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이 컸고, 이런 아쉬움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한부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일시적·형식적인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자유학년제로 규정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로탐색 등을 집중 교육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진로 교육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함

○ 학교 이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은 진로검사 및 온라인 강의 등에 한정되어 실제적인 진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 진로교육 및 진로 탐색과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요구함.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의 직장 체험 및 관련 업종의 직업인을 실질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함. 무엇보다 전라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로 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미진하고 학교-센터-청소년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욕구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중학교부터 학습 지원(학원비·개별 과외 등) 강화 필요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면접조사 결과,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그래도 혼자서 혹은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만으로도 학교 학습 진도와 숙제 및 시험 등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혼자서 학교 학습 진도와 수업내용 등을 따라가기가 상대적으로 벅참을 토로함. 수학, 과학, 국어, 역사·사회 등의 과목을 어려워했으며, 이 교과목에 대한 학교 수업 내용 이외 방과 후 별도의 사교육(학원, 개별 과외, 대학생 학습 멘토 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초등학생 시기에 다져놓았어야 할 부진한 기초학력 지원과 중·고등학교 학습 지원을 과외형식의 개별 맞춤형 지원에서부터 학원비 지원까지 선호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와 다양화 필요

○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진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유관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다문화가정의 학령기별 자녀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면접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희망하는 일(직업)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건축가(인테리어)의 실제 근무 환경과 여건 및 하고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관련 직장에 가 직업적인 체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토로함. 유관기관에서 정한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관련 진로 체험을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가정 자녀가 개별적 선호하는 직업·일을 하고 있는 멘토와 만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적성에 맞는지 살펴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입시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대입 컨설팅 필요

○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들은 고입과 대입 입시에 대한 정보를 본인 스스로 취합하여 선택 결정하는 비율이 한국인 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음.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는 자녀의 학년이 오를수록 복잡한 한국사회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경험 부재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담임교사 및 다문화담당 교사의 지도와 정보 안내가 부재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택과 대학 및 학과 선택 등 진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입 입시에 대한 복잡한 흐름을 다문화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혼자서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 차원의 전반적인 안내와 정보 이외 다문화가정 자녀 개별 맞춤의 성적과 적성 등을 고려한 대입 전문 컨설팅을 필요로 함. 이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중·고등학생 대상 향후 고등학교 진학 여부와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적성과 진로 맞춤의 대학과 전공학과 선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로 컨설팅과 고입 및 대입 입시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통·번역 등을 통해 이중언어로 다문화가정의 모의 참여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현장실무자의 지원정책 진단 및 욕구 분석

가. 현장실무자 자문회의 개요

▮ 조사 목적

○ 현장실무자 대상 자문의 목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부모·자녀) 대상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학원 등 다기관에서 관련 사업(서비스)을 직접 추진하는 현장실무자 관점에서의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실태(가정과 학교생활, 정서와 사회생활, 부모와 자녀가 어려워하는 점과 주요 현안 등)를 파악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현장실무자 관점에서의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개선사항에 대한 평가·진단 및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지원정책 방향성과 세부 추진과제 등)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음

※ 연구계획 상 실시하고자 했던 '현장실무자 간담회'는 집단으로 이루어는 형태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여 현장실무자 중심의 전문가 자문회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1:1 대면 혹은 소수그룹으로 구성하여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자문 대상자 선정 및 자문 방법

○ 전북지역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부모와 자녀) 대상 교육과 다양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기관별 현장실무자 대상 자문은 총 13명을 섭외하여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일컫는 현장실무자란 전북지역에서 초·중·고교 내 다문화사업을 담당하는 교사, 교육(지원)청 주관의 다문화관련 정책·사업 등을 담당하는 현장종사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부모 대상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종사자, 지역아동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종사자, 다문화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민간 학원 및 민간단체의 원장 등을 말함

○ 자문 방법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1:1 개별 자문(대면 및 전화)을 기본으로 하였음. 또한, 자문 내용을 함께 공유해도 괜찮다고 동의한 경우 2 – 3명으로 구성된 집단 자문도 병행함.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으로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와 생활 방역을 준수 한 장소에서 실시함

○ 현장실무자 대상의 자문 관련 질문 문항은 연구진이 선행연구 고찰과 통계자료 2차 분석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작성함

○ 자문에 참여할 대상자 섭외는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대상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학교·기관·센터·민간단체 등의 시설장(센터장·원장)·담당자 및 다문화사업 담당교사 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문 관전 전반적인 안내 사항 등을 전달하고 자문에 대한 협조를 요청 후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함

○ 면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사항 및 관련 질문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 참여자의 답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며 이로 인해 자문 받는 시간의 절약과 보다 다양한 답변들을 얻을 수 있었음

- 자문 절차는 현장 실무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최대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실시함. 전화조사의 경우 자문 대상자가 1시간 정도 통화가 가능한 일정을 미리 조정하여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함

○ 기관별 현장실무자 대상의 자문 받은 기간은 ‘21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됨

▮ 분석 방법 및 주요 자문 내용

○ 자문 내용 분석방법은 사전에 녹취한 자료와 면접조사 시 현장에서 노트 필기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함

○ 기관별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받고자 했던 주요 자문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됨. 먼저는 현장실무자들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등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사항이고, 다음으로는 전북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학부모 입장과 자녀입장을 고려한 다문화가정 전반의 실태와 주요 현안,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느낀 기존 지원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및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했음

○ 마지막으로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학부모, 자녀) 대상의 지역 현실성과 주요 현안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등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음

[표 4-32] 현장실무자 대상의 주요 자문 내용

구분	주요 자문 내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기관·센터 근무경력, 지역, 기관·센터 유형, 담당 주요 업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실태 및 주요 현안	• 현장에 느끼는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부모의 경제활동상황, 자녀의 정서 및 사회생활 등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주요 현안, • 현장에서 요구 받고 있는 부모의 수요 특성과 자녀의 수요 특성 • 부모와 학령기 자녀가 어려워하는 점(가정생활,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경제적 측면 등) • 다문화가정 부모가 학령기 자녀 양육·교육 시 문제시 하는 점, 어려워 하는 점
현 지원정책 실효성	• 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 인식도·수혜 정도·실질적 도움정도·이용의향정도, 사업의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등 – 중앙차원의 사업, 전북도와 시군차원의 사업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차원의 사업 등 • 다문화가정(부모)와 자녀 차원의 어려움·애로사항 등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정책적 욕구	•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과 사업 • 전북 도 차원에서 꼭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 사례가 있다면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가 있다면 • 추진체계 및 네트워크의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욕구

나. 현장실무자 대상의 자문 내용 분석 결과

○ (현장실무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북지역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 직접 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 중 자문회의에 참석한 대상자는 총 14명이었음

○ 자문에 참여한 14명을 중앙부처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가족부 사업 담당 실무자 5명, 보건복지부 사업 담당자 1명, 교육부 관련 사업 5명, 민간 종교 등의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실무자 3명으로 나타남. 기관별 담당 업무를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괄센터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이중언어코치, 마을학당사업 담당자 등이었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현장종사자, 그리고 학교 초등교사 3명, 중등교사 1명, 대안위탁기관 원장 1명 등이었음. 민간단체는 종교기관에서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대상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한 기관은 민간 사설학원으로 다문화학생 지도를 오랫동안 공교육 체계 밖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한 기관은 한국생활을 15년 이상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로 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음. 자문에 참여한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 추진 경력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근무 기간은 약 7년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3] 자문을 받은 기관별 현장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부처	성별	연령	지역	근무경력	주요업무	근무 기관	비고
여가부	여	49세	완주	2년	센터장, 총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	49세	완주	8년	다문화지원사업 총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	43세	완주	11년	방문교육지원사업 방문교육지도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	51세	군산	1년	센터장, 총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	43세	군산	9년	다문화지원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부	여	51세	순창	1년	센터장, 총괄	00지역아동센터	
교육부	여	35세	순창	12년	다문화정책학교 담당	00초 교사	
	여	43세	순창	20년	5학년 담임교사 70%이상이 다문화학생	00초 교사	
	여	46세	전주	15년	2학년 담임교사 10% 정도가 다문화학생	00초 교사	
	여	41세	전주	3년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교실	00중 교사	
	여	54세	전주	2년	글로컬인재	위탁기관 대안학교 원장	
민간단체	여	37세	전주	2년	단체의 사업 총괄	사단법인 단체	
	여	58세	순창	20년	단체의 사업 총괄	종교기관의 다문화가정 지원 민간단체	
	여	55세	순창	20년	초등대상 교과목별 교육	민간보습학원	

○ (현장실무자 대상 주요 자문 내용 분석 결과) 현장실무자의 관점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양육·교육 실태와 더불어 전반적인 영역의 경험 실태 및 어려움, 그리고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주요 현안을 살펴봄

○ 다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기존 지원 사업(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평가와 진단 및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부모, 자녀)의 주요 현안과 실태 및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과 신규로 필요한 세부 추진 과제(안) 등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정리함

[표 4-34] 현장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주요 결과

구분/범주	주요 내용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실태 및 주요 현안	자녀 사춘기와 맞물려 다문화가정의 모와 의사소통 어려움 심각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공부환경 조성 부재 → 학습부진·문해력 저조
	다문화가정 내 높은 불안정성, 학령기 자녀의 정서·행동문제 등 부정적 영향 큼
	진로 지도 관한 정보력 부재,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 큼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 지적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부처별 및 기관별 지원 사업 정보공유 및 연계 협력 미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자녀활동서비스)의 지원 횟수와 기간의 한계
	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 상담 시 이중언어 지원 필요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욕구	다문화가정 자녀 학령기별 학습지원 강화 및 진로·진학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역할 중요성 인지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방안 모색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취업 지원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대 협조 필요
	다문화가정의 학습 환경 조성 및 부부·부모자녀 관계 증진 사업 필요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필요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 대상 전문 심리·상담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1) 전북지역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 실태 및 주요 현안

▮ 자녀 사춘기와 맞물려 다문화가정의 모와 의사소통 어려움 심각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는 한국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지

만 기본적인 한국 생활언어는 가능하나 학령기 자녀들의 학교 학습 수준에 맞춘 다양한 어휘 활용 및 단어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오를수록 심해짐. 이에 학령기 자녀의 학년이 오를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춘기일 경우 다문화가정의 모를 무시하거나 모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음을 지적함

○ 다문화청소년들은 성장하면서 학교 및 또래관계 등에서 습득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많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다문화가정의 모가 가진 한국어 수준과 지식내용 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부터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와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는 현상들이 붉어지고 있음, 우선은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발음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대화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자녀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대화의 양이 감소하고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자녀가 학령기별 진학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도 자녀 학교 급별(초·중·고) 학습 수준에 맞는 어휘수준과 지식 및 자녀가 학년별로 접하고 있는 주요 이슈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보습득·정보공유·교육·학습 등을 하려는 노력과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 어려움 · 공부환경 조성 미흡 → 학습부진·문해력 저조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모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생활언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보다 능숙한 한국어 수준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활용 수준에 따라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도 및 학습 이해와 학업성취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모의 한국어 수준 및 학습 수준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실력이 저조한 다문화가정의 모일 경우 학령기 자녀의 어휘력과 학업성취도 및 기초학력 부족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학년이 오를수록 간극이 심화됨을 지적함

- 결혼이주여성을 엄마로 두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생활용어 중심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학년이 오를수록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와 어휘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임. 예를 들어 반대말, 한자어, 숙어, 비슷한말 등에 대한 단어와 어휘의 습득을 독서나 가정 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학습 지원을 통해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이 활용하는 단어와 어휘의 폭을 넓히거나 습득시키지

않는 한 일반학생과의 단어 어휘의 활용에 있어 격차가 점차 커지고 이러한 단어와 어휘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은 결국은 학습 성취도와 연계되어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학령기별 자녀 대상의 학습부진 및 문해력 저조 수준별 어휘 습득과 단어이해 제고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은 대체로 학령기 자녀의 공부 환경 및 학습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된 경우가 많지 않음. 빈곤 및 경제적 문제와 이혼 및 남편과의 사별로 다문화가정의 모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령기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지도·지원과 돌봄이 부재하고, 자녀의 학습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따라서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 대상 자녀 학령기별 부모역할 교육과 더불어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원 및 돌봄과 학습 분위기·공부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함을 지적함

▮ 다문화가정 내 높은 불안정성, 학령기 자녀의 심리·정서·행동문제 등 부정적 영향 큼

○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랑과 신뢰 등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결혼생활이기 보다는 조건과 계약관계로 시작한 결혼으로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경제적 약속을 바탕으로 맺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부부간의 큰 연령차로 나타나는 세대차이와 신체적 차이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간의 갈등, 폭력, 별거·모의 도망, 이혼과 재혼 그리고 고령의 남편과의 사별 등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불안정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내 학령기 자녀는 해체 직전의 가정 내 불화, 갈등, 폭력, 모의 부재, 혹은 부의 부재, 경제적 취약성으로 정체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자녀들에게 큰 혼란과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지속 나타나고, 가정폭력도 많고, 모국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하루종이 일하는 모로 자녀 돌봄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부관계 만족도도 매우 저조함. 남편과의 큰 연령차로 남편의 지병, 장애, 혹은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내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 이에 학령기 자녀의 심리·정서적 및 행동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큼

- 일 때문에 학습지원 및 돌봄 부재로 홀로 혹은 형제자매끼리 지내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유튜브) 등을 주로 시청하면서 부정적인 언어습득과 나쁜 행동 등을 학습 등 악영향을 받고 있음

○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불안정성은 학령기 자녀의 언어적·행동적 폭력, 자해, 위축, 자신감 상실과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와 행동발달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음. 따라서 학령기 다

문화자녀 대상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사업의 강화가 시급하며,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위기 개입 및 생활복지 지원, 부부관계 증진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 자녀의 진로 지도 관련 정보력 부재, 자녀 진로지도 어려움 큼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진로 관련 전문적인 정보와 주위의 인적자원 부재 등 지지기반 취약으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충분한 진로 탐색과 구체적인 진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주위 누군가가 제시하는 일부분의 정보만으로 학령기 자녀의 진로를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적성과 선호 및 흥미 등을 좇아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는 막연히 경제적 수입이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식 및 단순노무직 형태의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중·고등학생의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학령기 자녀의 자아실현 및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과 다양한 폭의 진로·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진로 지원 등이 필요함. 또한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진로검사, 진로관련 상담 및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설계 및 후회 없는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 학령기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학령기 자녀의 경우 적성에 맞는 원하는 진로 설계와 취업 및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문화가정의 모(결혼이주여성)는 주위의 인적자원과 진로관련 정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학령기 자녀와 그 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한국어가 매우 미흡한 중도입국자녀와 후기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 직업훈련 교육이나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 지적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부모 역할이 거의 부재하고,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 등에 대한 개입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함

○ 다문화가정의 모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정보취득력과 관련 내용 이해력 저조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 설계에 대한 개입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남편)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함.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원과 진로 선택 및 설계 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남편)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만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의 학습 수준과 학업 성취도 및 자녀의 정서·심리 상태와 더불어 진로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또한 다문화가정의 남편(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아지며, 학령기 자녀의 학습 성취도와 학습 동기 및 향후 미래 진로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남편)가 아버지교육, 아버지 역할 증진 프로그램 및 자녀의 학령기별 필요한 진로교육, 사춘기자녀와의 대화법, 고입과 대입 준비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함

2)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부처별 및 기관별 지원 사업 정보 공유 및 연계 협력 부재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의 지원정책과 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 사업들이 있고, 이 정책과 사업들은 지자체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교육(지원)청과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주요 정책과 사업은 중앙의 교육부를 통해 지역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와 모 및 그 가족원 대상으로는 여성가족부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다문화자녀 이외 다문화가정의 부와 모 대상의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자녀 대상의 프로그램 추진 시 참석대상자의 참석률 저조와 참석자 모집이 쉽지 않음을 토로함

○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다문화자녀 대상 심리·정서 문제 해결 시 다문화자녀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부모 참여가 필요하고 모인 결혼이주여성의 대화내용 이해 제고를 위해 통·번역서비스가 필요하는 등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보다 실효성 높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정보공유와 상호 연계 협력이 중요함을 지적함

○ 즉, 각 부처의 추진기관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 별도의 자체 운영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교육(지원청)·학교 – 지자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청소년 유관기관 간의 상호 연계 협력체계로 운영된다면 예산 및 인력 낭비 방지와 사업 중복 및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원 사업도 질적으로 보다 효과적임을 지적함. 따라서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wee 센터,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기관, 민간학원,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체결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자녀활동서비스) 지원 횟수 및 기간의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은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독서 코칭과 숙제를 지도 및 정서와 사회성 발달 도모, 기본생활 습관 형성 및 진로 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은 주 2회, 회당 2시간씩 단 1회(80회기) 이용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이 약 10개월을 채 못 채우는 경우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 및 한국어 수준이 일정 수준 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자녀생활서비스를 지원 받는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수준, 학년, 학습이해 수준 및 갖추어 줘야 할 학습 습관과 생활 지도 등이 개인별 각기 상이하고 난이도도 서로 다름에도 지원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완전 준비 되지 못했음에도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에 학령기 자녀의 수준별 지원 서비스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을 지적함

○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자녀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녀 당 단 1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 지원에 힘들어하는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는 관련 사업을 이용할 수 없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소득 및 모가 생업을 책임져야 하는 다문화가정, 고령 및 신체적·정신적으로 한국인 아버지(남편)가 지병이 있는 다문화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일 경우 자녀활동서비스 지원을 특화하여 별도의 돌봄과 학습 및 진로 지원과 더불어 지원의 대상 범위와 사업기간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을 지적함

▮ 중도입국자녀 심리·정서 상담 시 이중언어 지원 필요

○ 학교 현장에서 중도입국학생의 많은 경우가 심리·정서·행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음을 현장실무자들은 지적함

- 학교 현장에서 폭력성을 띄고 스트레스가 높아 자해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행동까지 나타내는 중도입국학생들이 있음을 나타냄
- 중도입국학생은 부모의 갈등과 싸움 등을 통한 부모의 별거 및 이혼 과정을 모두 겪고, 외국에 있는 외조부모에게 양육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방치되었다라는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엄마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가족환경과 학교생활 등에 상당히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측면이 큼

○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중도입국학생 대상 위 센터 등의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심리검사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지만, 중도입국학생의 저조한 한국어 수준으로 상담 자체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가 미숙하여 전문상담 교사의 상담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상담의 효과도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지적함. 이에 중도입국학생의 심리·정서·행동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시 통번역서비스를 지원 받아 이중언어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이중언어가 가능한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 방안 및 정책적 욕구

▮ 다문화가정 대상 자녀 학령기별 학습지원 강화 및 진로·진학 지원 확대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교육 문제와 학습 지원을 꼽음.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대상의 학습 지원과 진로·진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함

○ 초등학생 시기부터 채워주지 못한 기초학력 부진과 한국어 수준의 간극은 학년이 오를수록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등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한국어 발음 및 실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실행되어져 중등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학교 학습과 한국어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다문화자녀의 개인별 환경과 수준별 맞

춤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자녀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의 범위 기준과 지원기간 확대, 교육청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사업 확대, 중·고등학교 대상의 소그룹 학습지도 모임이나 사교육(학원)비 지원, 일회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상황·여건 및 수준에 따른 탄력적 지원 등이 필요함

○ 그리고 기존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대상의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의 범위와 사업 지원 기간 및 사업 내용 또한 학령기 별로 세분화하고 다문화가정의 환경·여건별 특화하여 확대·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함. 또한, 다문화가정 내에서 부모가 채워줘야 할 학습 지원 및 한국어 학습 이외 중학생부터는 학령기 자녀의 진로 탐색 및 설계에 관한 지원과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 관련 최신 정보과 구체적인 설명 및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 확대도 시급함을 지적함

▮ 다문화가정 아버지 역할 중요성 인지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방안 모색

○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학령기 자녀의 교육과 학습 지원 및 진로·진학 등의 진로 설계에 있어 어머니가 일차적으로 주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지배적임. 이에 학령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크지만, 이주배경의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의 환경 여건상 모는 한국어 수준이 제약적이고 한국사회의 복잡한 교육체계와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모의 개인적 역량만을 가지고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과 학습 지원 및 진로·진학에 대한 설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한편,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남편)들은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책임져야 하는 근로활동으로 학령기 자녀의 교육 전반 및 학습 지원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력도 거의 부재하며 자녀의 진로·진학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무엇보다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남편)의 자녀 교육과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문화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자녀 교육문제와 학습 지원 및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진로·진학 관련 진로 설계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매번 겪고 있기에 지적함

○ 따라서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이 학령기 자녀의 교육과 학습 지원 및 진로·진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에 학령기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법·

성격유형이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아버지교실), 사춘기 자녀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 고입과 대입 진학/입시준비 교육 및 자녀의 진로·진학 등 진로설계 교육 등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남편)가 자녀 교육과 진로·진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이 필요함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취업 지원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대 협조 필요

○ 현장 실무자들은 특히 중·고등학생 시기인 다문화자녀를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 진학 및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한계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 부족으로 진로, 진학, 취업 관련 지원의 한계가 큼을 토로함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이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안전 정착이었다면 최근에는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이에 현재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하기에 현장실무자들은 수요가 높은 중·고등학생 시기에 중요한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등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진로·진학·취업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다문화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며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진로교육, 진로탐색, 고입·대입 준비 지원, 대입 입시 전문 컨설팅 및 직업체험, 자격증과정 지원,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학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등 중·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각기 지원 사업 운영으로 부분적인 한계가 많기에 지역사회의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조 및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함도 지적함

▌다문화가정의 학습 환경 조성 및 부부·부모자녀 관계 증진 사업 필요

○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내 자녀의 학습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현장 실무자들은 지적함

○ 즉, 이혼과 별거 등에 의한 한부모 가정, 고령과 신체적·정신적 지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없는 남편 대신 결혼이주여성이 가정의 생업을 책임져야만 하는 다문화가정 등 부모의 이

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의 경제적 활동으로 자녀가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부부 갈등으로 싸움·폭력이 빈번하고, 자녀에 대한 면밀한 돌봄이 부재하며,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과 초등 저학년부터의 숙제봐주기 등 학습 지원 자체가 결핍된 다문화가정이 많음. 이에 우선적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 분위기와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함

○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높은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부부갈등과 폭력 등에 대한 긴급위기개입 사업과 더불어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필요

○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학습 및 교육 지원과 더불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복지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함

○ 기초학력 부진 및 한국어 능력이 저조한 많은 이유 중 크게는 다문화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 등이 거의 부재한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습 지도 및 진로·진학에 보다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정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적임을 시사함

○ 즉 경제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게는 안정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녀의 돌봄에 틈새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또한 해체 직전까지 간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부부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위기지원 등을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학령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자녀 대상 전문 심리·상담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한부모 가구 등)의 다문화가정은 특히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 갈등, 폭력 및 자녀 방임·방치, 해체 직전의 가정 등 가정 내 불안정성이 높아 자녀의 심리·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지속 발현되고, 현재 발현되지 않았더라도 심리·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잠재적으로 담고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함을 지적함

○ 현장 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으로 돌봄과 학습지도에서 방치되는 학

령기 자녀, 다문화가정 부모의 갈등, 싸움, 학대 및 별거와 이혼 과정을 고스란히 보고 겪어온 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정 모(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모의 나라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의붓아버지와 의붓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야 하고, 새롭게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등 혼잡하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자해 및 폭력성이 나타나는 다문화자녀들이 상당히 많음을 강조함

-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업무 담당 교사는 중도입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중 부모의 돌봄 부재와 방치로 스마트폰 게임이나 동영상에 과의존 되거나 가정의 불안정성으로 스트레스인지율과 폭력성이 높고, 우울증과 자해가 높음을 지적함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대상 심리·상담 검사 및 전문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저조한 한국어 수준을 감안한 미술치료, 모래치료, 예술치료 등 매체를 통한 전문상담치료 등을 단기간 및 일시적으로 지원으로 하기 보다는 다문화자녀의 심리·정서·행동문제의 심각도와 가정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함을 지적함

4. 요약 및 시사점

가. 원자료 분석에 따른 결과

○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권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기본 실태 및 전국과 타 시도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과 특성을 파악함

○ 둘째,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전북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내용 비교 및 전국 시·도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심리·정서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주목할 만 한 결과를 중심으로 소결하고자 함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국적은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응답이 99.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평균(96.4%)보다 2.8%p 더 높은 비중이었음. 이는 전북지역 다문화가

정은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전북의 외국인주민통계에 의하면, 과거에는 일본과 필리핀 국적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베트남, 태국 등의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외국인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라·제주권의 경우 73%로 전국 평균인 68%보다 5%p 더 높았음. 또한, 부모 간 의사소통 역시 한국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전국평균보다 높았음.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최대 장점이 '이중언어의 활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등 이중문화에 대한 수준이 4점을 기준으로 2.90점대로 전국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다문화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유사한 맥락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알렸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전라·제주권의 다문화청소년들은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들은 향후 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으로 '현금지원'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전라·제주권의 경우 '진로프로그램' 관련 정책욕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부모의 욕구 역시 진로프로그램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지도 시 어려운 점으로 자녀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어려움이 높았음

- 유사한 맥락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으로 100명 중 13명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현재 고민/걱정에 대해 '진로/진학'과 관련된 고민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진로교육 만족도 결과, 진로캠프가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 실무체험(3.95점), 현장 직업체험(3.8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 희망직업 중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등이 높게 나타나 관련 결과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음

- 자녀의 진로·진학 설명회에 참석할 의향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2.0%가 참석을 희망하였고, 개최기관으로는 학교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교육청, 다문화가족센터 순이었음

○ 부모님의 진로지도 관련 행동 수준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지지, 간섭, 관여부족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이에 가정 내 아버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사회·정서·행동’과 관련하여 전라·제주권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사회적 위축 등의 항목에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더 높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심리·정서 관련 부분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상 계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지적 측면’과 관련하여 전라·제주권의 경우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전국평균 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어와 수학은 5점을 기준으로 2.70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었음. 다문화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한편,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도 3.04점(4점기준)으로 낮지 않은 정도이기 때문에 학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효과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부를 위한 학습활동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학원 및 과외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인터넷 강의 및 방과 후 보충수업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경제적 수준 상태와도 연결되는 바, 학습적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부모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빈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활동 항목에서 전라·제주권 가정의 자녀와의 활동 빈도가 전국 평균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남.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이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요구됨

- 전라·제주권 다문화가정 자녀 100명 중 80명은 부모님과 박물관이나 음악회는 문화생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제주권 다문화가정 자녀 100명 중 42명꼴로 삶의 가치관에 대해 전혀 하지 않거나, 1년에 1-2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6명꼴로 자녀의 학교 및 학과 선택에 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19.8%로 전국평균에 비해 약 10%p 더 낮았음. 지역사회 지지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전국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4%인 반면,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4.3%로 약 11%가량 높았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북 전체 청소년(37.9%)보다 5.8%p 더 높은 수준임.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임. 학교급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스트레스 원인으로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관계'관련 내용이었음
- 전북 다문화 중학생의 경우, 전체 중학생 평균보다 부모님과의 갈등, 가정상태, 친구관계, 외모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고등학생 평균보다 가정상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관계, 외모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가정상태, 친구관계, 외모 항목에서 전체 남학생 평균보다 더 높았고, 여학생은 부모님과의 갈등,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관계, 외모 등에서 전체 여학생 평균보다 높았음

○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17.5%p 더 높았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10.9%p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다문화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을 보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고등학생일 경우, 그리고 여학생일 경우 자살생각률이 높게 나타남. 다문화 고등학생 100명 중 약 12명, 여학생 100명 중 약 13명은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심리·정서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전북 다문화청소년의 외로움 경험 수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외로움 경험 수준이 조금 더 높았고, 다문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학교급별 전체 학생의 외로움 경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외로움 경험 수준이 좀 더 높았고, 다문화 남학생의 경우 전북 전체 남학생의 외로움 수준보다 0.41점 더 높은 수준이었음
- 다문화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은 세종시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남(4.02점), 대구(3.96점), 충북(3.92점)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라북도가 3.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북 전체 학생 평균보다 높았고, 전국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었음. 물론 과의존 수준이 '일반군'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조사특성 상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함.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하겠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적고, 스마트폰이 소통창구가 될 확률이 다문화가정에서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됨

-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과의존 수준이 더 높았음

○ 코로나19 이후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

움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 확인과 지원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다문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변화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나.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부모, 자녀)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 요약 및 도출된 시사점 내용을 먼저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 조사 내용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다문화가정이란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 따돌림 및 차별 등을 받을까봐 걱정이 컸고, 이러한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학령기 자녀가 사춘기 때 비행이나 일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컸음.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문제를 가장 어려워했으며 모(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저조 및 한국사회 교육체계 이해 부족으로 학습과 진로·진학 지도를 힘들어 했으며,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과 대응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함.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경제적 활동으로 방과 후 자녀들끼리 방치되거나 돌봄 부재로 학습 지도 및 학습 습관 형성이 미진하여 자녀의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빈곤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 폭력, 별거 및 이혼 등의 가정 내 불안정성이 컸고, 이러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자녀가 경험하면서 자녀의 심리·정서·행동 문제도 잠재적 및 외현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함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나타냄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미취학 자녀 및 한국어 교육 중심이여서 학령기별 필요 지원 사업의 개발과 확대를 필요로 함.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고 만족도 또한 높았으나 지원 대상의 한계, 지원 횟수 및 지원 기간의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했음. 이외 학령기 자녀의 교육 문제와 학습 지도를 위해 학령기별 다양한 방법의 학습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자녀의 사춘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법(대화법, 부모교육, 사춘기 이해 등)에 대한 요구와 중·고등학교 진학 및

입시 관련 정보와 교육 안내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요구함

○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면접결과와 도출된 시사점을 보면, 특히 사춘기 자녀(초 고학년과 중학생)들은 모의 한국어 발음문제와 대화의 이해 저조로 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에 대한 어려움, 학교 교과목 중 국어와 역사 과목이 유독 어렵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음에 대한 힘듦,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공부의 양과 학교 공부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진로와 성적에 대한 고민이 크게 나타남. 이에 한시적으로 지원 받은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던 반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학교와 센터의 진로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은 학교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중학교부터는 학원비 지원이나 개별 과외 형식의 학습 지원을 필요로 했고, 내실 있는 진로·진학 및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진로 설계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도와 달라 했으며 고입 진학 준비와 대입 준비 및 대학 입시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개인별 지원해 주기를 요구함

다. 현장실무자 대상 자문 내용 분석결과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실무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정 전반의 주요 실태와 현안, 그리고 기존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향후 전북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요약·정리함

○ 먼저 현장실무자 관점에서의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주요 실태와 현안을 보면, 첫째, 자녀의 학년이 오를수록 특히 자녀 사춘기 시 다문화가정의 모를 무시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 일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한부모 등) 중심의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자녀의 학습 지도가 부재하고 가정 내 공부 분위기 및 환경 조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녀의 기초학력과 문해력 저조로 학교 학습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임. 둘째, 다문화 가정 내 불안정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스트레스, 우울, 폭력, 자해 등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함. 셋째, 다문화가정의 모는 한국어 능력 취약, 한국사회의 교육체계 이해 미흡, 한국인 아버지(남편)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학습·진로 지원에 대한 개입 부재로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취업 등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아버지(남편)의 역할 중요성과 자녀의 학습과 진로지원 개입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함

○ 다음으로 현장실무자들은 기존 사업들을 현장에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부처별·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이 미흡함을 꼬집고, 복지와 교육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통합적 연계 협력 지원이 되어야 사업의 내실화 및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 지적함.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실무자는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이 선호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의 예산과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중도입국자녀 중심의 심리정서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시 한국어가 힘든 학생 대상으로는 이중언어 상담 및 통번역서비스를 병행하는 상담이 지원되어져야 하며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국내출신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가 많으므로 이에 심리정서 전문상담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마지막으로 현장실무자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 학령기별 학습지원 강호와 더불어 진로·진학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역할 중요성과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방안 모색이 시급함을 지적함.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상호 연계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함

제5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2.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 정책 방향
   - 세부 추진 과제

제5장.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 본 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주요 분석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요 사항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안)를 제시함

1.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증가세, 학령기별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 2000년대 초부터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유입된 결혼이민이 20여년이 되어가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함. 최근에는 국내출생 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령기로 진입이 본격화되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급증하고 있음

- 전북의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는 '19년 기준 726명이며, 전북 전체 출생아의 8.1% 차지(전국1위)
- 전북지역 외국인주민 자녀는 '14년 1만 명을 넘었고, '11년 7,755명에서 '19년 12,906명으로 8년이란 기간 동안 약 5,100명 이상이 증가함

○ 전북 외국인주민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이 5,29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4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초 ·중· 고 학생에 해당하는 학령기(만 6세 ~18세) 연령의 외국인주민 자녀 또한 7천명이 넘는 7,610명으로 과거 5년(2014년, 4,153명)전 보다 약 2배가 증가함(2019년 기준 행안부 통계자료)

- 최근 이민비자 발급기준 강화 및 어학요건과 소득수준 등의 심사기준 관리감독 강화로 국제결혼이 감소하여 다문화가정의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7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의 수는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 전북지역 외국인주민 자녀를 연령대별로 보면, '19년 기준 만 6세 이하는 5,296명으로 전체의 41.3% 차지, 만 7~12세는 5,488명으로 42.5%, 만 13~15세는 1,275명으로 9.9%, 만 16~18세는 847명으로 6.6%를 차지함.

○ 전북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2년 3,064명, '16년 5,560명에서

’21년 8,105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 또한 ’12년 1.18%, ’16년 2.47%에서 ’21년 4.20%로 증가하여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학교 급별(초·중·고)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 학생의 초등학생 비율은 68%(5,496명)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학생 21%(1,743명), 고등학생 11%(866명)로 초등학생 비율이 70%에 육박함

- 학교 급별(초·중·고) 전북지역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5.92%, 중학교는 3.53%, 고등학교는 1.71%로 나타남
- 전북지역 전체 학생 수는 출산율 감소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 충남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음

○ 최근까지는 전북지역 전체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몇 년 안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무엇보다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등 미취학자녀가 초등학생 수만큼의 규모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규모는 더 커질 것이 당연시되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미취학 아동의 학령기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높은 비율이 초등학교에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이들이 중·고등학생 등 고학년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임
- 또한, 전북지역 내에 국내출생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이외 이주배경을 지닌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와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북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진학하여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 및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언어발달과 시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발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진학이 증가하면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등 진로·진학 관련 정보과 실제적인 지원, 그리고 직업체험과 직업기술훈련 등에 대한 요구 등 관련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과 지자체는 수요 대비 지원 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지원사업은 한국어교육 지원 등 언어발달 지원과 일부 학교생활 지도 등에 편중되어 있

고 관련 지원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의 요구와 특성이 반영된 맞춤별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
- 국내출생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성장배경이 상이한 중도입국자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정책 설계도 필요함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기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 요구는 그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음.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 초등학생 다문화자녀는 한국어 능력(발음 등) 제고 및 교과목별 기초 학력 증진 등을 위한 학습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 다문화 자녀는 진로·진학 및 진로 상담 등 진로 설계에 대한 지원과 심화된 과목별 공부를 도와주는 사교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고등학생 다문화 자녀는 대입 준비를 위한 정보와 방법, 대입 입시 전문 컨설팅, 그리고 취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학령기 다문화자녀가 증가하면서 진로 상담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요구는 높아지는 추세지만, 실제로 지원서비스 수혜율은 높지 않고, 도시와 교육 격차가 큰 농어촌지역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증가 추세에 따라 학령기별 및 성장배경별로 요구하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 기초학력 및 교육 격차 해소 지원

○ 다문화가정 부모 면접과 현장실무자 자문 결과,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다문화가정 중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일수록 자녀들의 한국어 수준이 저조하고, 기초학력 수준이 부진하여 선주민 자녀와의 교육과 진로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격차는 학년이 오를수록 커지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와 기초학력 수준이 저조하고 선주민 자녀와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생업에 급급하여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 가정 내 학습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자녀의 학습과 교육에 관심 가질 여유와 지지가 부족하며, 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임. 게다가 경제적 빈곤 문제로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사교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특히 낮은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학습 지원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가 사각지대로 방치될 경우 기초 학습과 교육 수준이 부진하여 향후 진로·진학 및 진로 설계 등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이러한 격차는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직업 격차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또 다른 사회 취약계층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학령기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과 학업 성취도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 동기 및 진로에 대한 직업과도 연동되어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기초학력과 교육 수준 향상시키고 비다문화 학생과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학령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 사업 추진도 필요함

○ 먼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의 많은 경우가 가정 내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가정 내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어 발음과 어휘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한국어 발음, 단어·어휘의 이해력, 글쓰기, 문장 이해력 등이 일반 학생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올바르고 정확한 한국어 교육과 발음 및 단어·문장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개별수준 맞춤의 다문화가정 방문 학습지원(학습태도 형성)·독서지원(독서습관형성) 등이 필요함

○ 그리고 한국어(국어) 이외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보충 및 보강 할 수 있는 선택적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교육비 지원, 대학생 연계 1:1 학습 멘토 지원, 소그룹 과외 지원, 방문학습 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형식의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점 보완 및 개선

○ 전북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령기 자녀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중앙부처별 기본지원정책계획의 큰 틀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추진체계를 통해 중앙 예산의 매칭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전북지역의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여건을 담아낸 지원정책 발굴과 사업 내용이 한계적임. 이에 전북지역의 현실과 주요 현상을 반영한 지원정책 발굴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그 부모 대상의 지원 사업 또한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의 진단을 통한 발전적 개선 보다는 매년 발생하는 이슈를 쫓아 단기적 성격의 지원 사업으로 끝나고 다시 세팅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정확한 현실과 실태 파악이 어렵다 보니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실과 반응을 지원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몇 명이 프로그램에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양적 성과 접근으로 예산 부족 및 개인별·수준별·상황별 맞춤 지원의 한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차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출되고 있음. 무엇보다 필수 지원사업이 아닌 우선지원 사업 규정·시행되고 있는 '다재다능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며, 일시적, 한시적 사업진행이 아닌 지속적 지역 균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중도입국 자녀·외국인가정 자녀 맞춤 지원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전북지역 현장 실무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함.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의 맞춤 지원 정책과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언급함

○ 한편, 국내 출생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는 이주 배경과 성장 배경이 보다 복잡하면서 특수한 요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다문화 학생이라는 개념 하에 일률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출생 성장 다문화자녀와는 다른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의 차별화된 맞춤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중도입국 자녀는 국내출생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 보다 취약집단으로 일정기간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경험으로 한국어가 전혀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수년간 친모와 분리 생활하여 친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새롭게 형성된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갈등, 언어장벽, 빈곤문제 등 문화적 차이 등으로 관계적 소원이 나타남. 또한 낯선 한국사회 환경과 가정환경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등의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특성도 심각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음

○ 그리고 중도입국자녀는 국내출생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나이가 비교적 많고, 편입학 관련 증빙서류 준비 및 복잡한 입학 절차로 공교육 진입 자체가 어려워 배우지도 못하고 일도 안하며 혼자서 집에 방치되어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주로 하는, 즉 어느

기관에도 견인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통계적 수치로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중도입국자녀가 공교육 체계로 편입학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어 수준 저조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교사와 또래간의 차별 및 폭력 등의 다양한 학교 내 갈등 문제들로 학교를 중도 탈락하거나 다시 어머니의 국가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북지역 중도입국 자녀가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연령별 및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맞춤 지원해 주는 체계적 지원정책 마련과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북지역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의 기본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수요에 대응한 면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그리고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 사회 초기 적응 지원과 한국어 집중교육 및 정규 학교 편입학 등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원 방식 다양화(주말, 야간, 온라인 운영 등), 중도입국 자녀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대안교육 위탁 운영 확대, 다양한 국비 지원의 직업훈련 교육기관, 중도입국자녀 특화의 취업사관학교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 및 취업·직업훈련 지원 확대

○ 면접 및 자문 결과, 중·고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가장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한 진로·진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 및 구체적인 진로설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지만, 학교와 관련 기관 및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 관련 지원은 단편적인 진로교육이나 진로 적성 검사 등을 실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학교와 기관 및 센터의 진로·진학 관련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및 사업 예산 등에 따라 기관과 지역마다 그 격차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한계가 큼을 토로함

○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다문화 학생은 학교 진로·진학 상담 및 개인 연령과 수준별 구체적인 진로 지도와 진로교육 등 실제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상담 및 전문가의 컨설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실제적인 맞춤 상담 지원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의 예비 수험생 대상의 고입과 대입 시험 대비 관련 지원 정보, 준비 방법, 시험을 위한

특별지도 및 학습지원, 개인별 맞춤 전문 컨설팅 등이 필요함

-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위해 진로검사, 진로 탐색, 직업체험, 진로상담과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필요함
-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모국어로 된 고입과 대입 준비에 대한 정보제공, 출신국적별·학령기별 자녀 진학 정보 나눔을 위한 온·오프라인의 자조모임 등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을 지원 방안 다각화를 필요로 함
-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선호하는 직업 실태 파악을 통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관련 직업 멘토와의 만남과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함

▌부모역량 강화 및 부모-자녀관계 증진, 자녀의 심리·정서 지원 확대·내실화

○ 기존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관련 지원사업의 양과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지원 사업 또한 자녀의 언어발달(한국어 교육, 이중언어지도, 언어발달치료)과 방문교육사업의 자녀활동서비스 등에 치중되어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반면 고학년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진로·진학 및 직업체험과 취업지원 사업 및 자녀 사춘기와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 갈등 심화 및 부모와 자녀 대상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의 양과 관련 예산 투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자녀의 사춘기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결혼이주 한 어머니를 무시 하는 등의 부모역할의 취약성과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과 다각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부간의 불화, 갈등 및 부모의 별거·이혼 과정 경험, 경제활동으로 인해 주 양육자의 돌봄 부재, 고령의 아버지와의 사별이나 부재 등 다문화가정의 높은 불안정성 경험으로 학령기의 다문화 자녀는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잠재적인 심리·정서적 위기와 문제적 행동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도입국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심리·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학령기자녀가 사춘기를 큰 문제와 방황 없이 정체성을 확립하여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녀의 사춘기 관련 내용의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 부모역량 강화에 관한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사춘기 자녀 및 학령기 자녀와의 부모자녀관계 증진, 부와의 관계

및 모와의 관계 향상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게 나타남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체계적 지원 위한 제도 기반 정비 및 인프라 구축 강화

○ 부처별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한지 약 15년 이상으로 일정부분의 성과도 있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게 있음.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이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5～6년 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특히 학령기자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자녀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자녀의 학령기별 성장과 인재 양성 지원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 확대 강화되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법적근거 기반의 미비로 먼저는 부처별 근거 법 상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 대상과 범위 및 유형이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혼란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2016년 8월에 제정 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이 새롭게 개정한 조례 조항처럼 일부 개정하여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및 유형을 규정하고,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 지원 조항)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부처별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간 연계 협력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는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학교를 통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부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업의 부족성과 연계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남. 그리고 부처별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지역사회 내 부처별 유관기관간의 사업 관련 정보 공유, 소통 강화 및 연계 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처별 지원사업간 상호연계 협력 및 통합적·효과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 관리 연계하는 지역 내 허브기관(센터)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의 경우 가족 중심이 아닌 청소년 중심의 맞춤 교육과 참여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맞춤 전문 인력과 청소년 관련 전문성 등의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다문화 맞춤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및 참여활동·역량 개발을 위한 다차원적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할 수 있는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자원간의 연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위한 전북지역 허브기관(센터) 구축은 부처별 분절적으로 추진된 사업간 상호 연계 협력을 강화시키고, 관련 지원 대상과 정책의 중복에 대한 문제 및 지속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며 중앙과 지자체간의 연계,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유관기관간의 연계 등의 강화를 집중 지원 해 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국내출생 성장자녀)과 중도입국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자녀 대상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차 파악되지 않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기초 통계 구축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 본 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정책 목표별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를 <표 5-1>과 같이 제시함

가.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향

○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의 정책 목표는 크게 4개 영역인 학령기별 맞춤 지원 확대, 심리안정 및 관계향상 지원, 기존사업 개선 및 지원 강화, 그리고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기반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기별 맞춤 지원 확대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진로·진학·취업 지원 내실화, 부모 학습지원 역량강화 등의 정책방향 설정에 따라 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 두 번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 안정 및 관계 향상 지원 강화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정서 지원 확대와 부모-자녀 관계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4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 세 번째 기존 지원 사업 개선 및 지원 확대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존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내실화와 현장 실무자 전문성 및 역할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5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 기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제도 기반 정비 및

인프라 구축 강화란 정책방향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4개 주요정책목표별 9개의 정책방향과 정책방향을 토대로 한 총 23개의 세부 추진 과제(안)을 제시함

[표 5-1] 전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목표별 개선방향 및 세부과제(안)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세부 추진 과제(안)
학령기별 맞춤 지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학령기별 기관·가정 방문 기초학습 지원 사업
		저소득·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사업
		수준별 맞춤 문해력(언어발달) 증진 멘토 및 소그룹 형성 지원
	진로·진학 취업 지원 내실화	저소득·취약계층 자녀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비 지원 사업
		기관 연계 진로·진학·취업 지원 사업 다각화
		1:1 맞춤 진로설계 컨설팅 및 고입·대입 전문 컨설팅
	부모 학습지원 역량강화	학교급별·출신국적별 다문화학부모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운영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입시(학) 및 한국 교육시스템 설명회 개최
심리안정 및 관계 향상 지원 강화	심리·정서 지원 확대	중도입국자녀 이중언어 심리상담 지원
		다문화 학령기 자녀 전문 심리상담 지원 확대
	부모-자녀 관계 강화	학교·센터 연계 사춘기자녀의 부모 역할 코칭
		학령기별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캠프 운영
기존 사업 개선 및 지원 확대	기존 사업 범위 확대 및 내실화	농어촌지역 방문교육사업(자녀생활서비스) 학교급별 세분화 및 범위 확대 지원
		'다재다능 프로그램(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확대 운영
		다문화 대안학교 위탁기관 지원 사업 내실화
	현장 실무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 기반 환경 조성	제도 기반 정비	'전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항추가 등)
		민·관·학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추진 협의체 구성
		전북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허브기능 역할 강화
	인프라 구축 강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전라권 설치·운영 (국내출생·중도입국자녀 특화 기숙형 직업교육 기관)
		'다가온(ON)' 학령기 다문화자녀 공부방 활용 강화
		중도입국자녀·외국인가정자녀 기초 통계현황 구축 및 실태조사

1 학령기별 맞춤 지원 확대

1-1. 기초학력 보장 학습 지원

1-1-1 학령기별 기관·가정 방문 기초학습 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령기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 면접결과, 자녀의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년 오를수록 학습지도의 어려움 및 힘들어짐을 토로함. 다문화가정의 모는 한국어 미흡으로 학령기자녀의 교과목별 학습지도가 어렵고, 중학교 진학이후부터는 교과목 학습 수준이 보다 전문적으로 심화되고 학습양도 많아 학령기자녀의 학습지원에 대한 개입에 한계가 큼

○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한국인 남편 부재(사별, 별거 등) 및 고령 남편의 경제적 활동 불가능으로 다문화가정 모가 당장 시급한 생계에 급급하여 자녀의 학교숙제 및 학습지도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가정 내 학습 환경도 부재 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환경과 여건으로 다문화 학령기자녀는 학습 부진, 기초 학력 부재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위기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 및 학령기별(초·중·고) 필요로 하는 학습지원과 주요 교과목별 학습 지도 등으로 기초학력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시급함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기별 학습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지원내용 : 기관과 가정으로 교사 방문 학습지원

- 만 5세 ~ 6세(미취학) : 한국어(쓰기, 말하기, 읽기 등), 독서
- 만 7세 ~ 12세(초등학생) : 숙제지도, 학습 습관 및 자기주도 학습 형성, 기초학습 과목 택 2

  ※ 기초학습과목 : 국어(문해력 등), 수학, 영어, 사회, 독서 등 택 2

- 만 13세 ~ 15세(중학생) : 선택 과목 학습지도 택2(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역사 등)

○ 지원기간 : 12개월(1월~12월), 주 1회, 미취학 15분/ 초등학생 30분/ 중학생 40분 이내

○ 신청자격 : 전북지역 거주 만 5세 ~ 15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자녀

※ 단,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학습 바우처사업, 지자체 학습 지원 사업 대상자는 동시 신청 불가

○ 모집인원 : 약 500명

○ 방문 기초학습 교육기관 : 공개 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

○ 방문 기초학습 교육비 : 전북도(30%)·시군 지자체(30%)·교육기관(10%) 매칭 지원금 + 본인 부담금(30%)

○ 추진절차

-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검토 추천
- 전북도 최종 선정 · 지원

1-1-2 저소득·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대상 학부모의 학습지도 어려움과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기초학습을 쫓아가지 못하여 학습 부진과 일반청소년과의 기초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는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학원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방문 학습지도로는 한계가 있는 고학년인 중·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부진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보충과 지원이 가능한 학원비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주요 교과목 중심 1인당 2개 과목 학습비 지원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지원대상 :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300명 지원

○ 사업비 : 전라북도(30%), 각 지자체(30%), 지역별 학원(20%), 자부담(20%)

○ 추진절차

- 전라북도의 지원계획 수립(지역별 학원연합회와 협약 및 학원비 일부 자부담 지원 계약)
-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검토 추천
- 전북도 최종 선정
- 지역 학원시설은 학습 지원 및 보조금 청구(각 지자체)
- 각 지자체는 전북도와 정산

전북 순창군 사례

- 추진근거 : 순창군 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 사업목적 : 학습에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활동비 지원, 균등한 교육지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2개 과목, 최소 9만6천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
  순창군 내 학습활동비 지원 대상 학원 24곳
- 지원대상 : 순창 군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과 다자녀가족 셋째아 이상
- 추진절차 : 학기 시작되기 전 2월까지 학습활동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받은 후 학원에 제출
- 지원기간 :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 일부 지원
- 기타사항 : 순창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하는 방식

1-1-3 수준별 맞춤 문해력(언어발달) 증진 멘토 및 소그룹 형성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 모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생활언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활용 어휘 수준이 낮고, 생활언어 수준에 멈춰있어서 학년이 오를수록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들이 활용하는 단어와 어휘의 폭을 넓히거나 습득시키지 않는 한

일반학생과의 단어 및 어휘 활용에 격차가 커지고 단어와 어휘의 폭넓은 이해와 활용은 결국 학습성취도와 연계되어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학령기별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활용 단어와 어휘 및 문해력에 대한 수준 진단을 토대로 수준별 맞춤 단어·어휘 습득과 학습내용 이해 제고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한국어 수준별 맞춤 문해력(언어발달) 멘토링, 1:1 및 소그룹별 멘토 지원

○ 지원대상 : 언어발달 및 학습내용 이해와 문해력이 저조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 지원기간 : 1년(12개월), 자녀의 한국어수준 지원 여부 진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 전라북도(50%) + 각 지자체(50%) 매칭 지원

○ 지원 장소 : 멘티 집 혹은 조용한 장소(카페, 스터디카페,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 소그룹 형성 지원

○ 추진절차

-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멘토모집, 멘토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교통비와 활동비 예산 마련 등)
-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취약계층 및 언어발달 저조함을 우선순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검토 추천
- 전북도 최종 선정
- 멘토 활동, 자원봉사확인서발급, 교통비와 활동비 지자체와 전북도 정산

1-2. 진로·진학·취업 지원 내실화

1-2-1 저소득·취약계층 자녀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비 지원 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부터는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따라서 다문화 학령기 자녀가 갖는 흥미 파악과 적성 이해 및 이러한 흥미와 적성을 기초로 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경험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가 흥미를 갖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예·체능 분야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기 적성 및 예체능 분야 교육비 지원

- 미술·음악·댄스·축구·야구 등 예체능 분야, 바리스타·제과제빵·헤어/미용 등 특기적성 분야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지원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50명 지원

○ 사업비 : 전라북도(30%), 각 지자체(30%), 지역별 학원(20%), 자부담(20%)

○ 추진절차

- 전라북도의 지원계획 수립(지역별 학원연합회와 협약 및 학원비 일부 자부담 지원 계약)
-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검토 추천
- 전북도 최종 선정
- 각 지자체는 전북도와 정산

1-2-2 기관 연계 진로·진학·취업 지원 사업 다각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은 진로 관련 최신 정보와 주위의 인적 자원 부재 등 전문적 지지 기반 취약으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충분한 진로 탐색과 구체적인 진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주위에서 제시하는 일부분의 정보만으로 자녀의 진로·진학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높음

○ 따라서 다문화가정 중·고등 학령기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자아실현 및 적성과 흥미 고려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다차원의 진로·직업 지원 방안 모색이 시급함. 또한 진로 정보제공 및 진로검사,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설계 및 후회 없는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에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직업체험 선호도 조사 및 수요 반영한 직업훈련 과정 다양화, 진로교육(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창업체험 등) 및 개인 맞춤별 전문 컨설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학령기(중·고) 자녀

○ 지원내용 : 학령기별 맞춤 진로·진학·취업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 차원의 다각화된 지원서비스 제공

– (진로지원 사업 다각화) 진로탐색 동아리,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캠프, 진로워크숍,다문화 학령기자녀 선후배 멘토링, 대학 학과 체험 등

– (진학지원 사업 다각화) 진학 상담, 고교내신관리 설명회, 대학진학 설명회, 고입과 대입 입시 전략 워크샵 개최, 1:1 맞춤 전문 컨설팅, 고입과 대입 입시 자료집 국적별 언어 발간과 배포 등

– (직업·현장 체험과 취업 지원 사업 다각화) 직업인 멘토링, 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 추진절차

• 지역별 단위학교,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과 지역 자원 연계 지원

1-2-3 1:1 맞춤 진로설계 컨설팅 및 고입·대입 전문 컨설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고입과 대입 입시에 대한 정보를 본인 스스로 취합하여 선택 결정하는 비율이 일반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문화가정 모는 한국사회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과 대학 및 학과 선택 등 자녀 진로 선택·결정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의견에 편중할 수밖에 없음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특히 대입 입시에 대한 복잡한 흐름을 혼자서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차원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안내와 정보에는 한계가 커서 개별 맞춤의 성적과 적성 등을 고려한 대입 전문 컨설팅을 필요로 함

○ 이에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고등학교 입학과 대학 및 전공 선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진로·진학 컨설팅과 입시 전문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시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모의 참여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 진로 전문컨설팅과 고입·대입 입시 전문 컨설팅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자녀

○ 지원기간 : 학기 초(3～4월), 학기 중(7～9월)

○ 사업비 : 전북도와 각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매칭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등 연계 협력

○ 지원 장소 :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절차

- 전라북도의 지원계획 수립(진로 및 고입/대입 입시 전문 컨설턴트 섭외 등)
-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신청자 전부 지원



[그림 5-1]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진로·진학 지원 사업 예시

1-3. 부모 학습 지원 역량 강화

1-3-1	학령기별·출신국적별 다문화학부모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면접과 자문 결과, 다문화가정 모의 한국어 수준과 진로·진로진학 정보 및 모의 학력수준과 학습역량에 따라 학령기자녀의 학습지도 및 학업성취도와 진로·진학 선택에 중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다문화가정 모가 학령기자녀의 진로·진학 선택 시 자녀 맞춤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모 대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모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고 학령기자녀가 있지만 다문화가정 모의 한국어수준은 생활언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진학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서는 학령기별·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모

○ 지원내용 : 학령기별 및 출신국적별 진로·진학 관련 정보제공, 자녀 성장발달 지원 내용, 학교생활 지원내용, 지역의 자녀 진로진학 지원관련 중요 정보제공, 학부모 모임 등

○ 지원내용 : 14개 시군별 자모모임 각 2개씩 48개, 모임 당 한 해 300만원 지원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및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학부모 자조모임 형성·운영·지원

–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조모임 활동 계획 지원

– 자조모임의 학부모 대상 필요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주제와 내용 집중 지원

○ 추진절차

- 전북도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과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1-3-2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입시(학) 및 한국 교육시스템 설명회 개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령기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 관련 전문적인 정보와 주위의 인적 자원 부재 등 지지기반 취약으로 자녀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시 시간과 정보를 갖고 충분한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주위 누군가가 제시하는 일부 정보만으로 자녀의 진로를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다양한 진로·진학 및 취업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한 진로설계 및 후회 없는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초·중·고 입(진)학 설명회, 중·고 입시 설명회, 한국교육시스템 설명회 개최

◇통·번역 지원 및 학령기별·출신국적별 학부모 소그룹 설명회

◇학교생활, 교과과정, 학부모 지도내용 등

◇국적별 언어로 된 관련 자료 제공

○ 지원대상 : 지역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 연계 초·중·고 및 초등 미취학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대상

○ 지원장소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로 학부모 고려 저녁과 주말에 설명회 개최

○ 추진절차 :

- 전북도 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과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등



[그림 5-2]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입시(학) 설명회 예시

2 심리 안정 및 관계 향상 지원 강화

2-1. 심리·정서 지원 확대

2-1-1 중도입국자녀 이중언어 심리상담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함. 특히 중도입국 자녀는 국내 출생 다문화자녀 보다 취약집단으로 일정기간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 생활한 경험으로 한국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에 학교수업 따라가기 어렵고, 수년간 친모와 분리 생활하여 친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새롭게 형성된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갈등, 언어장벽, 빈곤문제 등 문화적 차이 등으로 관계적 소원이 나타남. 또한 낯선 한국사회 환경과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등의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특성과 폭력성 등도 심각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음

○ 이에 중도입국 자녀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시급하며, 한국어 미흡에 따라 이중언어가 가능한 전문상담가 연계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함. 또한 중도입국자녀의 보호자도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기에 보호자가 동행하더라도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심리지원 상담은 상담가의 말을 통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전문 심리상담가 양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지역 단위학교 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심리상담가/가족상담사 + 통역사 통합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문제 심각도에 따른 상담회기 탄력 운영

○ 지원대상 : 지역 단위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와 학부모

○ 추진절차 : 전북도 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과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등

2-1-2 다문화 학령기 자녀 전문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령기자녀의 심리정서·행동 문제로 전문 상담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교사가 본 연구의 면접과 자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 가정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한부모 가구 등)의 다문화가정은 특히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 갈등, 폭력 및 자녀 방임·방치, 해체 직전의 가정 등 가정 내 불안정성이 높아 자녀의 심리·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가 지속 발현되고 있고, 현재 발현되지 않았더라도 심리·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잠재적으로 담고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심리·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함을 지적함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심리·정서 및 문제행동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심리·상담 치료, 종합심리검사, 개별 및 가족상담 등의 사업이 확대 강화되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 대상 예방 차원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내용 : 심리·정서·행동 문제 가진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대사의 전문 심리정서 치료 지원

○ 사업비 : 상담치료 회기 당 2만원 지원, 전북도 사업비 약 1,000만원
(전북도 30% + 지자체 30% + 민간사설 전문심리상담소 20% + 자부담 20% 매칭)

○ 추진절차

– 지역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전문아동상담소간 업무협약 통해 전문상담지원

– 학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센터에 신청·접수 → 민간 전문아동상담소는 심리정서 어려움 겪는 아동과 가족 대상 전문 상담치료 실시

※ 군 단위 지역 내 전문상담소 부재 많음.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사설민간전문상담소 공모·선정으로 군 단위 지역 심리상담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문상담사 파견

– 치료내용 :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치료, 개별 및 가족상담, 부모상담, 종합심리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 지원

2-2. 부모-자녀 관계 강화

2-2-1 학교·센터 연계 사춘기자녀의 부모 역할 코칭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2차 성징의 하나인 사춘기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결혼이주어머니를 무시하는 등의 관계적 갈등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무엇보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가 향후 사춘기에 접어들어 방황과 큰 문제없이 자아정체성을 잘 확립하여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춘기 관련 내용의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 부모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꼽았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사춘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증진 및 부모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사춘기의 정서·인지·신체적 특징,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경험 이야기, 사춘기 자녀와의 공감대화법, 사춘기자녀와의 갈등 대처 방법, 사춘기자녀의 성(性)과 이성교제 고민 및 대처방법,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점검 및 증진 지원

○ 지원대상 : 사춘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

○ 추진절차

- 지역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연계 부모코칭 사업 정보제공 및 참여 독려·유도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학부모 대상 부모역할 코칭 사업 지원

2-2-2 학령기별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캠프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학년이 오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어지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대화가 없는 등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소원함이 커지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하루하루의 생계에 급급한 상황으로 자녀와의 대화와 정서적 교류 및 지지보다는 하루의 고단함과 힘듦으로 인해 자녀와의 감정적 및 언어적 소통의 기회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였음.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해 부-자 프로그램, 모-자 프로그램, 가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힐링)캠프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학령기별(초·중·고) 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업 지원, 교육과 특강·가의 형식 보다는 심리·성격유형 검사, 집단상담, 체험활동,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 지원대상 :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 추진절차

- 전북도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과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3 기존 사업 개선 및 강화

3-1. 기존 사업 개선 및 내실화

3-1-1 농어촌지역 방문교육사업 학령기별 세분화 및 범위 확대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장 실무자 자문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 중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인기 있고 대기자가 많은 사업으로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 독서코칭, 숙제지도, 정서와 사회성 발달 도모, 기본생활 습관형성 및 진로지도 등을 지원해 주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이 꼽혔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음

○ 한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은 주 2회, 회당 2시간 씩 단 1회(80회기) 이용 원칙으로 지원기간이 약 10개월이 채 못 되어 학령기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 및 한국어수준이 일정 수준 도달하지 못한 채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자녀생활서비스를 지원 받는 학령기 자녀의 한국어 수준, 학년, 학습이해 수준 및 갖추어 줘야 할 학습 습관과 생활 지도 등이 개인별 각기 상이하고 난이도도 서로 다름에도 지원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준비 완료 되지 못했음에도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그리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중 자녀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녀 당 단 1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 지원에 힘들어하는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는 관련 사업을 이용할 수 없고,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무엇보다 지역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교육 관련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그 중요성과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자녀활동서비스)의 지원 횟수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및 방문지도사 판단에 따라 지원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서비스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인지영역(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정서·사회영역(자아·정서·사회성 발달 지도), 문화역량강화 영역(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시민교육영역(기본 생활습관, 건강과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 지원 사업 개선 내용

구분	기존		개선
지원대상	◊ 만3세 ~ 만12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 만3세~만 16세 이하 ◊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운영기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2시간 중 20분 이내 휴게시간 준수)	⇒	◊ (만3세~6세/미취학) 주 2회, 회당 30분 ◊ (만7~12세/초등학생) 주 2회, 회당 1시간 30분 ◊ (만13~16세 이하/ 중학생)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기간	◊ 자녀 당 1회 (80회) 원칙	⇒	◊ 자녀 당 학령기별 각 1회씩 총 지원가능 3회 (미취학시기 1회, 초등학생시기 1회, 중학생 시기 1회 ◊ 다문화자녀의 지원 종료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농어촌 특화 지원	-	⇒	◊ 농어촌지역 거주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우선 집중 지원

3-1-2 '다재다능 프로그램(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확대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재다능 프로그램(자녀성장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 사회성과 리더십 향상 증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건강 성장 지원과 더불어 부모-자녀간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다재다능 프로그램(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주로 지원 내용은 자녀의 미래설계(진로탐색) 프로그램, 자녀의 사회성과 리더십 발달(역량강화) 프로그램,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

○ 현재 '20년 기준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203개소로 전북지역에는 완주, 남원 등 일부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정된 사업비와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전체 사업비 중 우선적 시행이란 규정이 있어서 자녀성장지원사업(다재다능프로그램)의 내용 깊이가 없고, 성과를 위한 양적 측면의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으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고, 이용 참여 이후 대상별 단계적 연속 지원과 초등 저학년 중심에서 초등고학년과 중·고등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자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자아정체성 확립, 자녀의 마래설계(진로탐색 등) 지원, 자녀의 사회성·리더십 개발, 부모-자녀 관계 증진 지원

※ 단,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지역 센터별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필수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다재다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비와 인건비 지급 등을 선행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부모, 중도입국자녀와 부모 등

○ 세부 프로그램

- 대상자 발굴(홍보, 학교/유관기관 연계)
- 초기면접(자녀상담, 부모상담)과 사정·평가(위기유형과 수준별 개입·연계 프로그램 판정
- 심리치료·상담(자녀와 부모 대상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자아정체성 확립,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 사회성발달(역량강화) 프로그램(사회성진단, 의사소통 방법,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 미래설계(진로설계) 프로그램(자기역량 탐색, 코칭, 지지, 직업탐색, 진로 및 직업체험활동 설계 등)



「다재다능 프로그램」

3-1-3 다문화 대안학교 위탁기관 지원 사업 내실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 수준과 다문화가정 자녀 유형별 및 맞춤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매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국내 출생 성장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이주배경과 성장 배경이 상이하고 한국어 수준과 지지 기반이 보다 취약한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세심한 배려와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원할 진입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 '다문화 대안학교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특화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문화 지정 기관은 총 5개로 군산의 다문화세대학교, 전주의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주의 글로컬인재교육원, 완주의 완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의 마수리늘배움협회 등이며, 각 기관별 초·중·고 학령기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정원 10명 혹은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탁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다문화 대안학교 위탁기관 지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어 교육 강사의 인거비로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여 단 3개월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본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탁기관에서 직접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도입국 자녀에 관한 기본 통계 현황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조차 부재하여 주위 지인과 다문화가정의 정보 안내를 통해 사업 대상자 발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지원 기간이 예산 부족으로 단 3개월만 실시할 수 있음에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높음 요구에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함

○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와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과 중도입국 자녀 및 학부모 대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개선 및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전북지역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 전북지역 내 학교 재학 중이면서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

정의 학령기 자녀, 전북지역 공교육 진입 전인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학령기 자녀

○ 추진절차 :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와 학부모 및 사업 직접 추진하는 현장 종사자 대상 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및 기타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방향과 사업비 확대 조정

3-2. 현장 실무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3-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대상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이중언어코치,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역사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대상 현장에서 중요 지원 서비스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의 처우개선 미흡으로 이직률이 높고,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 대기자는 많으나 현장실무자 공급 부족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대부분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실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우 지원 등이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대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 지원

○ 주요내용 : 인건비 점진적 인상 및 현장 종사자 수당 등 일부 지급

– '22년 대비 기본급 일부 인상, 시간외 수당(저녁, 주말 등) 지급, 장기근속수당 지원 및 복지지원 일부 지급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 실무자(이중언어코치,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역지원사 및 도비·지자체 사업 지원 종사자 등)

○ 사업 기간 : ’22년 현장 종사자 규모 맞춤 예산 확보 후 ’23년 정식 지원

2021년 서울시 개선 사항
◇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인상(‘’20년 대비 기본급 0.9% 인상) 및 종사자 수당(3종 → 4종) 확대 지급 ◇ 특성화사업 종사자(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 ’20년 3종(연장근로, 명절휴가, 정액급식비) → ‘’21년 4종(가족수당 신설) ◇ 방문교육지도사 :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교육활동비 퇴직금 산정에 포함 등

3-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대상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이중언어코치,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통·번역사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사업별 현장 종사자들은 사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은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자료와 교재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도 요구함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사업 분야별 종사자 대상 정기 보수교육과 워크숍 개최, 관련 사업에 대한 교류와 주요 이슈에 대한 고민 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우수 지원 사례 벤치마킹과 연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차원의 전국 단위의 정기적 보수교육 및 워크샵 개최 필요, 그리고 지원 사업 분야별 교재 등 관련 정보와 내용 업데이트 자료 지원

– 지역 차원의 지원 사업 분야별 종사자 대상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지원 사례 공유 등

○ 추진절차

- 중앙차원(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수교육,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전북도 차원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분야별 종사자 네트워크 모임 구축·운영 등

4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정 지원 기반 환경 조성

4-1. 제도 기반 정비

4-1-1 ‘전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항 추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정책 방향이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5~6년 전부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특히 학령기자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자녀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자녀의 학령기별 성장과 인재양성 지원에 대한 관심과 사업이 확대·강화되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적근거 기반의 미비로 부처별 근거 법 상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의 학령기자녀 대상과 범위 및 유형이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 사업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혼란과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또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과 그 내용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그 학부모 대상 다양한 영역의 지원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이 새롭게 개정한 조례 조항처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및 유형을 규정하고,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아동·청소년 보육과 교육 지원 조항)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조례 상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와 학부모 대상 다양한 영역의 지원 내용 조항 추가로 조례 일부 개정

○ 조례 일부 개정(안) 예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사항포함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개발·시행
다.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시민 양성
라. 다문화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자립 증진 등 **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신설 2016.12.16.]**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신설 2019.1.14.]
3. 다문화가족의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지원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1.14.]
4.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19.1.14.]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아동의 보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1. 취학 전 학습 지원 (신설 2021. 4. 8.) 2. 가정학습 환경 조성 지원 (신설 2021. 4. 8.)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신설 2021. 4.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신설 2021. 4. 8.)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아동의 보육)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지원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의2(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학 전 학습 지원 2.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newlaib/main.jsp) 관련 내용 검색('21. 10. 20. 기준)

4-1-2 민·관·학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추진 협의체 구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장 실무자 대상 자문 결과,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와 그 학부모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통·번역 지원, 부모교육 전문가와 전문상담심리사 섭외, 학부모 참여자 모집 등에 대한 인적자원 부재의 어려움과 학부모 모집의 어려움 등을 갖고 있었음.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대상 사업 추진 시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사업 추진 시에는 다문화 학생 사업 홍보와 발굴 등 다문화 학생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 및 진로·진학·취업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에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와 부모 대상의 수요를 온전히 반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청소년 전문유관기관 등과의 상호 연계 협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호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지원 사업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및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그 부모 대상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등 각 기관간의 연계를 촘촘히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와 그 부모대상의 지원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민·관·학 등 각 기관간의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주체 : 전북교육청의 전북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전북다꿈(다문화)지원센터, 전라북도, 각 시·군 지자체,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북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과 협의체 구축

•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 적극 연계 협력

– 협의체 구축 이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전북지역 특성과 다문화가족과 학령기자녀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정책 추진 및 각 기관별 사업 정보 공유와 사업 연계 협력,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와 그 학부모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 독려 등을 통해 많은 다문화가정에 질적 서비스 제공

4-1-3 전북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허브기능 역할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그 부모 대상의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관련 지원 사업들이 파편적·분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반면, 지원 사업들간 중복적인 내용을 갖고 있거나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의 부족성과 연계 협력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각 부처별 관련 지원 사업들의 파편적·분절적인 성격 때문에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그 부모는 필요한 지원 사업(서비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별로 찾아가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보 취득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부처별 학령기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부처별 유관기관간의 사업 정보 공유, 소통 강화 및 연계 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부처별 지원사업간 상호연계 협력 및 통합적·효과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 연계 관리하는 지역 내 허브기관(센터) 구축이 필요하며, 허브기관 구축을 통해 부처별 및 민간기관에서 흩어져 분절적·파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중도입국·외국인가정의 자녀와 그 학부모 포함) 지원 정책과 사업(서비스)을 One-Stop서비스로 종합적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북지역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외국인가정의 자녀와 그 학부모 대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가 공교육체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북 다꿈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 허브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허브기관으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허브 기능과 역할 강화

○ 주요내용

– 전북 다꿈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단위학교, 전북도청, 각 시·군별 지자체,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다문화 관련 민간기관, 청소년 전문 유관기관 등 연계 협력 체계 구성, 지원사업간 협력 강화로 지역 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활성화

- 전북 다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정보 공유, 총괄 관리 운영,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중도입국·외국인가정의 자녀와 학부모 포함) 대상의 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 기관별·주요업무 분야별 전문성 높은 전문 인력풀 DB구축 및 공유
-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기관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화 극대화 및 연계·협력 추진되는 사업의 행정적 업무 지원
-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중도입국자녀·외국인가정 자녀 등 유형별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다문화가족정책 및 다문화교육 지원 모형과 협업 강화 모형 개발 등

○ 전북 다꿈(다문화)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역할 강화 방안(안)

구분	현재		허브기능·역할 강화(안)
구성인원	◊ 총 5명(센터장, 부센터장, 장학사, 파견교사	⇒	◊ 현 인원 이외 허브 기능·역할 담당자 2명 추가
역할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학적 관련 상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한국어 사용능력 신장지원 상담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찾아가는 준비학교 프로그램 ◊기타 학교와의 협의 및 업무 협조	⇒	◊ (허브기능·역할 추가) – 지역 내 학령기 자녀 둔 다문화가족·중도입국자녀·외국인가정 자녀 관련 지원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 흩어져 분절적 수행되던 부처별 사업 업무 통합 – 부처별 사업 체계적·종합적 통합·총괄 관리 운영 – 학령기 다문화자녀 관련 사업의 중추적 역할 – 기관별·주요업무 분야별 전문 인력풀 구축 및 공유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운영 – 전북교육청의 다꿈교육지원센터 내용 중심	⇒	◊ 홈페이지 운영 – 전북교육청의 다꿈교육지원센터 내용 – 유관기관의 지원사업/프로그램 정보 공유·안내 –

2-1. 인프라 구축 강화

4-2-1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전라권 설치·운영 (국내출생·중도입국 자녀 특화 기숙형 직업교육 기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와 이중언어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 실제적이고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수요가 반영된 진로설계와 취업까지 지원해주는 학교라 볼 수 있음

○ 즉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특성에 특화된 고등학교로 일반 고등학교 진학 시 나타나는 학업부진, 학교부적응, 학교 중단 위기 등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문제 등을 해소 시킬 수 있는 특화된 고등학교로 다문화에 특화된 직업교육 중심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 학령기 자녀의 수요와 설립 운영에 대한 요청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전북, 전남 및 충남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에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또한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에 충남과 전남의 중간 지점인 전북지역에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특화 고등학교 설립 운영이 필요함

○ 전북 군 단위 지역 내에 폐교된 학교들 중 입지가 넓은 학교를 선정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및 전북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립·운영 필요

○ 충북 제천에 설립·운영되고 있는 다솜고등학교는 Computer기계과, Plant설비과, Smart전기과 등 3개과의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중 남학생 중심의 선호를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라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전공과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 여학생의 선호를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문화 학령기 자녀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한 충남·전북·전남지역 내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립·운영

– '21.4.기준 다문화학생 수는 전북 8,105명, 전남 10,140명, 충남 10,787명,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은 전북 4.2%(3위), 전남 5.5%(1위), 충남 4.6%(2위)

– (현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전국에 1개교로 2010년 7월에 충북 제천에 설치 운영

○ 입학대상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운영주체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직업교육훈련 기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 교육부, 전북교육청 학교 설립 MOU 체결 → 전북교육청 학교 설립 인가 → 전라권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운영

○ 소속학교: 8대학(35캠퍼스), 3기술교육원, 다솜고등학교



자료 :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2021. 7), 고용노동부

[그림 5-3]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현황



[그림 5-4] 전국 시도별 다문화학생 수와 다문화학생 비율



[그림 5-5] 충북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학교소개

학과/학년	Computer기계		Plant설비		Smart전기		계	
	정원	현재	정원	현재	정원	현재	정원	현재
1	15	15	15	15	15	15	45	45
2	15	15	15	14	15	15	45	44
3	15	15	15	14	15	15	45	44
계	45	45	45	43	45	45	135	133

[그림 5-6] 충북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의 학교 현황(2021. 11.)

4-2-2 ‘다가온(ON)’ 학령기 다문화자녀 공부방 활용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가온(ON)(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장소임. 더불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음

○ 전북지역에는 완주, 익산, 남원, 김제, 순창 등 5개 지역에 다가온(ON)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이에 전북지역 다가온 공간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자 다양한 정보를 교류·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며 건강하게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강화

- 학령기별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지원, 학습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공부방 기능과 역할 강화
- 특히 주말, 방과후 및 방학기간 집중 학습 지원할 수 있도록 공부방 역할 강화
- 학령기별·개인수준별 학습 멘토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 다가온(ON)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와 학부모

- 지역 내 다가온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 수, 자녀 연령, 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 맞춤의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지원

4-2-3 중도입국자녀·외국인가정자녀 기초 통계현황 구축 및 실태조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전북 차원의 지역 내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초통계가 전무함.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전북지역의 특성을 담아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차원의 기초 통계 구축이 필요하고 중요함.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의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통계 현황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큼

- 한편,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자녀의 체류자격이 매우 다양하고 부모의 체류자격 등에 의해 쉽게 변동될 수 있는 특성으로 지역차원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규모와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통계를 구축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차원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자녀 관련 기초 통계 구축과 통계관리가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져야만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학령기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구축된 통계 기본현황을 토대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학령기 자녀 대상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 실시하여 이들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발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국과 전북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의 자녀 기초 통계구축 및 정례적인 실태조사

○ 주요 내용 : (1) 법무부의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연계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초중고 취학 여부 파악 및 관련 기초통계 구축·관리

(2) 구축된 전북지역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와 부모 대상 취학현황 및 관련 지원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전북도·교육청 연계 협력 실시

○ 추진절차

- 법무부(지역출입국외국인청)차원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 기초통계 구축·관리 협조요청
- 기초 통계자료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과 공유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2021년 가족사업안내(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2021. 2)

2021년 가족사업안내(Ⅱ)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2021. 2)

2021년 전북 다꿈교육 추진 계획. 전라북도교육청(2021. 1)

김순양, 신영균(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모색. 지역발전연구, 21(2), 101~138.

민기채, 길현교, 김다애, 김민경, 윤예지, 제진주, 최성은(2021). 충주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방안 :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목포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89-11

민기채, 김혜원, 반소영, 사유림, 양유라, 이호진, 조요셉(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343-361

배상률(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옥현(2017).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개관 2주년 기념 성과발표 및 토론회 : 중도입국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2017. 9. 21) 자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개관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이주배경청소년을 말하다(2020. 9. 18) 자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연보라, 이윤주, 김현철(2019).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복남(2020). 충남 이주배경아동 지원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협의체 발족식 및 토론회(2018. 11.06) 자료. 이주배경청소년지원협의체

정해숙, 김이선, 김연수(2010).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경제·인무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RP 2010 - 09-3)

최영미, 이지선(2019). 경기도 중도입국청소년 가족적응 지원 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영미, 이지선(2020). 경기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 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온라인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1. 4. 1기준)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ondreamedu.com/) 참고 작성

자치법규 사이트 검색(https://law.go.kr/LSW/main.html)

인터넷 관련 신문기사(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010080947001)참고 작성

https://m.blog.naver.com/kr8861/221485808949 내용 참고 작성

https://www.facebook.com/1726889547535771/posts/2746249865599729/ 관련 내용 참조하여 작성

연구수행기관	
전북연구원	
연 구 책 임	이 주 연(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조 경 욱(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지 훈(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라북도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 행 일 : 2021년 11월
인 쇄 일 : 2021년 11월
발 행 인 : 전라북도의회 의장
발 행 처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